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8학년도
박사학위 청구논문

프로티언 커리어 인재의
진로발달과정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사회초년생이 된 초기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을 중심으로-

교 육 학 과
권 회 원
2019

프로티언 커리어 인재의
진로발달과정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사회초년생이 된 초기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을 중심으로-

이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9 년 6 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교 육 학 과 권 희 원

권 회 원 의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지 도 교 수 곽 삼 근 _____

심 사 위 원 서 경 혜 _____

오 인 수 _____

김 미 환 _____

박 성 희 _____

곽 삼 근 _____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목 차

I. 서론	1
A. 연구를 시작하며	1
B.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4
C. 연구문제	7
D. 용어 정의	8
II. 이론적 배경	10
A. 진로의 발달	10
1. 진로에 대한 관점	10
2. 진로발달에 대한 구성주의와 내러티브 접근	15
B. 평생학습시대와 프로티언 커리어	19
1. 평생학습시대 진로와 교육	19
2. 프로티언 커리어 태도	24
C.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	30
1. 입학사정관제 개요	30
2.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 특징	35
III. 연구방법	42
A. 내러티브 탐구	42
B. 연구 절차	46
1. 현장에 들어가기	46
2. 현장에서 현장텍스트로	54

3. 현장텍스트 구성하기	57
4. 현장텍스트에서 연구텍스트로	57
5. 연구텍스트 작성하기	59
C. 연구의 윤리적 고려	60
D. 연구의 엄격성	61

IV. 프로티언 커리어 인재의 삶의 경험과 진로 이야기63

A. 변화무쌍한 환경을 기회로: 노마드워커 최신유 이야기	63
1. 힘들었던 유년시절의 현실도피적 몰입	63
2. 트러블메이커에서 주체적 리더로	67
3.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선택한다는 것	69
4. 보다 넓은 환경에서 창조적 몰입의 연속	72
5. 지나온 나를 돌아보다	75
6.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77
7. 노마드워커에서 앙트러프러너로 가는 길	80
B. 환경은 용기 있게 개척하는 것: 방승쟁이 김예별 이야기	82
1. 감성적이고 자유분방한 가정환경	82
2. 설렘, 꿈의 여정 시작	84
3. 못 말리는 방승쟁이의 고군분투	87
4. 얼마나 오고 싶었던 대학이었는지	90
5. 직접 경험하고, 성찰하고, 의미부여하기	93
6. 행복하기 때문에 걸어온 길	97
C. 진로는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역사학도 오보람 이야기	102
1. 자연스럽게 형성된 역사에 대한 관심	102
2. 탐구하고 도전하는 고교생활	104

3. 역사학도의 학습법	108
4. 다양한 경험을 통한 역량 개발	110
5. 너무나 어려웠던 취업	112
6. 오늘도 계속 걸어간다	114
D. 현재에 충실한 노력이 만들어가는 미래: 지식재산권 전문가 이현을 이 이야기	117
1. 자유할 수 있는 시간의 의미	117
2. 우연을 인연으로	120
3. 역경을 또 다른 기회로	122
4. 경계 없는 다채로운 대학생활	124
5. 이유 있는 진로선택의 연결고리	126
6. 학습하며 지식재산권 전문가로 가는 길	128
E. 진로는 의미와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 입학사정관 김온아 이야기 ...	130
1. 정서적 금수저	130
2. 내가 생각하는 즐거운 학창시절	133
3. 학교생활은 교육에 대한 고민과 탐구의 장	136
4. 대학이란 올만한 가치가 있는 곳	139
5. 멘티와 멘토를 오가며 진로를 찾아가다	143
6. 입학사정관전형 출신 입학사정관	146
 V. 프로티언 커리어 인재의 진로발달과정의 의미	150
A. 생애주제를 통한 자기 인식 과정	151
1. 온전한 나의 시간	151
2. 나를 이야기해야했던 순간들	155
3. 성찰과 의미부여를 통해 나를 세우기	160

B. 계획된 우연 속의 주체적 성장	165
1. 긍정적 우연으로	165
2.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 자본 형성	172
3. 자신에 대한 신뢰와 용기를 발판으로 성장	177
C. 개성 있는 프로티언 커리어 인재로 나아가는 길	182
1. 지속적인 배움이 있는 삶	182
2. 자기 주도적 인재에서 프로티언 커리어 인재로	188
3. 나만의 내러티브를 구성하며	193
 VI. 결론	200
A. 연구요약	200
B. 결론 및 논의	204
C. 제언	210
D. 연구를 마치며	211
 참고문헌	214
부록1. 연구참여동의서	226
부록2. 면담 질문지	227
ABSTRACT	229

표 목 차

<표 II-1> ‘진로’에 대한 관점 변화	11
<표 II-2> 2020년까지의 각 분야별 일자리 변화 예측	21
<표 II-3> 전통적 경력과 프로티언 커리어 비교	26
<표 II-4> Hall의 ‘프로티언 커리어’ 개념 정리	27
<표 II-5> 프로티언 커리어의 범주	28
<표 II-6> 평가 패러다임의 변화	30
<표 II-7> 입학사정관제 연혁	31
<표 III-1> 연구참여자 소개	48
<표 III-2> 본 연구의 ‘현장텍스트에서 연구텍스트로’ 이행 과정	59

그 립 목 차

[그림 III-1] 3차원적 내러티브 탐구 공간	45
[그림 III-2] 내러티브 탐구 절차에 따른 연구 진행과정	46
[그림 III-3] 본 연구의 심층면담 진행 가이드	56
[그림 VI-1] 초기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의 프로티언 커리어 태도 형성 과정	205

논 문 개 요

현대사회는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사회, 경제 전반에 많은 변화를 예상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이자, 의학의 발달과 늘어난 인간 수명으로 펼쳐진 평생학습시대이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역사보다 더 많은 변화를 예상하고 있고, 이미 그 변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개인의 진로와 교육은 삶의 주축을 이루는 만큼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개인의 삶의 질, 행복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풍요로운 사회와 미래를 만들어갈 이 시대의 인재를 양성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우리나라 교육에도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특히 입학사정관제는 정량적 평가 중심의 수능체제 대입 제도에서, 전공 적합성, 성장 가능성, 잠재성 등을 고려한 정성평가로 자기 주도적 인재 선발을 표방한 획기적인 입시 제도로 등장하였다. 대한민국의 대학입시 역사에서 가장 큰 파장을 일으켰던 제도였고, 시행 후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많은 논란을 양산하고 있으며, 자기 주도적 인재로 선발한 이들의 현 주소나 진로에 대한 추적 조사 또한 미진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초년생이 된 초기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들의 현 주소를 조망하고 진로발달과정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진로 구성주의 관점에서 사회초년생이 된 초기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들의 진로발달과정을 탐구하여 교육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며, 최근에 학교교육 시기를 지나온 이들의 목소리로 삶의 총체적 맥락에서 진로 이야기를 담아내는 것은 현 교육 현장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라 기대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초년생이 된 초기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의 삶의 맥락에서 진로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둘째, 사회초년생이 된 초기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의 진로발달과정의 의미는 무엇인가? 주체적 개인이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진로를 구성해나가는 지 살펴보고, 현 진로에 비추어 이들의 진로발달과정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Clandinin과 Connelly의 내러티브 탐구를 활용하여 초기 입학사

정관전형 입학생의 진로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입학사정관제의 취지에 부합하여 제도를 운영하였던 A대학의 B입학사정관전형 출신 연구 참여자 5인을 선정하여, 2018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연구참여자와의 만남을 통해 현장텍스트를 구성하고 연구텍스트를 작성하였다. 연구 과정에서 해당 연구참여자들은 학창시절 수능 중심 문화에서 주체적으로 진로 탐색을 하였고, 자기 주도적 인재로 인정받아 그 자격으로 입학사정관전형을 통해 대학에 입학한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진로를 발달시켜, 현재 프로티언 커리어 태도를 가지고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 연구참여자들은 주체적 개인으로서 자신의 진로 선택과 진로 경험에 능동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5인의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환경에 영향 받기도, 그 환경을 적극적으로 구성해나가기도 하면서 각자의 색채를 담아 진로를 구성하였다. 이들의 진로발달과정의 의미는 첫째, 생애주제를 통한 자기 인식의 과정이다.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여 탐색해볼 수 있는 시간을 삶에 둘 수 있었고, 수능중심의 정형화된 학교 문화에서 주체적 진로탐색 활동을 한다는 것은 주변에 나를 이야기해야했던 시간의 연속이었다. 자신을 표현해야했던 삶의 순간들은 성찰과 의미 부여를 통해 자신만의 내러티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명확한 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었다. 둘째, 계획된 우연 속의 주체적 성장이다.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우연을 긍정적 기회로 삼고 다양한 경험을 통한 배움의 시간을 지속하였다. 초기 경험의 성찰과 성취는 새로운 경험의 도전과 용기를 이끌었고, 삶에 긍정적 기회를 더욱 많이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개성 있는 프로티언 커리어 인재로 나아가는 길이다. 지속적인 학습과 성장을 추구하고 자신만의 가치를 담아 주관적, 심리적 성공을 그리는 이들은 사회에서 제공하는 내러티브가 아닌 자신만의 내러티브로 현재에도 진로 여정을 나아가고 있다. 자기 주도적 학습 태도는 대학 입학 이후 다채로운 경험의 과정을 통해 명확한 자기 인식과 환경에 대한 적응성으로 더욱 확장될 수 있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자신을 이야기하며 생애주제를 찾고, 풍부한 경험 자본을 바탕으로 환경에 대한 유연성을 고양시킬 수 있었던 경험이, 곧 프로티언 커리어

태도 함양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밝혀낼 수 있었다. 프로티언 커리어에서 메타역량으로 제시하는 ‘자기 인식’, ‘적응성’은 진로구성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생애주제’, ‘진로적응도’와 연결되고 있음을 사회초년생이 된 초기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의 진로발달과정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이에 교육과 진로가 생애 설계의 관점에서 논의되어 이루어져야할 필요성을 통감할 수 있었고, 다음과 같은 교육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생애주제를 탐색하는 진로교육 및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평생학습의 맥락에서 가정교육 및 부모 역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져야 한다. 셋째, 자기 주도적 성취 기회가 제도 교육 안에서 다양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넷째,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 위험감수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 다섯째, 현 입시제도의 근본적인 점검을 통한 재정비가 수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초기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의 현 주소와 진로를 어느 한 지점이 아닌 총체적 삶의 맥락에서 탐구했다는 점,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들의 자기주도성이나 진로와 관련된 연구가 부족한 가운데 사회초년생이 된 초기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들을 추적 조사하여, 프로티언 커리어 태도에 주목한 연구를 수행한 부분에서 의의를 가진다. 앞으로 입학사정관제와 진로의 영역에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이를 바탕으로 현 입시 제도를 점검하고 바로 세우는데 기능하길 바란다. 프로티언 커리어 태도와 관련하여서도 다채로운 연구가 수행되어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역량과 교육에 대한 논의가 풍부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프로티언 커리어, 입학사정관전형, 진로 경험, 진로 발달, 진로 구성주의, 내러티브 탐구, 자기 주도적, 평생학습, 생애 설계 관점

I. 서론

A. 연구를 시작하며

2011년 12월 19일, 나는 A대학교 입학처에서 ‘입학사정관’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였다. 입학사정관제는 기존에 수능중심의 정량적 평가로만 이루어지던 대학 입시제도에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수험생의 고교 내신 점수와 수능 성적에만 의존하여 선발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원 전공과 관련된 관심사, 열정, 학교생활 등 정성적 요소를 입시제도로 끌어 오는 것은 많은 이들에게 걱정과 염려, 또는 기대와 희망을 안겨주었다.

내가 입학사정관으로 일을 시작한 시기는 정부에서 2008학년도에 10개 대학교를 선정하여 시범운영을 시작한 이래로 입학사정관제가 시행된 지 5년차에 접어들었던 때이다. 입학사정관제가 점차 내실화되고 확대되어가고 있는 시점이었다. 그럼에도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에 대한 논란은 늘 이슈화되었고, 새로운 제도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었다.

입학사정관이라는 직업은 평가 관련 업무 외에도 진학을 준비하는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전국 방방곡곡의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안내와 준비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학생, 학부모, 교사들과 나눈다. 그 외에도 입학사정관전형으로 대학에 선발되어 들어온 재학생들이 대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며, 더 나은 입학사정관제도 운영을 위한 관련 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나는 이러한 근무 환경으로 입학사정관전형으로 입학한 재학생들과의 교류가 빈번히 있었다. 입학사정관전형 재학생 프로그램에서 만나 그들의 고민과 일상을 공유하기도 하고, 고등학교 방문 시 입학사정관전형 재학생들과 함께 동행하여 고등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시간을 보내며 다양한 재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았고, 때로는 그들이 살아온 시간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그들의 현재 고민과 대학생활 이야기를 나누며

행보를 지켜보기도 하였다. 나아가 주체적으로 삶을 이끌고 거침없이 도전하며 자신만의 그림을 완성해가는 그들의 모습은 나로 하여금 어떤 울림을 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울림은 나의 학창시절과 진로를 반추해보게 하였고, 반짝반짝 자신의 길을 개척해가는 그들의 미래가 기대된다는 생각을 품게 하였다.

나의 학창시절은 수능과 내신 중심으로 철저히 구성되었던 시간이었다. 되고 싶은 장래희망과 이루고 싶은 꿈은 있었지만 경험이나 깊은 고민을 통해서 결정되기 보다는 직업이 주는 피상적인 이미지와 동경이 주는 느낌이 크게 차지하였고, 꿈은 일단 대학에 가서 다시 자세히 생각해볼 사항이었다. 일단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학교공부와 학원공부가 생활의 중심이었던 시절, ‘왜 나는 학창시절, 이들처럼 용기내지 못 하였는가’, ‘왜 다른 생각과 선택을 해볼 수 없었는가’라는 생각이 이 일을 하면서 문득문득 들었던 적이 있다. 그리고 동시에 이들은 수능중심의 대한민국 입시 문화에서 어떻게 진로 탐색을 성실히 하고 자신의 길을 주체적으로 나아갈 수 있었는지, 이에 대한 호기심이 항상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다.

2019년, 입학사정관제는 학생부종합전형이라는 이름으로 변화되어왔고,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된 지 어느덧 13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이 제도에 대해서 많은 이슈들이 양산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입학사정관으로 일을 시작하였을 때 만났던 초기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들이 하나 둘 사회로 배출되고 있는 가운데 나는 이들의 현 주소와 진로 여정이 궁금해졌다. 삶의 주체성이 뚜렷하고 다양한 활동을 했던 초기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또한 이러한 궁금함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성장가능성과 다양한 진로 탐색 활동을 평가하여 야심차게 선발한 학생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호기심은 대학입시에 관심을 두고 있는 모든 이들의 궁금함일 것이다.

초기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들은 자신들의 진로를 탐색하고 입학사정관전형으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인식이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던 고교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고, 대학 입학 이후 크고 작은 역경을 마주하며 자신들의 삶을 이끌어 왔다.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현재에도 사회에서 자신의 몫을 다하며 주체적으로 삶의 길을 만들어나가고 있는, 이들의 진로 여정

을 공유하고 탐구하는 것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본 연구에서는 수능 중심의 정형화된 입시 문화 안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진로탐색 활동을 하고 이를 자격으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던 초기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의 학창시절 경험과 진로발달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극심한 취업난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요즘, 어떠한 삶의 목표를 추구하고 어떠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지 조망하고자 한다. 이들과 함께하며 나의 지난 시간과 진로를 반추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들의 진로 여정에 대한 연구는 독자들에게 스스로를 돌아보게 할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진로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라 기대한다.

나는 입학사정관으로 일을 시작했던 직장을 떠나왔지만 이들의 소식을 이따금씩 접해왔었다. 연구를 시작하면서 사회로 첫발을 내딛은 이들에게 연락을 취했을 때 자신이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괜찮다면 해보겠다고 흔쾌히 허락해준 초기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들의 진로여정을 함께 걸어가 보기로 하였다.

Clandinin과 Connelly(2000)는 연구자의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가 연구의 시발점이자 연구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내러티브 탐구는 연구자 자신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연구참여자의 삶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다시 이야기하는 과정이기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내러티브로 사회초년생이 된 초기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의 진로발달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연구의 동기가 되어준 연구자의 경험과 관점은 내러티브 탐구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연구참여자의 삶의 맥락에 존재하는 의문들을 다루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B.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의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환경이 급변하면서 인간은 살아가는 동안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 계속하여 학습하는 것이 숙명이 된 시대이다. 하나의 직업을 선택하여 평생을 종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던 전근대 세대와는 달리, 한 개인이 평생 동안 갖게 될 직업의 수는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것이라 예측되어지고 있다. 프랑스의 철학자 Michel Serres(2012)는 엄지손가락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정보를 찾아 모든 것을 수행하는 세대를 ‘엄지세대’라고 명명하며, 이들은 평균 19개의 직업을 갖게 될 것이라 말한다. 노동시장은 프로젝트 단위의 고용, 이동하는 전문 직업인의 증가, 글로벌 취업경쟁의 심화(장주희 외, 2013) 등 많은 변화가 전망되고 있다.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앞으로 사라지게 될 직업과 새롭게 생겨나게 될 일자리의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이제는 특정 직업의 영위가 보장되기 힘든 현실이다. 가늠하기 어려운 변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현대사회에는 자신의 진로를 개척하기 위한 자주적이고 능동적인 실천의 태도가 필요하다. 개인 스스로가 경력 개발의 주체로서 자기 주도적, 가치 지향적으로 진로를 선택하고 구성하는 프로티언 커리어 태도가 더더욱 요구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요구하는 역량과 태도를 길러주기 위한 교육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토론이 곳곳에서 전개되고 있다. 많은 이야기와 예측 속에 분명한 것은 미래에는 자기주도성, 주체성의 역량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에서의 변화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어느 것 보다도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내신과 수능위주였던 대학입시에 입학사정관전형(현 학생부종합전형)이 등장하고,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이 확대되는 것은 교육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입학사정관제는 우리나라 대입제도 역사상 처음으로 정량화된 점수가 아닌 학생의 전공적합성, 잠재성, 진로탐색활동, 학교생활 등을 반영한 정성평가이다. 자기 주도적 인재를 선발하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되었고 이러한 평가방식의 대입제도는 고교 현장에도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 기존 입시제도의 틀에서 파격적인 변화였던 입학사정관제는 많은 이들의 우려와 걱정 어린 시선 속에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입학사정관전형이 도입된 지 어느덧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고, 그동안 입학사정관전형은 학생부종합전형이라는 이름으로 변화되었으며, 초기 입학사정관전형으로 입학했던 학생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 배출되고 있는 시점이다. 하지만 사회인이 된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들의 추적 조사나,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연구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그리고 대학별, 전형별로 다양한 인재상을 표방하고 해당 전공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다채로운 방식으로 평가했던 초기 입학사정관제가, 많은 대학의 인재상과 평가 방법이 유사하게 된 지금의 학생부종합전형이 되기까지, 13년이라는 시간동안 제도의 모습과 특성은 계속하여 변화하였다. 지금도 계속하여 대입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정작 선발되었던 학생들의 학습 경험이나 진로에 대한 이야기는 누락된 채 이야기되고 있다. 입시전형의 평가방법이 변화함에 따라 선발된 학생들은 어떠한 역량이 두드러지며, 이는 학습과 진로에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지, 연구가 뒷받침되어 앞으로의 입시제도 방향을 논할 필요가 있겠다. 초기 입학사정관전형으로 선발되었던 학생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대학 입학 전후 시기뿐만 아니라 이후 자신의 진로를 어떻게 발달시켜 나가는지, 어떠한 생각과 태도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지 지속적인 진로발달과정을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입학사정관제가 시행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의 관련 연구 동향은 “입학사정관제 정책에 관한 연구 44.4%, 대학성적과 생활적응도에 대한 입학사정관제 전형 입학생과 일반전형 입학생의 비교 연구 22.9%, 사교육 및 고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 연구 21.6%, 입학사정관의 전문성과 윤리에 대한 연구 11.1%”로 분석되었다(김재웅, 2018). 제도가 시행된 초기에는 정책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이후에는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 및 제도의 사교육 영향에 대한 연구가 주류였다. 입학사정관전형이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탐색을 하고 고교 생활을 성실히 한 인재를 선발하는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의 진로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전공적합성, 잠재성, 인성 등의 정성적 면모에 가치를 두고 선발한 입학생이었음에도, 대학 입학 이후에 어떻게 잠재성이 발현되고 성장하는 지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였다. 입학사정관제 연구 대상 또한 고교 교사, 학부모, 고교생들의 인식에 대한 연구만 있을 뿐,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회초년생이 된 초기 입학사정

관전형 입학생들의 진로발달과정을 연구하고자 한다. 특히 프로티언 커리어 태도를 함양하고 사회에서 역할하고 있는 초기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여, 이들의 삶의 경험이 진로와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주체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능동적 태도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들은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지 못한 수능 중심 고교 문화에서 자신의 진로를 주체적으로 탐색하였다. 이러한 활동과 노력을 인정받아 그 자격으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고, 대학 입학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진로를 발달시키고 현재에도 자신의 길을 능동적으로 나아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진로구성주의 관점에서 사회초년생이 된 초기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들의 진로발달과정을 탐구하여 교육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무엇이 그들을 주체적인 진로 탐색자로 만들었는지, 그들의 진로는 삶의 경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내러티브 탐구를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초년생이 된 초기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의 삶의 맥락에서 진로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학창시절 주체적으로 진로활동을 해왔고, 현재에도 능동적으로 진로를 나아가고 있는 초기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들의 삶의 경험이 진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조망한다. 진로 구성주의 관점에서 개인이 자신의 진로를 어떻게 발달시켜 나가는지 주목하고, 유년시절, 청소년 시절, 대학 시절, 사회에서 역할하고 있는 현재와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미래까지 삶의 총체적 맥락에서 삶의 경험과 진로가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사회초년생이 된 초기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의 진로발달과정의 의미는 무엇인가? 연구참여자별 생애 이야기를 바탕으로 초기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진로탐색을 할 수 있었던 배경, 진로발달과정의 양상, 형성된 진로관에 초점을 맞추어 진로발달과정의 의미를 탐색하고자 한다.

가장 최근에 학교교육 시기를 지나와 사회초년생이 된 이들의 목소리로 진로 이야기를 듣는 것은 우리 교육 현장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어느 한 시기가 아닌,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 진로발달과정을 조망하는 것은 총체적 삶의 관점에서 보다 심층적 탐색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한다.

C. 연구문제

본 연구는 사회초년생이 된 초기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의 진로발달과정에 대한 연구이다. 이들의 진로가 삶의 경험과 어떻게 연결되어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초기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들의 진로발달과정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탐구하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초년생이 된 초기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의 삶의 맥락에서 진로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사회초년생이 된 초기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의 삶의 맥락에서 진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보고자 한다. 청소년 시기 주체적으로 진로 탐색을 하였고 현재에도 능동적으로 자신의 길을 나아가는 연구참여자들의 삶의 경험은 진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주목한다. 이들의 과거 경험이 현재의 모습과 미래에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진로를 탐색, 선택, 발달함에 있어 삶의 경험은 어떻게 작용하였는지, 총체적 삶의 관점에서 진로경험을 조망하여 ‘Ⅳ. 프로티언 커리어 인재의 삶의 경험과 진로 이야기’에서 전개하고자 한다.

2. 사회초년생이 된 초기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의 진로발달과정의 의미는 무엇인가?

초기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이 주체적으로 진로탐색을 할 수 있었던 배경, 진로발달과정의 양상, 형성된 진로관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의 진로발달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Ⅳ. 프로티언 커리어 인재의 삶의 경험과 진로 이야기’에서 사회초년생이 된 초기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의 유년시절, 청소년시절, 대학시절, 그리고 사회인이 된 현재와 앞으로의 진로 방향까지 망라하여 진로발달과정을 살피고, 이를 통해 이들의 진로발달과정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Ⅴ. 프로티언 커리어 인재의 진로발달과정의 의미’에서 논하고자 한다.

D. 용어 정의

1. 초기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은 입학사정관전형이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명칭이 변경되기 전, 2008~2014학년도에 입학사정관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을 일컫는다. 정부의 대입전형 간소화 추진 이전에 다양한 인재 선발을 표방했던 ‘입학사정관 역량강화 지원 사업’ 운영 기간에 선발된 학생들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입학사정관계 정착 단계 이전인 2008~2012학년도 입학사정관계 입학생을 ‘초기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으로 명명하도록 한다.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이 해당하는 초기 입학사정관전형은 지원 전공에 대한 전공적합성과 자기주도성을 바탕으로 한 실천적, 창의적 인재 선발을 표방하였다. 고교 내신 성적을 정량적으로 반영하지 않았고, 수능최저기준이 없었던 정성적, 종합적 평가로 운영되었던 전형이다.

2. 사회초년생

‘사회초년생’은 ‘사회에 나와 일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되는 사람(국립국어원)’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점에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사회에 나와 일을 시작한지 3년 이하인 사람을 ‘사회초년생’이라 정의하도록 한다. 즉 ‘사회초년생이 된 초기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은 현재 사회에서 일을 한지 3년 이하의 2008~2012학번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을 일컫는다.

3. 진로발달과정

진로에 대한 관점과 진로 이론은 시간이 흐르며 변화하였다. 20C 초반 ‘진로’는 개인차에 맞는 일을 짝 짓는 개념으로 직업과 비슷한 의미로 통용되었다. 20C 중반에 들어서 진로에 발달적 개념이 추가되었고, 진로가 일회적 행위가 아

나라 평생에 걸쳐 발달해가는 과정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김봉환 외, 2013). 본 연구에서는 ‘진로발달과정’을 한 개인이 평생에 걸쳐 진로를 구체화하여 가는 과정을 일컫는 용어로 사용하며, 개인의 선택, 경험, 환경적 요인, 인식, 태도 등의 개념을 포괄하여 진로발달과정을 논하도록 한다.

4. 프로티언 커리어 인재

‘프로티언 커리어 태도’는 승진과 높은 연봉과 같은 전통적 커리어에서 표방하는 성공의 기준에서 벗어나, 개인 스스로 심리적, 주관적 성공을 정의하고 진로 목표를 취하는 태도를 일컫는다. 개인의 경력 개발의 주체는 기업이나 조직이 아닌 자신 스스로이며 이에 높은 책임감과 자기 주도성을 지니고 있다. ‘자유’와 ‘성장’을 핵심가치로 표방하고 지속적인 학습을 추구하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프로티언 커리어 태도를 함양하고 가치 지향적,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를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본 연구에서는 ‘프로티언 커리어 인재’로 명명한다.

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청소년기 주체적으로 진로 탐색을 하여 그 자격으로 대학에 입학하였던 초기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의 진로발달과정 탐구를 목적으로 한다. 현재 사회초년생으로 여전히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구성해나가고 있는 초기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의 진로발달과정이 현 진로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모색하고자 한다. 이에 이 장에서는 초기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의 진로발달과정을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 ‘진로의 발달’, ‘평생학습시대와 프로티언 커리어’,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이라는 주제로 이론적 고찰을 하도록 한다. 특히 개인을 진로를 구성해나가는 주체적 행위자로 바라보는 진로 구성주의와 내러티브 접근은 자기 주도적 인재인 초기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이 어떻게 주체적으로 자신의 진로 여정을 이끌어 나가는 지 살펴보는 데 길잡이 역할을 해 줄 것이다. 또한 입학사정관제의 전반적인 흐름과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의 역량과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여, 초기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의 삶의 경험과 진로발달과정을 풍부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고찰하도록 한다.

A. 진로의 발달

1. 진로에 대한 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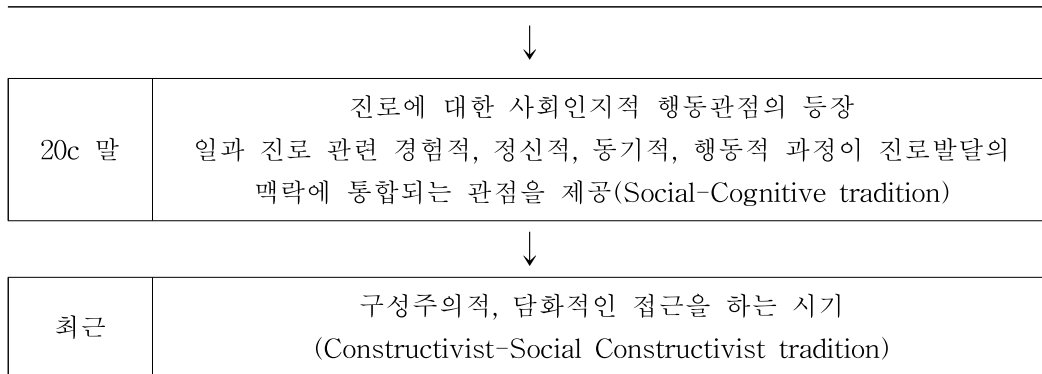
진로(進路, career, course, path)는 한 개인이 생애동안 나아가는 길, 방향을 의미한다. 진로를 직업과 관련한 일의 총체로 규정하기도 하고, 가정, 지역사회에서의 역할과 여가활동 등의 범위까지 포괄하여 이야기하기도 한다. 진로(Career)의 어원이 라틴어 ‘carro’에서 유래되었고, ‘수레가 길을 따라 굴러가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진로를 표현하는 다양한 영어 표현과 한자 표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한 사람의 인생의 방향, 길을 의미한다. 직업(職業, job, work, occupation, vacation, career)이 생계를 지속하기 위해 일정 기간 종사하는 경제활

동, 일의 의미인 반면 진로는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진로는 삶의 목표와 가치, 개인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하고 있다. 가정, 지역사회에서의 역할과 선택, 직업 이외의 삶 전반에 대한 관심까지 아우르며 한 인간이 자신의 생애 동안 일과 관련하여 겪는 모든 경험을 의미한다(손승남 외, 2018). 평생 동안 하나의 직업을 갖고 살아왔던 것이 일반적이었던 이전 시대에는 진로와 직업이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었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인간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많은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도래하면서 사람들은 한 평생 여러 개의 직업을 갖기도 하고, 아예 전혀 다른 분야로 직업을 전환하기도 한다. 직업과 관련하여 고민하고 선택하여야 하는 순간들이 과거보다 더욱 빈번해졌고, 이러한 선택과 결정은 개인의 삶과 맞닿아있다. ‘당신이 누구인가는 곧 당신이 무슨 일을 하는가’로 나타난다(Norman, 1983)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일은 개인의 자아실현과 정체성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삶의 전반적인 모양과 색채를 결정하기도 한다. 진로는 인생을 계획하고 지향하는 삶의 방향과도 연관되어 있기에 직업으로서의 좁은 의미에서 나아가, 한 개인의 인생의 큰 방향을 결정하는 인생 설계의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진로를 바라보는 관점은 시간이 흐르며 점차 발전되고 변화하였다. Hartung(2010)은 진로 이론의 발달 시기를 다음과 같은 네 시기로 구분한다. 20세기 초반에는 개인차에 맞는 일을 매칭(matching)하는 개념으로 진로가 인식되었고, 20세기 중반에는 진로에 발달적 개념이 추가되어 진로이론들이 설명되었다. 20세기 말, 진로발달의 맥락에 진로와 관련한 경험적, 정신적, 동기적, 행동적 과정이 포괄되었고, 이후에는 구성주의 관점에서 진로를 바라보고 생애주제와 이야기, 의미 등을 강조하게 되었다.

<표 II-1> ‘진로’에 대한 관점 변화

20c 초반	개인차에 맞는 일을 짝 짓는 시기 (Differential tradition)
↓	
20c 중반	진로에 발달적 개념이 추가된 시기 (Developmental tradition)



출처: 김봉환 외(2018). ‘진로상담’ 83쪽 참고하여 재구성.

진로에 대한 최초의 논리적 관점은 Parsons(1909)에 의해 시작되었다. Parsons(1909)는 직업선택이 한 순간에 내려지는 결정임을 시사한다. 직업선택을 일회적인 행위로 보고 자신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직업에 대한 지식을 근간으로 결정되는 정적인 개념으로 인식하였다. Parsons(1909)의 관점은 이후 개인과 직업의 특징에 대한 평가로서 특성요인 이론을 발전시키는 기반이 되었고(Sharf, 2013),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적성, 성취, 흥미, 가치, 성격을 검사하고 유형화하는 다양한 도구들이 등장하였다. 직업을 선택하기에 앞서 자신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와 적합한 성향의 직업군을 탐색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때 효과적인 역량 발휘를 잘 할 수 있다는 면에서 도움이 된다. 하지만 한 개인의 특성이 과연 지속적인 것인지, 또한 그러한 특성을 측정 도구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존재한다.

개인의 특성과 직업적 요인을 정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매칭(matching)시키는 것에서 나아가 Ginzberg(1951)는 최초로 진로를 발달적 관점에서 보았다. 진로발달을 청년기인 20대 초반까지 환상기(유아기~11세)-잠정기(11~17세)-현실기(17세~성인초기), 3단계의 과정을 거쳐 발전한다고 보았다. Ginzberg(1951)는 진로가 어느 한 지점에 결정되고 멈추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계속하여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밝혀주었지만, 진로발달을 청년 초기 단계까지로 국한하였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이에 Super(1957)는 여전히 직업선택을 진로과정에 도달하는 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진로발달을 아동기부터 노년기까지 개인의 전 생애에 걸쳐 진행되는 과정으로 보고 진로발달 이론을 정립하였다. Super(1957)는

인간의 생애를 성장기(출생~14세)-탐색기(15~24세)-확립기(25~44세)-유지기(45~64세)-쇠퇴기(65세 이후), 5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마다 인지하고 수행해야 할 발달과업을 성취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보았다.

Super(1955)는 비슷한 연령대 사람들의 진로 관련 행동 비교를 통하여 진로성숙(career maturity)이라는 개념을 도출하여 아동과 청소년들의 진로발달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제도교육 하에서 비슷한 역할과 경험을 수행하는 청소년기와는 달리 성인의 경우 사회적 역할과 경험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에 Super와 Knasel(1981)은 진로성숙이라는 개념에 상응하는 진로적응(career adaptability) 개념을 제안하였다. 진로성숙은 Super의 진로발달이론의 주요 개념으로 개인이 어떻게 자신의 진로를 관리하고 구성해나가는 지에 대한 것으로, 발달단계에서 수행해야 하는 진로와 관련된 준비정도를 의미한다. 성숙은 “환경이나 경험 요인보다는 생물학적 성장의 의미로 유전적이고 자연적 변화”(특수교육학 용어사전)를 강조하기에 개인마다 상이한 진로발달과정이 나타나는 성인기 이후에는 ‘진로적응’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이는 현재의 직업요구에 대처하고 발달과업을 다룰 수 있는 개인의 준비성을 의미한다. Super의 발달적 접근은 전생애적 관점에서 다양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진로 행동을 포괄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큰 강점을 가지고 있으나, 발달은 역동적인 상호작용이고 맥락적인 부분임을 감안할 때, 개인마다 각기 다른 양상의 진로발달 과정이 일어날 수 있음에도 과도하게 일반화하여 맥락성과 개별성을 간과했다는 비판에 제기되었다(Vondracek & Porfeli, 2002; 손은령, 2017 재인용).

진로를 개인과 직업정보의 이해의 틀에서 바라보다가 진로가 단계적으로 발달함을 인지하였고, 이후에는 기저에 다양한 영향요인이 있음을 밝히며 진로발달과정에서 ‘맥락’에 보다 관심을 두게 되었다. Super(1957)는 진로선택에 치우쳤던 기존의 이론들과는 달리, 진로발달과 직업선택을 구분하여 이야기하였는데(Super, 1980), 진로발달에 직업선택을 포함하여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역할들을 포괄한다고 보았다(김봉환 외, 2013). Super(1990)가 설명하는 진로 발달은 ‘진로에 대한 자기개념의 발달’이라고 볼 수 있다(김봉환 외, 2013). 자아개념(자기개념)은 “개인이 자기 자신과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를 의미하며(Sharf, 2013), 개인은 전 생애에 걸쳐 진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자기개념을 형성하게

된다. 자신에 대한 개념은 적성, 흥미, 지능과 같은 개인적 요인, 가정, 학교, 사회적 상황과 같은 환경적 요인과 영향을 주고받는다. 자기개념은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삶 안에서의 다양한 역할과 경험을 통해 변화하고 발달하며, 이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의사결정에 따른 어떠한 경험과 역할은 또 다시 개인의 자기개념에 영향을 주며 전 생애에 걸쳐 순환적이고 연속적인 양상을 띄게 된다.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 과정에 관심을 두었던 Krumboltz는 진로상담에 관한 학습이론으로 자신의 이론을 명명하며(Mitchell & Krumboltz, 1984; 1990; 1996), 개인과 환경이 진로선택과정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주목하고, 상호작용에서 무엇을 학습했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진로선택을 진로상담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으며 사람들이 진로를 결정하는 요인에는 개인의 타고난 유전적 재능, 환경적 조건, 학습경험이 진로선택에 크게 작용하고 있으며, 이 세 가지의 상호작용 결과로 나타나는 과제접근기술을 주요하게 제시한다. 과제접근 기술은 개인이 어떠한 과제를 수행하는 데 따르는 태도, 습관, 정서 등을 일컬으며, 유전적 재능, 환경적 조건, 학습경험, 과제접근기술이 서로 영향을 미치며 개인은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한 일반화에 이르게 된다. 자신 스스로에 대한 관찰을 통해 자신의 흥미, 가치관, 능력, 태도에 대한 일반화 과정이 일어나고, 학습경험을 통해 자신의 환경과 세상에 대한 일반화가 일어난다. ‘자기관찰일반화(self-observation generalization)’와 ‘세계관일반화(world-view generalization)’는 진로결정요인의 결과로 이루어지며(Krumboltz, 2009), 개인이 어떠한 선택을 하고 과제를 수행하는 데 주요하게 작용하게 된다. 기존 다른 이론들이 대부분 타고난 능력과 환경적 상황을 중심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가운데 Krumboltz의 사회학습이론은 다른 이론에서 언급하지 않는 학습경험과 과제접근기술을 중요하게 다룬다(Sharf, 2016)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진로의 선호가 개인의 이전 학습경험으로부터 이어지고, 진로선택에 있어서 사실상 수많은 과거의 학습경험이 귀결될 수 있다. 또한 Krumboltz는 타고난 능력과 환경적 사건, 학습경험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개인이 과제에 접근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진로결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한다(Mitchell & Krumboltz, 1996).

Krumboltz는 개인을 환경에 의해 통제당하는 수동적 존재로 보지 않고 스스로 환경을 구성하고자 노력하는 주체로 보았으며, 특히 한 개인의 진로에 ‘우연

(happenstance)’이라는 개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을 수용하고, 이러한 ‘운’ 또한 진로과정에서 개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진로 상담을 제안한다. Krumboltz는 삶에서 일어나는 우연은 개인의 진로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주기도 하고(Mitchell, Levin, & Krumboltz, 1999), 그저 스쳐지나가기도 하지만, 이러한 우연이 개인의 진로에 보다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바로 ‘계획된 우연(planned happenstance)’이라 설명한다. ‘계획된(planned)’과 ‘우연(happenstance)’은 모순되는 관계의 개념이지만, 진로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운, 우연의 상황이 삶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는 마치 계획되었던 것 마냥 유의미하게 작용함을 뜻한다. Krumboltz는 개인의 진로에 계획된 우연을 마주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학습 기회를 찾는 ‘호기심(curiosity)’,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노력을 지속하는 ‘인내심(persistence)’, 태도와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융통성(flexibility)’, 새로운 기회를 긍정적으로 보는 ‘낙관성(optimism)’, 불확실함에도 행동하는 ‘위험 감수(risk taking)’ 기술이 발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Mitchell, Levin, & Krumboltz, 1999). 진로에서는 항상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기에 위험과 그에 따른 실수가 필연적으로 따르고 있지만, 이 또한 학습 기회가 될 수 있기에 적극적으로 도전하여 새로운 경험을 위한 노력을 권장한다.

2. 진로발달에 대한 구성주의와 내러티브 접근

구성주의 진로발달이론은 개인이 환경에 영향을 받지만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환경을 개인 스스로 만들어 간다는 입장에서, 개인을 발달의 주체로서 인식하는 관점이다. 진로구성주의는 포스터모던 인식론에 철학적 기반을 두고 있으며, 고정된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에 진로에 있어서도 개인이 이미 존재하는 무언가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의미를 만들어가며 자신의 진로를 이끌어간다고 보고 있다. 개인에게 딱 들어맞는 하나의 진로란 존재하지 않는다(Sharf, 2013)는 관점이다. 개인은 어떠한 환경에 놓여있고 영향 받을 수밖에 없지만,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를 도모하고 영향을 주고받으며 선택과 결정을 행한다. 개인은 진로 관련 행위와 경험에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통하여 자신의 진로를 구성한다. 이러한 진로발달에 대한 구성주의적 접근은 평생 직업이라

는 개념이 희미해지고 직업의 이동이 발생하기 시작된 1970년대를 기점으로 1980년대 대부분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개인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매칭(matching)하는 개념이 더 이상 설득력을 잃게 되면서 주체적인 개인으로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고 진로를 전개해나가는 것이 중요하게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개인의 경력을 관리해주는 것은 개인이 속한 조직이나 기업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이며 자기 주도적으로 자신의 경력을 개발해야하기에 진로상담 또한 개인이 자신의 경력을 적극적으로 개발해나갈 수 있도록 개개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진로구성주의에서는 내담자의 과거와 현재 내러티브를 통해 미래 진로를 구성한다. 진로를 “하나의 이야기” (Shaf, 2013)로 보고, 내담자가 지난 자신의 삶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그 과정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배우는 지를 파악하게 된다. 내러티브에는 의미와 사건들이 담겨져 있고, 내담자가 어떤 이야기를 좋아하고 어떤 이야기를 기피하는지, 특정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감정을 표출하는 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Savickas는 진로구성주의 이론의 과제는 곧 “자기를 형성하는 것”이라 보고, “생각과 마음을 의식하는 독특한 인간의 능력을 사용하여 경험에 대하여 반영함으로써 자기를 구성한다” (Savickas, 2011)고 이야기한다. 경험에 대한 반영에는 언어가 반드시 필요하고, 언어를 통해서 개인은 자신에 대해 인식하고 스스로를 세우는데 그 과정에는 반영적 사고가 전제한다. Neuman과 Nave(2009)는 “개인들은 자기-의식 또는 알아차림에 대한 알아차림은 언어를 필요로 한다.”고 설명한다(Savickas, 2011). 우리 모두는 객관적 커리어와 주관적 커리어를 가지고 있다. 객관적 커리어가 개인이 해왔던 일과 역할들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주관적 커리어는 앞서 언급한 자기를 형성하는 것으로 이해해볼 수 있겠다. 주관적 커리어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가로지르는 “자기-지각 반영”을 요구한다. 단지 현재의 “알아차림”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기에 충분히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로 연결되는 반영적 과정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언어의 사용이 요구되어진다(Savickas, 2011).

Savickas(2005)는 Super(1957)의 진로이론에 현대적 의미를 보완하여, 내러티브 접근을 기반으로 한 진로 이론을 정립하였다. 내담자가 자신의 삶에 대해, 자신의

일과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삶을 구성해왔는지 돌아보고 의미를 찾는 과정을 통해 미래의 진로 방향 또한 구성한다. 상담을 통해 내담자는 자신의 생애스토리를 구성하게 되고, 생애스토리 안에서 유의미했던 삶의 주제를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받는다. 생애스토리는 단순히 개인의 역사적 사실을 연대기 순으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가 지난 삶의 시간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선별되어 내담자의 입에서 내러티브로써 나타나고, 그것을 다시 보고, 생각하고, 상담자와 이야기하며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자신을 알아차리는 과정이다. Savickas(2005)는 개인이 생애스토리를 통해 자신에 대해서 지각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좋아하며 사용하면서 자신만의 정체성 자원을 생산한다고 본다. 자신의 생애스토리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잘 인지하고 있는 것은 진로 관련 행위를 하고 미래를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향을 잡는 기준점이 되어준다.

생애스토리는 내러티브를 통하여 구성되기에 면담자는 내담자와 풍부한 대화를 통하여 내담자의 생애스토리를 구성한다. Savickas(2009, 2012)는 생애스토리를 구성하는 접근으로 먼저 작은 이야기(소서사)들을 통해 개인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볼 수 있으며, 작은 이야기들 안에 존재하는 문화적 장벽, 자기비판, 자기제한에 주목하며 이야기를 해체한다(Sharf, 2013). 다음으로 개인의 이야기 속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함께 찾고, 개인의 감정과 가치를 담아 이야기를 재구성한다. 이러한 작은 이야기들을 통해 대서사(macronarrative)가 구성되며 내담자와 상담자가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 있는 진로주제를 발견하고 미래를 그릴 수 있게 된다. ‘구성하기-해체하기-재구성하기-상호 구성하기’를 통해 내담자는 유의미했던 진로 경험을 찾아내고 자신만의 진로이야기를 만들어, 앞으로 나아갈 길의 방향을 잡고 새로운 도전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개인의 내러티브를 통해 생애 설계를 함에 있어서는 생애스토리 속에 나타나는 내담자의 직업적 성격(vocational personality), 진로적응도(career adaptability), 생애 주제(life theme)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김봉환 외, 2013). 직업적 성격(vocational personality)이란 “진로와 관련된 각 개인의 능력, 욕구, 가치, 흥미 등을 의미(Savickas, 2005)” 하며, 구성주의 진로발달이론에서는 전통적인 진로이론과 마찬가지로 직업적 성격에 따른 개인차를 다루고 있지만, 개인차를 바라보는

관점과 진로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직업적 성격을 내담자의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흥미라고 보지 않고, 이 또한 하나의 가능성으로 보고 활용한다는 부분에서 차이를 보인다. 진로적응도(career adaptability)는 “일이 자신에게 맞도록 자신을 일에 맞추어 나가는 과정에 동원되는 개인의 태도, 능력, 행동을 뜻하며” (Savickas, 2005), 개인은 진로를 구성해나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환경을 마주하게 되고 새로운 과제들을 부여받게 된다. 이 때 그 과제를 대하는 자세, 역경을 극복하고자하는 의지, 진로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진로적응도는 환경에 적응해가는 과정에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경험의 과정에서 생성되기도 한다.

더구나 21세기에는 직업의 생성과 소멸주기가 짧아지고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역량과 인재상의 변화 또한 크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적응력은 앞으로의 시대에는 더욱 중요하게 인식될 것이다. 진로적응도는 “현재 당면한 진로발달 과업, 직업전환, 마음의 상처 등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개인의 준비도와 자원을 의미하는 심리적 구인” 이다(Savickas, 2005). 직업적 성격이 특정한 직업을 의미한다면, 진로적응도는 진로 구성 과정에서의 극복 과정을 강조한다(Savickas, 2005). 그리고 생애주제(life theme)는 진로 선택 시 보다 ‘나’다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유로 설명될 수 있겠다.

사람들은 각기 자신만의 생애주제를 지니고 있고, 생애주제를 바탕으로 진로 경험을 선택하며, 자신의 자아개념을 구체화한다. 개인의 생애스토리를 통해 자신만의 고유한 생애주제를 찾는 것이 진로구성주의 진로상담의 지향점이며, 생애주제를 찾아가는 과정은 곧 자신을 찾는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은 개인의 정체성과 연결되며 진로구성이론에서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신의 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게 돕는 것이 중요하다. 정체성은 “사람들이 사회적 역할과 관련하여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포함” 하며(Savickas, 2011) 자신의 정체성과 적합한 역할을 하게 되고, 그러한 조직을 만났을 때 분명해진다. 이러한 정체성은 “내러티브에 의하여 형성되고 내러티브로 표현” 된다(McAdams, 2001). 내러티브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이해할 때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 인지하고 말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좋아하고 사용하면서 자신만의 정체성 자본을 생산하게 된다.

Savickas(2011)는 21세기에는 “전기성(biographicity)과 정체성 작업”에 기반을 두고, “취업능력, 적응력, 감성 지능과 평생 학습에 초점을 두는 개입 모델을 수반”해야 한다며 새로운 진로이론의 패러다임을 이야기한다. 한 사람의 생애스토리는 자신의 삶에 있었던 중요한 일들과 그 사건의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삶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다 준 사건에 큰 의미를 두고, 그 변화의 경험에서 학습이 이루어진다. 이를 통하여 이전의 관점과 생각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새로운 학습을 통해 다양하게 마주하는 변화에 적응해나간다. 자신의 생애스토리를 통해 생애주제를 발견하고, 어떠한 패턴을 찾고, 자신을 형성해나가는 과정은 자신을 알아차림을 넘어 정체성 자원을 형성하게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경험에 도전하고자 준비를 하고 자신의 미래를 그리며 행동하게 한다.

B. 평생학습시대와 프로티언 커리어

1. 평생학습시대 진로와 교육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고 환경이 급변하면서 인간은 살아가는 동안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 계속하여 학습하고 성장한다. 종래에 우리의 교육은 학교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학교교육은 졸업 이후의 삶을 위한 준비기로써 인식되어져 왔다. Bolles(1978)는 이제껏 인간의 생애주기(life cycle)를 직업을 얻기 위한 학습의 시기, 직업에 종사하는 노동의 시기, 은퇴 이후 여가의 시기로 분절화(three boxes)하여 접근해왔다면, 앞으로는 전 생애에 걸쳐 학습-일-여가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 이야기 한다. 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학교교육을 통해 학습한 것만으로는 긴 여생을 살아갈 수 없게 되었고, 하루에도 많은 내용의 정보가 업데이트되고 지식이 변화하는 시대이기에 현 시대를 살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환경에 적응하며 계속하여 학습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게 되었다. 제도교육 이후에도 계속하여 많은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학습을 선택하고 새로운 경험과 도전을 이행하며 자신의 삶을 구성하고 있다.

이에 학교교육 또한 삶의 맥락에서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재구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다. 평생학습자로서 환경에 잘 대비하며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자세와 역량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이 구성되어야 한다. ‘평생교육 안에서 학교교육 재편성’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과도한 교육주의와 폐쇄적 학교교육에 대한 비판과, 삶과 분리된 교육의 대안을 평생교육에서 탐색하고 있다. Lengrand(1970)은 이제까지 파편화되고 분절화된 교육은 완전히 다시 재편되어야 함을 주장하였고, Dave(1973)는 삶과 삶의 통합을 위한 평생교육을 제안하며 학교교육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변화를 도모하였다. 곽삼근(2012)은 삶의 현장과 분리된 이론적, 추상적 지식중심의 학교교육학의 한계를 지적하고 교육과 삶의 괴리 측면에서 반성적 성찰의 필요를 이야기하였으며, 김신일, 박부권(2005)은 학습자를 주체가 아닌 객체로 만드는 지나친 교육주의 풍토를 비판하며 학습자의 적극적 학습활동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4차 산업 혁명 시대에서 변화의 속도는 예측하기 어렵게 빠르고,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사회 전반에 다양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 사회 시스템의 변화와 함께 노동시장과 직업의 구조 또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임종현 외, 2017). 현재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이들이 훗날 사회에 배출되어 갖게 되는 일자리의 70%가 지금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일자리일 것이라는 예측(조상식, 김기수, 2016)과 더불어,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맞이하며 일자리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로봇과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예측으로 미래에 사라질 직업과 각광받을 직업에 대한 갑론을박이 쏟아진다. 미래의 유망한 일자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무색할 정도로 예측하기 어렵지만, 소멸가능성이 낮은 일자리의 특성으로 예측되는 것은 대인 관계 능력, 경험이나 판단력, 창의성의 수준이 높은 직무가 각광받을 것이라는 의견이다(김진숙 외, 2017).

World Economic Forum(2016)에서 2020년까지의 각 분야별 일자리의 소멸과 생성을 예측한 결과, 전체적으로 700만개가 넘는 일자리가 사라지고, 200만개 정도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 분석하였다. 즉 2020년까지 총 500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며 특히, 반복적인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사무·행정 분야에서 가장 큰 하락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표 II -2> 2020년까지의 각 분야별 일자리 변화 예측

(단위: 천명)

일자리 감소		일자리 증가	
산업 분야	인원 수	산업 분야	인원 수
사무, 행정 (Office and Administrative)	-4,759	비즈니스, 금융 운영 (Business and Financial Operations)	+492
제조, 생산 (Manufacturing and Production)	-1,609	경영 (Management)	+416
건설, 채굴 (Construction and Extraction)	-497	컴퓨터, 수학 (Computer and Mathematical)	+405
예술, 디자인,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미디어 (Arts, Design, Entertainment, Sports and Media)	-151	건축, 엔지니어링 (Architecture and Engineering)	+339
법률 (Legal)	-109	영업, 관계 (Sales and Related)	+303
시설, 유지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40	교육, 훈련 (Education and Training)	+66
일자리 감소 총계	-7,165	일자리 증가 총계	+2,021

출처: World Economic Forum(2016); 임종현 외(2017). ‘4차 산업혁명사회에서 교육의 방향과 교원의 역량에 관한 탐색적 연구’에서 재인용.

텔레마케터, 은행원, 개인비서, 가사도우미와 같은 일자리가 인공지능의 직업 대체율이 높게 나타날 것이라 예측되고 있으며(임종현 외, 2017), 이러한 변화는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역량과 인재상을 새로이 그리게 하고, 미래세대를 준비하는 교육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어떤 교육을 해야 하는지, 학교에서는 어떠한 역량들을 길러주어야 하는지, 시대적인 큰 변화와 함께 교육 또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앞두고 많은 고민을 안고 있다. 분명한 것은 고용안정성보다 고

용가능성이 더욱 중요해지는 앞으로의 사회에서 개인이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고 주체적으로 진로를 전개해나갈 수 있는 데 필요한 역량이 중요하게 요구되어질 것이다. 모든 학습자가 주체적으로 자신에게 적합한 학습경험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최승현 외, 2011).

Knowles(1975)는 “타인의 도움 여부와는 관계없이 개인이 주도권을 가지고 자신의 학습요구를 진단하고, 학습목표를 세우고, 학습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확인하고, 적절한 학습전략을 세워서 실행하고 학습결과를 평가하는 과정”으로 ‘자기 주도 학습’을 정의한다. 학습자가 주도권을 갖고 주체적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학습과 경험을 선택하여 나아가는 것은 앞으로 요구되는 미래 인재가 갖춰야 할 필수 역량이다. 더불어 인공지능과 과학기술의 발전을 필두로 사회의 변화 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변화의 폭 또한 광범위하게 확장되어 일어날 것이다(Schwab, 2016).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인간의 정체성은 더욱 위협받을 여지가 다분하며, 보다 인간다운, 인간 본연의 가치에 더욱 주목하는 교육(임종현 외, 2017)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미래에는 주체적으로 학습을 선택하고 자신의 길을 만들어나가며 창의적인 일을 도모하는 협력적 인재가 요구되어지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의 교육의 변화는 미비하고 진로에 대한 인식과 교육은 근시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상급학교 진학을 우선적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 때문에 진로 문제는 진학 문제로 한정하여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다(손승남 외, 2018). 진로에 대한 고민과 관심은 한 개인의 삶의 중심축을 수립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전 생애를 기반으로 접근되기보다 청소년기로 한정하여 이루어지는 경향이 크다. 보다 넓은 관점에서 인생을 고민하고 큰 그림(big picture)을 그려야 할 이들에게 이러한 근시안적 접근은 방해요인이 되고는 한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자신에 대해 고민해보고 탐색해볼 시간이 확보되기 어려운 일상에 놓여있고, 특이하게도 진로탐색과 선택에 앞서 선택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는 것이 전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청소년기에 주어진 발달과업을 성취하지 못한 채 진로미결정 상태의 학생들이 많이 있으며, 대학 입학 이후에도 정체성에 대한 고민으로 방황의 시기를 보내는 청년들이 수두룩하다. 이러한 청년들을 가리켜 ‘대2병’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 청년들의 진로 고민은 계속되고 있다. ‘대2병’은 흥미와 적성에 대한 고려보

다 성적에 맞춰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은 우리나라의 환경에서 비롯되었다. 전공에 대한 공부가 깊어지는 대학교 2학년 시기에 도래하여서야 ‘나는 누구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하는가’에 대한 고민으로 방향을 시작하는 대학생들을 지칭한다. 심할 경우 무기력증과 우울증을 호소하다가 전과, 휴학, 자퇴로 이어지기도 하고, 명문대 학생들에게도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행복과 직결되는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도 야기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SBS 스페셜, 2017. 4. 2. 방영).

자기주도성은 학교 현장에서도 중요하게 인식하고 강조되고 있지만, 자기 주도적 학습 태도를 함양할 수 있기보다는 여전히 교과 지식 습득과 주입식 교육으로 이루어지며, 이에 따른 사교육 성행으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국제미래학회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7; 한겨레 21, 2003; 한국교육개발원, 2012; 허은영, 2009; 최유선, 손은령, 2017 재인용). 오히려 자기주도학습을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강조하여, 협력, 배려, 소통과 같은 공동체 안에서의 학습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 또한 주목할 만하다(홍후조 외, 2013; 김영민, 2016; 전현욱, 2012; 최유선, 손은령, 2017 재인용). 같은 맥락에서 자기주도성이 학습자가 주체가 되어 능동적 태도에서 자유의지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자신을 어필하는 또 하나의 수단으로 취급되어, 내포하고 있는 본질과는 다르게 이용되고 있다는 부분(장미옥, 2007)에서 우리 교육과 학교 현장에서 과연 진정한 의미의 자기 주도적이고 주체적인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을 하고 있는지 돌이켜 생각해볼 수 있겠다.

이미 다가오고 있는 시대적 변화를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실감하고 있다. 보다 주체적인 개인으로서 자신의 진로를 능동적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역량과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학습에 있어서, 학습의 자발성, 자기 주도성, 자율성은 평생학습과정 그 자체를 움직여 가는 기제”(곽삼근, 2005)이기에, 평생학습시대, 어떻게 한 평생 학습해나갈 것이며, 이에 필요한 자세와 기본 역량을 어떻게 습득하고 다양한 변화에 적응해나가야 하는지 고민이 계속되고 있다. 분명한 것은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스스로 찾아가고, 그 가치가 개인의 가치를 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가치로 발전될 수 있도록 평생 학습하는

인재(김진숙 외, 2017)” 라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변화무쌍한 환경 속에서 주체적으로 학습하며 자신이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인재가 요구되어지고 있다.

2. 프로티언 커리어 태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규칙적이기보다는 수많은 우연과 무질서가 혼재하는 복잡한 환경이다. Pryor와 Bright(2003)은 진로 이론 또한 무질서한 세상을 반영하여 구성되어야 하며, “체제의 복잡성, 변화의 가능성, 우연적 영향의 중요성, 인간의 의미 구성 가능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다루어야한다고 주장한다(손은령, 2017). 우리의 삶은 우연적 상황이 항상 도사리고 개인의 삶 또한 이러한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큰 변화를 맞이하고는 한다. 이에 진로상담에서도 지나치게 계획과 합리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우연적 상황을 인정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불안이나 두려움보다 삶의 불완전성을 수용하여 자신의 삶에 적극적으로 나아가기를 제안한다(손은령, 2017). 예기치 못한 변화와 우연적 사건들이 더더욱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이러한 시대에 Hall(1996)의 프로티언 커리어(protean career)가 주목받고 있다. 프로티언 커리어는 개인이 자기 주도적으로 자신의 가치에 기반하여 경력을 개발하는 태도를 일컬으며(Hall, 2002, 2004), 오늘날의 새로운 경력 패러다임의 특성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주목받고 있다. 고용가능성이 더더욱 중요해지는 환경의 변화에서 개인은 조직이나 회사에 속해있는 수동적 존재로서가 아닌, 스스로의 고용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주체가 된다. 개인 스스로 높은 고용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는 것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Hall, 1996).

프로티언 커리어의 등장은 Hall로부터 시작되었는데, Hall은 자신의 유년시절 가정환경에서부터 프로티언 커리어의 뿌리를 찾고 있다(Hall et al., 2018). Hall의 아버지는 집에서 거리가 아주 먼 곳에서 엔지니어로 대기업에 근무하였다. Hall의 가정은 조직에 헌신하며 열심히 일하는 아버지 덕분에 경제적 여유가 있을 수 있었지만, 거리상의 문제로 2주에 한번만 아버지와 함께할 수 있었다. Hall의 아버지는 격주로 비행기를 타고 집에 오는 생활을 반복하였고, 그러던 어느 날 집으로 오는 비행기를 놓치는 바람에 기차를 타고 집에 도착한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뉴

스를 통해 놓친 비행기의 추락으로 인해 탑승객 전원이 사망하였다는 사고 소식을 접한다. 이 사건을 계기로 Hall의 아버지는 회사를 그만두고 가족 곁에서 새로운 일상을 시작한다. Hall의 어머니는 간호사로 일하시다가 자녀들의 육아문제로 지역의 작은 병원에서 파트타임 간호사로 근무하셨고 추후에는 전업주부가 되었다. 하지만 직장을 그만둔 지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Hall의 어머니에게 ‘간호사’로서의 정체성은 여전히 유효하였다. Hall은 자신의 커리어에 이러한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밝혔다(Hall, 2004; 김이준, 2018 재인용).

‘프로티언 커리어’는 자유자재로 모습을 바꾸는 그리스 신 ‘프로테우스(proteus)’에서 유래된 용어로 고정된 길을 가는 경력과 상반되는 개념으로, 개인이 자신의 가치, 흥미, 소신에 따라 희망하는 방향으로 경력을 이끌어 나간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Hall, 1996). ‘프로티언 커리어’라는 용어의 사용은 Hall(1976)의 저서 ‘Careers in Organizations’에서 새로운 커리어(new career)를 의미하는 용어로 최초로 사용되었다. 새로운 커리어(new career)는 경력개발 동기에 주목하여 고안되었으며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 맥락에 맞춰 개인이 자신의 경력개발에 책임을 진다. 자기 자신과의 계약(Baruch, 2014)을 통해 개인의 ‘자유’와 ‘성장’을 핵심가치로 여기고, 조직이나 기업이 아닌 개인 스스로 경력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은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성공을 추구한다(Hall, 2004).

실업이나 조기 퇴직, 직업군의 이동, 프리랜서 일자리의 증가 등이 빈번해진 현대사회에서는 이러한 프로티언 커리어 태도가 요구되어지고 있다. 프로티언 커리어 태도는 종래의 경력개발을 조직이나 기업이 구성원들의 경력관리를 이끄는 주체가 되어왔었다면, 프로티언 커리어에서는 개인이 경력을 이끄는 주체가 된다. 전통적 사회에서는 공공연하게 승진이나 높은 연봉과 같은 것들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목표이자 성공의 기준이 되어왔었다면, 프로티언 커리어에서 추구하는 목표와 성공의 기준은 개인이 중시여기는 가치를 향하고 있다. 개인의 목표가 누구에게나 합당하게 인정받을만하고 가시적으로 드러나야 하는 객관적 지표가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느낄 수 있는 자부심, 만족감 또한 목표와 성취가 될 수 있다.

프로티언 커리어는 평생직장이 유효했던 전통적 경력 패러다임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본격적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Hall, 1976). 전통적 경력과 비교하여 프로티언 커리어는 다음과 <표 II-3>와 같은 특징을 가진다.

<표 II -3> 전통적 경력과 프로티언 커리어 비교

구분	전통적 경력	프로티언 커리어
목표	승진, 급여인상	심리적, 주관적 성공
핵심가치	상위계층으로의 이동, 권력	개인의 자유, 성장
심리적 계약관계	헌신, 직업안정	유연성, 고용가능성
관리의 책임	기업, 조직	개인
전문성	노하우(know-how)	런하우(learn-how)
자기 개념	일 중심 자기(work self)	총체적 자기(whole-how)
몰입대상	조직몰입	일 만족, 전문적 몰입
이동가능성	수직적 상승 이동	수평적 이동
경력경로	단선적	복합적
경력단계	생애발달 단계, 연대기적 나이	단기학습 단계의 연속, 경력나이
개발방법	공식적인 훈련에 의해	자기 주도적, 지속적 학습, 관계구축 및 직무경험에 의해

출처: Hall(2002). ‘Career in and out of organization’ : 김이준, 김봉환(2017). ‘프로티언 커리어에 관한 국내 연구의 동향’ 에서 재인용.

프로티언 커리어는 승진과 높은 연봉이 경력개발의 목표였던 전통적 커리어와 달리 개인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심리적, 주관적 성공을 추구한다. 개인이 속해 있는 조직에 헌신과 충성을 다해왔던 과거와 달리 개인의 고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인지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자신의 경력을 개발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자기 주도적이고 지속적인 학습을 계속하며, 네트워크를 활용하거나, 직무 경험을 학습의 기회로 개인의 높은 성장과 고용가능성을 지향한다. Hall의 프로티언 커리어는 이러한 특성으로 오늘날의 경력개발 특성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개념으로 주목받고 있다(Gubler et al., 2014). Kahn(2001)은 진로 이론에서도 “경계 없는 조직의 출현”에 대해 다룰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조직이 아닌 개인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커리어를 만들어가는 21세기에 Hall(1996)의 커리어 개념은 “변화무쌍”하고 “경계 없는” 커리어를 체계화하여 설명하고 있다(Savickas, 2011). Hall의 연구에 나타나는 프로티언 커리어의 개념은

다음과 <표 II-4>와 같다.

<표 II-4> Hall의 ‘프로티언 커리어’ 개념 정리

연구	‘프로티언 커리어’ 개념
Hall(1976)	조직이 아닌 개인이 상황에 따라 자신의 업무, 조직, 직종 등을 변화시키는 경력으로, 커리어에서 개인의 선택과 자신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함.
Hall & Mirvis(1995)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형성되는 경력으로, 개인마다 독특한 ‘경력지문’을 가짐.
Hall(1996)	전 생애에 걸친 지속적인 커리어 단계를 통한 학습과 정체성의 변화로 만들어짐.
Hall(2004)	개인이 주도적인 경력 관리와 더불어 개인의 가치, 가족, 삶의 목적 등을 중요하게 여김.
Hall & Chandler(2005)	객관적 성공보다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 측면에서 심리적 성공, 주관적 성공에 초점을 맞추는 경력.
Briscoe & Hall(2006)	개인에게 의미 있는 목표와 가치를 추구하는 가치지향적인 특성이며, 자기 주도적으로 커리어를 관리함.

출처: 박성욱(2016). ‘커리어 정체성에 대한 자기성찰체험이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서 일부 수정.

프로티언 커리어는 자기주도성과 가치지향성, 두 가지 핵심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경력개발에 있어서 개인이 주체가 되기에 자기 주도적인 경력관리가 요구되며, 경력개발의 과정에서 개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기반으로 진로 선택과 진로 경험을 결정하게 된다. 개인 스스로 자신의 경력 개발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기에 경력선택이나 경험의 기회에서 보다 큰 책임감과 독립성을 내포한다(Hall, 2002, 1976). 프로티언 커리어에서 가치지향성은 삶의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Hall, 2004)으로 개인이 추구하는 심리적, 주관적 성공으로 나아가는 데 방향을 이끌어준다. 자기주도성은 개인이 주체적으로 다양한 관계를 구축하며 새로운 경험을 학습의 기회로 삼아 계속하여 성장하고자 노력할 수 있도록 한다. Briscoe와 Hall(2006)은 프로티언 커리어의 범주를 자기주도성과 가치지향성에 따라 다음

과 같이 네 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한다.

<표 II -5> 프로티언 커리어의 범주

구분	의존적 (dependent)	경직된 (rigid)	반응적 (reactive)	프로티언 (protean)
가치 지향적 (values driven?)	X	O	X	O
자기 주도적 (self-directed career management?)	X	X	O	O

출처: Briscoe & Hall(2006). ‘The interplay of boundaryless and protean careers: combination and implications’ 에서 재구성.

경직된(rigid) 유형은 가치 지향적이나 자기 주도적이지 못한 유형으로 경력 관리에 있어 주체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며, 반응적(reactive) 유형은 자기 주도적으로 경력을 이끌어 가지만 가치 지향적이지 않기에 경력을 이끌어가는 소신과 신념이 부재하다. 의존적(dependent) 유형은 자기 주도적이지도 않고 가치 지향적이지도 않은 유형으로 스스로 우선순위를 결정하지도 못하고 주도적으로 자신의 경력을 이끌지도 못한다. 프로티언(protean) 유형은 가치 지향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유형으로 자신의 가치관과 소신에 따라 경험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필요한 학습과 경험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다. 프로티언 커리어 태도를 함양한 사람들은 변화에 잘 대비하고 적응하며 지속적으로 학습을 이어나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Hall(1996, 2002)은 프로티언 커리어 태도를 형성함에 있어서 ‘자기 인식’ 과 ‘적응성’ 개념을 제시한다. ‘자기 인식’은 “자신의 정체성이나 가치에 대한 분명한 감각(김이준, 2018)”을 뜻하며, ‘적응성’은 “변화무쌍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김이준, 2018)”을 의미한다. 자기 인식은 스스로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고, 자신이 추구하는 신념과 개인 내면의 가치를 알고 있으며, 이는 진로 결정에 있어서 주요하게 영향을 미친다. 적응성은 예기치 못한 환경의 변화나 다양

한 제약 요인을 마주할 때 개인 스스로 변화하고 대비함에 도움이 되는 역량이다.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앞으로의 시대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환경에 잘 대비하여 적응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역량이 고루 발달되도록 요구되어진다. 높은 적응성과 낮은 자기 인식을 형성한다면 자신만의 색깔을 담아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길을 쫓는 삶이 될 수 있다. 또한 높은 자기 인식과 낮은 적응성이 형성된다면 자신에 대한 이해와 분석에만 치중할 뿐 실천으로 옮기고 행동함에 주저하게 될 것이다. 자기 인식과 적응성 모두 고루 발달되어 형성된 프로티언 커리어 태도는 변화무쌍한 환경에 적응하고 자신의 개성을 잃지 않으며 스스로의 길을 나아갈 수 있게 할 것이다.

이러한 프로티언 커리어 태도 형성은 개인의 커리어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음을 Hall(1996, 2002)은 강조한다. 프로티언 커리어에서는 경력 개발을 지속적인 학습과 정으로 보며(박성욱, 2016), 가치 지향적으로 진로 경험을 선택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자신의 길을 구축해나가는 과정은 경험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더욱 높은 자기 인식과 적응성을 함양시켜줄 것이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높은 인식과 적응성은 개인들에게 변화의 시점을 알게 해주고, 변화에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Savickas, 2011).

프로티언 커리어는 Hall(1976)에 의해 처음 언급되었지만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후반이다(Baruch, 2014). 경력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2000년대 이후 프로티언 커리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Tams & Arthur, 2010),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부터 프로티언 커리어를 주제로 한 논문이 발표되기 시작하였다(김이준, 김봉환, 2017; 박윤희 외, 2018). 노동 시장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면서 프로티언 커리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관련 연구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프로티언 커리어 관련 연구 대상은 주로 전문분야 또는 특정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경력자들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김선자, 최성우, 2015; 배을규 외, 2014; 이봉선 외, 2017), 이러한 가운데 이호주, 장원섭(2014)은 대졸 초기경력자인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프로티언 경력지향성과 개발지원 기능의 관계를, 조형래, 최승규(2017)는 대학생의 프로티언 경력태도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 김이준, 김봉환(2017) 또한 1인 기업가, 프리랜서 등 보다 다양한 직군을 대상으로 확장하여 연구가 수행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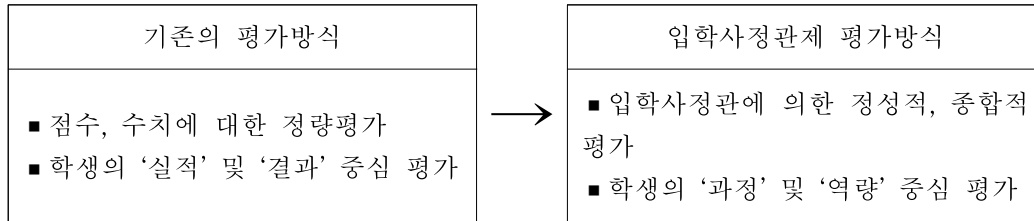
성을 역설하였고, 프로티언 커리어가 자기주도성을 표방하고 있는 만큼 청소년 및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생애 진로 설계 측면에서도 중요하게 탐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프로티언 커리어와 관련하여 개인적 특성이나 조직 환경 등 다각적 측면에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며(박윤희 외, 2018), 향후에는 프로티언 커리어 태도의 형성 과정, 변화 양상 등 맥락을 고려한 연구가 다양한 집단에서 진행되어 프로티언 커리어에 대한 이해도를 확장해나가야 할 것이다.

C.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

1. 입학사정관제 개요

입학사정관제도는 기존 대입 전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로 등장하였다. 기존의 대학 입학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 성적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왔다. 정량화된 점수를 바탕으로 확일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존의 평가 방법은 수치화되지 않은 학생들의 잠재력, 성장가능성, 흥미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이러한 평가 방법이 중등교육 또한 대학입시교육으로 전락하게 만들었고(박혜림, 2009), 다원화되고 있는 사회적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정환규, 2009). 이러한 문제점에서 입학사정관제는 출발하였고, 대학에 학생선발 권한을 확대하여 대학의 건학이념, 인재상에 따라 보다 다양한 인재가 선발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량화된 숫자 이면에 드러나지 못했던 학생들의 잠재력, 성장가능성, 인성, 창의성 등이 학업수행능력과 함께 평가될 수 있도록 새로운 입시제도가 추진되었다. 실적과 결과 중심의 정량 평가에서 과정과 역량에 주목하는 정성적, 종합적 평가로, 평가 패러다임의 변화가 도모되었고, 초·중·고교 현장에서 공교육정상화 또한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으로 입학사정관제는 시작되었다.

<표 II-6> 평가 패러다임의 변화



입학사정관제가 시행되면서 대학은 각 전형별로 추구하는 인재상에 따라 전형 요소와 면접방법을 다양하게 운영하였다. 많은 대학들이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활동보고서(포트폴리오), 교사추천서 등의 서류를 제출서류로 지정하고, 서류평가와 면접평가로 단계별 평가를 추진하였다. 정량화된 점수를 바탕으로 순서대로 줄 세우던 기존의 대입 제도에 비해 입학사정관제는 학생 개개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들여다보며 종합적, 정성적 평가가 이루어지는 전형이었다. 이에 대학은 학생의 잠재력, 인성, 역량을 평가하는 입학사정관을 별도로 두어 다양한 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전형을 운영하고, 학생 선발 업무 이외에도 대입전형을 개발하고 입학생들의 대학 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역할을 부여하였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8).

입학사정관제는 2004년 10월,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2008학년도 이후 대학 입학제도 개선안’ 발표에서 창의성, 사회성, 리더십 등의 다양한 역량을 지닌 학생을 21세기가 요구하는 우수한 인재로 인식하고, 대학 입학 전형에서 다양한 역량을 함양한 학생을 선발할 필요가 있음이 강조되면서 추진되었다. 이후 2008학년도에 국립대 2개교, 사립대 8개교를 선정하여 시범운동을 시작하였고, 2009학년도부터 총 40개 대학으로 확대하여 입학사정관제 시행에 박차를 가하였다. 다음 <표 II-7>와 같이 입학사정관제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지원 대학의 수, 지원 예산, 모집인원이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표 II-7> 입학사정관제 연혁

(단위: 개교, 억원, 명)

년도(학년도)	지원 대학 수	지원예산	모집인원	비고
2007년(2008학년도)	10	20		시범단계

년도(학년도)	지원 대학 수	지원 예산	모집인원	비고
2008년(2009학년도)	40	157	4,476	도입단계
2009년(2010학년도)	47	236	24,696	내실화 단계
2010년(2011학년도)	60	350	35,421	확대단계
2011년(2012학년도)	60	351	42,163	
2012년(2013학년도)	58	391	43,138	정착단계
2013년(2014학년도)	66	395	46,932	
2014년(2015학년도)	65	610	59,284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명칭 변경 ¹⁾
2015년(2016학년도)	60	510	67,631	
2016년(2017학년도)	60	459	72,101	
2017년(2018학년도)	62	543	83,231	
2018년(2019학년도)	68	559	84,764	

출처: 교육부 2008~2019학년도 대입전형 시행 계획 발표 보도자료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7~2018년 지원 사업 선정 결과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입학사정관제는 대한민국 입시 역사상 가장 파격적인 변화였던 만큼, 큰 변화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크게 나타났다. 변화에 합당하게 제도가 이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내실을 기하여 많은 준비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정부의 빠른 예산 지원 확대와 아직 준비되지 않은 대학들의 실태를 지적하는 내용(경향신문, 2009.03.12.일자), 무늬만 입학사정관전형 형태로 정부 지원을 받고 실제 전형 운영은 기존 수시모집과 유사하게 시행하고 있는 대학들의 고발(경향신문, 2010.10.14.일자) 등이 기사화 되었다. 김정범(2009)은 미국과 일본 대학의 입학사정관전형을 국내 입학사정관전형과 비교하면서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교육 및 훈련을 통한 질 관리, 학교 운영의 자율성 확보 등이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급격히 제도가 확대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였다. 김명신(2009) 또한 경쟁 중심의 입

1) '입학사정관 역량강화 지원 사업'에서 '고교교육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으로 변경되면서 기존의 '입학사정관전형'은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시 교육이 만연한 우리나라 교육 문화에 외국의 입학사정관제도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입시컨설팅과 같은 또 다른 영역의 사교육 양산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부분을 걱정하였다. 이러한 우려 속에서 정부는 단기간에 제도 정착을 안정화하기 위해 질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학사정관 직무연수 및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입학사정관제 관련 다양한 연구 활동, 입학사정관제 성과 공유 컨퍼런스 등을 시행하였다. 또한 새로운 대학 입시 전형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학은 고교와 연계하여 학생들의 진로와 전공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였고, 입시기간을 제외한 기간에는 입학사정관들이 전국 방방곡곡에 소재한 고교에 방문하여 입학사정관전형에 대한 바른 정보와 준비방법 안내를 위해 교사, 학부모,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였다.

또한 정량화 되지 않은 정성적, 종합적 평가에 대한 일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수-다단계 평가를 시행하였다. 한 학생을 평가하는 평가자를 반드시 2~3인의 다수로 배정하고, 평가자 간 부여한 점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경우, 다수의 평가자들을 주축로 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등 여러 단계를 거쳐 한 학생에 대한 평가가 질적으로 타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였다. 이 외에도 제출된 평가서류는 대학 자체 내, 대학 간 유사도검색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정성 확보를 기하였다. 제도 도입부터 불거져온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러한 운영방식을 고교현장에 안내하며 입학사정관전형을 보다 내실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이후에도 입학사정관전형 운영에 있어서 많은 사건들이 존재했다. 2011년 전문계고 출신 로봇 영재로 K대 입학사정관전형에 합격하여 화제가 되었던 학생이 자살을 하였던 사건(한국경제, 2011.01.11.일자)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이를 계기로 창의력과 잠재력을 보고 선발하였지만, 정작 대학의 상황은 학생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잠재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부재한 것은 아닌지, 학생들 간의 재능과 잠재력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경쟁체제로 대학 교육과정도 여전히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대학은 입학사정관전형으로 선발된 입학생들에게 기초학업강좌, 튜터링, 생활 멘토링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초기 대학생활 적응을 돕는 데,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되었다. 그밖에도 2012년 S대 리더십 전형(입학사정

관전형)에 합격한 학생의 성폭행 가담 혐의가 입증되면서 입학이 취소가 되는 사건(서울신문, 2012.09.19.일자)이 있었다. 인성과 리더십부분이 중요한 선발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던 전형이었음에도 성범죄 가해전력을 교사, 교장, 학부모의 합의 하에 은폐하였던 것으로 사건이 드러나면서 대학입학 운영에 있어서 대학과 고교의 상호 신뢰관계에 대한 중요성이 재조명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인성부분에 대한 평가항목이 비중 있게 다루어졌고 특히 사범대학과 같은 지원자의 인성이 더더욱 중요하게 요구되는 모집단위는 별도의 인성평가를 시행하기도 하였다.

입학사정관제가 빠르게 확산되어 시행되는 가운데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었고, 이러한 사건들로 제도는 수정되고 보완되어 운영되었다.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논란은 계속 존재하였지만 입학사정관전형이 시행되면서 입시교육 위주로 획일화되었던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학생들의 꿈과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들이 도입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교육이 활성화되는 모습이 현장에 그려질 수 있었다. 일례로 고교현장에서 예전에는 “OO대학 가려면 몇 점 받아야 돼요?” 라는 질문이 주를 이루었지만, 입학사정관전형이 도입되고 나서는 “OO학과가 유명한 대학이 어디예요?”, “OO가 되려면 어떤 학과에 가야할까요?” 라는 진로와 연계된 질문으로 진학상담이 진행되었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2).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을 중심으로 진로진학 상담이 이루어지는 등 입학사정관제가 가져온 긍정적 영향은 분명하였다.

그러나 다양한 인재를 대학의 건학이념과 인재상에 따라 선발하는 입학사정관전형은 다양성만큼이나 많은 전형 개수가 존재했고, 전형의 복잡성에 대한 고교현장과 학생, 학부모의 문제제기가 공론화되었다(경북일보, 2013.07.02.일자). 그리하여 2013년 10월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이 발표되면서 대입전형 간소화 방향으로 각 대학의 전형들이 대폭 개선되었고, ‘입학사정관전형’이라는 명칭 대신 ‘학생부종합전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대학 모집단위의 특성에 따라 전형별, 전공별 역량과 인재상에 맞추어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운영하였던 입학사정관전형은 간소화 작업에 맞추어 통합되었고, 대부분의 대학들이 유사한 형태로 학생부종합전형을 운영하게 되었다. 간소화는 학생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에서 제출 서류에서도 이루어졌다. 활동보고서(포트폴리오), 교사추천서를 비롯하여 자기소개서까지도 받지 않고 학교생활기록부만으로 평가

가 이루어지는 대학이 생기기도 하였다.

이후 현재까지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대학 입학 제도에 대한 불신은 여전히 우리사회에 크게 자리하고 있다. 2016년 국정농단에 이어 교육농단까지 벌어졌다는 내용의 기사는 J양의 부정입학을 고발하고 있고(경인일보, 2016.11.16.일자), 2018년 S여고의 쌍둥이 내신조작 사건(경향신문, 2018.12.21.일자) 또한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논의를 넘어 수시전형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만연해지고 있다. 수능 이외의 전형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의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불거지고 있다. 심지어 수능이 가장 공평한 제도이며 예전의 제도로 돌아가야한다는 학부모들의 목소리(EBS 교육대토론, 2018.06.01.일자)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걸 보면, 입학사정관제가 왜 도입되었는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와 여론의 목소리에 따라 변화를 거듭해온 지금의 전형이, 과연 다가오는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함양한 인재 선발에 부합한 모습인지 돌아켜볼 필요가 있겠다.

2. 초기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 특징

입학사정관제는 지난 2007년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시행된 지 어느덧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된 초기에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입학사정관제를 운영했던 미국, 일본 등의 해외 사례에 대한 연구(양성관, 정일환, 2007; 김경범, 2009; 정진곤 2005; 박선형, 박남기, 2008; 정일환, 김병주, 2008), 국내 우수사례 공유(김승태, 2009), 제도 도입과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김현철 외, 2006; 안선희 외, 2009), 전형운영에 대한 개선점 연구(손희권, 주희정, 2009; 양성관, 2009; 김승태, 2009; 김용기, 2008; 권승아, 성태제, 2009) 등 입학사정관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연구주제가 다수 다루어졌다. 이외에도 입학사정관전형 운영을 위한 대학별 평가지표 개발(이영민, 2010), 현장에서 입학사정관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김달효, 2013; 권승아, 성태제, 2009; 김동석, 2008)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후에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문제점이 공론화 되면서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의 대학입학 후 학점(GPA)과 학교생활만족도를 큰 축

으로 대학생활적응도를 탐색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김병진, 김시라, 2013; 박승민 외, 2013; 오성배, 2015; 이광현, 권용재, 2014; 조원기, 이수정, 2016; 전경애, 2012; 노경란, 윤수정, 2012; 강기수, 2012). 일반적으로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은 학교만족도와 진로성숙도의 측면에서 비입학사정관 전형 입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며(윤성이 외, 2013; 류영철, 2013; 강기수, 2012; 박승민 외, 2013; 노경란, 윤수정, 2012), 기초학업능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이다(강기수, 2012; 박승민, 변복수, 2014). 이러한 연구 결과에 대해 잠재력, 성장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발한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의 학업성취도를 학점(GPA)만으로 가늠하는 것에 대한 불합리성이 제기되기도 하였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점 상승의 폭이 높아져(우정민, 정다운, 2012) 비입학사정관 전형 입학생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학점 차이가 없다는 연구들이 뒤따라 발표되었다(류영철, 2013).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의 기초학업능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등 대학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측면에서 많은 사업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과 비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의 학업성취도, 대학생활적응에 관한 연구는 조금씩 상이한 연구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 배경으로는 전국 단위의 자료보다는 개별 대학의 연구 자료가 대부분이기에 연구자료의 제한, 분석자료 공유의 부족으로 일관성 있는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한국 대학교육협의회, 2012)는 의견이다. 또한 초기 입학사정관전형의 모습은 입학사정관전형 안에서도 대학별, 전형별로 다양한 인재상을 표방하여 평가역량 및 반영비율을 상이하게 운영하고 있었다. 이러한 전형별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고 입학사정관전형이라는 이름으로 통칭하여 비입학사정관 전형 입학생과의 단순한 수치 비교는 많은 제한점을 가진다고 볼 수 있겠다.

입학사정관전형이 점차 대입전형의 한 유형으로 정착되면서 제도의 성과분석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윤성이 외, 2013; 주영호, 전하람, 2017; 한희진, 양정호, 2018; 우정민, 정다운, 2012)가 많이 수행되었다. 제도의 성과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들의 대학 이후의 삶과 진로에 대한 추적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입학사정관전형 출신 졸업생이 많지 않을 초기 입학사정관제 운영에 있어서는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의 학점(GPA)과 대학생활 측면에서 제도의 성과를 유추하였지만, 어느덧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 나가는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의 수 또한

많이 늘어나고 있다. 입학사정관전형 출신 졸업생의 수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진로와 취업현황에 대한 추적조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초기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의 현 주소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현 제도에 대한 개선이 수행되어야 하지만, 아직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의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수준이다.

이러한 가운데 입학사정관 전형 입학생의 대학생활과 취업, 진로를 탐구하는 주제의 연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현주, 김정미(2017)는 09학번, 10학번 초기입학사정관 전형 입학생과 비입학사정관 전형 입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 학업성취도, 졸업 후 진로, 세 가지 영역에서 비교 연구를 수행한 결과,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과 비입학사정관 전형 입학생 모두 세 가지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졸업 후 진로에는 입학전형이 아닌 대학에서의 학업성취도가 주요하게 영향을 미쳤고, 또한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의 학업성취도가 정시 입학생보다 떨어진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달리 유의미한 학업성취도 차이가 없었음을 밝혔다. 김현주, 김정미(2017)의 연구는 입학사정관제와 대학 졸업 후 진로관계를 처음으로 다룬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졸업 후 진로를 4대 보험 가입 유무에 따른 ‘취업/미취업’의 구분만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기에 진로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와 시사점 도출이 어렵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주영효, 전하람(2017)은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과 비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의 대학생활 및 졸업 후 취업 성과를 비교 연구하였다.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은 졸업 평균 학점, 취업여부, 정규직 여부, 월 평균 임금에서 비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직무-전공 일치도 측면에서는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희진, 양정호(2018) 또한 입학사정관제 입학 여부가 대학생활과 취업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졸업 학점과 전공만족 여부, 현재 취업여부와 월평균 임금을 중심으로 연구한 결과,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이 비입학사정관제 입학생보다 졸업학점과 전공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취업 성과 측면에서는 월급은 낮았으나 취업률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주영효, 전하람(2017)의 연구결과와 상이한 부분은 있으나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의 졸업학점은 비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보다 미미한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졸업할 시점에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취업률과 임금의 차이는 전공계열이나 대학소재지, 성별, 가구의 총소득 등의 요인들의 영향이지 입학사정관제 입학여부와 유의미한 영향관계는 없는 것으로 분석하였고, 이에 입학사정관제 입학생이라고 하여 노동시장에서 더 유리하거나 불리한 면이 없음을 시사하였다. 주영호, 전하람(2017)과 한희진, 양정호(2018)의 연구 모두 대부분 개별 대학 단위로 연구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한국고용패널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 대학 단위를 넘어 입학사정관제의 성과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는 의의를 가진다.

하지만 잠재력과 인성, 성장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정성적 평가를 통해 선발한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인만큼 그들의 진로와 현주소에 대한 진단 또한 정량적 수치가 나타내주는 것 이상으로 보다 질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졸업 학점, 정규직 유무, 연봉과 같은 숫자가 말해주는 것 이상으로 입학사정관제 입학생들이 어떻게 진로를 발달시켰고, 어떠한 생각으로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지 등 정량화된 수치 이면에 숨겨진 의미를 찾는 작업 또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입학사정관제의 성과분석에 있어 입학사정관제 입학생의 고교-대학-사회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거시적 접근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한희진, 양정호(2018)의 주장처럼 대학생활이나 현 취업상태의 단면만 조명하는 연구 이상으로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의 대학 입학 이전의 시간-대학시절-졸업 후 사회에서의 생활, 전체 삶을 망라하는 연구가 함께 진행될 때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올바른 진단 또한 가능할 것이라 사료된다. 입학사정관제의 성과 진단에 앞서 입학사정관전형으로 어떠한 학생들이 선발되었고, 이들이 청소년기와 대학 시절에 경험한 것은 무엇이며, 어떠한 생각과 태도를 형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의 특징은 선행연구를 통해서 유추해볼 수 있다. 김준엽 외(2013)는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과 비입학사정관 전형 입학생의 대학생활 비교 연구 결과,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은 수업참여도, 자발적 학습활동 정도, 대학 프로그램 참여도가 비입학사정관 전형 입학생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밝혔다. 강기수(2012)는 다섯 명의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활 과정과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를 수행한 결과,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은 영어와 수학 등의 기초학력은 부족하지만 대학진학 목적이 명확하였고 전공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박승민, 변복수(2014) 또한 서울 소재 대학의 입학사정관전

형 입학생 15명을 대상으로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연구 결과,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은 대학생활에서 명확한 목표의식과 주도성, 기초 학력극복의 어려움, 대학 프로그램의 높은 참여를 경험한다고 밝혔다.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은 대학 입학 후 영어, 수학 등의 기초 학업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다는 연구 결과는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의 초기 학점(GPA)이 비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보다 낮게 나타나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점상승 폭이 커져 졸업 시점에서는 비입학사정관 전형 입학생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앞서 소개한 선행연구(우정민, 정다운, 2012; 류영철, 2013)와 맥락을 같이 한다. 노경란, 윤수정(2012)과 류영철(2013)의 연구에서도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이 기초학업수행에 대한 어려움을 경험하나 비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에 비하여 졸업 이후의 진로와 인생목표가 뚜렷하며 인턴십, 멘토링, 봉사활동 등 자신의 삶과 진로를 위한 활동을 개척하는 등 도전의식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의 특징은 학습의 주체성, 주인의식, 도전 정신, 전공만족도 및 흥미도, 리더십이 높게 형성되고 있음(노경란, 윤수정, 2012; 강기수, 2012; 전경애, 2012; 류영철, 2013; 이영민, 2010; 이장익, 2012; 조동현 외, 2012)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초기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의 특징은 입학사정관전형의 인재상에 비추어 생각해볼 수 있다. 입학사정관제는 대학별, 전형별로 다양한 전형이 존재하였지만, 많은 대학의 다양한 전형들이 공통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것은 ‘자기 주도적 인재’이다. 여러 대학에서 입학사정관전형의 평가지표로 ‘자기주도성’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고, 스스로 학습동기를 가지고 도전하고 실천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자’를 선발하고자(대학별 모집요강, 김현아, 양경숙, 2011; 조범진, 2013) 입학사정관제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제시한 입학사정관제의 공통기준 평가모형에서도 학습자의 “능동적 학습 참여 확대”와 “자기주도학습”이 핵심(이호섭, 김정희, 2011)으로 제시되고 있다. 자기 주도적 학습태도를 함양한 대학생들은 학업성취도, 진로 신념, 진로성취도 또한 높게 나타나기에(전미애, 2013; 정지은, 2013), 자신의 진로를 개척하고 발달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자기주도성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이 기초 학업능력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삶과 진로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개척하는 것은 이러한 자기주도성과 연관이 있다. 자기 주도적 학습 태도 형성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필

요한 것을 적극적으로 탐색하여 실천하였고, “일반적으로 학업성취도가 높고 대 학생화에 보다 잘 적응하여 자신의 진로계획을 적극적으로 세운다” (홍아정, 2014)는 것을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자기주도성은 특히 성인교육의 특징으로 언급되어왔으나 현재는 아동교육부터 교육학 전반에서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다. 자기주도학습은 크게 ‘학습설계과정으로서 자기주도학습’ (Knowles, 1980; Tough, 1971; Grow, 1991)과 ‘학습자의 특성으로서 자기주도성’의 관점으로 설명되어진다. ‘학습설계과정으로서 자기주도학습’은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학습목표를 설정하고 학습에 필요한 환경을 구성하는 과정, 학습에 대한 평가까지를 아울러 의미하고, ‘학습자의 특성으로서 자기주도성’은 개인이 자기 주도적 학습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심리적 준비정도 (Merriam & Caffarella, 1999)를 뜻한다. 그러나 이러한 학습자의 자기주도성은 이제까지 지나치게 개인의 측면에서 강조되어왔고, 함께하는 공동체, 사회에서의 중요성이 배제되었다는 비판(송윤희, 2011; 이진화, 김진모, 2006; 조대연, 2005)이 제기되었다. 이에 자기주도성은 독립성과 자율성 이상으로 대인관계 기술, 의사소통, 학습 환경의 특성, 학습 환경에서의 상호작용, 등 새로운 특성으로 재개념화되는 논의가 이루어졌다(조대연, 2005; 박진영, 2002; 배영주, 2003; 이진화, 김진모, 2006; Park & Kwon, 2004). 특히 유일 외(2008)는 자기주도성은 진공상태에서가 아니라 학습자를 둘러싼 맥락적 상황, 사회적 환경, 공동체 안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현됨을 밝혔다. 대학들도 자기 주도적 인재 선발을 위해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협동심 등의 역량을 평가지표로 활용(대학별 모집요강)하여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홍아정 외(2014)는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수행 결과,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은 체험활동 참여와 폭넓은 대인관계 형성을 통한 자기 주도적 학습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은 청소년 때부터 체험활동 자체를 ‘즐거움’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체험활동을 통해 보다 넓은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이는 다른 체험활동으로 연결되어 자기 주도적 학습경험을 계속 확장해나갔다.

선행연구를 통해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의 특징에 대하여 이해하고, 특히 자기 주도적 태도와 학습 성향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다. 나아가 입학사정관전형 입학

생의 이러한 특성이 이후 학습과 진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자기 주도적 태도는 어디에서부터 비롯될 수 있었는지, 초기 경험을 통하여 학습하는 것은 무엇인지 등 한 층 깊게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복합적이고 심층적 차원에서 계속하여 연구가 수행되길 바란다.

Ⅲ. 연구방법

A. 내러티브 탐구

내러티브(narrative)의 어원은 ‘말하다’, ‘서술하다’는 뜻의 라틴어 ‘narro’와 ‘알다’, ‘친숙하다’라는 뜻의 ‘gharus’에서 유래되었다(김영천, 2013). 즉, 내러티브(narrative)의 어원적 의미는 ‘익히 알고 있는 것을 말하다’로 유추해 볼 수 있겠다(김경옥, 2018). 내러티브의 개념은 학자들마다 다양한 양상으로 정의되고 있다. Bruner(1986)는 “내러티브는 인간이 하는 의사소통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강력한 담화의 형태이고 지식을 획득하는 하나의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하며, “인간은 내러티브를 통해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고 하였다(김영천, 2013). Carr(1986)은 인간의 행동, 삶, 역사적 존재는 내러티브로 구성되며 이는 곧 개인으로서, 그리고 공동체로서의 삶, 모두를 경험하는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을 의미한다고 하였고, Sarbin(1986)은 인간은 내러티브 구조에 따라 생각하고 인식하며, 이를 통해 도덕적 선택을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렇게 내러티브에 대한 개념과 역할은 학자들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해석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러티브를 통해 인간의 삶과 경험을 이해할 수 있으며, 연대기적 특성으로 인해 변화하는 세계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야기를 구성한다는 것은 관계 안에서 인식하고 소통하며 의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며, 우리의 삶은 과거의 시간을 이해하고 현재를 성찰함을 통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으며 내러티브는 여기에 기능한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무수한 내러티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자신이 살아온 삶을 이야기하는 것은 스스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고, 인간은 내러티브를 통해 삶을 이해하고, 이는 앞으로 만들어갈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내러티브 탐구는 인간의 경험을 탐구하는 연구방법이다. 20세기 초까지는 인간의 경험을 객관적, 보편적 관점에서 바라보았던 전통적 실증주의가 주요한 패러다임이었다. 이러한 접근이 인간의 다양한 경험과 복잡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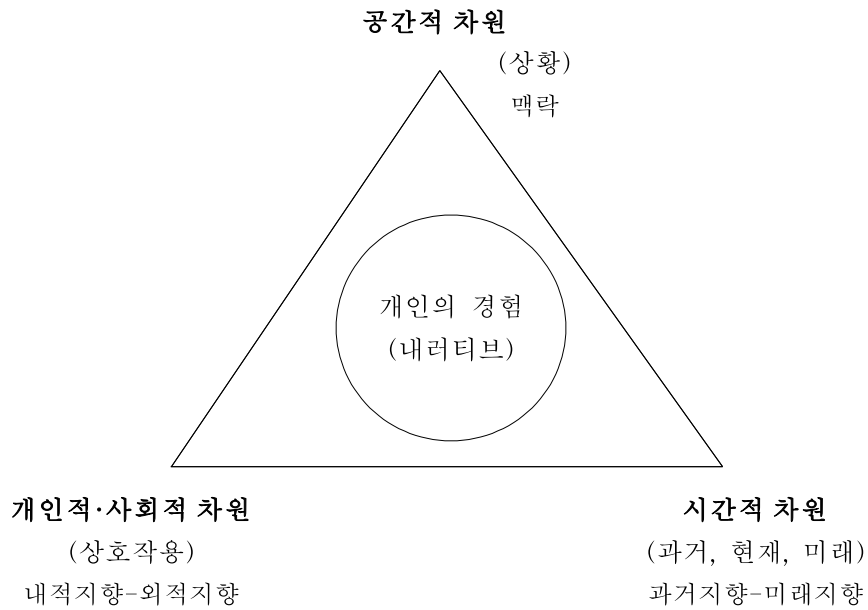
양상을 설명하는 데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내러티브 탐구(narrative inquiry)’가 새로운 질적 연구 방법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전통적 실증주의의 패러다임에서는 연구는 과학적인 과정이라는 전제 하에 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통성을 찾고 일정한 법칙을 만드는 것을 추구하였다. 1980년대 이후에 들어서면서 인간의 경험을 일반화하는 작업보다 현상의 특수성에 관심을 두고 개별 현상의 미묘한 측면과 복잡성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인식하기 시작하였다(김영천, 2013).

내러티브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기 시작한 것은 모더니즘에서 포스트모더니즘으로, 객관주의에서 구성주의로 패러다임이 전환하였던 시기와 맞물려 있다(박민정, 2006). 포스트모더니즘은 지식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여 논리적, 과학적 사고는 중요하게 강조하면서 정서적, 윤리적, 감정적인 부분들을 등한시 하였던 모더니즘 교육을 비판하였다.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다양한 관점, 사고를 바탕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고 이에 동질성, 보편성만 강조하던 기존 담론에 대한 반성이 일어났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어떠한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추상적 이론보다 그 현상을 구성하는 다양한 내러티브를 통해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였다(박민정, 2006). 또한 지식을 고정된 것으로 개념화하지 않고, 주체적 개인이 경험을 통해 지식을 구성하고 재구성한다는 구성주의 입장은 내러티브와 맥락을 함께하고 있다.

‘내러티브 탐구’는 Clandinin과 Connelly가 20여년간 교사연구를 수행하며 함께 발전시킨 연구 방법이며, 1990년 미국 교육연구 분야 학회지에 ‘내러티브 탐구’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면서 개념화하였다(염지숙, 2003). Clandinin과 Connelly는 내러티브 탐구를 발전시키는 데 듀이의 영향을 강조한다. Dewey(1938)는 “인간의 삶, 교육 그리고 경험은 불가피하게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것은 곧 인간의 경험을 연구하는 것이자 삶을 연구하는 것” (Clandinin & Connelly, 2000)이라 하였다. 삶은 무수한 경험들로 이루어져있고, 인간은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한다. 또한 경험은 이전의 경험에 영향 받고, 다음 경험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Clandinin과 Connelly는 이러한 경험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교육 연구의 출발점이자 도착점이라 여겼고, 경험을 연구의 전경(前景)에 두어 내러티브 탐구 방법을 발전시켰다(염지숙, 2003).

내러티브 탐구는 삶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다시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해 경험이 가지는 의미가 재구성된다는 점에서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의 관계가 아주 중요한 연구방법이다.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것은 단순히 연대순으로 사건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과 분석의 과정을 통해 이야기를 구조화하는 작업이다. 내러티브 탐구는 연구자와 연구참여자가 삶의 한 가운데에서 경험을 나누면서 이를 재해석, 재구성하여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이다(서경혜, 2017). 연구자는 내러티브 탐구를 통해 연구참여자의 삶의 이야기를 살고(living), 다시 이야기하고(retelling), 다시 살아내는(reliving), 성찰적 순환과정을 거친다(Clandinin & Connelly, 2000). 이러한 내러티브는 연구자와 연구참여자가 함께 만들어가기에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협력적, 관계적 연구 방법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Clandinin과 Connelly(2000)는 경험을 이해하고 탐구하는 작업은 ‘3차원적 내러티브 탐구 공간(three-dimensional narrative inquiry spaces)’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3차원적 내러티브 탐구 공간은 시간성(temporality), 장소(place), 사회성(sociality)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는 내러티브 탐구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4가지 방향, 즉 내적지향(inward), 외적지향(outward), 과거지향(backward), 미래지향(forward)에서 도출된 개념이다. 내적지향과 외적지향은 개인의 성향, 정서와 같은 내적 요소와 사회적, 제도적 조건과 같은 환경적 요소까지 망라하는 개인적·사회적 차원, 과거지향과 미래지향은 과거, 현재, 미래로 연결되는 시간적 차원을 의미한다. 인간의 경험은 시간의 연속성 상에서 일어나며, 어느 지점에서의 경험은 무수한 과거의 경험과 연결되어 있고, 미래의 경험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담아내고 있다. 또한 인간의 경험은 개인적이면서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사회와 많은 영향을 주고받기에 사회적 맥락 안에서의 경험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장소(place)는 경험이 일어나는 물리적 공간, 즉, 상황적, 맥락적 차원을 나타내며, 내러티브 탐구는 시작부터 끝까지 3차원적 내러티브 탐구 공간에서 삶을 살아가고(living), 이야기하고(telling), 다시 이야기하고(retelling), 다시 살아내는(reliving)과정을 담아 이야기를 통해 개인의 삶을 이해하는 연구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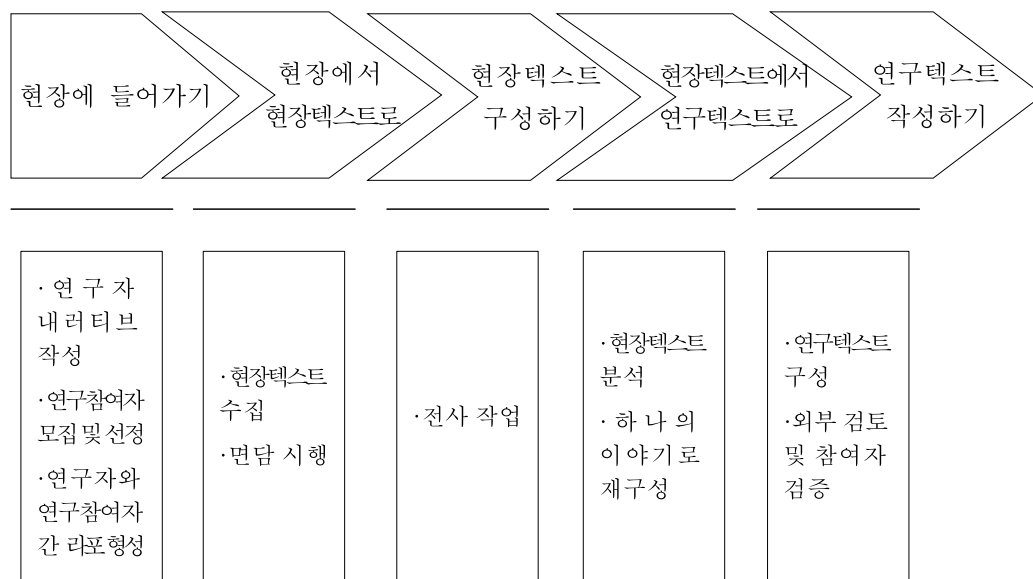


[그림 III-1] 3차원적 내러티브 탐구 공간

본 연구에서는 사회초년생이 된 초기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의 진로 발달 과정을 탐구하고자 한다. 개인이 살아온 경험이 현재의 ‘진로’와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삶의 맥락에서 경험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 총체적인 삶의 맥락에서 ‘진로’를 이야기하고, 연구참여자 개개인을 자신의 진로를 구성해나가는 주체적 존재로 인식하여 이들의 진로 발달 과정을 탐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인의 경험을 깊이 있게 탐구하고, 연구참여자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 계속하여 변화하는 진로발달과정을 탐구하는 데, 맥락적 연구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내러티브 탐구’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조각나 있던 경험들이 ‘진로’라는 유기적인 관련성으로 이야기되고, 다시 이야기되면서 연구참여자들의 독특성이 발현될 수 있는 내러티브가 구성되고,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의 재해석과 재구성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과정이 되길 기대한다.

B. 연구 절차

Connelly와 Clandinin(2000)은 내러티브 탐구의 과정을 ‘현장에 들어가기(Being in the Field)-현장에서 현장텍스트로(From Field to Field Text)-현장텍스트 구성하기(Composing Field Text)-현장텍스트에서 연구텍스트로(From Field Text to Research Text)-연구텍스트 작성하기(Composing Research Text)’ 다섯 단계로 나누어 소개하지만, 이 단계들이 정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며 단계마다 중복되어 진행되기도 한다(염지숙, 2003). 본 연구에서는 Connelly와 Clandinin(2000)의 내러티브 탐구 절차에 따라 다음 [그림 III-2]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림 III-2] 내러티브 탐구 절차에 따른 연구 진행과정

1. 현장에 들어가기

먼저, 연구 현장으로 들어가는 단계에서는 연구를 시작하게 된 동기,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참여자를 찾고 현장에 존재한다. 연구의 동기는 대부분 연구자의 개인적인 관심, 경험, 전문적인 지식에서 시작된다. 따라서 내러티브 탐구를 시

작할 때 연구자가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작성하는 것을 많은 내러티브 탐구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이 단계에서 연구자는 본격적인 자료 수집에 앞서 사전 모임을 갖고, 연구참여자와 관계를 형성한다. 본 연구가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연구와 관련된 사항들을 함께 협의해나가는 과정이다.

연구자는 연구를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먼저 연구자 자신이 초기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과 관련하여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초기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의 진로발달과정에 대한 생각과 개인적 관심, 그리고 관심을 갖게 된 배경에 관하여 글로 작성하였다. 진로와 관련하여 연구자의 관점과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를 제시하고, 이에 적합한 연구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청소년기 자신의 진로를 주체적으로 탐색하였고, 그 자격을 인정받아 대학에 입학한, 초기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 중에서 현재 사회인으로 역할하고 있는 참여자를 수소문 하였다. 먼저 연구자는 다수의 대학에서 입학사정관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입학사정관들을 만나 연구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초기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을 선발하고, 대학생활을 직·간접적으로 지켜보았던 입학사정관들에게 본 연구에 적합한 참여자가 있을지 고민을 나누었다. 그 과정에서 소개받은 연구참여자 2명과, 연구자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초기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 중에서 3명, 최종 연구참여자 5명을 선정하였다.

내러티브 탐구에서 연구참여자 개개인의 다채로운 색깔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연구참여자 5인의 전공과 진로, 출신 지역 등을 다양하게 모집하였고, 가장 최근에 학교교육 시기를 지나와 사회초년생이 된 이들의 목소리로 진로 이야기를 듣는 것이 현 우리 교육 현장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사회 경력이 3년 이하인 참여자로 한정하였다. 각 대학별 입학사정관전형의 운영은 대학의 인재상, 특성, 여건에 따라 조금씩 상이한 모습으로 운영되었기에, 입학사정관계 도입 취지에 부합하여 선도적으로 전형을 운영하였던 A대학의 B전형 출신 연구 참여자들로 구성하였다. B전형은 당시 입학사정관전형이라는 이름 하에 인재상과 평가요소가 상이한 전형이 다양하게 운영되었던 가운데, 가장 입학사정관계 특성이 강한 전형이다. 고교내신 성적을 정량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1단계 서류(학생기록부, 포트폴리오 등) 정성평가, 2단계 면접의 단계로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면접의 형태 또한 지원 전공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되었다. 자기 주도성과 전공적합성을 바탕으로 창조적이고 실천적인 인재상을 표방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5인의 연구참여자와 연구자 간의 라포(rapport) 형성 상태가 모두 상이했으므로, 본격적인 면담 이전에 사전 모임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사전 모임에서 본 연구와 관련된 전반적인 상황을 협의하고, 이러한 협의는 연구 진행 과정에서 얼마든지 다시 논의되고 변화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와의 대화를 통해 본 연구는 ①학창시절 수능 중심 문화에서 주체적으로 진로 탐색을 하고, ②입학사정관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진로를 발달시켜, ③현재 프로티언 커리어 태도를 가지고 사회에서 자기의 역할을 하고 있는, 즉, 삶의 주체적 존재로 능동적으로 진로활동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로 연구 방향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의 근무 시간과 여건에 따라 면담 일정과 장소를 결정하였고, 사전 모임을 제외하고 연구참여자별 인터뷰를 각각 3~4회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들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표 III-1> 연구참여자 소개

참여자 이름 (가명)	전공	진로현황(현 직업)	성별	대학 입학 연도	연령
최신유	컴퓨터공학 전공 앙트러프리너십 복수전공	앱 개발자 연구소 설립지원 정부주도프로젝트 연구원 크리에이터 등	남	2011	27세
김예별	신문방송학 전공 국어국문학 복수전공	지상파 리포터	여	2011	28세
오보람	사학 전공 문화기획 연계전공	민주화 운동 관련 공공기관 재직	여	2012	26세
이현율	법학 전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관기관 재직	남	2011	27세
김온아	교육학 전공	입학사정관	여	2012	26세

가. 연구참여자 최신유

최신유는 ‘노마드 워커’²⁾의 삶을 다룬 책에 사례자로 소개가 될 정도로 다양한 일을 하며 살고 있다. 연구소나 회사 설립 시 홈페이지 제작 등을 비롯한 토대를 마련하는 일, 대학시절부터부터 계속 해왔던 앱 개발자로서의 역할, 정부 주도 프로젝트 연구자 등 ‘기업’과 ‘컴퓨터’의 연결고리가 되는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만의 길을 추구하고 있다. 최신유는 유년 시절부터 컴퓨터와 보내는 시간이 상당히 많았었고, ‘프로그래머’라는 꿈을 안고 ‘컴퓨터공학’ 전공으로 대학에 입학하였다. 전공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면서 ‘기업’에 대한 관심과 흥미로 ‘앙트러프러너십’³⁾을 복수전공 하였고, 대학을 졸업한 지금까지도 이 분야에 대해서 계속하여 공부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 최신유는 자신에게 멘토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 이야기하고, 자신이 멘토가 되어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을 주며, 자신이 하는 일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영향에 대해 항상 생각한다.

‘취업난’이라는 용어가 생기고 청년들의 극심한 취업난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요즘, 최신유는 생각을 달리하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컴퓨터와 많은 시간을 보내왔던 자신의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며 자신에게 부족했던 점을 찾고, ‘아날로그’적 가치를 추구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이다. 최신유는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려고 늘 노력한다. 진로를 어떠한 하나의 직업으로 규정하고자 하지 않고, 배우고 성장하는 것에 가치를 두며 자신만의 진로로 나아가고 있다.

연구자가 기억하는 최신유는 대학 재학 시절, 대학 행정실의 선생님들과도 연락

-
- 2) ‘노마드 워커(nomad worker)’는 유목민이라는 뜻의 ‘노마드(nomad)’에서 따온 신조어로 휴대용 기기(핸드폰, 태블릿PC 등)를 이용해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넘어, 이동하며 일하는 프리랜서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노동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시사상식사전).
- 3) 앙트러프러너십(Entrepreneurship)은 우리말로 ‘기업가 정신’이라 번역되고 있으며, 기업가가 새로운 기술과 혁신 도모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하는 정신을 뜻한다. 앙트러프러너십은 기업의 성장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넉넉한 자본이 아닌 혁신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과 기회를 추구한다. 대학에서 앙트러프러너십 전공은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전략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지향하며, ‘창업마케팅’, ‘사회적기업창업’, ‘글로벌기업환경’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을 주고받으며 지냈었고, 연구자에게도 간혹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메일을 보내오고는 했었다. 연구자가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 모집으로 연락을 취했을 때에도 연구의 과정을 통해 스스로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하며 흔쾌히 참여해 주었었다. 기성세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목표, 성공의 기준이 아닌, 자신만의 소신과 가치로 진로를 나아가고 있는 최신유는 프로티언 커리어 태도가 가장 두드러지는 연구참여자이다.

나. 연구참여자 김예별

김예별은 어릴 적부터 방송 분야에서 일하고자 하는 목표가 아주 뚜렷했던 연구참여자이다. 현재 지상파 방송국에서 리포터로 활동한지 3년차에 접어들었으며, 지난 자신의 시간을 돌이켜 보았을 때 스스로도 오직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왔다고 이야기한다. 김예별은 초등학생 때 우연한 기회에 마이크를 잡고 무대에 서게 되면서 방송인이 되고자 결심하였다. 학창시절 방송부 활동과 학교 및 지역 행사에서 사회를 보는 역할을 하며 자신의 꿈을 키워나갔다. 고등학생이 되면서 자신이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스스로 목표한 대학에 입학해야한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는 방송에 대한 열정으로 그동안 제쳐두었던 학업에 몰두하기 시작하였다.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스스로 깨닫고 열심히 하고자 노력하였지만, 갑작스레 시작한 학업이 녹록치 않았다. 목표했던 기대만큼 결과를 나오지 않았고, 학교 선생님도, 부모님도, 친구들도 모두가 만류하였지만 김예별은 재수를 결정하고 다시 도전하여 뜻한 바를 이룬다.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고 바래왔던 대학인만큼 학교에 대한 애교심은 대학을 졸업한 지금 까지도 김예별에게 크게 자리하고 있다.

김예별은 대학 입학 이후에도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먼저 걸어간 선배들의 이력과 활동을 알아보고, 그 발자취를 따라가고자 다양한 대외활동을 하며 보냈다. 김예별의 진로 여정에는 무척 힘들었던 시간도 존재했지만, 꿈에 대한 열정과 뚜렷한 목표의식으로 자신의 길을 나아갈 수 있었다. 현재 3년차 리포터로 꿈에 그리던 방송 일을 마음껏 하며 능력 발휘하고 있다. 꿈에 대한 열망이 무척 컸었던 김예별은 꿈을 위해 걸어온 길이 자신을 더욱 성숙하게 해주었다고 이야기한다.

다.

연구자가 연구참여자 김예별을 처음 만났을 때 받은 인상은 밝고 쾌활하다는 이미지였다. 연구자가 질문을 하기도 전에 스스로 흥미를 풀어놓고,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것을 좋아하였다. 인터뷰를 통해 잊었던 과거의 기억을 떠올릴 수 있음에 기뻐하고, 인터뷰를 하는 시간에도 많은 의미를 두고 있었다. 지금 하고 있는 리포터 활동을 가능한 오래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작가로서의 제 2의 진로를 위해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다. 연구참여자 오보람

오보람은 대학에서 사학을 전공하고 현재 민주화 운동 관련 공공 기관에 재직하고 있다. 오보람은 청소년 시절 ‘역사 덕후’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역사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였다. 오보람은 역사에 대한 관심과 흥미의 배경을 자신의 유년시절을 보냈던 ‘광주’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였다.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가족을 수소문하는 영상을 tv에서 마주하고, 국립 5·18 민주 묘지로 소풍을 갔었던 어릴 적 기억을 꺼내었다. 단순한 호기심에 민주화 운동에 대해 아버지께 여쭙보았지만, 이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은 오보람은 스스로 자료를 찾아보고 알아보고자 했던 것이 오보람의 삶으로 역사가 들어온 순간이었다. 역사에 대한 관심은 오보람이 성장하고 학습할수록 더욱 다양하게 확장되었고, 청소년 시절 역사와 관련된 교내외 대회에 참여하고 독서토론을 하면서 사학을 전공으로 공부하고자 결정할 수 있었다. 대학 입학 이후에도 문화재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진로에 대한 탐색활동을 이어나갔다.

오보람은 희망하는 직업이나 진로를 결정하기에 앞서 비슷한 환경에서 실무경험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영향을 받는 모습과 함께, 그 환경을 스스로 구성하고자 노력하며 진로를 나아가는 모습이 유독 돋보인 연구참여자이다. 오보람은 현재 재직하고 있는 민주화 운동 관련 공공기관에 입사하게 되면서 자신의 진로를 수정하였고, 구체화된 진로에 맞추어 미래를 그리고 있다. 오보람은 현 직장에서의 현장 경험을 쌓고 가까운 미래에 대학원에 진학하여 학업을 병행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근현대사 전문가가 되기 위해 오보람은 입

사 이후에도 끊임없이 학습하고 성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라. 연구참여자 이현율

이현율은 고등학생 때 지역행사에 참가하였다가 EBS에서 ‘법과 사회’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우연한 기회를 통해 ‘법과 사회’ 과목의 조교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고, 아르바이트 경험은 ‘법과 사회’ 전자책을 출간하는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이현율은 법에 대한 흥미와 사회에 대한 관심으로 검사의 꿈을 안고 법학과에 진학하였지만, 법과대학 진학 후 사시가 폐지되면서 진로에 대해 다시 고민하게 된다. 고민의 과정에서 이현율은 고등학생 때 전자책을 출간하면서 알게 되었던 ‘지식재산권’⁴⁾을 떠올렸고, 더 공부해보면서 ‘지식재산권’ 전문가로 진로를 수정하여 나아갔다. 대학생 시절, 정부 산하 기관에서 정책을 시행하고 홍보하는 과정에 참여하여, 법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일을 하고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 지 고민할 수 있었다. 또한 대학생 때부터 ‘지식재산권’ 분야를 강의하는 전문 강사로 활동하면서 경험을 통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진로를 보다 구체화하였다.

연구자가 기억하는 이현율의 대학시절은 다양한 교내외 활동으로 늘 분주했던 모습이다. 잠을 자는 시간까지 쪼개어 다양한 활동을 책임감 있게 해내는 믿음직스러운 학생이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참 알차게 쓰는 학생이었고, 어떤 진로를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했던 학생이었다. 연구자가 연구를 위해 연구참여자에게 연락하였을 때 이현율은 자신의 이야기가 연구에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며 몇쩍어 하였다. 당시 이현율은 제대 이후 계속하여 ‘지식재산권’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인터뷰 과정 중에 현재 재직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

4) 지식재산권은 지적재산권, 지식소유권이라고도 명명하며, “문학, 예술 및 과학 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 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 등록상표, 상호 등에 대한 보호 권리와 공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지적재산권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크게 분류되며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해야 보호되고, 저작권은 출판과 동시에 보호된다.” 최근에는 기술과 문화의 발달로 지식재산권의 범주가 더욱 다양해지고 있으며,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유전공학 기술 등의 보호방법과 보호범위가 과제가 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서, 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장하고 있다.”(두산백과).

부 유관기관에 입사하게 되었다. 현 직장에서의 시간 역시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고자 하는 자신의 꿈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하는 이현율은 직장을 가지고, 어떠한 기관에 입사하는 것은 결코 중착지가 아니라 과정의 지점이라고 이야기한다. 현장에서의 경험을 통해 다양한 역량을 기르고 끊임없이 학습하고 성장하는 이현율이 그리는 앞으로의 진로여정이 더욱욱 궁금하다.

마. 연구참여자 김온아

김온아는 학창시절, 교육에 대한 관심으로 막연히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꿈꿔왔다. 특정 교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자하기보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을 보내오며 마주할 수 있었던 다양한 교육적 상황에 대해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었다. 이러한 관심으로 대학에 입학할 때에도 특정 교과교육학 과가 아닌 ‘교육학과’로 진학을 결정하였다. 학창시절은 김온아가 교육 전반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환경들로 가득했었고, 교육이란 어떠한 것인지 스스로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었다. 김온아는 교육 관련 독서와 영화 등 다양한 접근을 통해 본인의 생각을 넓혀나갔고, 이러한 생각과 고민거리들을 친구, 선생님들과 토론해보고, 직접 교육봉사 경험을 하면서 교육에 대한 자신의 관점과 생각을 확장하였다.

교육에 대한 관심으로 막연히 ‘선생님’이라는 진로를 결정했었던 김온아는 대학 입학 면접 자리에서 생각의 전환을 경험하게 된다. “교육학을 공부해서 할 수 있는 일, 선배들의 진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라는 면접관의 질문은 막연히 ‘선생님’을 자신의 직업으로 생각했던 김온아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 해주었고, “교육학과에 들어오면 할 수 있는 진로가 학생이 생각하는 것보다 다양하다”는 면접관의 이야기를 가슴에 두게 되었다. 김온아는 실제로 대학 입학 이후에 어떤 진로가 있는지 보다 폭넓게 알아보고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자 노력하였다. 진로에 대한 고민은 대학교 3학년 때, 대학 측에서 마련해 준 진로멘토링프로그램을 통해 ‘입학사정관’이라는 진로 결정으로 이어졌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수학한 뒤, 모교의 입학사정관이 되었다. 김온아는 교육에 대한 자신의 신념과 소신을 실현할 수 있는 직업으로 ‘입학사정관’을 선택하였고, 현

재 입학사정관으로서 현장에서 전문성을 기르고자 노력하고 있다.

김온아와의 인터뷰는 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치고 입학사정관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였던 연구자와의 공통점으로 인해 더욱 풍요로운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같은 나이에 ‘입학사정관’ 일을 시작한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김온아는 당시 가지고 있던 고민들, 예컨대, 교육적 소신과 신념에 대한 문제, 전문성에 대한 입장, 새내기 입학사정관으로서 겪는 고민과 내적 갈등 등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감하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

2. 현장에서 현장텍스트로

이 단계는 연구자가 현장에 들어가서 현장텍스트를 쓰는 일을 생각하는 단계이다(염지숙, 2003). Connelly와 Clandinin(2000)은 현장에서 현장텍스트로의 이동을 사랑에 빠짐(falling in love)과 냉철한 관찰(cool observation)이 반복되는 단계로 설명한다. 연구자가 현장에 들어가서 연구참여자들과 함께할 때에는 연구참여자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함께 경험하는 시간이다. 이러한 시간 이후에 현장에서 벗어나서는 한걸음 물러나 보다 큰 맥락에서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이해하고, 연구자의 관점에서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완전관여(full involvement)와 거리두기(distance)가 구분되어 반복되면서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삶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도록 노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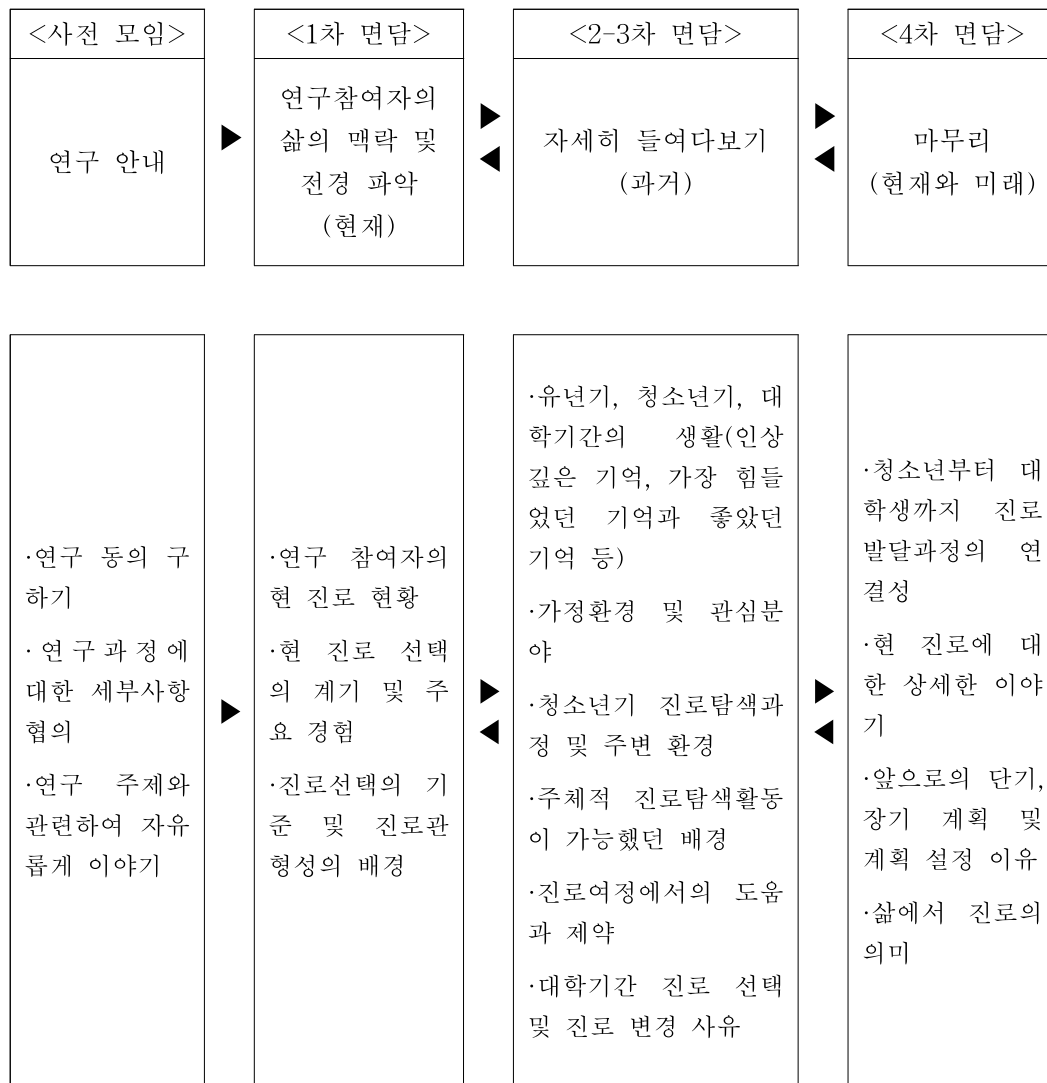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8년 5월부터 9월까지 이루어졌고, 연구텍스트를 작성하면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추가적인 면담이 이루어졌다. 면담 횟수는 사전모임을 제외하고 연구참여자별 3~4회로 이루어졌고, 그 외에는 필요시 이메일이나 메신저를 추가적으로 활용하였다. 면담 장소는 연구참여자가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연구참여자의 일터에서 벗어난 지역으로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정하였고, 녹음하기 용이한 스터디룸, 조용하고 한적한 카페 등에서 이루어졌다. 평균적으로 면담은 한번 만날 때 2시간가량 소요되었고, 1시간가량은 반구조화된 인터뷰 질문지를 준비해서 본격적으로 면담을 진행하고, 나머지 1시간은 면담이 이루어지기 이전이나 이후에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면서 일상적인 이야기를 비롯하여 다양한 소재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때, 면담의 연장선으로 이야

기가 이어지기도 하였고, 자신의 삶의 경험을 나누고 이야기하는 자리인 만큼 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녹음기가 작동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대화중 유의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나 추후 연구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는 연구참여자와 헤어진 직후, 휴대폰 메모장을 통해 바로 메모 하였고, 연구참여자와의 면담 이후에는 면담의 분위기와 다음 면담에 더 신경써야 할 부분, 연구자 스스로에 대한 반성 등에 대하여 ‘연구자 성찰 일지’를 작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와의 심층면담이 주된 자료로 활용 되었고, 이 외에도 연구참여자의 고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이력서, 고교생활 및 대학생활 활동보고서 등 다양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수집하여 연구참여자와의 면담을 진행하는 데 보조자료로 활용하였다.

김영천(2003)은 심층면담은 인간의 삶의 경험과 감정을 이해하는 데에는 효과적인 자료수집 방법이며, 사회현상과 인간의 행위를 총체적, 맥락적으로 이해하고, 자기성찰과 내적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설명한다. Seidman(2007)은 성공적인 심층면담은 최소한 세 번 정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면담 방법 가이드는 연구 상황과 여건에 따라 절대적인 지침이 될 수는 없지만, 첫 번째 면담을 통해 연구참여자의 생애사에 주목하여 경험의 맥락을 정립하고, 두 번째 면담에서 경험의 세부사항을 재구성하며, 세 번째 면담에서는 경험의 의미를 숙고하도록 단계별 면담 진행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전모임을 제외하고 연구참여자별로 3~4회의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사전모임은 연구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며 연구동의를 구하고, 연구 과정에 대해 협의를 하는 자리였다면, 본격적으로 시작된 첫 번째 면담에서는 먼저 연구참여자의 현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또한 자신의 진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가치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지, 선택의 기준점이 되어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떠한 진로관을 형성하고 있는지 연구참여자의 ‘현재’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고, 현재의 진로를 있게 한 주요한 경험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다. 두 번째 면담부터는 연구참여자의 유년시절, 학창시절, 대학시절로 돌아가서 연구참여자의 과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였고, 그 가운데 첫 번째 인터뷰에서 주요한 경험으로 언급되었던 소재가 등장할 때는 보다 깊이 대화를 나누었다. 이후 면담에서는 다시 연구참여자의 현재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와

앞으로의 미래 방향에 대한 이야기로 면담의 과정을 일단락 지었다. 물론 이러한 면담의 순서와 과정에 얽매이기 보다는 연구참여자와의 대화의 흐름, 상황, 등장하는 소재에 맞게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III-3] 본 연구의 심층면담 진행 가이드

3. 현장텍스트 구성하기

현장텍스트(field text)는 일반적인 다른 연구에서 데이터 또는 자료라고 일컫는 것을 말한다. 내러티브 탐구에서 ‘데이터’, ‘자료’라는 명칭 대신 ‘현장 텍스트’라 명명하는 이유는 데이터와 같이 발견하거나 찾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와 연구참여자로부터 창조된 것, 즉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의 관계 속에서 재구성되어 현장 경험의 양상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Connelly & Clandinin, 2000).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의 동의하에 면담 내용을 녹음하였고, 연구참여자의 표정이나 행동 등, 녹음기에 담겨지지 않은 부분들 중 특이사항은 메모를 하였다. 면담 과정의 말미에는 항상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지, 생각했었는데 이야기 되지 않은 내용은 없는지, 연구참여자에게 묻고, 진행된 이야기들을 되짚어 생각해본 이후 면담을 마무리하도록 하였다. 녹음된 면담은 면담이 진행된 당일 혹은 그 다음날까지 연구자가 직접 모든 전사 작업을 완료하여, 면담의 현장을 가능한 생생하게 담아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전사 작업 시 녹음된 면담 내용을 반복하여 들으면서 떠오르는 아이디어나, 궁금증이 생긴 부분은 메모하여 다음 면담에서 더 이야기될 수 있도록 하였다. 김영천(2013)은 전사 작업 또한 분석 작업의 과정이라 하고, 전사 작업을 통해 연구자는 자료의 종합적인 감각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박승민 외(2012) 또한 면담자와 관계를 형성하고 면담 시간을 가진 연구자가 연구참여자의 언어적, 비언어적 정보를 파악하고 있기에 직접 전사하는 것이 연구에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 한다. 연구자는 전사 자료를 읽으며 연구참여자들의 진로가 삶의 경험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삶의 주제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생각하며 현장텍스트를 구성하고, 관련 아이디어를 전사 자료의 여백과 메모장에 틈틈이 기록하였다.

4. 현장텍스트에서 연구텍스트로

현장 텍스트에서 연구 텍스트로의 이동은 연구의 가장 중심으로 들어오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단계이다(Connelly & Clandinin, 2000). 연구자는 현장텍스트에서 연구텍스트로 나아가기 위해 본 연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한다. 개인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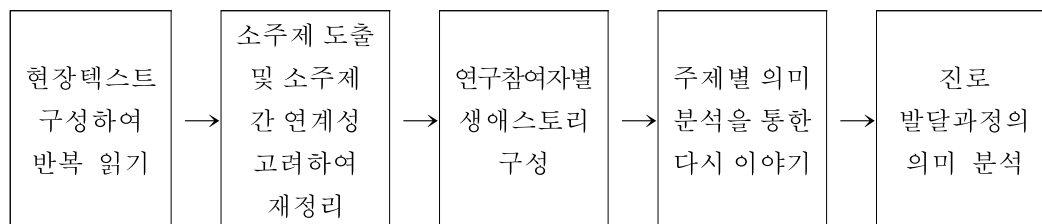
관심과 경험에서 시작된 내러티브 탐구가 사회적으로 어떤 의의를 지닐지 고민한다. 의미와 의의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연구자는 끊임없이 자기 성찰적 질문을 던지며 질문에 대한 답을 한다. 이 단계에서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와 친밀했던 (Falling in Love) 관계를 접어두고 한 발자국 물러나, 현장텍스트를 반복하여 읽으며 의미를 구성하는 작업을 한다. 이는 참여자와 소원해지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의 관심이 현장텍스트를 통해 참여자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으로부터 연구 텍스트를 통해 참여자의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하는 것으로 옮겨가야 함을 의미한다” (염지숙, 2003).

이 단계에서는 본격적으로 연구텍스트를 구성하기 시작하는 것에 주의를 집중한다. 내러티브 탐구에서 해석은 현장텍스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면서 이루어지고, 현장텍스트를 읽으며 그 안에 담겨진 줄거리, 패턴, 주제 등을 연구자의 경험이나 이론에 비추어 다시 읽으며 반복적, 순환적 과정을 거치게 된다. Connelly와 Clandinin(2000)은 내러티브 탐구에서 연구 텍스트 작성하기를 풍부한 묘사를 동반하는 하나의 이야기 구성(narrative construction)이라고 지칭한다. 현장텍스트의 내용을 단순히 정리하거나 공통 범주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 중간, 결말로 이어지는 줄거리(plot) 구성에 중점을 두고 현장텍스트가 하나의 이야기로 재구성되는 작업이다. 해석과 분석의 과정에서 연구자는 삶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내러티브 탐구인 만큼 단편적인 해석과 일반화로 인해 연구참여자의 삶의 독특성이 무시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이야기를 유년시절, 청소년시절, 대학시절, 사회인이 된 현재와 미래 계획 등 연대순으로 배열하고, 연구참여자의 진로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 경험들에 보다 주목하였다. 전체적인 진로 여정에서 연구참여자의 삶의 경험에 어떤 의미를 갖고, 진로와 어떻게 연관되어 나타나고 있는지에 주안점을 두어 연구참여자의 생애 이야기(story)를 구성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삶의 경험이 담아내고 있는 내용을 잘 표현해줄 수 있는 소주제를 도출하고, 총체적인 관점에서 소주제 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작성된 텍스트를 연구참여자와 함께 읽고 다시 이야기 나누는 과정을 반복하며 현장텍스트에서 연구텍스트로 나아가고자 하였다. 또한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책과 자료를 탐독하고 진로 이론을 고찰하며 연구참여자들의 삶의 경험을 보다 풍부하게 해석하고자 하였다.

고, 연구 문제에 따라 연구텍스트를 재구성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표 III-2> 본 연구의 ‘현장텍스트에서 연구텍스트로’ 이행 과정



5. 연구텍스트 작성하기

선행된 네 단계를 바탕으로 연구텍스트를 작성하는 단계이다. 연구자는 연구텍스트를 구성할 때, 목소리(voice), 서명(signature), 독자(audience)에 대한 고려가 수반되어야 한다. 인간의 삶의 경험을 하나의 이론으로, 하나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계속하여 변화하는 그 모습을 담아내고,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한 맥락을 고려하여 연구텍스트를 작성한다. 내러티브 탐구에서 연구자는 자신을 얼마만큼 드러낼지 고민하고 자신과 연구참여자의 목소리가 균형 있게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연구가 그저 연구참여자의 말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게, 또는 지나치게 연구자의 목소리에 연구참여자의 목소리가 덮이지 않게,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 또한 본 연구의 독자가 누구인지 다시 상기하고 어떤 의의와 가치를 담아낼 수 있을지 고민하여 연구텍스트를 구성한다.

연구자는 3차원적 내러티브 탐구 공간(시간성, 장소, 사회성)을 고려하여 연구참여자들의 내러티브를 재구성 하였다.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 총체적 삶의 맥락에서 진로 경험을 조망하여 먼저 연구참여자별 생애 이야기를 작성하였다. 작성된 생애 이야기는 연구참여자와의 추가 면담을 통해 공유하였고, 필요에 따라 보다 세부적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전체 이야기 구성의 맥락을 함께 검토 하며 보완하였다. 이들의 생애 이야기 안에서 진로발달과정의 의미를 찾고자 하였고, 연구자의 해석을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하였다. 작성된 연구텍스트는 연구참여자들

과의 의견 공유를 통해서, 현장텍스트 재검토를 통해서, 연구 초기 설정해놓은 연구의 목적과 의미를 되새기며 순환적인 과정을 통해 진행되었다. 또한 연구자의 개인적 관심에서 나아가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지 고민하며 연구 텍스트를 작성하려 하였다. 독자의 입장에서 과도한 은유로 연구텍스트를 읽을 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의 목소리가 균형 있게 담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Connelly와 Clandinin(2000)은 연구텍스트 작성에 앞서 다른 내러티브 탐구를 읽으며 내러티브 형식을 재구성해보고 자신의 현장텍스트를 넣어 상상해보는 과정이 기존의 형식주의적, 환원주의적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연구자는 다양한 주제의 내러티브 학위 논문을 탐독하였고, 내러티브 탐구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깨어있음(wakefulness)’을 상기하며 연구과정에 내러티브 탐구자로서의 고민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작성된 연구텍스트는 참여자 검증(members checking)과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박사수료생 2인의 검증을 통해 보다 완성도 있는 연구텍스트 작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C. 연구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살아온 삶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개인의 가정환경에 대한 내용 또한 한 부분으로 다루어지고 있기에 연구의 ‘윤리적 고려’는 민감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에 본 연구의 시작에 앞서 연구자는 이화여자대학교 연구윤리센터에서 제시하는 ‘동의서 및 설명문 작성 안내’에 따라 연구목적, 연구 기간, 연구절차와 방법, 연구 참여의 자율성, 개인정보 제공 및 보호에 관한 사항, 자율적 참여 및 동의 철회 등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여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연구자는 면담에 앞서 연구참여자와의 개별 사전 만남을 통해 연구 진행에 대해 설명을 하고 연구 동의를 구하였다. 연구 참여 동의서에는 동의일자, 기재를 기재하고 자필 서명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서명된 연구 참여 동의서 사본은 연구 참여자에게도 제공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가명을 사용하고 있으며, 직장명, 활동명, 출신지역 등에 대해서는 연구참여자들에게 불이익이나 곤란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연구참여자와의 상의를 통해 심사숙고하여 작성하였다.

연구의 시작과 끝맺음까지 연구의 윤리적 고려가 지속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연구 진행 과정을 연구참여자와 공유하였다. 작성된 연구텍스트는 연구참여자와 공유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측면에 대해서 연구 초기뿐만 아니라 연구텍스트 작성 이후에도 재차 확인을 통해 검토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 참여에 대한 사례는 관계성을 고려하여 식사 대접과 소정의 선물 등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다.

D. 연구의 엄격성

연구의 엄격성은 본 연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과 직결되는 만큼 그 중요성이 크다. 연구자는 연구자로서의 준비와 기본에 충실한 연구 절차를 통해 연구의 엄격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먼저 연구자는 박사과정 중 두 과목의 ‘질적연구방법론’을 수강하였고, 한 편의 질적연구논문을 게재하였다. 또한 질적연구방법론 워크숍에 5회⁵⁾ 참석하였고, 질적연구방법 관련 저서와 내러티브 탐구를 활용한 다수의 논문을 읽고, 동료연구자들과 토론 시간을 가져왔다. 질적연구 수행 경험이 있는 동료 연구자 6인과 세미나 모임을 결성하여 본 연구의 주제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과정과 작성된 연구텍스트는 질적연구 경험이 풍부한 지도교수의 지도와 자문, 그리고 박사 수료생 2인의 검토를 통해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다음으로 연구참여자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관계 형성에 주의를 기울였다. 내러티브 탐구는 총체적 삶의 맥락에서 경험을 이야기하고, 다시 이야기하는 연구이기에 연구참여자와의 라포 형성 및 협력적 관계가 중요하다. 먼저, 연구자 자신의 내러티브를 작성하여 편견이나 왜곡된 정보에 대한 점검 시간을 가지고, 연구

5) 서울대학교 교육학 질적 연구방법론 2018년 동계 특강(2018년 2월 19-23일).

참여자와의 심층 면담에서 경청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연구 과정에서는 ‘연구자 성찰 일지’를 작성하여 면담 직후 스스로에 대한 반성과 다음 면담을 위한 성찰을 기록하고, 질적연구자로서의 스스로의 모습을 점검하였다. 녹음된 인터뷰는 전체 분량 모두 연구자가 직접 전사 작업을 수행하여 면담자료의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고, 현장텍스트에서 연구텍스트로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을 연구참여자와 공유하여 피드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자는 내러티브 탐구에 대한 학습의 폭을 확장하고 연구자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내러티브 탐구에서 비판적인 타인의 역할이 강조되는 만큼(Woods, 1993b) 외부 점검과 참여자 검증을 통해 본 연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주의를 기울였다.

Ⅳ. 프로티언 커리어 인재의 삶의 경험과 진로 이야기

직업세계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변화의 속도가 더욱 가속화되는 앞으로의 시간에는 무엇 하나 보장되기가 어려운 환경이다. 국가가, 기업이 개인의 길을 안내해주고 삶의 안정성을 제공해주지 못하기에, 이제는 개인이 갖는 책임감과 주체적 태도가 더더욱 요구되고 있다. 사회에서 주어지는 내러티브가 아닌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변화무쌍한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 개인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지만, 자신의 환경 또한 의지와 노력으로 변화시키고 이에 다시 영향을 받으며 살아간다. 때로는 개인의 노력으로 변화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때로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자신의 삶을 그려내기도 한다. 이 장에서는 각기 다른 배경과 전공을 가진 초기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의 진로발달과정을 그들의 삶의 맥락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프로티언 커리어 태도를 함양하고 사회에서 역할하고 있는 이들의 현 진로, 가치관 및 태도, 그리는 미래는 과거 경험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탐색해보고자 한다. 연구참여자들의 유년시절 가정배경, 청소년기 진로 탐색과 학교생활, 대학 입학 이후 진로 선택과 진로관 형성, 사회생활 및 미래포부 등의 이야기를 시간성, 공간성, 관계성의 삼차원적 공간에서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주체적 개인으로 환경과 조우하며 자신만의 내러티브를 만들어가고 있는 5인 5색의 이야기를 시작하겠다.

A. 변화무쌍한 환경을 기회로: 노마드워커 최신유 이야기

1. 힘들었던 유년시절의 현실도피적 몰입

최신유는 유년시절을 ‘어둡고 힘들고 불편했던 시간’으로 회상한다. 최신유가 초등학생이던 90년대 대한민국은 IMF 외환위기에 접어들었던 시기이다. 국가의 경제 위기는 기업의 구조 조정에 따른 노동자 해고로 이어졌고, 최신유의 가족에게도 너무나 많은 영향을 미쳤다. IMF 외환위기로 인해 최신유의 아버지는 실직 하였고 알콜중독자가 되었다. 매일매일 고성으로 가득 차게 된 가정의 분위기는

어린 최신유를 힘들게 하였다. 성인이 된 최신유는 그 시절을 회상하면 가정의 어두운 분위기뿐만 아니라 그 때 살았던 동네의 환경, 분위기, 크고 작은 사건들이 함께 생각난다고 한다. 성인이 된 최신유가 유년시절을 어두웠던 장면으로 인식하고 있는 배경에는 암울하게 느껴졌던 가정 분위기뿐만 아니라 최신유의 주변에서 일어났던 사건들, 살고 있는 동네의 분위기, 지역의 정치적 성향 등이 복합적으로 얹혀있다.

아.. 그.. 제 또래에.. 90년대 또래에..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들 알 만한 경제 위기.. (☞ 면답자: IMF?) 네네. 그 상황에 놓였고, 저희 부모님은, 그 중에서 아버지는 금형 엔지니어셨어요. 근데 이제 그 사슬에서 가장 아래에 계셔서 어음을 폭탄을 맞으시고, 알콜중독자가 되셨어요. 그리고 뭐.. 그런.. tv에서 볼 수 있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을 제 동네나 집에서 많이 목격하다보니까 저한테까지 왔구요.

그분들 대표되는 이미지가 좀.. 격하시고.. 그분들은 이제 지역에서 50%이상 당선된 분들이시잖아요. 그분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동네 자체가.. (중략) 그런 동네에서 크다 보니까.

그러다보니까 학교나 집, 그리고 또 이제, 큰 사건들은 제 집에서 30분만 걸어가면 되는 곳에서 가스폭발로 길 가다가 사람들이 너무나 어이없이.. 그런 사건도 있었고, 지하철에서 도망가서가지고, 지하철에서 문 닫고 가서가지고 다 질식했던.. 그런 사건도 있었고..

최신유의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사건이 일어났고, 이웃 사람들이 사고를 당했던 기억, 그 지역을 둘러싼 격한 정치적 분위기, 그로 인해 어린 최신유가 느꼈던 불안함과 암울함은 유년시절을 기억할 때 함께 회상되었다.

제가 그.. 어린 시절에.. 조금 유별나게 인터넷과 온라인에 몰입하면서 현실에서 혼자서 고립되어 갔어요. 왜냐면 제가 자란 환경이 좀.. 지역적인 배경,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문제들은 최신유가 어린 시절을 더욱 암울하고 힘겹게 기억하게 만드는 데 영향을 미쳤다. 현실의 상황들은 어린 최신유가 견뎌 내기에는 너무나도 힘들었고 그러한 현실을 피하기 위해 최신유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몰입’이었다. 최신유에게는 현실의 상황을 뒤로하고 다른 생각을 하며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이 필요했다. 집중하여 몰입하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방과 후 시간에 운동을 하고, 컴퓨터를 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흔치 않았던 국가기술자격증을 따며 현실에 흐르는 불안한 공기에서 멀어질 수 있는 것들을 찾고 집중하였다. 특히 컴퓨터 속 인터넷 세계는 어린 최신유가 현실에서는 할 수 없는, 다채로운 것을 보고 경험해볼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해주었고, 그러하기에 최신유의 유년시절은 인터넷 세계에 몰입하는 시간의 연속이었다.

네네. 어.. 이제.. 컴퓨터가 있잖아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떠나지 않아요. 잠들기.. 전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리 뜨지 않고, 밥도 거기서 먹고, 누구를 만나지 않고. (☞면담자: 게임을 하는거예요?) 게임도 했었고, 뭐.. 그 안에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그런 커뮤니티에 가서 정보도 얻고, 배우고. (☞면담자: 인터넷으로 연결된 세상에 대한.. 어떤 관심도 있고?) 네 그렇죠. 새로운 세상이라고 느꼈고, 그쪽에서만 노는거예요. 왜냐면 현실을 부정해야 되니까요. 현실이 너무.. 아까 말한 것처럼 너무 암울하잖아요. 그러한 현실을 피할 수도 없고 마주해야하는데 너무 괴로우니까 이제 거기서만 있는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는.. (☞면담자: 아주 어렸을 때라고 하면 언제쯤?) 그.. 초등학교 11살12살13살 이때부터 중학교때까지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했어요. 그때는 그 나이 때는 드문 거였거든요. 지금은 흔하지만요. (☞면담자: 아.. 그 당시.. 어릴 때.. 어떻게 하게 되었어요? 그런 생각을?) 그것도 도피의 일환인데요. 현실이 너무 그러하니까 몰입하다가 좀 도움 되게 몰입해보자 생각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분야를 알게 되었구요.

현실을 피하기 위해서 힘든 상황을 잊고자 몰입한 인터넷 세계에서는 보다 다양하고 재미있는 것들이 가득했다. 최신유는 현실에서는 무언가를 해보고 경험하는 것이 환경적으로 한계가 있었지만 인터넷 세계에서는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비록 시작은 현실도피 차원에서 선택한 인터넷 세계의 몰입이었지만, 이 시간이 최신유에게 주는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 있었다고 이야기 한다.

아.. 좋게 표현하면 좋게 표현할 수 있구요. 안 좋게 표현하면 안 좋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좋게 표현하면.. 아깐 좀 안 좋게 들렸잖아요. (웃음) (♣면답자: 현실도피처럼 이야기 하셨는데.. 처음에는..) 네. 좋게 표현하면 좋아 하는 것을 해본거! 그래서 몰입해서 그.. 몰입할 때 깊게 몰입해본거.. 그러한 경험은 자주 해볼 수 없잖아요. 네 일만시간 넘게 했으니까요. 어떤 안에서 그래서 크리에이터가 되어보기도 하구요, 유튜브가 처음 나왔을 때 그.. 초기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이 제가 만든, 크리에이터로서 그런.. 영상도 봐주고, 그리고 게이머가 되기도 하고

배우는 그런 경험도 있었어요. 커뮤니티 활동을 하다보니까, 상대를 존중해야 하고 나도 존중받아야하고, 그러한 것들도 있었구요. 뭐 수도 없이 많아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고, 사진을 편집해서 막 마법사처럼.. 그런 느낌도 받아보고,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몰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인터넷 속 커뮤니티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고, 그 외에도 영상을 만들고 편집하는 것, 크리에이터로서 영상제작을 기획하고 구성하는 것 등을 다채롭게 접해보고 학습할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최신유에게 재미와 즐거움으로, 신기함과 호기심으로 찾아왔다. 현실 도피적 선택의 몰입이 그저 소모적으로 부정적으로 채워질 수도 있었을텐데, 그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최신유는 “(현실이) 너무 나쁘고 너무 힘드니까 이보다 더 나쁠 수 없어서” 라고 이야기한다.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인터넷 세계에서는 무엇이든 해볼 수 있었던 최신유는 그곳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를 찾는다.

(♣면답자: 처음에 프로그래머가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뭐예요? 인터넷이랑 좀.. 인터넷에 몰입했던 그 시기가 배경이 되었던 건가요?) 네 그렇죠. 제가 사용하는 서비스가 대표적으로 그때 당시에 제 또래들도 다 그렇고, 다음 커

뮤니케이션이나 네이버닷컴, 그 다음에 넥슨게임즈 그런 것들이잖아요. 이걸 누가 만들었고, 왜 만들었는지 알고 싶었고, 이거 어떤 게 쓰이는지, 그 다음에는 구글이나 뭐.. 글로벌 기업들, 이게 왜 나왔는지, 그걸 자연스럽게 찾아가다 보니까 그 쪽으로 가게 되었던 것 같아요.

최신유는 자신의 주 무대인 인터넷 세계에서 다양한 세계를 접하고 다채롭게 경험하는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수동적으로 공급되는 서비스로 받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어떠한 시스템으로 이런 서비스가 가능한 것인지, 이런 서비스는 누가, 어떻게, 왜 만드는 것인지, 호기심을 갖고 관심을 확장해나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신유는 프로그래머라는 꿈을 키우기 시작하였고, 최신유가 어둡고 힘들었던 유년시절의 현실도피적 몰입을 보다 긍정적 몰입으로 이끌어갈 수 있었던 계기에는 한 선생님과 만남이 있었다.

2. 트러블 메이커에서 주체적 리더로

최신유가 몰입의 시간에서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고 진로로 연결하여 미래를 꿈꿀 수 있었던 시작점에는 중요한 만남이 존재한다. 최신유는 현실도피적 몰입의 시간을 계속하여 보내왔지만, 컴퓨터 밖의 생활에서는 여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여덟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이렇게 계속 살면 불행하다, 큰일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어두운 시간을 지나오고 있었다. 이런 시간이 지속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스스로 하였지만 어린 최신유는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할 지,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지 알지 못한 채 계속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있었다. 자신을 억누르는 현실의 무게를 어떻게 감내하고 해결해야할지 모른 채 가정에서의 다툼과 불화는 최신유의 학교생활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교우관계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표현하는 것이 서툴렀고, 친구들과 잦은 다툼으로 선생님께 혼이 나기 일쑤였다.

어 일단 그때는 지금처럼 표현하는 것도 어려웠고, 그 다음엔 이렇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혼자 그냥 삭혔어요. 그때는 정말 (지금의 저와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입 밖으로 제 의견도 이야기 안하고 뭐가.. 계속 담아두고 혼자

서 하려고 했었고, 그랬었어요.

음... 그 생활이 이제 집에서 좀 큰 파이팅(싸움)이 있고, 예를 들면 큰 소리로 에너지를 다 쓰고, 계속 이제 그렇게, 하루하루가 그런 거예요. 다 소진을 하고 학교를 가면, 학교에서도 이제 그 위축된 상태에서 학교를 가면, 학교에서도 또 억압을 줘요. 왜냐하면 제가 에너지를 소진하다가 숙제를 안 하거나.. 뭔가 어두워져가고 말투나 태도가 안 좋아지니까, 학교에서는 또 그거가지고 억압을 줘요. 그리고 또 집에 가면.. 반복이에요.

가정의 불화가 학교생활까지 잠식하고 있던 어느 날, 6학년이 되어 만난 담임선생님이 열어준 학교생활은 최신유에게 새로운 느낌을 주었다. 최신유는 5학년 때까지는 친구들과도 잘 지내기 어려웠고 선생님들께도 트러블메이커로 인식되었었다. 6학년이 되면서 최신유가 다니던 학교에 교대를 갓 졸업한 선생님 한 분이 부임하였고, 최신유의 담임선생님이 되었다. 새로 오신 선생님은 최신유의 실수와 잘못에 체벌보다는 타이름으로, 가르침으로 응대해주셨고, 그런 선생님을 보면서 최신유는 선생님께 인정받고 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최신유는 자신이 잘 하는 컴퓨터를 활용하여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스스로 온라인 학급커뮤니티를 만들고 이를 통해 친구들과 교류하며, 조금씩 긍정적인 에너지를 내기 시작하였다. 학급을 위해서, 함께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행동하고자 하였다. 담임선생님은 최신유가 여태껏 받아왔던 방식과는 다른 교육으로 최신유를 대해주셨고, 신뢰해주셨다. 이에 최신유의 학교생활 또한 이전과는 다른 시간으로 구성될 수 있었다.

이제 주도적이게 되고, 먼저 발표하고, 반 카페를 만들어서 집에 가면 들어오라고 제가 스스로 이제.. 주도적이게 되고, 왜냐면 그렇게 교육하시니까. 그리고 이제 되게 많이 있었어요. 아! 제가 다툼을.. 트러블 메이커였거든요. 학생들과 싸우고 놀리고, 아무 이유도 없는 데 놀리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억압받으니까. 근데 그것도 그분이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대화로 알려주셨거든요. 원래는 이제 파이팅 넘치게 행동으로 하시는데 (면담자: 다른 분들은 혼내고 그러셨는데 타일러주시고 설득하셨네요?) 예예. 그렇게 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원래 손으로 나가거나 그랬거든요. 그때 이제 그렇게 알게 됐어요.

뭐 미술..을 하면 밖에 나가서 손이 많이 가는데도 그림을 그려보고 물총도 쏘고 막.. 체육시간에.. 다른 시간에는 손들고 발표를 해야 한다. 그런 걸 몰랐거든요. 그럼 점수를 쌓아서, 포인트를 쌓으면 그걸 가지고 또 놀러를 가는 거예요. 집으로 또 칭찬편지를 주고, 그때 이제 아 이게 교육이구나..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때부터.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제 그전 건 다 이제 버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살다보면 인생이 좀 살만하겠다. 어렸을 때 항상 학교에서 집에 갈 때 땅을 쳐다보면서 아 빨리 나도 커서 힘이 생겼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때 조금 그분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많이 생겼어요.

고성으로 가득차고 에너지가 소진되는 상황이 가정과 학교에서 반복되며 악순환 되어가는 가운데 6학년 담임선생님과 만남은 최신유에게 따스한 빛이 되어 주었다. 학교에서 혼나고 었나갔던 최신유에게 체벌이 아닌 타이르는 말과 설득을 해주시는 최초의 선생님이셨고, 틀에 박히고 딱딱하게만 느껴졌던 수업과 학교생활을 보다 재미있고 즐겁게 느끼게 해주셨다. 선생님과 인연은 최신유에게 새로운 도전과 마음자세를 갖도록 해주었다.

기존의 주변 여건이나 물리적 환경이 크게 변한 것이 결코 아니었지만, 자신을 소중하게 대해주시고 인정해주시는 선생님을 만남으로써 최신유는 말썽을 일으키는 트러블메이커에서 주체적 리더로 변모할 수 있었다. “나도 무언가를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학업을 위해, 스스로의 삶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행동하게 되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학교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았고, 자신이 잘하는 컴퓨터를 활용하여 학급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고 인정받는 경험은 최신유의 삶에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일으켜주었다.

3.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선택한다는 것

최신유는 프로그래머라는 꿈을 가지고 프로그래밍 공부를 스스로 해왔었다. 그러나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에는 수능 중심의 입시 교육 문화가 팽배한 분위기 속에서 프로그래밍 공부를 계속하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다. 축구선수들이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하는 것처럼 프로그래밍 공부 또한 어릴 때부터 계속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던 최신유는 학교 정규 수업 이후에는 컴퓨터 앞에서 몇 시간 동안 알고리즘을 풀며 방과 후 시간을 보냈다. 최신유는 자신이 하고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설득과 증명을 해나가야 했다. 어렸을 때처럼 반항과 소통하지 않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해 주변사람들에 이야기하며 설득하려 노력하였고, 어떻게든 시간을 마련해가며 학교생활의 일부분을 쪼개어 몰입하였다.

그리고 2학년때는 프로그래밍대회를 처음 나갔는데. (중략)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보려고.. 그걸 준비하려면 처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축구선수들 막 열 살 때부터 축구하는 것처럼 해야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이제 어찌어찌해서 장려상 이런거를 받았는데, 그 위의 과정으로 올라가보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시간적으로도 부족하고 제가.. (☞면담자: 시험을 보는거예요? 그거는?) 아 프로그래밍 문제를 푸는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려고 학교를 마치고 항상.. 컴퓨터 앞에 가서 문제를 풀고, 뭐 그.. 몇 시간동안 알고리즘도 풀고 했었는데, 그때 좌절도 맞보고.. (☞면담자: 그게 그래서, 그걸 하고싶어서 야자대신에.. 그걸 해보고 싶어서 선생님이랑 이야기도 해보고 그랬던거군요?) 예에에. 이걸 꼭 해야한다~ 이게 저의 제일 주된 그거다.. 근데 선생님은 이걸 아닌 것 같다. 학교 공부가 먼저다.. 이렇게..

최신유의 선택과 행동은 대부분의 다수의 학생이 하지 않는 눈의 띄는 선택이었다. 온전히 이해받을 수는 없었지만 최신유는 프로그래밍 공부에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관심분야에 대해 계속 공부하기 위해서 관련 활동을 결과로 입증하고자 하였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프로그래밍 대회에 처음으로 나가 장려상을 수상했고, 가시적인 결과물을 가지고 자신의 노력과 포부를 나누면서 부모님과 선생님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아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고싶은 거를 찾기 위한.. (☞면담자: 탐색과정?) 과정이자.. 그.. 수단이었죠. 잠깐 이 자리를 피하고 싶은.. 그걸로서 증명을 해보여야 하는데 결과가 나왔고,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이 결과로 뭔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니까 좀 더 그... (☞면담자: 신뢰를 해주신거네요?) 네. 이제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정규수업이 끝나고 저녁 이후의 시간에는 프로그래밍 공부를 했었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급식을 먹지 않고 학교가 끝나자마자 바로 귀가하여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도 하였다. 저녁 9시까지 야간자율학습을 하는 친구들과 다른 선택을 하는 데에 있어서 불안감은 물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하지 않으면 다시는 할 수 없을 것 같았기에 어쩔 수 없었다고 최신유는 말한다. 다수의 선택과는 다른 길을 홀로 걸어간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 외로움, 주변의 염려와 만류에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최신유는 할 수 밖에 없었고, 지금, 이 순간이 아니면 다시는 할 수 없기에, 그 때의 관심, 호기심, 열정으로 해야만 하는 것이었기에 행동하였다.

(불안감이) 있죠. 당연히 있죠. (♫면담자: 그럼 어떻게 그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맞다라는 확신이 들었던거예요?) 아.. 완벽한 확신은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어.. 생각하는 거를 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항상 힘들잖아요. 그때도 힘들었고, 지금도 힘들거든요. 앞으로도 힘들 것 같고.. 근데 그냥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안하면 다시는 이 시간이 안 오니까. (♫면담자: 아 이거는 지금 할 수 있는 무엇이기 때문에?) 네네. 그때 그렇게 많이 생각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 지금 이걸 하는 이유는 지금 이게 제일 좋았고, 한번 해보고 싶어서.

선생님과 학교를 끊임없이 설득하며 프로그래밍 공부에 몰입했던 경험을 회상하며, 현재의 최신유는 사실 그런 활동으로 인한 결과물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한다. 그저 관심분야에 열정을 다해 매진해볼 수 있었던 시간, 오롯이 몰두하며 집중했던 그 시간의 마음가짐, 열정, 자세가 오랜 여운으로 남아있다고 한다.

네. 그건 아무것도 아니예요. 돌아보면.. 제가 그 수상했던 자격증 뭐, 상장.. 이런 걸 다 돌아보면 그때 했던 태도가 남는 거지 그냥 종이쪼가리거든요. 아무도 인정 안 해주고, 어디 적기에도 민망하고, 뭐 어디에 말하기도 민망해요. 그냥 되돌아보면 그걸 했던 그때의 자세와 태도가, 느꼈던 심적 부담과 그때 공부했던 자세, 태도 같은 것만 남더라구요. (♫면담자: 그게 크죠 근데..) 네네. 그니까 그걸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면담자: 음.. 돌이켜보니까~) 네네. (♫면담자: 그런 것들이 내공을 쌓는데 다 기반이 됐었겠네요. 학습태도라던가, 몰입했던 경험이라던가..) 네. 완전히 엉망이었지만 조

금씩 조금씩 만들어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한 마음, 태도, 자세가 아주 조금씩 쌓이면서 현재의 ‘나’를 만들었고, 이러한 경험은 이후에 다른 무언가를 학습하고 배우는 데 있어서도 지금의 ‘나’의 습관으로 연결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 형성된 습관은 보다 성숙한 최신유로 성장하게 하였다.

4. 보다 넓은 환경에서 창조적 몰입의 연속

최신유에게 대학생활은 고등학교 때 하고자 하는 공부를 하기 위해 끊임없이 주변을 설득해야만 했던 것과 달리, 어떠한 제한 없이 자유롭게 다채롭게 하고 싶은 것을 무한히 해 볼 수 있었던 시간으로 기억된다. 넓어진 무대에서 한계 없이 몰입할 수 있었고, 하고 싶었던 공부를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고등학생 때, 홀로 시간을 어렵게 마련하여 했던 공부와 달리, 대학에 들어와서는 비슷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동료들과 함께 몰입하고 의견을 교류하며 원 없이 학습할 수 있었다. 함께하는 작업은 혼자 몰두하는 것보다 더 큰 성찰과 배움을 가져다주었고, 최신유가 대학생활을 기억할 때 가장 크게 의미를 두고 있는 경험이기도 하다.

(대학생활에서)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았던 건.. 팀을 만들어서.. 좋은 사람들 하고 팀으로 같이 뭔가를 만들어 일해본 거..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그.. 몇 년 동안 그.. 어떤 사무실 같은 공간에서 먹고 자고 개발도 하고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다른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 지도 모르고 거기에만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중략) 고생했던 것도 돌이켜 보면 몇 년 지나니까 다 즐거운 추억이 되었어요.

최신유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동료들과 앱 개발 작업에 몰두 해왔다. 협업을 하며 각자가 잘하는 부분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함께 고민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은 선배 또는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며 가치 있는 성과물을 만들고자 노력했다. 대학생활 전반에 걸쳐 진행했던 이 작업

은 초반에는 실패를 거듭하는 일이 잦았다.

그 전엔 학생들이 볼 수 있는 뉴스앱을 만들어서. (☞면담자: 학생들이라고 하면?) 대학생들. 제 또래 친구들이 신문을 안보니까 하루에 스무개씩 뉴스를 요약해서 보여주죠. 그전에는 학교식당 맛집을 잘 모르니까 그 도장 찍는 쿠폰을 앱으로 만들어보자. 둘 다 결과적으로 잘 안됐지만 많이 배웠고, 그 친구들이랑 같이 사용을 했었으니까 잘 됐다고.

앱은 잘 안됐지만.. 어.. (☞면담자: 잘 안됐다는 건 만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시행착오 있고 잘 몰랐으니까. 그리고 돌이켜보면 다.. 많이 배웠고, 어.. 수상도 했었고. (☞면담자: 아 수상을 했었어요 또?) 코리아디자인어워드 대상, 디지털미디어 부분 대상을 받은.. (☞면담자: 그러면.. 굉장히 많은 인정을 받은 거네요..) 어.. 사회적으로 가치 있다고 인정을 받았지.. (☞면담자: 많이 쓰이지는 못했지만~) 그렇죠. (대신) 많이 배웠죠.

팀 체제로 신뢰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다하는 작업은 앱 개발이라는 결과물을 냈다. 모두의 피, 땀, 노력이 깃들여져 개발된 앱은 때로 실패하기도 하였고, 성공적으로 개발을 하였어도 공들여 만든 과정이 무색하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아 힘이 빠지는 경우도 있었다. 몰입과 실패를 거듭하며 보냈던 시간은 최신유에게 하나의 유의미한 결과물을 만들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그 안에서의 갈등, 소통, 리더십, 책임감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고, 최신유의 다음 행보에 영향을 준 경험이었다. 문제점을 찾고 해결하며 시행착오를 통해 경험이 쌓일수록 더욱 성공적인 결과물을 낼 수 있었다. 대학졸업을 코앞에 두고 개발한 모바일 미디어 공론장 ‘판킹’은 일명 대학생들의 데자보 역할을 하는 앱이었다. 이 앱은 기대했던 만큼 많은 이들이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사회적으로 가치 있다는 인정을 받았고 ‘코리아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을 하는 명예로운 성취를 얻을 수 있었다. 대학생활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오랜 시간 실패를 거듭하며 계속 해왔던 활동인 만큼 최신유는 대학졸업 이후에도 주말마다 앱 개발을 위한 정기적인 모임을 지속하며 개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신유는 자신이 동료들과 만드는 그 무엇이 결과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로움을 가져다주는 것이길 바래왔다.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과물이길 항상 생각했다. 프로그래머의 꿈을 안고 컴퓨터공학과에 진학하였지만, 그 세계에 직접 부딪치며 공부하면서 최신유는 생각해왔던 부분과 다른 부분을 깨닫기도 하였고, 기술적인 부분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를 더 공부해야한다고 생각하였다. 프로그래밍 공부를 하다가 ‘기업’, ‘회사’로 관심이 확장되면서 ‘앙트러프러너십’을 복수전공 하였고, 추구하는 삶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보다 다채로운 환경에 자신을 두고자 노력하였다. 대학에 와서 다양한 학문과 그에 따른 활동 과정을 통해 최신유는 자신의 진로 방향을 명확히 하고 소신 있게 나아갈 수 있었다.

프로그래머가 돼보자. 그래서 이제 컴퓨터공학과에 가게 되었는데, 어 사람들이 그.. 제 생각에는 그.. 좋은걸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만들려고 했었는데, 사람들이 그 기술자가 되기 위해서 기술을 배우는.. 그런 태도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아 이걸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복수전공을 하게 되었어요. ‘앙트러프러너십’을 하게 되었는데요~ ‘앙트러프러너십’이라고 ‘기업가 정신’이요.. 반 듣고 반 들어서 복수전공을 하였는데, 회사를 하면 회사에서 제품을 만들잖아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서비스도 하고.. 기술을 사용하고 재무를 하고 사람도 뽑아야하고 이게 더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최신유는 자신과 같이 비슷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토론하고 공부할 수 있었던 경험에서 많은 배움이 있었다고 이야기 한다. 물론 공동체가 되어 함께 소통하며 일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니었으나 그 과정을 통해 배움이 더 확장되고 성장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모든 열정을 다 쏟으며 몰입할 수 있었던 이유, 이러한 행보를 선택한 이유 역시 지금 이 순간, 현재에 할 수 있는 것이기에, 내가 지금 느끼는 호기심, 갈증을 해결하기 위함이었다. 최신유에게 대학은 어떠한 계산이나 이익 없이 자신의 것을 나누고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었다.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혼자서 외롭게 고군분투 했던 고교생활과는 달리 뜻이 맞는 좋은 사람들과 협업을 통하여 더 큰 도전을 해 볼 수 있는, 창조적 몰입을 할 수 있는 장소였다.

5. 지나온 나를 돌아보다

열정을 다해 공부하고 누구보다 전공분야에 대한 학구열이 불타오르는 최신유였지만 대학에 와서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자신을 돌아켜보며 최신유는 슬럼프를 겪는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협업이 계속되어야 가능한 일이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앱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계에 대한 이해의 폭이 보다 넓어야 하는 분야였다. 최신유는 대학에 와서 다양한 활동을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에 대해서는 기쁘고 감사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고민이 깊어지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협업을 하는 데 스스로 소통의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되면서 지난 시간을 돌아켜 자신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다.

대학에 진학해서도 다른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면서 무언가를 꾸준히 하는 것은 하나도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 습관과 태도는 어린 시절에서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책도 많이 읽고 10여개 국가를 여행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대화하고, 미래에 대한 설계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그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하는가 소통하는 게 무엇보다도 제일 가장 힘들다는 거를 알게 되었구요. 이러한 노력이 있으면서 지나자 이제 주변에서도 이제 조금씩 저를 인정해주고, 저도 이때 배운 내용들이 지금까지 도움이 되고 있는 데요. 그래서 생각해보니 다양한 문화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키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식견을 바탕으로 좋은사람들과 같이.. 새로운 것을 하고 제가 아는 것을 공유하고.. 그게 저한테 바라는 점이구요. 그리고 제 삶을 계속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야하고 그렇게 경험하기 위해서 노력해왔어요.

어렸을 때는 갖은 애를 써서 피하고만 싶었던 현실의 상황을 최신유는 대학생이 되어 다시 끄집어냈다. 지금의 ‘나’를 있게 한 지난 시간을 분석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다. 사람들과의 소통보다는 컴퓨터와의 시간이 훨씬 익숙했던 최신유는 현재의 모습이 과거의 시간과 맞닿아 있음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더 이해하

고자 하였다. 스스로 부족한 면모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그것을 인정하고,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해 이제껏 해온 것처럼 또 열심히 노력하였다. 현실도피적 몰입을 하며 마주하길 거부해왔던 시간들을 다시 들여다보고 성찰하는 시간은 최신유가 현재의 문제들을 조절하고 앞으로의 길을 나아가게 하는 데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

불편하고 힘들다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더 다채로운 경험의 장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는 상황에 있게 하였고, 좋은 책을 읽고, 좋은 사람들과 대화하며 부단히 노력하였다. 공동체 속에서 사람들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교류하고 협업을 하는 일련의 시간들은 스스로를 성장시키고 나아가게 하였다. 그리고 오롯이 컴퓨터만 붙들고 살아왔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앞으로 가고자 하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이해하고, 삶을 이해하는 것, 오히려 아날로그적인 것에 더 큰 가치를 두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어떤 거를 상상하고 만들려면 좋은 거를 만들려면 많은 것을 보고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의 사는 모양이나, 다른 사람이 뭘 먹고, 뭘 쓰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아야 내가 좋은 걸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느 분야든지..

그런 관점으로 항~상 다양한 관점으로 보려고 (노력했어요). 사람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랑 커피도 마시고, 산책도 하고, 모여서 이야기하는.. 그 컴퓨터 모니터만 보는..게 아니라 10년 동안 그랬으니까 이제는 그러면 안 되겠다. 여행도 가고 책도 보는 거는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지만, 정말 세상을 바꾸고 나를 움직이는 거는 아날로그적인 거다.. 라고 생각했어요.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며 스스로를 성찰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했던 그 모든 시간에 대한 최신유의 해답은 ‘사람’에 있었다. 컴퓨터라는 갑옷을 입은 채 접해왔던 세상을 넘어 진짜 사람들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가 생활하고, 서로의 생각을 교류하며, 함께 일상을 보내는 것에서 그동안 놓치고 있던 것들을 다시 찾기 시작하였다. 디지털의 모태는 아날로그 세상이듯, 최신유는 성찰의 시간을 겪

으며 세상을 향해 한걸음 나아갔다.

6.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최신유가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는 방법은 일단 정면 돌파로 부딪쳐보면서 학습하는 것이다. 당면한 문제에 대해 조언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찾고 만남을 갖고자 하였다. 최신유는 고등학교 시절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서울 소재의 대학에서 주최하는 전공탐색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다. 프로그래밍에 대한 관심으로 컴퓨터공학과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 있었을 때였고, 살고 있는 지역을 벗어나 서울에 가보고 싶기도 했었기에 프로그램 참가를 결정하였다. 최신유는 이 프로그램에서 우연한 기회에 컴퓨터공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형을 만나게 되었다. 이 만남을 계기로 최신유는 박사과정 형에게 받은 연락처로 먼저 연락을 해보고, 컴퓨터공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을 물어보며 대화를 이어 나갔다. 또한 대학 벤처동아리에서 앱을 개발하면서 새로운 문제를 마주했을 때, 먼저 이 길을 걸어간 선배들을 찾아 연락을 취해서 조언을 얻고자 하였다. 어려움이라는 난관에 봉착했을 때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신유의 방법이였다. 자신보다 먼저 이 시간을 경험한, 멘토가 되어줄 사람을 찾고, 배움을 얻는 최신유의 행보는 거침없이 두드리고 부딪치며 행동하는 것이였다.

결국 다 혼자 배워야 하는 거잖아요. 알아서 해야 되는거 같아요. 뭐든지요. 그래서 협업하다가 어떻게 접근해야할지 막막할 때는 사람들에게 편지도 쓰고 연락도 하고 (면담자: 일면식도 없고 아무런 연고도 없지만, 일단 부딪쳐 보는거네요? 그렇게?) 네. 어떤 명분을 가지고요. 예를 들면 내가 그 사람 책을 봤는데, 이 사람 만나보고 싶거나, 아니면 이 사람 나한테 영향을 준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 있었고, 주저 없이 궁금한거 물어봤고, 어 구체적으로요. 구체적으로 물어봤고 제가 잘못 알고 있거나 막연한 부분을 알 수 있었어요.

또한 전공분야 이외의 다양한 분야를 경계 없이 넘나들며 다채로운 경험의 장에 스스로를 두려고 늘 노력하였다. 최신유는 영국문화원에서 주최하는 컨퍼런스

에 한국대표로 선발되어 42개국의 대학생들과 교류하였고, 홀로 미국 실리콘밸리로 배낭여행을 준비할 때에도 여행지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의 직원들을 컨택하여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스스로 동선을 기획하였다. 최신유는 유럽상공회의소 프로젝트에 한국 대표로 선발되어 헝가리에 가기도 하였다. 헝가리 상공회의소에서 한국어 웹사이트를 만드는 프로젝트였는데 사이트를 최종적으로 공개하는 퍼블리시 역할을 맡아 일했다. 이때도 자유시간을 활용해서 같은 팀 친구들을 인솔하여 헝가리의 대사관, 정부기관, 스타트업 기업들을 방문하는 계획을 세웠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대화하는 시간을 기획하고 실천하면서 최신유는 뜻이 있고, 간절함이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귀한 시간을 한층 가치 있게 보내기 위해서 다양한 문화와 경험을 접하고, 영어공부도 열심히 하며 전공에 대한 공부와 관련 분야의 트렌드, 현 이슈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귀 기울였다. 스스로를 주체적으로 성장시키는 시간들의 연속이었다.

(☞면담자: 그니까 뭔가 그냥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계획을 하고 보통 그렇게 관심있는 분들 인터뷰하고 했던 거네요. 이때는 그럼 어떤 분들 만나고 이야기 했었어요?) 제 기술 분야에 있는 분들도 만나고, 기술 분야 사람들도 만나고요. 프로그래머, 엔지니어, 디자이너.. (☞면담자: 사회적으로 명망있고 유명한 사람들이겠네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최신유씨가 알거 아니에요?) 그렇기도 하지만 그냥 평범한 직장인들일 수도 있죠. 왜냐면 거기서 일하는 그냥.. (☞면담자: 아 그 회사에서 일하는..?) 네 외국인이거나, 한국인이거나, 뭐 미국인이거나, 캐나다인이거나.. 그 사람들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유명한 사람들도 만났는데, 주로 평범한 사람들이예요. 근데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저는 그.. 어떤 걸, 일을 할 때, 롤 모델은 아니지만 어떤 선진이나 선구적인 사람들의 성과를 보고 배우는 건 진짜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잘 된 케이스든 잘 안된 케이스든 어떤.. 기업이 어떻게 해왔는지, 어떤 사람이 어떻게 걸어왔는지, 그때 시기와 지금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완벽하게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아 이런걸 보고 배울 수 있겠다 해서..

최신유가 스스로 멘토를 찾고 용기 내어 연락을 취하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자신의 분야에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며 일을 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상황에 따라서 그 대상은 사람일 수도 있고 회사일 수도 있으며, 이러한 시간은 최신유가 현장의 상황과 전문가가 되기 위해 함양해야 할 역량들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대학생활 중간 중간에도, 대학 수료 이후에도 틈새 시간을 활용하여 정보를 찾고, 기회를 만들고,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몰입하며 시간을 보냈다. 노력과 시간에 대한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배울 수 있었던 성취에 큰 가치를 두고 ‘지금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며 자신의 진로 여정을 이어나갔다.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최신유는 자신이 하는 일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가치를 크게 두었고, 눈앞에 있는 결과보다는 자신의 진로의 여정에 있을 목표와 가치에 무게중심을 두며 항상 나아갔다. 최신유는 일명 ‘기버(giver)’들을 ‘좋은 사람’이라고 명명하였고, 지금의 자신이 있기까지 정말 많은 ‘좋은 사람’들의 도움이 컸다고 이야기 한다. 아무런 대가없이 자신에게 시간을 내어 조언을 해주고, 도움을 줬던 삶의 멘토들처럼 자신도 누군가에게 그러한 ‘좋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일례로 최신유는 여성들에게 무료로 코딩을 알려주는 커뮤니티에서 재능기부를 하고, 또한 디자이너들에게 코딩을 알려주는 프로젝트도 직접 주최하였다. IT업계에서 디자이너와 개발자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되고 있다는 부분에 착안하여 코딩을 알려주는 봉사활동을 2년 동안 꾸준히 하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었다. 고마운 이들에게 은혜를 갚는 방법은 자신이 받은 것들을 다시 사회로 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진로를 개척하고 나아가는 길목에서의 선택과 결정에 항상 그러한 부분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어.. 정확히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 다시 되돌려줄 수 없는 데도 기브앤테이크 같아요. 그런데 기버들이예요. 왓슨스쿨에서 종신교수이신 애덤 그랜트라는 분이 쓰신 책이 있는데요. ‘오리지널스(Originals)’, 기브앤테이크를 쓰신 분인데. 세 가지가 있어요 세상에. 기버(giver), 매처(matcher), 테이커(taker)가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좋은 사람들은 기버들이예요. 주는 사람. 저도 원래 기버가 아니었지만 기버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도 뭐 그렇지 않을까요?

7. 노마드워커에서 앙트러프러너로 가는 길

다양한 분야에서 다채롭게 경험하고 자신의 분야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연계하여 도전해보며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고 있는 최신유는 이제껏 그래왔듯 앞으로의 길도 그럴 것이라 이야기한다. 발길이 닿는 곳, 관심이 생기는 곳, 성장하고 배울 수 있는 곳,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에서 일하며 경력을 쌓아가고 있다. 기업, 금융, 자본시장에 대해서 공부하고, 서비스를 만들고, 사회적으로 좋은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다는 최신유에게 진로는 스스로 자신이 할 일을 찾아서 움직이는 것이다. 움직이다보면 그 곳에 길이 있고, 이 길이 모여 자신의 진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 생각한다. 최신유는 ‘앙트러프러터십’ 수업을 통해 만나게 된 교수님이 설립한 연구소에서 연구소의 기반을 마련하는 일을 하고 있다. 회사 웹사이트를 만들고, 직원을 선발하고, 행사와 세미나를 기획하며 ‘회사’, ‘기업’이란 무엇인지, 어떠한지, 조금씩 고민을 확장해나가고 있다. 또한 앱 개발 모임을 이어가며 사회의 변화와 이슈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사람들의 삶에 필요한 앱을 만들기 위한 일을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자신의 배움과 지식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을 찾아 봉사를 하고, 고향의 기업 생태계를 연구하는 정부 주도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느낀 갈등. 사람들이 어.. 왜 이게 있는데 왜 안 바뀌지? 생각만하잖아요~ 실천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봐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그 와중에 돈을 벌고, 사회가치를 다룰 수 있고 그게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면담자: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반복되고, 규모가 좀 커지고 안정적으로 되면 그게 또 하나의 기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의 목표는 그렇게 성장시키는 것을 바라고 있어요.

지금.. 지금이랑 가까운 시일 내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는데 시간을 쓰고, 시행착오를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시간이 절대 돌아오지 않을 거니까요. 지금의 이 에너지, 지금의 신체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게 압박으로 느껴지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남의 말은 듣지만 내가 직접 경험해보고 직접 느

끼면서 찾아가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 인생이니깐요. 그리고 지금 당장 뭐가 되고 싶다면 얼마큼 멀 하겠다 이런 건 없어요. 내게 주어진 일,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하는 게) 전부이고. 작은 목표를 잘 실천한다면, 시간이 지나면 그 작은 성공을 통해서도 강한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면답자: 그것들이 모여서?) 네. 10년 뒤에도 저는 지금과 별로 다르지 않을 거고, 매일 공부하고 지금도 사회가 변화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재미있는 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인생은 정~말 간단하게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서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게 좋은 거라 생각해요. 제 행복은 스스로 발견되는 일이에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동승하여 스스로를 변화에 단련시키고 단단하게 성장시키는 최신유에게 사회적 변화는 기회이고 재미로 다가온다. 하루하루가 모여 삶을 이룩하듯,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작은 목표들을 세우고 한걸음씩 내딛으면 그 걸음이 모여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이라 최신유는 이야기한다. 고등학생 때와 마찬가지로 남들과는 다른 선택을 한다는 것은 최신유에게도 물론 미래에 대한 불안감, 염려스러움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번에도 최신유는 스스로 내면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무엇에 가치를 둘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하며 용기 있는 한걸음을 내딛는다.

어..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 그 쪽으로 갈 때 작은 목표를 세우고 이를 때마다 그런 습관이 생기잖아요. (♫면답자: 아 반복되면서~) 네에. 그러면 좀 더 항상 삶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단순 반복적인 거를 계속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모든 사람이 어떤 선수든 비즈니스맨이든 요리하는 사람이든 항상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는데, 그거를 잘 하는 사람이 효율적으로 그 다음에 좀 더 가치를 담고 거기에.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게. 그러면 저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느낄 때 기분도 좋고, 힘들지만 계속 계속 계속 해나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지금은 회사가 아직 뭔지, 제 자아를 실현할, 좋은 활동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갖는 기업, 그게 성장하고 번영하는데 공부한 구실을 하는게 목표가 되었어요.

마지막 인터뷰를 마치며 추후 계획을 묻는 연구자에게 최신유는 중국 여행계획

을 이야기해주었다. 중국 사람들이 어떤 일상을 보내고 어떤 제품을 사용하며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지, 그들의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지내다 돌아올 것이라 이야기 하였다. 변화하는 사회에서 노마드워커로 삶을 살고 있는 최신유의 발자취는 이러한 시간과 과정이 단단한 기반이 되어 사회적으로 긍정적 가치를 발현하는 기업으로 닿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노마드워커에서 앙트러프러너로 나아가는 최신유의 미래가 더욱 기대된다.

최신유는 변화하는 환경을 기회로 보고, 경험을 통해서 습득하게 되는 자세와 태도에 중요한 의미를 두는 연구참여자이다. 경험의 시간을 통한 성찰과 습관이 조금씩 모이면서 바라는 삶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믿는다. 최신유에게 변화무쌍한 환경은 지금 보다 성숙한 자신으로 성장시켜줄 수 있는 무대이다.

B. 환경은 용기 있게 개척하는 것: 방송쟁이 김예별 이야기

1. 감성적이고 자유분방한 가정환경

어린 김예별은 친구들을 좋아하는 밝고 쾌활한 아이였다. 의사표현이 명확하고 하고 싶은 것은 꼭 하고만 하는 성향은 어릴 때부터 그랬다. 진로 탐색에 있어서도 이러한 김예별의 성향은 어김없이 드러났다. 미대를 졸업하신 부모님은 김예별이 미대에 진학하여 미술을 전공하길 바라셨다. 이러한 부모님의 바람을 김예별에게 강요하지는 않으셨지만 내심 그러길 원하셨다고 김예별은 기억한다. 아무래도 부모님의 이러한 생각으로 인해 김예별은 어릴 적, 공부를 열심히 하기보다는 그림을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해보며 자유롭게 유년시절을 보낼 수 있었다. 김예별은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감성적인 부분을 보다 발달시키며 성장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김예별이 중학생이 되었을 때 어머니는 미술을 전공으로 삼아 공부해보길 제안하셨다. 김예별은 그림을 곧잘 그리기는 했지만 그림 그리는 것을 통해 행복하다는 느낌을 받지는 못하였다. 김예별이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도 어머니는 진로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셨고 미대 진학을 제안하셨다. 하지만 김예별은 그림 그리는 것 보다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을 때 설레고 행복함을 느끼

는 자신을 발견하였고, 방송 분야에서 진로를 그리기 시작하였다. 자신의 목표를 뚜렷하게 이야기하는 김예별의 모습을 보고 어머니는 더 이상 미대 진학을 제안하지 않으셨고, 김예별의 선택을 지지해주셨다.

근데 부모님은 제가 미대를 가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키우고 싶어 하셨는데, 제가 잘 안 따라줬는데 그러다보니까 부모님이 저를 공부를 안 시키셨어요. 항상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감성적으로 자랐고, 자유분방하게.. 네.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근데 그러다가 하고 싶은 거를 너 마음대로 해 약간 요런 주의니까~

김예별이 자유롭게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고 활동하는 것을 존중해주셨던 어머니는 선택에 대한 책임 또한 명확한 분이셨다. 일례로 김예별이 목표하고 있었던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고 거주 지역의 국립대에 입학하였다가 자퇴를 결정했을 때도, 부모님은 김예별의 선택을 존중해주셨지만, 재수기간 동안 공부와 입시 준비는 스스로 책임지도록 하셨다. 부모님께서 이미 자퇴한 대학의 입학금을 부담해주셨기 때문에 자퇴를 결정한 김예별은 이후의 재수기간에는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없었고, 스스로 공부했어야 하였다. 또 김예별이 첫 번째 직장을 그만두고 이직을 하는 과정에서 6개월가량 일을 쉬며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도, 부모님은 직장에서의 퇴사 결정 또한 김예별의 선택이었기에 스스로 고비를 헤쳐 나가도록 하셨다. 이러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김예별은 그때 부모님이 조금이라도 도와주셨더라면, 지금처럼 될 수는 없었을 것 같다고 회고한다. 그때의 절박함과 고난, 스스로 문제를 해결했어야만 하는 상황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고, 그 덕분에 더 성숙해질 수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엄마의 교육방식이 저에게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말에 공부를 시작하고 고등학교 때 공부를 시작할 때는 나도 다른 엄마들처럼 우리엄마가 유명하다는 학원과 유명하다는 과외 족집게 선생님 알아봐주고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제가 만약 그런 환경에서 자랐더라면 지금처럼 자랄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제가 철이 들었던 때가 두 번이었던 것 같은데, 재수할 때랑 그

리고 이번에 그 그때 그 케이블 때 거기 들어가면서 약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봤을 때. (중략) 부모님이 너의 선택이었고 너의 책임이니까 너가 알아서 해라 약간 요런 주의였기 때문에 진짜 한 달에 버는 차이가 진짜 거의 한 5배 이상 났던 것 같아요. (중략) 막 그러다보니까 인생의 위기가 두 번 있었는데 그때 그러면서 좀 더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그때의 그 모험들 때문에.

성인이 된 김예별은 어머니와 함께 어린 시절 자신의 선택과, 어머니의 교육에 대한 소재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다. 방송 일을 하기 까지 한눈 팔지 않고 오롯이 이 길을 추구했던 김예별은 가끔 일에 지쳤을 때, 오랜 시간 열정적으로 걸어온 자신의 지난 시간과 그때의 자신의 선택을 돌아보며 어머니와 이야기 나누곤 하였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김예별은 스스로 해보고 직접 느껴야 행동하는 아이였었다고 이야기해주셨고, 김예별 또한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을 하고 싶은 게 생기면 꼭 해야 했던 아이, 하고 싶은 게 명확했던 아이라고 기억한다. 직접 부딪치며 체감하면서 행동하고 결정하는 김예별의 성향을 어머니는 일찍이 파악하고 계셨고, 그러하기에 김예별이 가고자하는 길,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지해주셨다. 강요나 간섭보다는 응원과 지지를, 책임질 줄 알아야 함을 가르쳐주신 어머니께 김예별은 감사한 마음을 크게 가지고 있다.

2. 선택, 꿈의 여정 시작

김예별이 방송분야로 진로를 결심했던 계기는 초등학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예별은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고 명랑한 아이였다. 김예별이 초등학교 2학년 때 반장이 되면서, 당시 반장이면 반드시 해야만 했던 학예발표회 사회자 역할을 맡게 되었다. 처음으로 무대에 올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아본 경험은 김예별 인생에 잊지 못할 순간으로 기억된다. 무대 위에 있는 자신을 쳐다보는 친구들의 시선을 마주하며 말을 해본 경험, 마이크를 통해 퍼지는 자신의 목소리가 다시 귀에 들리고, 그 말에 호응해주는 친구들의 반응, 이 모든 것은 김예별을 설레게 하였다. 행사가 끝난 뒤 친구들과 선생님들로부터 쏟아지는 칭찬은 김예별을 행복하게 만들었다.

근데 그때 막연히 학예발표회를 했을 때.. 아이들이 쳐다보는 것도 너무 좋았고 원고 연습하는 것도 너무 좋은 거예요. 또 어린 마음에 애들이 “너, 너무 잘 한다.” 이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담임선생님이 칭찬을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담임선생님이 (김예별) 너무 잘했다고 다른 아이들이 일기장에서 이렇게 (칭찬)하더라 이야기해주셔서 되게 그 선생님이 격려를 많이 해주셨던 게 ‘아 내가 이 일을 되게 잘 하는 건가, 잘 하나?’ 요런 생각이 많이 들고 되게 재미가 생긴 거죠 그때 당시에.

처음 느껴본 무대에서의 설렘과 행복함, 자신을 지켜봤던 선생님과 친구들로부터 받은 칭찬은 김예별을 꿈꾸게 하였다. 김예별은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서 교내 방송부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하였다. 방송부가 된 김예별은 전교생 앞에서 아침방송을 하는 교내 아나운서로 활동할 수 있었다. 매일 아침, 다른 친구들보다 일찍 등교해서 아침 8시 30분부터 50분까지 운영되는 방송을 도맡아 진행하였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교생을 대상으로 매일 아침, 자신의 목소리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언제나 감사하고 설레는 시간이었다. 방송부에 있는 기기들을 만지는 것부터 직접 오프닝 원고를 써보는 것, ON-AIR 싸인이 들어왔을 때의 긴장감, 학교에 울려 퍼지는 자신의 목소리는 김예별의 학교생활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었고 꿈꾸게 하였다.

그때 그 일을 하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그때 초등학교때 처음 봤던, 방송부 시설이 되게 잘 되어있었는데 콘솔이라던지 이런 기계장치를 보면서 너무 행복하고 떨렸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아 방송국에 무조건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꿈을 꿔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장비들이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하고 ON-AIR 이렇게 있고, 그게 그대로 옮겨져 있는 학교였거든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김예별은 ‘운 좋게도’ 방송부 시설이 갖춰져 있는 초등학교에서 학창시절을 보냈었고, 학교생활은 방송활동 덕분에 항상 재밌고 신나는 나날의 연속이었다. 방송활동에 대한 설렘과 주변의 인정은 김예별이 방송 분야로 진로를 탐색하고, 더욱 동경하게 해주었다. 자신이 행복한 일,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방송이라는

것을 일련의 경험을 통해 깨달은 김예별은 시간이 흐르고 진로에 대해서 보다 생각하게 되는 기회를 가지면서 구체적으로 진로를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김예별이 다닌 중학교는 방송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던 초등학교와는 달리 방송부 활동 자체가 없는 환경이었다. 김예별은 중학생 때 다니던 학원에서 학원 주최로 팝송방송 진행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망설임 없이 지원하였다. 중학교 교내에서는 방송활동을 이어나갈 수 없었지만, 학교 밖에서 좋아하는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다. 학원에서 매일 30분씩 팝송 방송시간을 기획하였는데, 그 시간을 담당하고 이끄는 사회자로서 활동하였다. 또한 방학기간, 지역에서 주최하는 제법 큰 규모의 청소년 대상 행사에서 진행자로 발탁되어, 더 큰 무대에서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회를 보는 경험을 한다.

중학교 때 팝송 방송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정말 행복했어요. 그 시절이 팝송방송하고 팝송 콘테스트 사회보고 하는 것이 너무 재밌었고, 또 그거를 되게 잘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도 내가 이쪽에 어느 정도~ (면담자: 꿈을 구체화했던 그 시기였던 거죠?) 네에. 그때가 참 좋았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방송반 하면서 콘솔 만지는 것도 참 재밌고, 아 방송이라는 것이 참 재밌다 생각했고, 또 중학교 때 그런 팝송 방송하면서 재미를 느끼고~ 그때가 참 인상 깊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의 행복감 때문에 계속 이 일을 해야겠다는 욕심으로 쪽 오게 됐어요.

그 큰 무대에서 하는 게 너무 재미있더라구요. 중학교는 또 방송부가 없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학원에서 또 그런 비슷한 일을 하고, 그러면서 이 꿈에 대한 로망이 너무 커졌고, 그러다가 이게 정말 방송을 하려면, 말을 하는 사람이 되고 하려면 어떻게 살아야할까 고민을 했는데..

김예별은 방송활동을 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기회를 얻기 위해 노력하였다. 막연히 방송에 대한 동경으로 설렘으로 시작한 활동이었지만 그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성향과 적성에 부합하는지 확실히 체감할 수 있었다. 그림 그리기를 통해서 느낄 수 없었던 즐거움과 행복이 방송 활동을 할 때는 오롯이 느낄 수 있었고, 이에 자신의 꿈을 명확히 할 수 있었다.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어가면서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탐색하는 시간을 통해 김예별은 방송 쪽으로 자신의 진로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기 시작하였다. 애정을 크게 가지고 있는 방송 일을 직업으로 삼고, 계속하기 위해서 어떤 자격과 역량을 갖춰야 하는 지,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고민이 시작되었다.

3. 못 말리는 방송쟁이의 고군분투

김예별은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 방송계를 동경하며 학생인 자신이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하며 무대를 찾고, 마이크를 잡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경험과 활동을 이어왔다. 오랜 시간 활동을 이어오며 목표를 세우고 진로방향을 결정하였지만,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중학교 3학년, 전공과 직업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며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계속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길로 나아가야할지 심도 있는 고민이 시작되었다. 방송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진로 중에서 어떤 분야가 자신에게 적합할 것인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치고 어떤 방법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 지, 정보를 어디서 찾고 누구에게 물어보아야 하는 지, 모든 것이 막연하였다. 김예별이 접근하기 가장 쉬웠던 방법은 인터넷 검색이었고, 방송 현장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력을 찾아보며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경력을 쌓아야 하는지 살펴보았다. 중학생 김예별이 정보를 검색하며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방송국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울 소재의 대학교에 들어 가야한다는 것이었다. 김예별은 자신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책으로 중학교 3학년 때 읽었던 ‘마시멜로 이야기’를 언급한다. ‘마시멜로 이야기’에서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달콤한 것들을 포기해야한다”고 말한다. 김예별은 이 책을 통해서 자신의 상황에 빗대어 생각하게 되었고,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꿈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자는 결심을 한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김예별은 그동안 활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했었던 학교 공부에 매진하게 된다.

재수를 굳이 한 이유도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대전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방송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검색을 해보고, 네이버같은 데 찾아보다보니까 무조건 대학을 서울로는 가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말 때문에.

음 저는 운이 좋았던 것 같고, 근데 그 운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학예발표회 사회도 우연히 맡고, 뭐 방송부 아나운서가 되고, 또 우연적으로 팝송콘테스트 큰 대학의 정시마을에서 사회 보는 것도 경쟁을 시켰는데 그냥 그게 다 됐고, 그니까 물론 도전을 했지만 거기서 그냥 그 자리에 뽑혔고, 그런 것들이 계속 따라왔기 때문에 어.. 여기까지 오고 좀 노력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또 신기한 것은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들은 그거였어요. 수학, 영어, 국어, 이런 것들은 노력을 해도 노력한 만큼 안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많이 답답했어요. 고등학교 때 되게. 모의고사 볼 때마다 되게 좌절을 많이 했거든요. 성적이 잘 오르지 않아서. 그런 쪽으로는 아 이제 내가 아무리 중학교 때 공부 안했다 하지만, 너무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학업에 매진한다는 것은 김예별에게 마음먹었다고 저절로 결과가 보여 지는 쉬운 일은 결코 아니었다. 노력하는 만큼 결과가 따라주지 못하는 것 같고, 에너지가 많이 소진될 때는 왜 이제껏 공부를 소홀히 했을까 라는 후회가 샘솟기도 하였다. 대체로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지내왔던 중학교까지의 삶과는 달리,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달려든 공부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기대만큼의 결과를 내지는 못하였다. 그동안 부족했던 학교 공부를 체감하며, 갑작스레 공부를 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럼에도 김예별은 지난 시간을 통해 하고 싶었던 활동을 원 없이 해볼 수 있었고, 그리하여 진로를 명확히 결심할 수 있었기에 후회보다는 자신의 꿈을 생각하며 나아가고자 하였다. 김예별은 좋아하는 책을 읽고 심야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는 시간으로 위안 삼으며 그 외 모든 시간은 누구보다 공부에 매진하였다. ‘이렇게는 다시 공부하기 힘들겠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후회 없이 공부하였지만 김예별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하였다. 서울 소재 대학을 가야하는 것이 방송국 입사의 제 1관문은 물론 아니지만, 청소년인 김예별이 인터넷으로 방송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선배들의 이력을 찾고 검색을 하며 나름대로 기준 삼아 세운 목표 설정이었다. 김예별은 선생님과 가족들 모두 무척 만류했지만 재수를 선택하고 다시 도전하였다.

근데 부모님도 제가 고집이 있는 걸 아셔서 그걸 들어주셨고, 그래서 대신에 “니가 알아서 해. 재수할거면 니가 알아서 해” 해가지고 그래서 3월부터

준비를 하면서 이제 목표를 좀 구체적으로 정해서 해야 겠다~ 그래서 대학들을 검색하고 나에게 맞는 전형이 무얼까를 계속 찾았거든요. (중략) 재수하는 3월달, 스무살에 입학사정관전형을 알게 됐는데 입학사정관전형 취지가 저랑 굉장히 잘 맞더라구요, 특히나 그 A대학교 000전형은 저처럼 꿈을 오랫동안 껴왔던 아이들에게 유리했어요.

고3때 담임선생님이 너 재수해도 서울로 대학 못 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때 고3 선생님이 너무 안 좋은 상처로 남아있는 거죠. 근데 그러다보니까 그 선생님을 굳이 찾아가고 싶지 않더라구요. 수시준비를 하면서도 근데 거기다가 부모님한테는 어 나 무조건 재수할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너 부모님이 “일단 10학번때 다녔던 학교에 낸 등록금과 입학금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니 맘대로 하라구~ 대신에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되게 절박했어요. 제가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거주 지역 소재 국립대에 입학하였다가 자퇴를 결정한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으로 가족의 지원을 받지 않은 채 스스로 또 다시 대입을 준비한다. 꿈에 대한 간절함으로 혼자서 고군분투하며 일명 ‘독학재수’를 어렵사리 하던 중 김예별은 ‘입학사정관전형’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전형의 취지와 각 대학에서 운영하는 전형의 인재상을 보며 자신에게 적합한 대입준비방법이라 판단하였다. 혼자서 모든 것을 준비해야하는 만큼 스스로 자신과 꼭 맞는 대학의 전형과 학과를 심사숙고 하여 찾아 준비하였다. 방송 분야의 진로를 꿈꾸고 있었기에 당연히 ‘신문방송학과’에 진학해야겠다고 생각해왔었지만, 김예별이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의 신문방송학과는 경쟁률이 너무 높았다. 김예별은 방송 일을 하고 있는 선배들의 이력과 출신학과를 살펴보며 ‘철학과’ 출신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철학도가 속해있는 문과대학의 입학사정관전형 평가방식이 독서와 글쓰기를 좋아하는 자신이 도전해 볼 만하다고 판단하여, ‘문과대학 철학과’에 입학하고자 목표를 세운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직 제도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았기에 막막한 부분은 있었지만 전형 취지를 본 순간 딱 자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재수를 했는데 그때 입학사정관전형을 우연히 본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 때는 뭔가 입학사정관전형을 자세히 읽다보니까 그게 저

와 맞더라고요. 꿈을 계속 이루어가는.

김예별은 막연하였지만 자신에게 적합한 전형이라는 강한 믿음 아래 입시 준비를 할 수 있었다. 이제까지 해왔던 노력과 활동들을 통해 그 시간들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정리하였고, 스스로 입학사정관전형의 취지와 요구하는 인재상에 적합한 인재라는 자신감을 가지며 면접을 준비하였다. 주변의 격려 없이 모든 선택과 준비를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힘든 시간이었지만 김예별은 노력 끝에 합격이라는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4. 얼마나 오고 싶었던 대학이었는지

모두가 반대하고 아니라고 했지만 스스로 불안감 속에서도 자신을 믿고 노력해서 대학입학이라는 결과를 얻어낸 김예별에게 대학생활은 선물과도 같은 나날이었다. 간절히 바라고 희망해왔던 만큼이나 학교에 대한 자부심과 애교심이 크게 자리하였고, 대학은 김예별이 자유로이 관심분야를 공부하고 실질적인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의 무대가 되어주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서울에 와서 공부하는 생활은 녹록치 않았지만, 대학생활에 점차 적응해나가며 하고자 하는 바를 실현하는 것에서 오는 즐거움, 어릴 적부터 원해왔던 꿈에 한 걸음씩 가까워지고 있다는 기분은 김예별을 행복하게 만들었다. 김예별은 철학과 최초로 여성 과대표가 되어 수업뿐만 아니라, 교내외 다양한 활동을 하며 열정적으로 대학생활에 임했다.

그래서 저는 우리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크거든요. 제가 노력해서 올 수 있었던 중에, 제가 지금까지 생긴 이력들 중에, 제가 가장 노력해서! 삶을 노력해서 얻을 수 있었던 것 중에는 가장 정직한 결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학교에 대한 감사함이 되게 크고 지금도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하지만 학과선배들의 조언을 따라 전공수업으로 가득 채운 대학교 첫 학기의 수업은 김예별에게 또 다른 고민을 안겨주었다. 철학과에 입학하여 인문학적 소양과 깊이를 더하고, 신문방송학을 복수전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철학과 전공

수업은 이제 막 대학생활을 시작한 김예별에게는 너무 어렵게 다가왔다.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다가왔던 전공 수업은 김예별이 생각했던 바와는 너무 다른 학문이라 느꼈고, 이에 전과를 결심하게 된다. 어렵고 힘들게 느껴진 수업이었으나 다행히 1학년 1학기 성적은 잘 나와 주어 전과가 가능했었고, 오랜 고심 끝에 신문방송학과로 전과하여 학업을 이어나갔다. 김예별은 그때를 회상하며 간절히 바래왔던 대학 생활인만큼 철학과의 과대표가 되고, 적극적인 대학생활도 꿈꿨었지만, 선배들의 추천으로 수강하게 된 전공수업이 하필 어렵기로 소문이 자자했던 수업이었고, 신입생 김예별에게 너무 버겁게 다가와 이런 선택으로 이어졌었다고 이야기한다.

너무 식겁을 한거죠. 1학년 1학기때는. 그니까 경험해본게 너무 추상적인 내용이더라고요. 그니까 하필이면 또 들었던 전공 수업이 너무 어려운 수업이었어요. 다들 재수강하는! 근데 제 생각에는 선배들이 그거를 막 추천을 해줬는데. (◦면담자: 코칭을 잘 못해줬네요?) 네에에. 그것만 없었으면 오히려 전공을 끝까지 잡고 갔을 것 같거든요. (◦면담자: 좀 더 알면서 배웠으면 더 나았을 수도 있었는데?) 네에. 너무 무리한 수업을 듣고 하다보니까 1학년 1학기때 든 결심이 내가 이걸 전공 못하겠다~ 너무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김예별은 스스로 처해진 환경에 적극적으로 변화를 만들려 노력하였고, 꿈꿔왔던 대학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주체적으로 임하였다. 첫 번째 대학에 입학하였다가 재수를 결심하고 자퇴를 결정했듯이, 전공 또한 생각한 부분과 다른 학문이라는 생각으로 전과를 결심하고 바로 행동으로 옮겼다. 자신을 둘러싼 물리적인 환경을 스스로 변화하고 새로이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전공 수업 외에도 김예별은 방송 현장을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방송인이 되기 위해 어떤 역량을 기르고 무엇을 학습해야할지 생각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찾아 나아가는 것에 거침없었다. 이를 통해 진로를 보다 구체화하여 발전시킬 수 있었고, 이 모든 시간이 김예별에게는 즐거움 그 자체였다.

음.. 그냥 되게 열정이 넘치는 아이였던 것 같아요. (중략) 네. 공부적인 것도 그렇고, 대외활동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연애를 대학교 4학년 때까지 안한거구요.. 그것만 하는 걸로 인생이 충분히 재밌어서. 남들 연애할 때 저는

그것만 하는 것도 인생이 충분히 재밌었고, 그리고 약간 그냥 그냥 그때는, 뭐든 다 하고 싶었어요. A대를 입학사정관(전형)으로 들어왔다는 자체가 제 꿈에 기회를 준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걸 발판으로 뭔가를 더 해보자. 생각보다 누릴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서울로 대학을 왔을 때. 제가 지방에서 와서 더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살았던 것 같고, 굉장히 열정이 넘치는 아이고, 그래서 또 다시 그때로 돌아가라고 해도 그만큼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본인이 찾으려면 할 게 되게 많았어요. 이게 되게 학과공부만 하면 막상 없는 것 같지만, 조금만 눈을 돌리면 생각보다 찾아서 할 게 되게 많거든요. (☞면담자: 아 그럼 김예별씨는 어떤 방법으로 찾았어요?) 저는 계속 그 네이버 카페라던지 스펙업이라던지 그런 검색도 많이 하고, 또 대학교 다니면 홍보물 같은 거 있잖아요. (☞면담자: 게시판에 붙여져있는?) 네네 그런 거 보면서 또 되게 많이.. 쉽게 찾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면담자: 더 하고 싶은데?) 네 더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웃음).

자신에게 필요한 것, 방송인이 되기에 갖춰 나가야할 역량을 함양할 수 있게 해 줄 경험들, 전공 공부 등 이론과 실전을 넘나들며 김예별은 항상 무언가를 찾아서 분주하게 대학생살을 보냈다. 김예별에게 대학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에 대한 감사함과, 뜨거운 열정, 더 많은 기회로 점철되는 공간이었다. 간절히 바래왔던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더 가치 있게 보내고 싶었던 김예별이었다. 그런 김예별을 보며 대학 친구들은 어떻게 그렇게 정보를 잘 찾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지 신기하게 생각했었다. 김예별은 그러한 친구들의 반응을 보며 자신에 대해 돌이켜 생각해 볼 수 있었다. 김예별은 어렸을 때부터 늘 스스로 원하는 것을 찾고,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주체적으로 행동했던 습관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라 생각하였다. 어렸을 때부터 어떤 공부가 필요하거나 무언가를 배우고 싶을 때 스스로 먼저 부모님께 이야기 해야만 했던 환경이었다. 진로를 결정하고 진학을 준비할 때도 다양한 정보를 직접 찾아보고 자신에게 맞추어 노력했던 과정들이 있었고, 그 시간들이 지금의 김예별을 있게 하였다. 스스로 필요한 환경을 만들고, 자신이 희망하는 모습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했던 김예별에게 대학이라는 무대는 자유와 책임을 갖고 생각해왔던 것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학업과 활동들로 가득 찬 대학

시절이었음에도 “오히려 시간이 없어서” 더 많은 것을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열정 넘치는 대학생 김예별이다.

네. 항상 뭔가를.. 그니까 진짜 엄마가 약간 방관했다고 했잖아요. 엄마가 약간 제가 뭔가를 지원해주세요 할때는 지원을 해주긴 했지만, 엄마가 먼저 찾아서 어느 학원 어느 과외 이런 건 안하다보니까 어릴 때부터 내가 항상 뭔가를 찾아서 해야 한다는 게 박혀 있었어요. 내가 뭔가를 이루려면 뭐가 있는 지 찾아보고 해야겠다. 그 다음에 지원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지 방향 자체를 부모님이 막 잡아주시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대학가서도 적응이 되게 아닌가..

5. 직접 경험하고, 성찰하고, 의미부여하기

김예별이 대학 입학 후 처음으로 했던 대외활동인 ‘여수엑스포’ 국제미디어 부에서의 봉사활동은 김예별에게 많은 용기를 불러일으켜주었던 경험이었다. 미디어파트에 배정이 되면 현직에서 일하고 있는 선배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옆에서 지켜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였다. 부폰 마음으로 ‘여수엑스포’ 봉사활동 지원 과정에서 면접을 볼 때도 부서 선택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미디어파트에서 꼭 일하고 싶다는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였고, 희망하던 미디어파트에 배정되어 방송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을 체험할 수 있었다. 방학기간 두 달 동안 여수에서 지내면서 많은 기자들을 만나고, 방송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다. 그 속에서 함께한다는 것은 김예별에게 큰 배움이었고 앞으로 이어질 김예별의 행보의 시작점이 되어주었다.

그때 이제 두 달 동안 여수에서 보냈는데, 그때 실제 기자 분들도 많이 보고 그리고 약간 중계차도 타보고, 그리고 또.. 중계실.. 모든.. 뭐 방송국을 간접 체험한 느낌? (중략) 그때 제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대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하고 좀 다른 사람보다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을 좀 많이 했는데.

김예별은 이외에도 다양한 대외활동을 많이 하면서 대학생활을 보냈다. ‘여수

엑스포' 활동을 시작으로 SBS 시민논객 활동, KBS 대학생 캠프, 호주대사관 온라인 리포터, 신문사 인턴활동 등 다양한 곳에서 역할을 하며 다채롭게 대학생활을 꾸려나갔다. 기대를 안고 참여하였던 첫 번째 대외활동은 처음부터 즐거웠던 것만은 아니었다. 연고가 없는 지역에서 처음 본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며 함께 의기투합하는 것이 그리 편하게만 느껴지지는 않았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가득했었다. 하지만 특유의 밝음과 성실함으로 김예별은 직접 부딪치면서 소통하고 활동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 김예별은 자신감을 많이 얻게 되었고, 이후에도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을 적극적으로 찾았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경험이 쌓여갈수록 다음 행보에 대한 도전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 김예별에게는 큰 수확이었다. 특히 김예별은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먼저 걸어간 방송계 선배들이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는지 찾아보고, 쫓아가며 배우고자 하였다. SBS 시민 논객 활동도 그러한 선배들의 길을 따라가다가 마주한 경험이었다. 시민논객 모집에 김예별은 최연소 패널로 참여하게 되었고, 이 경험을 통해서 토론에 대한 태도,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 하는 방법, 사회적 이슈에 대한 민감성 등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시민논객 활동 자체가 주는 배움도 물론 컸지만, 무엇보다 자신과 비슷한 꿈을 가지고 참여한 시민논객들과의 교류가 그 안에서의 성장과 깨달음으로 이어져 김예별을 더욱 성장하게 하였다.

항상 미리 된 분들의 이력을 되게 많이 살펴봤어요. 그들을 쫓아 해야 (☞면
 담자: 갔던 길을..?) 네. 가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시민논객을 많이 했더라고요. (중략) 근데 되게 좋은 인연을 많이 만났고, (중략) 그분들한테 어 대학교 2학년인데, 어떻게 스물두살에 이런걸 하니? 약간 이런 이야기도 들었고, 그리고 그때가 약간 세상 보는 눈이 조금은 넓어진 것 같아요. 그니까 2학년 때 했던 모든 것들, 2학년 때가 정점이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남들보다 일을 빨리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대학 때 그런 직접체가 원하는 직장, 제가 원하는 비슷한 곳에서 그런 분들을 많이 보고 배운게 많아서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에게서 듣는 조언들. 왜냐면 특강가면 대다수에게 말을 하기 때문에 저한테 (직접적) 도움이 되는 게 별로 없지만, 이런 쪽에서 만나면 일대일로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해주신

이야기들이 꽤나 도움이 되지 않았나.. 되게 좋았어요.

방송 일을 하고 있는 현직 선배들, 자기처럼 그 길을 가고자 하는 동료들과 만날 수 있고,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김예별이 다양한 대외활동을 하고자하는 이유였다. 김예별은 활동을 통해 만나게 된 인연들을 소중히 생각했고, 그 안에서 많은 조언을 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간들이 있었기에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빨리 파악하였고 실천할 수 있었다. 대학에서 전공 공부를 하는 것 또한 김예별에게는 하고 싶었던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기회로 다가왔다. 수업을 선택하고 수강할 때도 학점을 잘 받을 수 있는 과목을 고려하기보다는, 자신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였고, 조금이라도 실무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수업을 수강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시간에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 실제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보다 조금 앞서 가고 있는 분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시간은 김예별이 진로를 나아가는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경험이었다.

그리고 보면 학교 커뮤니티에 “이 교수님 수업 절대 듣지 마세요. 학점 받으려면” 요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학점을 안준다고 해도 실무이면 무조건 들었어요. (☞면담자: 내가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예. 그러니까 학점을 떠나서 일단은 내가 배울게 있으면 무조건 가자는 주의였기 때문에. 학점 못 받는 거는 뒤로 하고..

근데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되는게 지금 선생님이랑 이야기하면서 드는 생각이 비슷한 꿈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면담자: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되게 자극되기도 하고, 또 플러스로 정말 거기서 친해지면, 처음엔 뭐 경쟁자처럼 보여도 나중에는 서로 정보를 되게 공유하게 돼요. 근데 그게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면담자: 컴퓨터로만 찾는 정보를 떠나서?) 네. 책으로만 볼 수 있는 건 또 다르고, 그러니까 되게 열정적인 친구들을 많이 만났던 것 같거든요. (중략) 저처럼 비슷한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러다보니까 개네를 통해 되게.. 자극받는 것도 많았고.

다양한 활동은 나 홀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긍정적 자극이 되어주기도 하였고, 다채로운 방송 분야의 업무를 직접 경험해보면서 자신에게 어떤 분

야가 적합할지 스스로 가늠해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였다. 신문사 인턴 활동과 호주 온라인 리포터 활동 또한 그러한 맥락에서 참여하였던 활동이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 김예별은 자신의 성향과 잘 맞는 분야가 무엇인지, 또는 잘 맞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인지 파악할 수 있었고, ‘리포터’로 진로를 구체화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 소통하는 방송인이 되고자 목표하였기에 김예별은 다양한 경험을 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환경에 자신을 두려고 노력하였다. 소통을 잘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김예별은 방송관련 활동 이외에도 봉사활동이나 타 분야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역량을 넓혀나가려고 하였다.

소통능력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내가 누구나와 소통을 할 수 있으려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하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말을 섞어봐야 가능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그런 것 때문에 봉사활동이야말로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소통을 할 수 있겠다. 이해하는 거, 배려하는 거를 배울 수 있겠다 싶어서 신청을 했던거거든요. 근데 그때 만난 인연들이 지금까지도 잘 이어져오고 있거든요.. 그니까 이게 같은 업종의 사람들이 친하긴 하지만 가끔은 같은 업종의 사람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는데, 그런 역할을 박물관 봉사활동에서 만났던 분들이 되게 다양하게 꿈을 가진 분들이었고, 다양하게 퍼진 분들인데, 그분들을 통해서 세상보는 눈도 많이 길러지고, 그들이랑 같이 MT도 가고, 생각보다 좀 많이.. 그들을 통해서 배려하는 것도 배우고.. 그랬던 것 같아요.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은 김예별에게 다른 관점과 다채로운 사고를 배울 수 있는 경험이었다. 그리고 다양한 관점 속에서 자신을 돌이켜보고 생각하는 것은 성찰과 경험의 의미를 생각하는 시간이었다. 현재 리포터로 일하고 있는 김예별은 자신이 했던 활동들을 떠올리며 의미 없는 경험은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한다. 막상 방송의 세계로 들어와 보니 리포터의 업무가 생각보다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었고, 다양하게 경험했던 대학생들의 모든 시간들이 알게 모르게 조금씩 연관되어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직장에서의 인정과 자신만의

경쟁력으로 이어져 더욱 자신감 있게 일할 수 있게 하였다. 김예별은 지금의 모습이 있기까지 자신의 지나온 시간과 경험에서 의미를 찾으며 이 길을 걸어왔다.

지금도 회사에서도 칭찬받는 게 너가 되게 구성력이 좋다. 구성을 잘 한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어릴 때, 대학 다닐 때라던지 했던 행동들이.. 그리고 신방과 전공(수업)은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도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잘게, 그 때 대외활동들이 크게 전문적으로 도움이 된 것은 없는데 잘게 잔 지식들이 많아가지고. 그니까 예를 들면 사실 초반에 회사 들어갔을 때 바로 투입이 거의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뒷받침, 그 바로 투입되기 전에 약간 해야 할 행동들을 제가 대외활동을 통해 많이 습득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저를 좀 더 좋아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인정받는 리포터가 되기까지 김예별은 경험을 통해 자신의 성향과 적성을 판단하고, 그 시간을 성찰하고 의미 부여하였다. 어떠한 경험이란 자신의 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도움을 줬다고 생각하였다. 성찰과 의미부여 시간은 꿈에 더 다가가고 성장할 수 있었던 발판이 되어주었다. 부족한 부분과 잘하는 부분을 스스로 잘 파악할 수 있었고, 다음 행보를 계획하게 하였으며,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을 부여해주었다. 직접 부딪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경험을 만들어가며 성찰하고 의미부여하는 과정은 김예별을 성장과 도약의 길로 이끌었다.

꿈이 너무 확실했다는 거. 선명했다는 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니까 초등학교 2학년 학예발표회 사회를 맡으면서 아 내가 이런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했고, 그 이후로 비슷한 활동을 했을 때 그만큼 재밌었고, 그러면서 꿈을 계속 그리는데 중학교 때 읽었던 마시멜로라는 책이 크게 자극이 되면서, 좀 항상 의미부여하고 자아성찰을 많이 하는 성향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도움이 돼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6. 행복하기 때문에 걸어온 길

어느덧 리포터 경력 3년차에 접어든 김예별은 그동안의 시간을 돌이켜보았을

때 리포터라는 일을 통해 만나보기 힘든 수많은 사람들을, 그것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음에 감사한 마음이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삶의 경험을 나누고, 그들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전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영향을 떠올리면 때로는 책임감으로, 때로는 보람으로 다가온 시간들이었다. 꿈이었던 방송 일을 직접 해보면서 김예별은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한층 성숙해질 수 있었다.

어 진짜 제가 이 나이 스물여덟이라는 이 나이, 제가 이 일을 스물다섯부터 했는데, 그때 스물다섯부터 제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든 생각이 이 일 자체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많이 알게 됐어요. 그니까 제가 내뱉은 말의 힘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책임감이 생겼고 (중략) 이 일을 하면서 한 사람을 만난다는 게 내가 책 한권을 읽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 일의 특권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정말 이 나이에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김예별은 소통을 잘 하는 리포터가 되고자 하는 꿈을 실현하고 있고, 어릴 때부터 바라왔고 희망했던 모습인 만큼 자신에 대한 대견함과 보람을 느끼며 일하고 있다. 김예별이 이렇게 안정된 마음으로 일을 하기까지는 우역곡절이 있었다. 이론과 실무 경험을 고루 쌓으며 열정을 다해 방송국 입사를 준비했던 김예별은 대학 졸업 후 바로 울산지역 지상파 리포터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오랜 시간 바라고 준비했던 세계에서의 일이었기에 재밌고 감사한 마음이었지만, 또 다른 마음 한편에는 ‘리포터’라는 직업의 안정성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고, 고민의 과정에서 케이블 방송국의 기자 겸 앵커로 이직을 했었다. 케이블 방송국에 정규직으로 채용되면서 사회에서 인정해주는 현실적인 조건 부분에서는 만족스럽고 분명 소중한 기회였지만, 김예별은 입사 한 달도 되지 않아 자신의 성향과 맞지 않음을 직감하였다. 리포터의 일과 기자의 일은 엄연히 다른 업무였다. 일에서 요구되는 역량도 상이했고, 출퇴근 시간에 따른 라이프 스타일에도 많은 변화가 뒤따랐다. 김예별은 새로운 방송 세계에 대한 열망과 안정성에 대한 고민으로 이직을 했었지만, 직접 일에 투입되고 경험하면서 자신과 맞지 않음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

고 퇴사를 결심했다.

그리고 사실 그 중간에.. 일하는 만 3년이라는 시간동안.. 리포터가 아니었던 시간이 딱 3개월이 있는데, 그 때가 언제냐면 지역 케이블에서 앵커 겸 기자로 채용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너무 정규직에 대한 로망도 있었고, 뭔가 그 ‘회사원은 어떤 삶일까’ 라는 것 때문에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울산000를 나온거예요. (☞면담자: 아~ 그 계기로?) 네. 그 계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울산000를 나왔고, 거기를 갔다가, 저는 이제 일반적인 나인 투 식스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웃음), 그래서 그걸 그만두고 이게 ‘내 길이 아니구나~’ 깨닫고 다시 대전000로 가게 되었어요.

내가 굳이 이 일을 하면서 얻은 행복도 없었고, 자리 지키기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었고, 그러면서 아 이 일이 안 맞구나. 그리고 기자는 비판적으로 보고 사회의 문제를 짚어 내야하는데 리포터 같은 경우는 리포터는 교양프로그램 위주라면 기자는 정말 시사잡아요. 이게 안 맞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안 맞았고.

이직과 퇴사, 재취업의 과정은 어떻게 보면 짧다면 짧다고 할 수 있는 시간이었지만, 김예별에게는 고수해오던 가치관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고 인생에서 많은 것을 깨달았던 시간이었다. 자신과 맞지 않은 선택이었다는 것을 느끼고 바로 퇴사를 결심한 김예별은 다시 새롭게 일자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 했어야 했다. 다시 대전지역 지상파 리포터로 취업하기까지 5개월가량의 시간이 걸렸고, 그 시간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고, 항상 자신감 있게 나아갔던 김예별을 의기소침하게 만들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 김예별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고, 자신의 선호, 성향, 추구해야할 방향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다.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지만, 그 시간을 지나온 지금으로써는 자신을 보다 굳건하게 만드는 약이 되는 시간이었다고 회상한다. 리포터 생활 3년 경력 안에는 이렇게 즐거움, 행복함, 어려움, 갈등, 불안, 확신, 안정, 만족 등 다양한 감정이 담겨 있고, 좋았던 시간 속에 고민으로 얼룩진 고단한 시간도 존재하였다. 지금은 자신의 일을 즐길 줄 알고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이 가득한 다재다능한 리포터로 현장에서 뛰고 있다. 김예별은 말한다. 힘들고 고민이 많던 날이

있었기에 지금의 일에 더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었고, 자신을 더 성숙하게 만들었다고. 지금 하는 일의 소중함과 책임감을 더욱 느낄 수 있다고 힘주어 이야기한다.

일상이라는 게 꼭 꿈과 직업만으로 채워지지는 않더라구요. 정말 지금 안정기여서 사실은 이정도 되니까 금방금방 일을 해요. 예전.. 정말 초창기 때 생각해보면 시간이 정말 안 들고 제 시간이 많이 생겼는데, 그래서 느끼는 건 소소한 일상을 즐기고 싶고, 소소한 일상의 행복이 채워져야 제가 직업에 더 만족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좀 이상하게 그 3년이라는 시간동안 어떤 방송인이 되어야겠다 뭐 요런 건 없는데, 참 신기한 건 그런..것들, 이런 소소한 삶에, 일상에 이런 것들을 이루고 싶은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대학다닐때만 해도 내가 서른까지는 무조건 성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중략) 서른이라는 마지노선을 두고.. 근데 사실 이제는 그러지 않거든요. 이제는 일을 하면서 소소한 행복들을 많이 알아갔어요. (중략) 리포터 일이 적성과 잘 맞더라구요. 사람들도 만나고. 그러다보니까 이일을 되게 좋아하게 되었고, 매력을 느끼게 되었는데, 이 일을 하면서 신기했던 게 작년에 백일장에 우연히 나갔었거든요. (방송국)파업할 때, 그때 일이 없으니까 파업을 하면... (그런데 거기서 대상을 수상했어요).

꿈과 목표를 위해 쉽 없이 달려왔던 김예별에게 이직의 과정은 가치관 변화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김예별은 애정을 크게 가지고 있는 리포터 활동을 가능한 오래 하는 것을 새로운 목표로 삼고 있다. 그리고 업무에 익숙해지고 경력과 함께 여유가 생기면서 잊고 살았던 일상의 행복들을 돌아보며 새로운 도전과 작은 목표들을 계획하고 있다. 김예별은 사람들의 삶을 담아내고 이야기하는 일을 하면서 일상에서의 소소한 행복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다. 여태껏 자신의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꿈을 향해 돌진하는데 보낸 김예별은 이제는 조금 천천히 걸으며 놓치고 있던 부분들을 들여다보기 시작하였다.

우연한 기회에 백일장에서 참가하였다가 김예별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라는 큰 상을 받게 되면서 ‘작가’로서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하였다. 기대하지 않았던 차에 받은 대상은 새로운 꿈과 도전을 불러일으켰다. 김예별은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며 학창시절부터 책을 읽고 일기 쓰는 것을 좋아했고, 또, 리포터 일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소통했던 경험, 리포터 일의 특성상 원고를 기획하고 직접 작성하며 보낸 일련의 시간들이 모두 커다란 의미로 다가움을 느꼈다. 김예별은 자신만의 책 한권을 출판하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그 외에도 울릉도 마라톤 대회 참가, 요가 자격증 취득, 등 일상에서의 새로운 과제들을 자신에게 부여하였다. 이는 김예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이며, 일상에서의 작은 성취와 소소한 행복들은 리포터 활동을 하는 데에도, 글을 쓰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

그.. 저도 여기(면담장소) 오면서 생각해봤는데 제가 진짜 어릴 때부터 방송을 하면 행복하다는 이유로 여기까지 걸어 왔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도 가려고 길게 방송하고 싶어요.

그리고 서른 살에는 솔직히 2년 후에는 에세이 한권을 진짜 내고 싶은데, 중요한 건 이 인터뷰를 하면서 아 그동안 너무 막연히 생각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한글 파일을 노트북에 만들기를 시작했어요. (☞면담자: 아 형성화시키기를 시작하신 거군요?) 네에에. 그래서 좀 뭔가 문득문득 저는 이제 생각이 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원고를 쓰다가도 살짝 살짝씩 적어놓고 있거든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는 것을 꿈꾸며 방송 일을 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던 김예별은 지금까지의 시간을 돌이켜보며, 행복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시간이라 이야기한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분야를 찾아가고, 우여곡절을 겪으며 배우고 성장했던 시간, 그 길을 걸어오는 과정이 행복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좋아하는 일을 어떻게 계속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현재의 모습까지 도달할 수 있었다. 누구보다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며, 뚜렷한 목표와 열정으로 가득했던 과거의 경험을 상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수 있었다. 때로는 힘든 시간도 많았지만 자신의 삶을 위해 주체적으로 결심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였다. 노력했던 그 시간들이 꿈에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였고, 과정에서 오는 즐거움과 재미가 있었기에 가능한 시간이었다.

행복해서 한거니까.. 그래서 지금 일도 생각해보면, 이 일을 하면서 사실 포기해야하는 것도 많거든요. 명예직인 것도 사실이고. 보면 엄청난 안정성은 없고 하지만, 이 일을 꾸준히 계속 하고 이 일이 제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 일을 할 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중략) 초등학교때 꿈을 갖고 행복하지 않았다면 놓았을 것 같아요. 행복하면 무조건 하고 싶었고, 부모님이 중간에 미대를 갓으면 하셨어요. 그림을 그리고 부모님께 물려받기를 원하셨는데 미대를 정말 가고 싶지 않았던 건 그림을 그릴 때 행복하지 않았어요. 너무 그림을 그릴 때면 잘 그리긴 하는데 재밌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그 재미와 행복추구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

김예별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상황에 놓이게 되면 환경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하는 연구참여자이다. 자신을 둘러싼 환경은 얼마든지 개인이 주체적으로 바뀌나갈 수 있다고 보며, 변화를 주저 없이 결정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진로 여정에서도 원하는 바를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찾고 선택하였다. 김예별은 환경을 용기 있게 개척하며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구성하였다.

C. 진로는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역사학도 오보람 이야기

1. 자연스럽게 형성된 역사에 대한 관심

광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오보람은 성장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매체를 통해, 학교 교육을 통해, 지역적 분위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었다. 오보람이 기억하는 어린 시절의 장면은 5·18 민주화운동에 희생된 사람들의 유가족을 수소문하는 광고가 TV에 방영이 되던 장면, 국립 5·18 민주묘지로 친구들과 견학을 다녀온 장면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비롯된 관심은 역사에 대한 호기심으로 이어질 수 있었고, 오보람은 사회과목과 역사과목에 많은 흥미를 가진 아이로 성장할 수 있었다.

어.. 굉장히 이거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영향을 많이 받고 자란 것도 있는데, 고향이 광주다보니까 5·18민주화운동이라던가 혹은 각종 민주화운동들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교육도 많이 받았고, 학교 차원에서도 교육을 많이 했었고, 또 주변에서도 많이 이야기 듣다보니까. 저한테는 상당히 친숙한 주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현대사에 관심을 꾸준히 가지고 있었고, 사실 이러한 관심이 사학과로 진학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영향을 끼쳤던 것도 같아요.

각종 매체와 학교에서 접했던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궁금증이 생긴 오보람은 아버지께 이와 관련하여 여쭙보았지만, 아버지께서 그 시절의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러한 아버지의 태도는 오보람에게 더 큰 궁금증과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주었고 스스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자료를 찾고 책을 살펴보았던 것이 오보람이 역사를 공부하게 된 시작점이었다.

아버지의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5·18이 일어났던 1980년대 그때 아빠가 전남대학교 신입생이셨고, 전남대 1학년이셨고, 그래서 참여하셨던 경험이 있어요. 아빠는 보상.. 이제 민주화운동 보상 신청을 할 때 그때 아예 신청을 안 하신 분이긴 한데 그래서 결국 유공자는 아니지만, 아빠는 그때 그 현장에 계셨고, 같이 했던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5·18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하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아빠한테도 여쭙본 적이 있는데 아빠는 그때 이야기하는 걸 되게 안 좋아하세요. 본인은 한 게 없으시고, 본인은 살아 계시잖아요. 본인은 충도 안 맞으셨고. 그러다보니까 그 이야기하는 걸 좀 안 좋아하셔서, ‘아 그러면 내가 알아보지 뭐!’ 라고 했던 게 관심의 시작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네요.

오보람은 어렸을 때부터 역사책을 즐겨 읽었고 학교를 다닐 때도 사회와 역사 과목을 제일 좋아하였다. 관련 도서를 읽을 때는 한없이 빠져들며 재미를 느끼고는 하였다. 오보람은 책 이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역사에 대한 탐구를 계속하였다. 고등학교 진학 후에도 자신이 하고 싶은 역사 활동을 계속하여 이어나갔는데, 오보람은 그럴 수 있었던 배경으로 ‘가정 분위기’와 ‘기숙사 생활’을 언급한다. 오보람의 부모님께서는 맞벌이를 하셨고 바쁜 부모님으로 인해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앞가림을 해야 했던 가정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였다. 고민거리나

중요한 선택에 있어서 아버지와 이야기를 자주 나누는 편이었지만, 비교적 오보람의 선택을 존중해주시고 알아서 잘 할 거라는 믿음을 보여주셨다. 또한 오보람이 기숙사 체제로 운영되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부모님과 물리적으로 떨어져 생활하게 되었고, 이 또한 환경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오보람은 생각했다. 부모님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환경은 좀 더 자유로운 시간을 스스로에게 선사해주었고, 학교 공부 이외에도 여러 가지 활동을 시도해볼 수 있었다.

아무래도 음.. 부모님의 간섭이 좀 덜.. 해서.. (다양한 활동을 해볼 수 있었어요).

저는 사실 엄마보다는 아버지가 제 교육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는 분이셨거든요.

오보람은 진로에 대한 고민이나 전공 선택과 같은 삶에서 중요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아버지와 나누는 편이었다. 아버지는 오보람의 고민에 대해 다양한 제안을 해주시기는 하셨지만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는 오보람의 선택을 항상 따라주셨다. 오보람 역시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아버지와 대화를 통해 조언을 귀담아 듣고,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오보람은 지금까지의 시간을 돌이켜보면 역사에 관심을 갖고 진로로 연결시킬 수 있었던 특정한 계기가 있었다기보다는 지역의 환경과, 가정의 분위기, 그리고 활발하고 적극적인 자신의 성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지금의 전공과 진로로 연결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삶에 ‘역사’는 스며들 듯이 다가왔고,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삶을 함께하는 오보람의 세상이 되었다.

2. 탐구하고 도전하는 고교생활

오보람은 학교에서는 일명 ‘역사덕후’ 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로 역사를 좋아했고, 학교에서 배우는 것 이외에도 다양한 경로로 역사를 마주하며 학습하였다. 교과서에서 배우는 역사 공부만으로는 호기심이 충족되지 않았고, 더 깊이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항상 가득했었다. 이에 역사와 관련된 다양한 도서를 읽고, 역사를 주제로 시행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학습의 폭을 넓혀나갔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고 역사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교류하는 시간은 오보람에게 아주 큰 ‘재미’와 ‘즐거움’으로 다가왔다.

이러한 시간 덕분에 오보람은 활발하고 역동적인 고교생활을 만들어갈 수 있었다. 혼자 학습하는 것에서 나아가 자신과 같이 역사를 좋아하는 친구들을 모아 교내 역사동아리를 만들고 다채로운 활동을 추진하였다. 역사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는 교내 행사를 기획하고, 정기적으로 유적지 답사를 하며 역사를 잘 보전하기 위해 해야 할 일에 대해 생각하고 토론하였다. 동아리를 만들고 역사 활동을 추진하는 것은 오보람에게 쉽지 않은 도전이었다. 뜻이 맞는 동료들을 모으고 어떤 일을 함께할지 결정하고 이끄는 것은 생각보다 큰 도전이었지만, 함께 학습하며 성장했던 그 시절의 시간이 지금까지도 기억에 많이 남는 것을 보면 오보람의 고교생활에 아주 뜻 깊었던 시간이었다. 이러한 시간이 오보람의 고교생활에 담겨있었기에 역사에 대한 탐구의 깊이를 더할 수 있었고, 사학과에 진학하여 더 깊고 넓게 공부하고 싶다는 결심을 할 수 있었다.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기는 해요. 동아리를 만들었을 때가 상당히 인상 깊은 해요. 제가 뭘 만들어서 사람을 모집하고 활동 했던게.. 저한테는 되게 큰 도전이었거든요. 동아리를 만드는 것도 한 몇 달동안 고민하다가 만들었고 그러다보니까..

아.. 되게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았어서.. 음... 조금 더 욕심을 가지고 추진했던 건.. 저희 축제 때 전시회를 한다던가, 역사를 좀 더 쉽게 알 수 있는 전시를 했었고, 그리고 음.. 한 두달에 한번정도 답사를 다녔었어요. 답사를 다니고, 답사를 다니다가 찾은 주제를 가지고 대회에도 참가를 했었고, 역사체험발표라는 게 있었어요. 동북아 역사재단이라는 곳에서 하는 대회였는데. 거기에도 진출해서 수상했던 경험이 있어요.

오보람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위치와 주변 환경 또한 역사적 유적지가 근접해있는 장소였으며, 주변의 역사 유적지에 호기심을 갖고 탐구하는 것은 오보람의 고등학교 생활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 오보람은 평소 관심 있는 역사 주제에

대한 대외활동 정보에 귀 기울였고, 마음에 드는 주제가 있을 때는 꼭 참여하였다. 활동의 결과가 수상으로 이어질 때도 있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었다. 개인으로 참여할 때도 있었고, 그룹으로 참여할 때도 있었다. 수상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하여 참여하고 도전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보람은 단지 ‘써보고 싶은 주제’들이었기 때문이라 이야기 한다. 관심 주제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토론을 준비하고, 자료를 찾아보며 기획하고 구성하는 일련의 작업은 오보람에게 살아있는 공부, 성장한다는 느낌을 부여해주었다.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근거 자료를 찾고, 아이디어를 내고, 토론을 하는 시간들은 재밌고 즐거운 시간으로 다가왔다.

음.. 이제 기억에 남는 경험은 다녔던 고등학교가 전라남도 나주시라는 곳에 영산포라는 동네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일제강점기 때는 쌀을 수탈하는 장소로 상당히 번창을 했었다가 이제 해방이후에는 전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동네였거든요. 근대문화유산 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흔적들이 굉장히 잘 남아있어요. 음.. 그래서 그 중에서 인상 깊었던 건, 같이 답사를 다니면서 적산가옥, 일제강점기시대 때 지었던 건물들을 직접 발견하고 그 당시에 만들었던 영산강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강에 등대가 있어요. 내륙에 있는 등대라고 해서 지금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된 게 하나 있거든요. 근데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었어서, 이제 그걸 그 등대를 주제로 역사체험발표대회에 참가를 했었죠. 보존 방안이라던가 활용방안들을 생각을 해서.

(‘우리역사 바로알기대회’ 참여는) 좀 오기가 생겼던 것 같아요. 계속 수상은 실패했지만 아 그래도 저번에 본선에도 갔는데 올해 또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매년 보고서를 써보고 싶은 주제들이 있기도 했었구요.

오보람에게 인상 깊게 남는 고등학교 시절의 장면은 방학기간에 서울에 있는 이모 댁에 올라와 1주일간 머물며 박물관을 다녔던 경험이다. 대학탐방을 다녀오겠다는 명목 하에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서울에 올라와서 국립중앙박물관에 머물며 유물과 전시를 보았던 것은 오보람에게 지금도 기억에 크게 남는 추억이다. 박물관을 견학하며 느꼈던 즐거움, 행복함은 오보람이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진로 방향을 구체화하고 결심하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다.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자신의 선호와 지금까지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느꼈던 부분을 바탕으로

문화재 전문가가 되겠다는 꿈을 명확히 하고 사학과 진학을 최종 결심하게 된 순간이었다.

음.. 생각을 해봤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 방학 때 잠깐 서울에 올라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1주일 정도. 그냥 그때 이리저리 쏘다니면서 혼자 많이 봤던.. 기억이 나요.

음 그때.. 박물관을 한번.. 국립중앙박물관을 아마 제대로 봤던 게 그때였거든요. 한 대여섯시간을 봤는데 (♫면담자: 혼자 가서?) 네. 사실 그것도 관을 다 둘러보려면 진짜 한나절 다 걸리잖아요. 그렇게 제대로 전시를 봐본 경험 이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를 계기로 좀 더 아 역사 쪽으로 진로를 잡아야겠다 이제.. 혼자 나름의 어떤 포인트가 되지 않았을까..

오보람은 진로 방향을 일찍이 찾을 수 있었기에 자신의 선택과 활동에 보다 확신을 갖고 자신 있게 임할 수 있었다. 오보람의 고등학교는 지역에서 소위 공부를 잘 한다는 친구들이 모인 특수목적고등학교였다. 수능 중심의 경쟁 위주 문화가 아주 팽배했던 학교 분위기였다. 그러한 고교문화에서 역사동아리를 만들어 활동하고, 개인적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진로를 보다 구체화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행보였다. 하지만 오보람은 자신이 어떤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때 즐거워하는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지나온 시간을 통해 자신에 대해 확실하게 알고 있었고, 그러기에 주체적으로 자신감 있게 자신만의 활동과 학습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 가고자하는 바가 명확하고 역사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지대하였기에 자신의 학습경험과 흥미를 동아리를 통해 다른 친구들과 나눌 수 있었고, 보다 용기 낼 수 있었다. 이에 자신을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선생님도, 동료들도 존재할 수 있었고 자신의 학창시절을 보다 재미있게 구성할 수 있었다.

기왕이면 저는 제 관심분야를 일찍이 찾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차라리 재미있게 학교생활을 해보자 그런 생각이 있었고.

내가 재밌게 고등학교생활을 보내고도 내가 재밌게 생활했던 거를 인정받아서 대학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 나는 입시 해볼만하다 라고 생각

했던 것 같아요. 진짜 한국사회에서는 수능위주로 준비하던 학교분위기였고, 그러다보니까 쉽지는 않았고 솔직히 쉽지는 않았고. (♫면담자: 정보가 너무 없었죠?) 네 저는 시골에 살았으니까요. 학교 앞에 과수원이 있고, 거름 냄새가 풍겨오는 데서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가 굉장히 폐쇄적이었어요. 3년 내내 기숙사 생활을, 전교생 기숙사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늘 탐구하고 학습하고 도전했던 오보람의 학창시절의 노력과 열정은 대학입시에서 사학과에 진학하여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낼 수 있었고, 오보람이 재학한 고교에서 당시 유일무이하게 입학사정관전형으로 지원하고 합격한 사례가 되었다. 그만큼 수능 중심의 고교문화에서 오보람의 선택과 결정, 행동은 오롯이 자신 스스로 개척하며 해야 했던 도전의 시간이기도 하였다. 소신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아갔고, 이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시간은 오보람에게 의미 있는 자신의 역사로 남았다.

3. 역사학도의 학습법

오보람은 역사에 대한 관심으로 다양한 자료와 콘텐츠를 접하며 학습의 폭을 확장시켜나감과 동시에 현 시대의 흐름과 뉴스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과거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 또한 현재와 맞닿아 있기에 신문을 보고 세상 돌아가는 모습에 관심을 두었다. 그리고 청소년인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생각하고 다양한 활동을 해 볼 수 있는 기회 또한 스스로 찾으려 자신을 그러한 환경에 두려고 노력하였다. 대회를 준비할 때는 교과서만으로는 부족하였기에 관심 분야에 대한 책을 폭넓게 많이 읽었고, 그 외 다양한 자료를 찾고 공부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역사토론대회를 비롯한 다양한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은 자신의 견해를 정립해 나갈 수 있는 성장의 시간이었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구체적으로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인터넷에서 청소년들이 해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재밌어서였던 것 같아요. 사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공부하는.. 그렇게 학구적인 학생은 아니었거든요. 대외활동을 좋아하고 사람들 만나

는 걸 좋아해서, 그 성격이 그런 저의 성향이 대외활동과 굉장히 잘 맞지 않았나.

학교에서 운영하는 신문배달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가지며 현재의 이야기에서도 민감성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였다. 오보람은 매일 아침 읽는 신문을 통해 역사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었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행사들 중에 자신이 참여해 볼만한 행사들을 선별하고 지원하였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신문을 통해 입학사정관계가 도입된다는 소식도 접할 수 있었고, 아직 가시적으로 구체화된 제도 시행 정보는 아니었지만, 자신의 성향과 노력을 바탕으로 도전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다. 비록 몸은 학교라는 공간에 머물며 하루의 상당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지난 역사와 현재진행형의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접하며 오보람은 넓은 세상과 소통하며 자신의 꿈을 키울 수 있었다.

아무래도 책이 가장..독서가.. 중·고등학교 때는 책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공부는 좀 뒷전이었지만, 책 읽는 것을 가장 좋아했고 고등학교 때는 3년 동안 학교에 신문배달 서비스가 있었어요. 저희 학교에서는 그래서 한글신문이랑 영자신문 둘 다 구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매일 아침 0교시 때 이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신문을 보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좀 더 관심을,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주제들이 많았죠. 신문 안에서의 이야기들.. (면담자: 사회 돌아가는 이야기나?) 사회 돌아가는 이야기.. 가끔 이제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 활동에 대한 소개도.. 한번씩 ‘내가 해 볼만 하겠는데’ 하는 소식도 있었고..

다양한 활동, 폭넓은 독서, 신문을 통한 맥락을 읽는 관점을 통해 오보람은 고교생활의 시간을 풍요롭게 꾸려나갈 수 있었다. 모든 경험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어느 지점에서 다시 만나고 귀결되어 진로여정에서 작거나 큰 영향을 가져왔다. 수상여부를 떠나 대회에 참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오보람은 주체적으로 학습하는 태도를 함양할 수 있었고, 이는 대학에서의 학습에도, 사회에서 일을 함에 있어서도 자양분이 되어주었다.

4. 다양한 경험을 통한 역량 개발

오보람은 대학에 입학하여 전공공부를 심도 있게 하고 고등학생 때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습을 하며 대학에서의 시간을 구성해나갔다. 대학에 와서는 전공 분야뿐만 아니라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기르고 성장하고자 노력하였다. 프랑스 교환학생 경험, 대학본부에서 주최하는 리더스 프로그램을 통한 다양한 전공의 사람들과의 교류, 입학사정관제 홍보대사 활동 등 대학에서는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었다. 오보람이 진학했던 대학은 근현대사를 많이 다루지 않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오보람이 역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진로의 시작점이 근현대사에서 비롯되었기에, 오보람은 학과수업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책과 스터디를 통해 학습하였고, 휴학기간동안 5·18기념재단에 지원하여 실무 경험을 쌓으며 근현대사 분야에 대한 관심을 이어나가고자 노력하였다.

근데 막상 제가 사학과로 입학하니까 의외로 제가 다니는 학교의 사학과는 현대사를 다루지 않는 학교였어요. 학부에서 한국현대사 수업이 아예 없었던 곳이었습시다. 최근 1~2년 전에 학부수업이 생겼다고는 들었는데, 제가 있었을 때는 안타깝게도 현대사 수업은 듣지 못하고 주로 중국사라던가 한국고대사에 많이 치중해서 학습을 시키던 곳이었는데요. 그래서 조금.. 오히려 학과수업에서 아쉬움이 있기는 했지만, 그냥 스스로 계속 관심이 있어서 공부하고 5·18 기념재단에서 우연히 좀 경력을, 경험을 하게 되고..

홍보대사 활동이나 아니면 학교 홍보대사나, 아마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학교 안에서 ‘000리더스’ 라는 역량강화 프로그램도 상당히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면담자: 어떤 면에서?) 다양한 행사에 참석하고 혹은 제가 프로젝트를 만들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나도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면담자: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구성하고 이끌 수 있구나~) 옆에서 보면서 서당개 삼년이면 풍월을 읊듯이.. 아 행사는 이렇게 하는구나..

오보람은 스스로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도록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만들고 그 안에 자신을 두려고 노력하였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운영하는 대학생 봉사활동을 신청하여 매주 한 번씩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야만 하는 일상으로 만들었다. 청소년

관람객들에게 전시 안내 봉사활동을 하고, 전시 안내를 하는 시간을 통해 늘 공부하는 것을 일상화 하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문화재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꿈을 위해 대학교 2학년 때에는 ‘문화재청 대학생 기자단’에 지원하여 관심분야의 이슈와 맥락에 항상 귀 기울였고, 방학기간 고향에 내려가 머무를 때는 지역에 있는 박물관을 직접 찾아가 인턴 경험을 하고자 먼저 제안하였다. 대학 내 불교미술사 동아리에서 활동하며 동료들과 매주 문화재에 대한 공부를 하고, 함께 답사를 기획하고 진행하였다. 소속 학과의 학생회 일원으로서 답사부에서도 역할 하였고, 두 조직에서 답사를 주최하고 이끄는 것은 고등학교 때 동아리 활동에서 많이 해보았던 경험이 있었기에 보다 수월할 수 있었다.

저는.. 고등학생 때 잠깐 서울에 놀러왔다가 보게 되었던 국립중앙박물관이 너무 좋아서, 그때 갔던 박물관이 너무 좋았었고, 저도, 저도 유물을 계속 봐야겠다.. 그래서 박물관을 솔직히 방문한다는 게, 시간 내서 방문하기가 좀 스스로 좀 나태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보기 위해서 스스로한테 강제성을 좀 부여한 것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애들한테 안내 해주다보면, 저도 공부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음.. 대학교 때는 일단 학과 학생회라던지.. 학과 학생회는 이제 부원으로 활동했구요. 답사부.. 답사를 준비하는 부서에서 한 2년 동안 학생회활동을 했고, 좀 전에 말했던 불교미술사를 공부하는 학회에.. 불교미술사학회라고 하는 데.. 불교미술의.. 저희는 1년 커리(커리큘럼)를 정해서 하거든요. 1년 커리가 정해져있어요. 그러면 뭐 불교미술의 기원부터 해가지고 불상, 불화, 그리고 이제 그 건축양식까지 짝 공부하는 커리큘럼이 있는데. 거기 그걸 한 두 번정도 도니까 그때 했던, 그때 공부도 하고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발제도 계속 하고.. 그런 활동들을 했었구요. 그리고 교내에서 또 입학사정관제도 홍보대사 활동을.. 입학사정관실 소속으로 했었고. 네 또 000리더스라는 교내 역량개발 프로그램을 참가했었습니다. 그건 1년짜리 동아리 프로그램이었는데 그것도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오보람은 대학 안팎으로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통해 역량을 기를 수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삶에 스며들어 오보람에게 가장 재미있는 놀이가 되어주었던 역사를 대학에 와서 더욱 다채롭게 학습할 수 있었다. 자신과 비슷한 관심사

를 가지고 있는 동료들과 소통하고 먼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선배들의 조언을 들으며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었다. 책과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공부하고, 유적지나 박물관에 가서 실무적인 경험을 쌓으며 문화재전문가가 되고자 노력했던 시간이었다. 자신의 꿈을 더 선명히 그릴 수 있도록, 공부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에 자신을 두고자 하였다.

5. 너무나 어려웠던 취업

전공 공부와 다양한 경력을 쌓으며 열심히 대학생활을 하였지만, 오보람에게도 취업을 하는 과정은 대한민국의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인 만큼 녹록치 않았다. 오보람은 대학 입학 후 문화재와 관련하여 보다 심화된 학습을 하고 경험을 쌓았다. 연계전공으로 ‘문화기획’을 전공하였고 졸업하자마자 문화재 관련 연구기관에 임시직으로 들어가 현장 경험을 쌓았다. 임시직으로 일하면서 자신이 생각했던 현장의 모습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스스로 이곳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직접 일을 해보며 꿈을 키워나갔다. 관심 분야의 연구기관에서 임시직으로 선 경험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은 오보람에게 큰 배움이었다. 마침 일을 하고 있는 동안 입사를 희망하고 있던 문화재 관련 공공기관에서 신입사원 채용공고가 이루어졌고, 블라인드 채용으로 이루어지는 평가체제를 통과하여 최종합격을 하였지만, 지원 당시 어디에도 소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원 자격에 문제가 생겨 추후 합격이 취소되게 되었다. 이 때 오보람은 너무나도 바래왔던 직장이었고, 채용공고가 매년 이루어지지 않아 기회조차 많이 없었던 분위기였기에, 찰나의 합격의 기쁨이 무색하게도 상실감이 아주 크게 다가왔고 오랜 시간 지속되었다. 생각지도 못한 이유로 꿈이 무너진 것만 같았던 마음은 쉽사리 회복되지 않았다.

고등학교 때 관심을 가졌던 게 역사...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졌지만 문화유산에 되게 많이 관심을 가졌었거든요. 원래 문화재 쪽으로도 진로를 가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대학 때.. 불교미술사를 배우는 작은 학회라고 불리는 동아리가 있었어요. 거기서 계속.. 한 1학년, 2학년 때 2년 동안 계속 발제하고 계속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문화재

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었고, 한때는 문화재 쪽으로의 진로 가는 것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전에 다녔던 직장, 문화재.. 관련.. 연구소였구요.

일단 저는 이거 임시직이라도 걸리려나(문제가 있으려나) 싶긴 했는데 일단 지원은 했었어요. 어차피 이게 한 2년이나 3년 만에 난 공고였거든요 이게.. 채용을 되게 안하는 기관이라서. (☞면담자: 합격을 했는데?) 최종합격을 했죠. (☞면담자: 근데 그 이유로?) 그 이유로 제가 연구원에서 임시직으로 일하고 있다는 신분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결국 합격을 취소하고 차점자가 대신 들어갔죠.

몇 달간은 억울함과 상실감에 힘든 시간을 보냈다. 어떻게 진로를 다시 나아가야할지, 고민하며 방황의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평정심을 찾으며 새로 도전하고자 마음을 가다듬었다. 오보람은 관심 있게 보고 있던 역사 관련 공공기관 채용공고들을 다시 살피고 준비하였다. 그러던 중, 오보람은 민주화운동 관련 공공기관에 지원하여 블라인드 채용을 거쳐 최종 합격하였고, 현재 시민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사업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는 일을 하고 있다.

오보람은 입사를 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4학년 1학기 때 휴학을 하고 ‘5·18 기념재단’이라는 곳에서 직무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던 경력이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 당시 5·18 기념재단에 대한 정보 또한 오보람이 청소년 시절 참여했었던 대회를 주최했던 기관이어서 눈여겨보고 있던 곳이었다. 홈페이지를 살피다가 우연치 않게 채용공고를 확인하였고, 좋은 기회라고 판단하여 대학생임에도 지원을 했었고, 일을 해볼 수 있었다. 그때의 경험이 지금 직장으로 올 수 있었던 디딤돌이지 않았나 오보람은 생각한다. 그곳에서의 선 경험으로 민주화운동 관련 기관에서 하는 업무를 미리 파악하고 자신의 적성과 부합하는 일인지 가늠해볼 수 있었기에, 경력과 깨달음이 연계되어 지금의 직장에서 일할 수 있었다. 대학생활에서 많은 시간 투자하고 연계전공으로 공부했던 문화재 분야에서의 학습과 경력 또한 지나고 보니 현 직장의 취업과 직결되지는 않았지만, 결코 별개의 다른 영역이 아니었다. 오보람은 그 시간들이 지금 하는 일에도 크고 작은 도움이 되어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긍정적인 의미를 두고 있다.

어느 것 하나 후회되는 경험 없이 지금의 자신을 있게 한 값진 시간들이었다.

민주화운동 관련된 사료들을 수집하거나 이 사건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저희 회사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료를 대하는 자세라든가, 그런 것들..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문화유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보람이 우여곡절 많았던 취업난을 뚫고 지금의 일을 만족스럽게 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그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실질적인 경험을 쌓았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Kromboltz(2008)는 계획에 없었던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마주했을 때 다음 세 가지 단계를 따를 것을 제안한다. “첫째,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를 취한다. 둘째,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은 가능한 기회가 무엇인지 찾는다. 셋째, 그 일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활동을 시작한다”(김봉환 외, 2013). 오보람은 희망했던 일과 유사한 실무경험을 쌓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현장을 찾았고, 조금도 예상하지 못했던 합격 취소라는 상황에서 가능한 기회를 찾아 도전하였으며, 지난 경력들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실천하였다. 현장에서의 실무경험 덕분에 업무 상황과 자신의 역할에 대한 파악이 용이하였다. 한국현대사에 흥미를 많이 두었던 오보람은 현재 일하고 있는 곳에서 현장 경력을 쌓고 향후 대학원에 진학해서 공부를 계속 이어나갈 생각이다. 자신의 분야에서 학문적으로, 실무적으로, 모든 방면에서 인정받는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꿈을 꾀다.

문화재 쪽을 진로를 생각했을 땐 문화재청 기자단 활동을 하면서 실제로 문화재청도 많이 가면서 여기 어떤 곳이구나, 어떤 일을 하는 곳이구나, 탐색하는 과정도 있었고, 또.. 지금 민주화운동 관련 공공기관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제 5·18 기념재단에 있으면서, 5·18 기념재단이 현 직장과 거의 유관 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념사업을 하려면 어떤 일들이 있는구나, 어떤 일들을 하는구나, 탐색의 시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6. 오늘도 계속 걸어간다

오보람은 고등학교 때 참가했던 5·18 민주화운동 대회的主催기관에서 대학생이 되어 실무경력을 쌓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때의 배움과 경력이 연결되어 현재의 직장에서 자신의 진로를 재정비하고 포부를 펼치고자 앞으로의 시간을 계획하고 있다. 오래 전에 관심과 흥미로 시도했던 경험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현재의 모습, 미래의 모습과 연결될 수 있었다. 계획되었던 우연처럼 오보람의 진로 여정에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었다. 오보람은 역사를 공부했던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진로를 결정할 때 공익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꼭 해왔었다. 역사 전공자로서 그것이 자신의 소명이라고 여겼다. 지금의 직장 또한 그러한 자신의 가치관이 담긴 선택이었고, 이곳에서 청소년들과 민주주의에 대해 함께 논하고, 이들의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해주는 일을 하며 보람을 느끼고 있다.

전 공익을 위해서 일한다는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기업은 거의 지원하지 않았는데요. 스스로 일을 할 때 뭐랄까 일을 하면서 자부심을 가지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교육현장에서) 제가 특이한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실시하고 있는 자유학기제도 어느 정도 청소년들에게 학교 안에서만 말고, 좀 더 다양한 체험 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취지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처럼 좀 더 학교 밖에 세상도 많이 경험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학창시절부터 계속되었던 자신의 행보가 더 이상 ‘특이’ 하지 않은, 모든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갖고 몸소 부딪치며 주체적으로 자신의 길을 만들어 나가는 모습이 보편적인 문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어린 시절의 오보람처럼 많은 청소년들이 학교 밖 세상에도 관심을 갖고 자신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주체적으로 찾아 나가는 것이 이상적인 사회를 이룩하는 일이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역할을 해내고자 하는 것이 오보람 자신의 몫이라 여긴다.

오보람은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각 지역의 청소년들을 만나 민주주의란 먼 곳에 있는 어려운 어떤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지금, 당장, 누구나 실현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다. 오보람은 대학시절, 입학사정관제 홍보대사 활동의 일환으로 각 지역의 청소년들을 만나 그들의 전공과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는 멘토 역할을 오랫동안 했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 또한 청소년

년들의 멘토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일맥상통한 기조이며, 그 때의 경험이 있었기에 보다 수월하게 청소년들을 만나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어린 시절부터 민주화운동에 관심을 갖고 각종 대회에 참여하면서 끊임없이 보고, 읽고, 분석하고, 토론하며 열정을 불태웠던 모든 시간들이 업무를 하는데 탄탄한 기반으로 작용해 주었다. 대학시절 문화제에 관심을 갖고 문화제 관련 공공기관에서 실무 경력을 쌓았던 경험 역시 역사를 다루는 기관에서 사료를 접하고 취급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었기에 지금의 직장에서 다양하게 요구되는 역할을 자신감 있게 수행할 수 있다. 과거에 지나온 모든 시간들이 오보람에게 많은 배움을 주었고 도움이 되었다.

일단 제가 맡은 사업들에서 어느 정도 성취를 이뤄내고 싶어요. (☞면담자: 어떤 의미로?) 제가 지금 담당하는 청소년 대회의 규모를 더 키워서.. 이번 에 올해가 9회차거든요~ 상당히 나름 역사가 있는 대회인데, 그동안 여기 대회에 참가했었던 애들을 대상으로... 홈커밍 같은 행사를 한번도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 대회의 특징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대회인데 이 친구들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 나중에 넌 어떤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넌 어떤 꿈을 꾸고 있니? 라고 하는 그런..걸 말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보람은 현 직장에서 맡고 있는 사업들을 잘 운영하는 것을 단기 목표로 삼고 있다. 어떻게 해야 보다 의미 있는 시간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하고 우리보다 한발 앞서 민주시민교육을 잘 하고 있는 해외 사례들을 공부하며 아이디어를 내고 있다. 맡은 일에서 좋은 성취를 얻고 직장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을 가까운 미래, 계획하고 있으며 실무적인 경력을 쌓은 이후에는 대학원에 진학하여 학문적 탐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역사학에서 5·18을 다루는 박사논문은 딱 한 편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5·18의 역사적 의미!를 다루는 논문을 써보고 싶어요. 역사학적 담론으로 끌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사회학이랑 정치학에서만 다루고 있어서.. 이것을 역사학으로 가져오고 싶다는.. 학문적인 목표를 가지고.. 지금 사업회에서도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왜냐하면 전공자들이 진

짜 많거든요.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이지만 전공자들이 진짜 많아요.

오보람은 대학원에 진학하여 근현대사 분야를 세부 전공으로 깊이 공부하고 민주화운동을 정치학, 사회학의 영역뿐만 아니라 역사학에서 의미 있게 다룰 수 있도록 역할 하고자 한다. 학문적 탐구를 토대로 현장에서 직접 반영하고 실현하며 전문가적인 역량을 갖추고자 포부를 가지고 있다. 자타공인 전문가가 되어 역사 전공자로서 세상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자 오보람은 오늘도 멈추지 않고 계속 걸어간다.

네. 여기 들어왔다고 끝이 아니라서.. 이제 앞으로 더 해나가야 할 것들을 생각하고 있죠. 사실 직장에 들어왔다고 해서 내 목표를 다 이루었다! 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오보람은 진로 여정에서 환경의 영향이 크게 작용함을 수용하였고, 그러하기에 자신을 계속하여 공부하고 경험할 수 있는 환경에 두려고 하였다. 또한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변화 가득한 환경에서는 현재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으며, 길을 모색하고자 노력하였다.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에게 보다 유리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 연구참여자이다. 역경의 시간, 오랜 좌절로 머물러 있기 보다는 새로운 진로 여정을 꾸려나갔다.

D. 현재에 충실한 노력이 만들어가는 미래: 지식재산권 전문가 이현율 이야기

1. 자유할 수 있는 시간의 의미

이현율은 다양한 경험에 도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자신이 맡은 역할에 책임을 다하는 성향의 연구참여자이다. 연구자가 이현율의 대학생활을 지켜보았을 때, 또래 집단에서 리더 역할을 도맡아했었고, 프로젝트 같은 그룹단위의 사업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선후배간의 소통과 의견 조율을 순조롭게 하여 일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데 꼭 필요한 역할을 해왔었다. 뿐만 아니라 대내외적으로 항상 분주하게 일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고 하루 24시간을 참 알차게 보내는 학생이라는 느낌이었다. 진로를 나아가는 데 있어서도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침없이 도전하고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 왔었다. 이현율과 ‘진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현율의 청소년 시기 또한 지금과 마찬가지로 직접 부딪치며 도전하는 학생이었음을 알 수 있었고, 그러한 결정과 행동의 배경에 대해 질문하였을 때 이현율은 ‘자유시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이야기하였다. 우리나라 고등학생에게는 주어지기 힘든, 글자 그대로의 ‘자유시간’을 이현율은 누릴 수 있었다. 자유로울 수 있는 시간은 이현율이 관심분야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고, 스스로 생각하고, 무언가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발판이 되어주었다. 또래의 친구들에 비해 보다 더 활발히 진로탐색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을 이현율은 ‘자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라 이야기한다.

집에서 자유로웠던 점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면담자: 음.. 집에서 자유로웠던 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주신다면..) (중략) 애들은 공부만 했었는데. 막 탄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 마치고 바로 학원도 가고 그랬는데, 저는 집에서 그런 걸 신경 안 쓰셨기 때문에, 학교 끝나면 바로 집으로 가서, 그냥 하고 싶은 쪽 그냥 컴퓨터로 찾아보고 막 전공 찾아보니까,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관심 있어서 찾아가게 되고, 찾아가게 경험이었었고.

정보를 찾을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보통 학생들은 집에 학원 마치고 가면 1시정도 되는데. 저는 새벽 1시까지 제가 하고 싶은 거 자유롭게 하고 정보 찾아볼 거 있으면 찾고 했으니 아무래도 더.

이현율은 방과 후 집에 귀가하여서는 진로를 고민하면서 다양한 정보를 검색하고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왔다. 이밖에도 평소 뉴스 보는 것을 즐겨하였고 관심분야가 생기면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등 여유시간을 통해 하고 싶은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었다. 정보를 찾아보면서 관련 프로그램이나 행사 소식을 접하기도 하고, 호기심에 참여를 하고, 참여가 경험으로 이

어지기도 하였다. 이현율은 이렇게 스스로 자유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배경으로 가정의 분위기를 이야기한다. 이현율은 자신의 가족을 이야기할 때 ‘독립적인 가족’이라고 표현한다. 이현율은 어렸을 때부터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왔던 습관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질 수 있었다. 부모님의 교육관과 가정의 분위기는 아버지의 일화에서 비롯되었다. 이현율은 어릴 적, 큰아버지 댁에 방문하였다가 아버지와 친척들이 하는 대화를 듣게 되었다. 아버지는 하고 싶었던 일을 어떠한 이유로 인해 하지 못하셨다가 다시 하게 된 경험이 있으셨고, 친척들과 그 경험을 이야기 하시던 기억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한 아버지의 경험이 자녀에 대한 교육관에도 묻어난 것 같다고 생각하였다.

전혀 간섭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하고 싶은 거 해라. 아버지가 예~전에 중학교 때인가? 그때부터 그냥 앞으로 니 진로에 상관을 안 할 테니, 그냥 진로는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안 쓸 테고 하고 싶은 거만 해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간섭이 없으셨고, (중략) (☞면담자: 어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아버지께서?) 아마 아버지가.. 큰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한 걸 들어보면.. 아버지도 아마 하고 싶은 일을 못했다 하시게 되어가지고 아마도 아버지가 그냥, 아버지가 생각해도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신 것 같고.

이현율의 부모님은 이현율이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찾고, 하고자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길 바라셨다. 이현율이 부모님에 대해서 기억하길 어렸을 때부터 ‘크게 사고치지마라’, ‘법에 저촉되는 행위는 하지마라’, ‘사람이, 없어도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등의 도덕적인 메시지, 생활적인 부분에 대한 가르침은 늘 말씀하셨지만, 공부나 진로 측면에서는 일절 간섭하지 않으셨다고 이야기한다. 이현율은 이런 부모님의 교육관과 가정의 분위기가 특별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고등학교 입학 후 친구들의 생활을 보며 실감할 수 있었다. 친구들이 학교를 마치고 학원을 전전하며 새벽까지 일과를 보내는 것을 보고 자신의 생활을 돌아켜보게 되었다.

중학교 때는 몰랐는데 고등학교 들어가고 나서 ‘아, 내가 편한 삶을 살고 있구나~’ .. 친구들이 그때 고등학교가 부산에서는 되게 좀 잘사는 동네다보

니까.. 분명 학교가 10시에 마치는데, 야자까지 해서 밤 10시에 마치는데 학원에 또 간다는 소리를 듣고.. 거의 한 반에.. 절반 이상? 간다는 소리를 듣고, 아, 우리 집이 되게 편한 분위기구나.

친구들의 생활을 보면서 이현율은 상대적으로 더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였고 자신만의 시간을 온전히 보낼 수 있음에 안도감과 감사함을 가졌다. 이현율은 자유 시간을 통해 진로와 진학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고민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정보를 탐색하고, 새로운 정보는 행동으로 이어져 경험과 연결이 되었고, 경험의 시간을 통해 직접 부딪치며 학습할 수 있었다. 자유 시간에서 시작된 정보 탐색과 그로 인한 다양한 활동들은 이현율의 진로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2. 우연을 인연으로

이현율은 방과 후 여러 정보를 찾아보다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지역 행사가 열린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고 참여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우연히 평소에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면서 봐있었던 EBS 강사선생님을 만난다. 그 분은 EBS에서 ‘법과 사회’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셨는데, 반가운 마음에 이현율은 다가가서 먼저 인사를 건네었다. 평소에 화면으로만 봐왔던 선생님을 발견하고 다가간 이현율의 인사가, 대화의 계기로, 또 다른 경험의 기회로 이어지게 되었다. 선생님과 대화의 길어지면서 연락처를 주고받게 되었고, 행사 이후에도 간간히 연락을 취하게 되었다. 연락이 이루어지면서 선생님은 ‘법과 사회’ 강의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조교 아르바이트 역할을 제안하셨고, 이현율은 제의를 수락하여 선생님의 ‘법과 사회’ 수업의 조교로 일을 하게 되었다. 조교의 역할은 강의안 정리, 수강생들의 댓글에 대한 답변 작성, 강의를 하는 데 필요한 컴퓨터 작업들로 이루어졌다. 이현율이 아르바이트 제의를 바로 수락할 수 있었던 것도 자유시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아르바이트를 통해 이현율은 자연스럽게 ‘법과 사회’ 과목을 더 공부해야만 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평상시 뉴스를 챙겨보고 사회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이현율에게 ‘법학’을 희망 전공으로 결정하게 한 중요한 경험이 되었다.

그때.. 그 당시.. (회상하며) 그냥.. 수업을 강의를 들었다~ 그랬더니 되게 친절하게 대해주셨고 그렇게 쪽 이야기 하다가 기회가 되면 서울에서 만약 학교를 다니게 되면 그때 한번 보자.. (☞면담자: 조언을 해주셨군요?) 네 조언을 해주시고 그때 그냥 계속 연락을 하다보니까.. 그분이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어서 컴퓨터나 그런 걸 잘 못 만지셔서 니가 시간이 좀 많은 편이니까, 학생치고는 시간이 좀 많은 편이니까. 도와주면 어떻겠냐 싶어서..

이현율은 ‘법과사회’ 과목의 조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수강생들의 질문에 대한 댓글을 작성하고 수업 보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공부해야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했었다. 책을 찾아보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정리하였던 결과물들을 ‘법과사회’를 공부하는 다른 친구들과도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였고, 이 생각에서 시작되어 ‘법과사회’ 전자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그동안 공부하고 정리했던 자료를 한편의 책으로 엮는 과정에서 이현율은 법학을 전공해야겠다는 결심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었다. 출판사와 협의하여 출간하기까지의 작업 또한 한편의 저작물이 나오기까지의 과정과 이에 수반되는 고려사항 등 새로운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법과 사회’ 인터넷 강의할 때 그 때 조교를 했었는데... (☞면담자: 고등학교때도 뭔가.. 아르바이트로 한건가요? 고등학생때?) 그냥 아시는 선생님 이었고.. 어찌다가.. 그냥.. 연락하다가.. (☞면담자: 연이 닿아서? 일을 조금 해볼 수 있게 된 거군요?) 네 그때 자료정리하고 하면서 책을 만들어도 되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우연히 지역 행사에서 만난 선생님과 인연을 맺고, 아르바이트 경험을 또 다른 기회로 만들어가는 이현율은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연히’, ‘운 좋게’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우연을 인연으로, 기회로 만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스스로 마주친 우연을 소중한 경험으로 이끌어내고 주체적으로 나아가는 이현율의 행보는 주목해 볼만하다. 우연은 인연이 되어 이현율에게 또 다른 기회로, 경험으로 다가왔고, 이현율의 진로에서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3. 역경을 또 다른 기회로

이현율이 지역 행사에 참여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전자책을 출판하는 데 할애되는 시간과 노력, 에너지는 대한민국 고등학생의 입시문화에서는 눈에 띄는 행보였다. 수능중심의 입시문화 속에서 이현율의 행보는 담임선생님도, 같은 반 친구들도 걱정과 염려의 눈길을 받기에 충분했다.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와 입학사정관이라는 제도를 알게 된 이현율이 자신이 해왔던 활동과 경험을 기반으로 서울 소재 대학에 입학사정관전형 지원서를 낼 때에도 담임선생님의 반대와 만류는 생각보다 컸다.

보통 친한 친구들은 친하니까 그냥 저 미친놈이라고, 특이한 놈이라고.

3학년 담임선생님이 딱 떠오릅니다. (☞면담자: 아 어떤 의미로 떠오르시나요?) 굉장히 저랑 맞지 않는.. 3학년 당시 저의 생각과 전혀 다른 것을 추구하셨고. (☞면담자: 음.. 성향이 맞지 않았어요?) 맞지 않았고, 모든 학생까지는 아니고, 거의 무시하는 듯한?(중략) 지원을 하지마라. 어차피 떨어진다. 지원하지 마라.

학교에서는 반대했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현율은 그러한 주변의 인식에 불안해하지 않았다. 학원을 따로 다니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인 공부는 성실하게 하고 있었고, ‘지방 학생은 어차피 뽑지 않는다.’라는 근거 없는 만류에 휘둘리기보다 해왔던 활동을 기반으로 지원을 해보고, 혹시 안 되면 또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면 된다고 생각했다. 주변의 만류에 흔들리기 보다는 자신의 생각대로 실행한 결과, 이현율은 그동안의 학습과 활동을 인정받고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다. 아직 고교현장에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하였던 시기, 모두가 반대하고 걱정할 때 이현율이 소신 있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신념이 명확하고 설사 합격하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도전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이현율은 법과 사회에 대한 관심으로 ‘법학과’에 입학하였다. 검사라는 꿈을 가지고 입학하였기에 바로 대학에서 운영하는 ‘사법시험관’에 들어가서 1년 동

안 고시공부에 매진하였지만, 사법고시가 폐지되면서 진로에 대해 다시 고민해보는 시간을 겪게 된다. 이 시기에 이현율은 진로를 다시 탐색하면서 자신에 대해 돌이켜 생각해보고, 적성에 보다 맞는 것이 무엇인지, 어디에 흥미를 두고 있는지 고민하였다. 그리고 계획했던 진로에 사법고시 폐지라는 역경이 찾아온 순간, 좌절하기보다는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진로방향을 재탐색하였다.

이현율은 고등학교 때 전자책을 출간하면서 저작물이 출판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경험해볼 수 있었다. 이 때 ‘지식재산권’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대학입학 이후 1년 동안 사시공부에 매진할 때 ‘지식재산권’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지정하여 공부하였다. 직접 경험을 해보았기에 더 관심을 두고 공부할 수 있었고, 마침 진로 고민을 다시 하게 되면서 이 분야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며 ‘지식재산권 전문가’라는 새로운 목표를 세울 수 있었다. 이렇게 이현율은 지난 경험에서 진로를 재탐색할 수 있었고, 사법고시 폐지로 검사의 꿈은 접었지만 새로운 진로 설정을 하고 나아갈 수 있었다.

고3때 입학사정관전형 준비를 하면서 책을 만들었고 책을 저작권 등록을 했는데 그때 지식재산권 관련해서 한번... 경험?을 했었고, 후에 대학 입학할 해서 원래라면 검사를 희망했지만 시간이나 여건 때문에 아무래도 포기를 했고, 가장 흥미있는 법쪽으로 알아보다가 지식재산 쪽으로 가기를 마음먹었고.

(대학교) 2학년 말.. 그때쯤 돼서 그냥 관련된 교육을 싹 다 들었고, 학교에서나 아니면.. (☞면담자: 법과 관련된 교육들을?) 네. 그때 이후로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주로 공공기관에서 하는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교육을 다 들었고, 찾아갈 수 있는 세미나나 아니면.. 공청회? 국회에서 공청회도 갔었고. (☞면담자: 스스로 찾아다녔던 거네요? 학교 안팎으로?) 네.

진로방향을 재탐색하는 과정에서 이현율은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다양한 특강, 세미나, 등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수소문하고 참여하였다. 저작권위원회, 한국진흥발명회,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등의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거의 모든 특강을 대학교 2학년 때 섭렵하였다. 그러던 와중 해당 기관에서 등록되었던 학습자 연락망을 통해 이현율에게 연락이 왔고, ‘지식재산권’ 분야로 많은

특강을 수강하고 공부 하고 있는 이현율에게 앞으로 몇 가지 공부를 더 해서 이후 강사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였다. 그리하여 이현율은 대학생 신분으로 이미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 강사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사시를 준비할 때 선택과목이 일단 지식재산법이어서 선택과목이어서 (▣면담자: 그때도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 기초과목이었고, 기본은 알고 있었고, 추후에 공공기관에서 하는 교육을 듣다보니까 거의 하루에 여섯시간 정도 공부를 하다보니까...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되었고 공공기관에서도 아마 그렇게 많이 수업을 들은 사람이 없었어서.. 공공기관에서 연락이 왔었고.

부모님의 교육관 덕분에 청소년시절 ‘자유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던 이현율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데에 있어서 자신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형성될 수 있었다. 그리하기에 ‘진로’라는 길을 나아감에 있어서 크고 작은 역경 속에서 소신 있게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었다. 혼하지 않았던 고교생 이현율의 선택과 행보에 많은 이들이 만류할 때에도, 사시가 폐지되면서 청소년시절부터 꿈꿔왔던 진로를 수정해야 될 때에도, 마주한 역경의 순간, 이현율은 흔들리고 주저앉기보다는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새로운 방향을 탐색하며 더욱 열심히 나아갔다.

4. 경계 없는 다채로운 대학생활

이현율은 대학입학 후 다양한 분야에서 공부하고 활동하였다. ‘지식재산권’ 전문가로서 진로방향을 결정한 후, 전문가적인 역량을 갖추기 위해 ‘지식재산권’ 외에도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에 대해서도 대학교 안팎에서 학습하였다. 활동의 측면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경험과 경력을 쌓아나갔다. 대학생 이현율은 특허청에서 지식재산 전문 교수요원으로, 경찰청에서 기획조정관실 치안정책 평가위원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정책홍보 대학생기자단으로, 입학사정관제 홍보대사, 법무부 법사랑 서포터즈 등 경계를 넘나드는 다채로운 대학생 활로 자신의 시간을 구성하였다. 사회에 대한 관심과 법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시행되는지 보다 가까이에서 보고 손을 보탬 수 있는

곳으로 찾아갔다. 대학생 신분으로 할 수 있는 자리에 지원하고 참여하면서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실제로 일이 어떻게 시행되고 운영되는지 알 수 있었다. 이현율은 실제 현장에서의 경험과 함께 일 하는 사람들과의 대화, 조직의 분위기를 접하면서 스스로 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성장해야할지, 어떠한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딛어야 할지 진로를 보다 구체화 할 수 있었다.

근데 나중에 직업으로 삼으려면 그래도 한 분야보다는 다양하게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특허..랑 같이 산업재산 쪽으로 우선 공부를 시작했는데 일단 산업재산은 그 안에서도 특허랑 디자인이랑 상표랑 다 복합적으로 연결이 돼있어서.. 그리고 법률 자체도 특허법을 거의 알면 다른 법률들도 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좀 쉬운? 가벼운 마음으로 저작권이랑 같이 산업재산권도 같이 공부 할 수 있었고.. (중략) 최근에는 가장 그쪽에 많이 강의를 했었고 연구도 했었고 또 그 기술사업화를 위해서 특허를 평가해서 가치를 매겨야하는 가치 평가가 있는데, 그것도 관련해서 연구를 했었고 관련해서 자격증도 땀고..

이현율은 대학생의 신분으로 이미 ‘지식재산권’ 전문 강사로 일을 시작하였고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분주한 시간을 보냈다. 현장에서의 경험과 배움은 대학에서 전공 공부를 할 때에도 도움이 되었다. 현장의 모습에 비추어 공부하면서 더 재밌고 자신감 있게 임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대학 내 입학사정관제 홍보대사 그룹의 리더 역할을 맡으며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재능기부 봉사 활동을 하고,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를 내어 이를 실제 사업으로 가시화하여 운영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정부 정책을 보다 쉽게 실생활에서 이해할 수 있게 기사를 작성하고, 영상을 만들어 홍보 활동을 하고, 고교생 대상으로 법 교육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장소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며 보다 다채롭게 시간을 보냈다.

약간 소통? 그니까 그런 분위기라서 약간 SNS랑.. 영상? 그런 쪽으로, 저는 주로 글을 썼지만, 글을 쓰고 SNS를 했고, 아마 거기서.. 제가 기사를 썼었는데, 기사 조회 수가 높은 순서대로 상을 받았고, 추후에 계속 하게 되면서 약간.. 기자인데 모든 걸 다하는 영상도 촬영하고.. (☞면담자: 홍보에 전반적인 업무를 다?) 예. 영상촬영도 하고 출장 가서 장관님 수행도 하고, 뭐

그런 일들..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할 것만 같은 이현율의 열정가득하고 성실한 대학생활은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그저 그 당시에, 기회가 왔을 때, 하고 싶은 것들이 생겼을 때, 그것에 집중하고 앞에 놓인 과제를 충실히 하다 보니 이러한 길이 구성되고 어느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라 이현율은 이야기 한다. 자신의 전공 분야든 다른 분야든 선을 긋지 않고 경계를 넘나들며 다채롭게 경험을 쌓고 학습하는 것이 지금 당장은 아무 관련이 없어 보이더라도 언젠가 자신의 삶에 큰 자산이 되어주는 것을 경험한 이현율이기예,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여전히 이렇게 나아갈 것이다. 고등학교 때는 하고자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만류와 염려를 뒤로 해야만 했지만, 대학교에 와서는 하고자하는 활동의 폭도 훨씬 넓어지고 의지만 있다면 마음껏 도전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 이현율은 대학생활을 더욱 자유롭게, 다채롭게 구성할 수 있었다.

5. 이유 있는 진로선택의 연결고리

이현율은 경계를 넘나들며 다채로운 대학생활을 하였고, ‘지식재산권’ 전문가로서 성장하기 위해 역량을 쌓아나갔다. 현재 이현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에 입사하여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를 하고 있다. 과학문화 관련 정책들을 연구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하며, 연구 결과물이나 과학문화를 지역에서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언뜻 보면 법학과 출신 이현율이 몸담고 있는 조직이 그의 진로와 어떠한 연결고리가 있는지, 이현율이 ‘지식재산권’ 전문가로 성장하는데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모호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현율에게 지금의 현 주소는 진로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늘 해왔던 것처럼 소신 있는 자신의 선택이자 이유 있는 연결고리였다.

원래 지식재산이 특허 쪽은.. 특허랑 디자인이랑 상표랑.. 과학기술이랑 좀 연관이 있는데, 어차피 특허..일을 하다보면 과학기술 쪽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과학기술법을 해야 되고, 하다보니까 특허, 과학기술, 그다음에 과학기술문화 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면담자: 아.. 또 그렇게 연결고리가 있었

네요.) 그리고 전에 어차피.. 대학시절에 복지부에서 홍보 했던 것 때문에, 홍보 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었고, 지금.. 제가 속해있는 기관이, 주무 기관은 과학기술통산부인데 교육부랑 중소벤처기업부랑 같이 또 연관이 되어있어서, 지식재산이 지금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입사는 했는데 취업을 했다고보다 뭔가 거쳐가는 느낌? (☞면담자: 아.. 내가 가는 길에 어떤 한.. 곳?) 예. 입사를 했다고 해서 바뀐 게 아니라, 어차피 이 분야도 조금은 해야 하니까, 나중에 하다보면 어차피 이쪽 분야도 알아야 하고.

이현율은 ‘법’과 ‘과학’이라는 전혀 달라 보이는 분야에서 ‘지식재산권’은 두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전문가의 길에 있어서 현 직장에서의 경험과 배움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현율은 다채롭게 경계를 넘나들며 보냈던 대학생활 덕분에 현 직장에 입사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직장 내에는 다양한 부서가 나누어져 있고, 부서를 이동하며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다 배우고 내공이 쌓이면서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안을 찾을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과학문화 관련 정책 및 연구 홍보 사업’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 이현율은 대학시절 복지부와 법무부에서 수행했던 활동과 지금의 일이 많은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입학사정관제 홍보대사를 하며 사업을 운영하고 지역에 있는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활동하였던 것 또한, 지금 기업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풀뿌리 사업의 일환으로 지방출장을 가는 자신의 모습과 닮아 있다. 대학 시절 성실히 했던 활동과 경험이 현재 일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그때의 경험을 통해 습득할 수 있었던 깨달음과 함양된 역량이 있었기에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되는 공공기관에 대학 졸업이 되기도 전에 채용될 수 있었다고 이현율은 생각한다.

의미가 있는거면.. 저는 복지부를 뽑겠습니다. (☞면담자: 복지부 활동? 지금의 진로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그런 활동이니까?) 영향도 있고, 약간.. 지금 있는 곳이 공공기관인데 왜 공공기관으로 가야하는지, 왜 저의 성향과 사기

업은 안 맞는지 알 수 있었어 가지고. (☞면담자: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일단 법과도 연관이 있는데 행정을 하려면 법이 있어야하고, 그다음에 행정을 통해서 나오는 성과물을 홍보로 확산을 하는건데, 어떻게 보면 되게 억지일수도 있는데 연결고리가 법을 통해서 행정을 하고, 행정의 성과물을 홍보하고 확산을 하는게.. 그냥 그 과정이 약간 좋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었다가 직접 행정을 해보고 또 홍보를 하면서 모든 걸 경험할 수 있는?

이현율은 이유있는 연결고리로 자신만의 진로를 개척하고 있다. 현장에서 실전 경험을 쌓고 추후 대학원에 진학하여 계속해서 공부를 이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학문과 현장, 이론과 실전을 넘나들며 자신의 진로를 보다 풍성하게 만들어 나아가고자 한다. 취업은 종착지이자 결과물이 아니라, 이현율에게는 꿈에 다다른 길목에 존재하는 하나의 정거장이다.

6. 학습하며 지식재산권 전문가로 가는 길

이현율은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것이 ‘소신을 지킬 수 있는’ 직업인지에 관한 것이었다. 법을 공부해왔고, 법과 관련하여 사회를 바라보고, 법과 정책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다시 돌아오는지 보아왔던 과정에서 이현율은 일련의 시간들을 통해 자신의 직업에 대한 가치, 진로의 방향을 수립할 수 있었다. 이에 진로에 대하여 무언가를 결정하고 행동에 옮길 때 자신의 소신을 지키고 추구하는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지 고려하는 것은 이현율에게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되었다.

아마.. 제 분야가 법이다 보니까.. 법을 하다 보면 행정이나 정치 쪽으로 인별브되는데.. 법도 어차피 행정이란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니까, 지금도 일을 하다보면 정부에 따라 정책들이 계속 바뀌고, 그 정책 바뀔 때마다 일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정책 수혜자들도 계속 피해를 당해서.. 차라리.. 그런 걸 보고 소신이 필요하겠다..

이현율은 입사동기들 중 막내로 많은 역할과 업무를 수행하며 바쁜 일상을 보

내고 있다.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책을 읽고 박물관을 가고, 현재 맡고 있는 업무에 도움이 될 만한 강의를 찾아 들으며 입사 1년차를 알찬 시간으로 보내고 있다. 이현율은 직장인이 된 지금도 다채롭게 공부하고 경험하는 것을 생활화하고 있다. 바쁜 시간을 쪼개어 박물관에 가는 것을 취미로 삼고 있고, 이러한 취미는 자신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하고 상상할 수 있는 원천이 되어주는 시간이라고 한다. 최근 다양한 지역에서 크고 작은 행사를 기획하고 주최하면서 전시형태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환기하는 시간으로 보내기도 한다. 또한 정부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원격 연수를 통해 전시/기획 분야를 공부하고 있다. 짬을 내어 부지런히 학습하는 것을 일상화하는 이현율이다.

약간 옛날 걸 좋아하는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문화? 최소한의 삶의 최저노선? 문화생활을 한다는게.. (☞면담자: 이렇게 뭔가 전시를 보고 박물관을 가는데 본인의 삶에서 어떤.. 생각할 거리들을 좀 주는 건가요? 그러면?) 네. 최근 입사하고 나서도 행사 관련 하다보니까 다른 행사들도 많이 가보게 되고, 그리고 뭔가 박물관이나 뭔가를 보고 있으면, 특히 박물관에 가면 아 옛날 사람들 저렇게 살았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무언가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행동하기 보다는 그때 그 시점의 현재에 충실하고자 하였다. 자신의 관심분야에 대해 주체적으로 탐색하고 행동으로 실천하였고, 그러한 하루하루가 더해지고 모아져서 지금의 이현율이 되었다. 앞으로도 현재 이 순간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와 역할에 충실히 할 것이며 성장하고 학습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다보면 노력, 시간, 경험, 성찰, 성장의 면모들이 어느 지점에서 귀결되어 새로운 관점과 방향을 제시해줄 것이라 이현율은 믿는다.

업무적으로는 내년에 행사를 하나 하게 될 것 같아서 강연프로그램인데 강연은 도시형 과학강연으로 해서 하나를 기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공부를 좀 해야할 것 같고, 아마 2~3년 뒤에는 대학원에 가있지 않을까? 일을 하면서 공부를 계속 하지 않을까?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이미 ‘지식재산권’ 강의를 하는 전문 강사로 일했던 이현율은 어쩌면 이미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겠다. 지식재산권 분야를 넓은 관점에서 다양한 분야와 연결하여 의미를 부여하고,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여러 환경들을 이해하고 들여다보고자 하는 이현율의 선택과 진로는 ‘어떠어떠한’ 지식재산권 전문가, 즉 ‘지식재산권 전문가’를 앞에서 수식하는 그 문구를 어떻게 만들어나갈지 고민하며 나아가는 과정이다. 이현율은 자신만의 고유한 색채를 더하여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서 전문성을 길러 진정한 지식재산권 전문가로 가는 길에 오늘도 정진한다.

이현율은 가고자하는 삶의 지향점이 있다면 그 방향을 향해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일들에 집중하여 충실히 하는 것에서 진로 여정이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관심과 흥미가 있는 분야에서 현재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노력하다보면, 차츰 지향하던 삶의 모습에 가깝게, 자신에게 적합한 환경으로 구성될 수 있음을 보여준 연구참여자이다.

E. 진로는 의미와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 입학사정관 김온아 이야기

1. 정서적 금수저

연구자에게 김온아는 차분하게 조곤조곤 자신의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던 연구참여자이다. 말을 꺼내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때처럼 김온아는 강단 있고 소신 있는 진로를 나아가고 있었다. 김온아와 만나 어린 시절의 기억을 공유하면서 연구자가 받은 느낌은 ‘정서적으로 풍요로운 어린 시절을 보냈구나’라는 느낌이었다. 김온아는 성장과정에서 부모님과 대화가 많았던 편이었고, 진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부터 힘들고 괴로운 일까지 자주 대화시간을 가져왔었다. 하지만 김온아는 청소년 시절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가난함’이라는 느낌이라고 이야기 한다. 김온아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하였던 시기에 김온아의 아버지께서는 일을 그만두시고 공부를 시작하셨다. 그러면

서 어머니께서 생계를 도맡으시게 되었고, 이러한 환경으로 김온아에게 그 시절은 경제적 여유가 없었고, 이에 힘들게 느껴졌었다고 한다. 경제적으로 불편한 부분은 분명 있었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대신에 공부를 하시는 아버지와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이 자연스럽게 조성될 수 있었다. 학교생활에 대한 이야기, 성적뿐만 아니라 진로, 진학을 비롯한 고민거리까지 많은 이야기를 아버지와 나눌 수 있었고, 때로는 의견이 충돌하기도 하고 마음속에 있던 힘든 감정이 그대로 표출될 때도 있었지만, 이러한 시간은 김온아가 진로를 고민하고 찾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아.. 그때 딱 고등학교 시절에 떠오르는 건.. 이야기하려니까 되게.. 드라마 이야기인 것 같은데, 되게... 가난함이었던 것 같아요. (면담자: 어떤 의미에서?) 그니까 진짜 집이 가난한 거? 그때 당시 이제 아빠가 제가 중학교 때부터 아빠가 일을 관두시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고등학교 때까지 이어지면서 엄마가 이제 주 생활수입원이 되고, 그리고 그때 당시 살던 터 자체가 되게.. 어두컴컴하고 집 자체도 음습한 느낌이 드는 데여서.. 사실 그 당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가난함이 되게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는 말 그대로 제 진로, 아빠가 항상 계시니까 제가 의논을 할 수 있는 게 엄마보다는 대학을 선택하거나 학과를 논의하거나, 아니면 제 중학교때 성적, 중간고사 기말고사 나오는 성적에 관해서 같이 논의를 하는 게 이제 그 시간,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거의 아빠랑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당시에 되게 반항기처럼 막 아빠한테 대들고 막.. 나도 힘들다는 등 아빠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인터뷰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제가 도움이 많이 되었고..

김온아의 부모님은 김온아가 무엇을 하든 항상 지지해주시고 강한 신뢰를 보여주셨다. 말보단 행동으로 항상 본보기를 보여주셨고, 일례로 어머니는 김온아가 초등학교 때 어려운 수학문제를 고민할 때는 밤새 함께 고민해주시기도 하였다. 고등학생이 되어 학원을 다니지 않고 스스로 공부하겠다는 김온아의 결정 또한 존중해주셨다. 중학교 때 학원을 다니는 것을 힘들어했던 김온아의 학습 성향을

인정해주시고, 이제 자신의 방법으로 공부하겠다는 김온아를 믿고 지지해주셨다. 고등학생이 되어 공부가 힘들고 막막할 때 아버지는 함께 공부하시며 고민을 나누고 이야기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되어주셨다.

사실 부모님도 저를 좀 믿고..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생각이 제가 어쨌든 제가.. 이런 일(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놓치면 안 되니까, 공부도 어느 정도 해 와서 학교성적을 가지고 있고 유지해왔으니까 그걸 믿고, 이거(활동)를 한다고 해서 그거를 소홀히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걸 좀 인정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빠는.. 제가 중학교 때 아빠도 같이 공부를 하고 계셨었어요. 일을 안 하시고~ 그런데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진로나 그런 문제들. 사실 공부에 대한 엄청난 큰 간섭은 없으셨는데.

김온아는 지나고 보니 부모님이 보여주신 신뢰와 노력, 교육방침에 감사한 마음이 든다고 한다. 부모님은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많이 노력해주셨고 의미를 두셨다. 경제적으로 유복하지는 않았지만, 부모님께서 김온아에게 보내주시는 신뢰와 지지는 김온아가 학교생활을 하고, 진로를 결정하고, 다양한 경험과 활동을 하는데 큰 힘이 되어주었다. 그러한 시간들이 켜켜이 쌓여 김온아가 어떠한 선택을 할 때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확신을 가지며 자신 있게 임할 수 있게 해주었고, 이는 활동을 하고 자신의 진로를 주체적으로 탐색하는 데에 밑거름이 되어 주었다.

어렸을 때부터 좀 부모님이 이렇게 여행 같은 걸 자주 데리고 가주셨어요. 꼭 해외여행을 간 거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막 동네를 전부 다 돌거나, 아니면 틈틈이 그래도 뭐 방학 때나 이럴 때 데려가 주시고, 이랬던 것들이.. 그렇게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면담자: 그 당시 부모님은 우리 김온아 선생님을 어떤 자녀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알아서 하는 아이.. (☞면담자: 스스로 자기 께 알아서 하는 아이?) 네. 왜냐면 일단 한번 믿어주자라는 생각이 있으셨거든요. 혼자 잘 할 거다..라는 좀 재촉하지 말고 기다려주자..라는.. 그런.. 자녀였던 것 같

아요.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부모로부터 강한 믿음과 신뢰를 받는다는 것은 실로 대단한 일이다. 경제적인 면에서 힘들고 괴로웠던 부분도 있었지만 김온아는 사려 깊은 부모님의 온전한 지지를 받고 있었고, 이는 정서적으로 김온아의 삶에 강한 에너지원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언제부터인가 부모로부터 받은 경제적 환경에 따라 금수저, 흙수저라는 용어가 통용되고 있는 사회이다. 이러한 용어가 두루 쓰임은 씁쓸한 사회의 단면을 조망하기도 하지만, 경제적 유산에 대치하여 정서적 풍요로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정서적 금수저⁶⁾’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김온아는 부모님과과의 대화와 소통을 기반으로 신뢰와 지지를 받으며 정서적 금수저로 성장할 수 있었다.

2. 내가 생각하는 즐거운 학창시절

김온아는 자신의 학창시절을 굉장히 즐거운 정서로 회상한다. 대한민국의 고등학생들은 대부분의 일과를 학교에서 보낸다. 김온아 역시 부모님보다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다. 그러한 학교에서의 시간은 김온아에게 재미와 즐거움으로 가득했다. 자신의 학교생활을 이러한 감정으로 회상할 수 있기에는 김온아 스스로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했었다. 수능중심 문화의 고교에서 입시와 관련된 것 이외의 행위에는 암묵적인 제제가 따르고 걱정과 염려의 눈총을 받기도 했지만, 김온아는 스스로 학교생활이란 어떠해야할지 고민했었고 행동했었다. 학창시절이라는 삶의 소중한 한 부분도 자신의 삶을 구성하는 일부이기에도 그 시간에 충실하고 보다 즐겁게 보내기 위해, 스스로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많은 노력을 쏟았다.

6) 부모의 재력과 능력으로 아무런 노력과 고생 없이 경제적 풍족함을 누릴 수 있는 자녀를 지칭하는 ‘금수저’, 이와 상반되는 개념으로 넉넉지 못한 환경으로 경제적인 도움을 전혀 못 받는 자녀를 ‘흙수저’로 명명하는 용어가 우리 사회에 두루 쓰이고 있다. 2018년 출간된 ‘정서적 흙수저와 정서적 금수저’ 저서에서는 출생 이후 부모와 맺는 애착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탄탄한 애착관계가 형성된 가정의 자녀를 ‘정서적 금수저’라 명명하고 있다.

고등학교 자체가. 근데 저는 굉장히~ 그 또 가정과는 별개로 그 고등학교 때 학교생활을 생각하면 굉장히 즐거웠거든요. 특히 같이 다녔던 친구들에 대한.. 친구들이 매번 같이 야자를 하면서, 거의 부모님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니까,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해봐야할까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 저희끼리 모여서 “선생님, 저희 경제~ 이런 활동 해보고 싶은데 동아리~ 좀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4명이서 같이 경제.. 기억이 정확히 나지는 않는데, 여의도에 있는 무슨.. 경제 관련해서 고등학생들한테 교육시켜주고 체험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것도 같이 가고 이런 식으로 좀.. 그런 매일 매일이 즐거웠던 것 같아요.

저는 학교에서 애들이 다 말렸거든요. 너는 그 중요한 시기에.. (면담자: 뭐하는 거냐?) 네 왜 그런 활동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느냐. 어떤.. 좀 그랬고, 저희 담임선생님도 사실 크게.. 그런 활동을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면담자: 그때만 해도 사정관전형이 그렇게 흔하게.. 보편화되지 않았었죠?)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하는데, 저는 사실 그런 게.. 정말 재밌었고, 제가 생각하는 학교생활은 이래야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김은아가 친구들과 선생님의 염려와 만류를 뒤로 하고 스스로 추구하는 즐거운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커다란 목표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그것이 ‘재미있고’, ‘즐거워서’ 였었다. 뜻이 맞는 친구들과 모여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고민의 과정에서 공통의 관심사를 발견하여 필요한 경우에 선생님께 도움을 청하여 학교 밖으로 나가 색다른 경험을 해보기도 하였다. 그러한 과정에서 다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며 자극을 받기도 하고, 경험을 함께하며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컸었다. 이러한 시간을 지나오며 성장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기에 주위의 걱정과 염려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방법으로 학교생활을 하고 행동에 옮길 수 있었던 것이다.

또 그때 (활동)하면서 만났던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었어요. 그 친구들 중에 한명이.. 그 친구는 되게 만능인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공부도 잘하고 활동도 다 잘 하면서~ 되게 다재다능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의 어떤 마인드를 보면서, 공부가 단순히 뭐, 물론 앉아있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뭐

붙들고 있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항상 즐기면서 하더라구요. 그런 모습들이 저도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내가 원하는, 내가 수능으로 완전히 승부를 볼 수 없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즐기면서 해보자라는 마인드로 활동을 임하다보니까.

학교에서 앉아서 공부하는 학습도 중요하지만 활동과 경험, 고민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학습의 깊이를 더해줄 수 있었다. 김온아 스스로도 그러한 시간이 진정한 학습으로, 성장의 시간으로 다가왔기에 더 재밌고 즐거울 수 있었다.

김온아는 학창시절을 떠올렸을 때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경험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중학교 때 학급 친구들과 했던 야영, 고등학교 때 동아리 친구들과 기행을 다녔던 추억을 꺼내었다. 김온아에게 야영은 매일 공부하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친구들과 밤새 놀고, 밥을 먹고, 잠을 자며, 기존에 학교라는 장소에서는 할 수 없었던 행위를 한다는 의미에서 색다르게 다가왔던 경험이었다. 그리고 고등학교 기행 동아리 활동은 문과 반이었던 김온아가 이과 반 친구들을 만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소통창구였으며, 친구들과 선생님과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기행을 하며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공간이었다. 학교에서 마주하는 선생님의 모습과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친구들과 한층 더 가까워지면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었다고 회상한다. 김온아가 생각하는 학교생활다운 학교생활은 이런 시간이었다.

중학교 1학년 때 야영이라는 것을 했었거든요. (중략) 그 학교라는 공간에서 내가 날을 같이 쉰다는 게 되게 특이했었어요. 공부하고 이런 장소가 아닌, 도서관에 가서 같이 공포영화 보고, 체육관에서 같이 게임하고 애들이랑~ 같이 밥해먹고 이런 것들이.. (☞면담자: 생활적인 면을 같이 향유한다는 게..) 네. 학교라는 공간이 되게 다르게 다가왔던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또.. 고등학교 때는.. 좀 의미있었던 걸로 하면.. 그것도 비슷한 건데, 제가 이제 동아리 활동에서 기행을 했었던 거. 네. 그게 되게.. 아직도 정확히 그 루트를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닌데, 그 당시의 어떤 기분, 감정 같은 게 생각을 하면 떠올라요. 그게.. (☞면담자: 그.. 하천생태반..?) 네 맞아요 그 하천생태반. 그게 이제 저희가 문·이과가 나뉘져 있었는데, 그게 이제 유일하게 제가 이과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일종의 그런 소통 장소였거든요. 거기서 완전, 제가 늘 보던 반애들만 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친구들

하고 몇 박 며칠을 같이 다니면서.. 네.

김온아는 삶의 한 부분인 학창시절을 학창시절답게, 보다 다채롭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이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교육에 대한 관심으로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해왔었고, 학교에서 접하는 상황, 환경, 고민에 따른 선택과 결정들은 김온아에게 ‘교육’, ‘학교’에 대해 항상 생각할 거리들을 제공해주었다. 교육의 힘, 학교의 역할, 학창시절의 의미 등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은 김온아의 진로로 이어질 수 있었다.

그런 매일 매일이 즐거웠던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합창대회 준비한다고 다 같이 모여서 매번 그.. 다 같이 뭔가를 한다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삼십 몇 명이 싸울 수도 있는데, 어쩔~ 그렇게 다.. 재밌게 맨날 그랬을까.. (중략) 그냥 너무..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네.. (☞면담자: 친구들과 뭔가를 같이하고 같이 이루고 성취하고 하는 것들이..) 네 그런 게 다! 다~ 즐거웠어요.

(학교생활다운 학교생활이란) 일단 첫 번째는 (학교에) 가는 게 즐겁고, 뭐가 새로운 걸 알고 배운다는 게 즐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생활이.. 왜냐면 학교생활은 어쨌든 배우러 가는 거잖아요~ 뭔가를~ 그런데 제가 막 배우러 가기 싫고, 뭔가를 하기 싫고, 그러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되게 재밌었고, 계속 하고 싶고, 뭔가를 계속 하고 싶게 만들어주는.. 아까.. 그니깐.. 제가 생각하는 ‘학교생활다운 학교생활’이란 내가 뭔가를 배우고, 새로운 걸 하는 거에 있어서 즐겁고, 그래서 계속해서 하고 싶고, 그런.. 제가 (스스로) 찾아서 하게 되는.. 그런 생활이 학교생활이지 않을까..

3. 학교생활은 교육에 대한 고민과 탐구의 장

김온아는 어릴 적부터 교사라는 꿈을 막연하게나마 가지고 있었고, 교육에 대해 관심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오며 김온아가 마주했던 학교와 교실, 영향을 주셨던 선생님들, 그 자체가 김온아가 교육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환경들이었다. 교육에 대한 관심은 김온아에게 교사라는 꿈으로

연결될 수 있었지만, 어떠한 교과목을 가르치기 보다는 교육현장과 교사의 자질 등 보다 폭넓게 교육의 근본적인 부분에서부터 호기심을 갖고 관심을 확장시켜나갔다. 그리하여 대학에 지원할 때도 특정 교과교육학과는 아닌 ‘교육학과’로 전공을 희망하였고 진학을 준비하였다.

저는 크게 진로가 안 바뀐..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부터 꿈을 가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도 그렇고 그 시기마다 되게 그.. 좋은 영향을 주셨던 선생님들이 계셨거든요. 그런 선생님들을 보면서 아무래도 가장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직업으로 학생들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교사라는 꿈을 막연하게 계속 좀 생각해왔던 것 같아요. ‘나는 교사라는 직업이 가장 맞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사실 고등학교 때는.. 제가.. 교사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면담자: 그래서 교육학과에 진학을 하신 거예요?) 네 사실 교사라고 하면 국어교육, 수학교육 이렇게 보통 과목을 정해서 가는데, 저는 사실 교육학과라는게, 사실 수시를 그때 당시에는 제한이 없어서 열여섯개인가 했었는데.. 다 그때 교육학으로만 썼었거든요.. (☞면담자: 그 이유는 뭐예요?) 좀.. 교육 자체에 대해서 배우고 싶었고, 그리고 거기에 가면 좀 더 ‘사람’에 대해서 배우는다고 알고 있어서 커리큘럼이나 그런 걸 좀 보면.. 그래서 좀 어떤 과목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이걸 제 로망인데, 사실 교사가 학생한테 주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한 지점에 변화를 주는 데 있어서.. 제가.. 근데 이제.. 교사란 그런 사람이 아닐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목이기보다는, 교육이라는 것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에 사실.. 교육학과를.. 지원을.. 했었던 것 같아요. 꿈은 교사라는 꿈을 계속 가지는 했었어요.

김온아는 고등학교에서 동아리를 담당해주셨던 윤리선생님과 인연을 통해 자신의 진로의 깊이를 한층 더해 나아갈 수 있었다. 윤리선생님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일명 ‘괴짜’ 선생님의 이미지였다.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흔한 행보는 아니었던 기행 동아리를 운영하셨고, 교육에 관심을 두고 있는 김온아에게 많은 동기를 부여하였던 분이였다. 김온아는 교육과 학교에 대한 이슈를 다루는 도서, 영화를 두루두루 보고 선생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었다. 또한 교육의 현장에서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교육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 스스로 많은 질문을 던지고 고민의 깊이를 더해주는 시간을 보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주의를 집중하고 흥미를 유발하며, 선생님과 학생으로서 관계를 맺는 모든 순간들이 현실에서는 정답 없는 고민들을 무수히 양산하였다. 김온아는 성찰일지를 작성해보라는 윤리 선생님의 조언대로 자신의 교사로서의 행동과 학생의 반응을 기록하였고, 고민사항에 대해서는 선생님께 상담을 청하기도 하였다. 일지를 작성하라는 선생님의 조언을 통해 막연했던 교육에 대한 관심이 보다 확장되고 깊어질 수 있었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이 외에도 영화나 책을 통해 교육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접하려 노력하며 자신의 지평을 넓혀나갔다.

그 때 당시 교사로서의 내가 가져야할 마인드를 그 선생님하고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교사가 가져야 될 가치는 뭘까 그런 질문들을 선생님이 많이 던져주시고.

제가 그 활동을 하면서 제가 교사 관련된 책들을 좀 많이.. 많이는 아니지만 꽤 읽었었거든요. 읽고, 그거에 대한 생각을 쓰면 선생님이 다시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시고 좀 이야기하는.. 그런 활동도 같이 했었구요. (면담자: 어떤 책들을 좀 읽었었어요?) 그때 ‘교사란 무엇인가’ 이런 책이나 아니면 ‘루쏘’, ‘에밀’.. 이런 책도 읽고, 좀 주로 교육에 관련된 책들이 많았었어요..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교사, 주로 교사에 관련되어 있거나 아니면 학교에 관련된 거나 그런 책들을 좀 읽었었고. (중략) 아 영화를 되게.. ‘죽은 시인의 사회’를 선생님이 마침 보여주셨는데 좋은 영화라 하고 그게 또 인상 깊어서 책도 같이 읽게 되고.. 그런 활동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중략) 사실 그때 당시 그거(교육봉사활동)를 처음에 할 때는 선생님이 “넌 써라, 써야 많이 도움이 된다. 다시 읽으면서 분명 도움이 될 거다.” 라고 해서, 처음에는 솔직히 강제 반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진짜 제가 읽으면서 저를 좀 객관적으로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구요. 내가 이랬구나~

교육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자신의 견해를 확장해나가던 김온아는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구청에서 주최하는 해외고교탐방프로그램에 선발되어 2주간 미국에 체류하게 되었다. 미국 고등학교에 방문하여 그들의 교육과정에 따라 함께

공부해보고, 미국 학생들의 쏟아지는 질문을 보며 교육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었다. 이 탐방 프로그램은 김온아에게 미국의 학교와 교육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그에 견주어 우리의 교육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또한 함께 동행한 다른 학교의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었던 기회이기도 하였다. 미국의 교육 현장도, 영어도 어색해하는 자신에 비해 적응을 꽤 잘하는 것 같았던 다른 친구들, 학습에 대한 목표와 성취욕이 명확한 친구들의 모습을 보며, 보다 다양한 친구들 속에서 자극을 받으며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사실 그 활동이 저에게는 처음으로, 큰 나름 먼 해외를 나간 경험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구청에서.. 구청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마다) 두 명씩 선발을 해서 미국에 이제 한 2주간 데려가서, 1주는 홈스테이를 하면서 미국에 있는 고등학교를 같이 다니고, 그리고 1주는 투어식으로 거기를 여행했던 건데, 저는 그때 미국 고등학교를, 말로만 듣던 그 고등학교를 실제로 체험을 하면서 어.. 제가 되게.. 정말 작은 세상 속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그때 되게 많이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음.. 되게 의미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또 고등학교 교육과정들을 같이 보게 되는데, 와 애네들은 이런 식으로도 공부를 하는구나.. 그냥 되게 질문이 일단 너~무 많더라구요. (중략) 저희 쪽에서 보면 (웃음) “야! 재 바보 아니야?, 저런 걸 당연히 저렇게 풀어야지!” 라고 할 법한 것들을 되게 아무렇지 않게 질문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좀 되게 신선했죠. 그래서 제가 교육에 대한, 거기서 좀 다른.. 아 교육이 이렇게도 이루어지는구나, 사실 주입식 교육이 안 좋다 라고만 막연히 생각해왔지, 그렇다면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네. 거기서는 나름 색다른 교육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4. 대학이란 올만한 가치가 있는 곳

김온아는 다양한 친구들과 새로운 경험을 함께 하고 소통하는 시간에서 행복과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이다. 이러한 김온아에게 대학은 다채로운 경험의 장이었으며 올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었다. 김온아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고민은 대학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확장될 수 있었다. 교육학과에서 개설되는 전공수업은 김온아

가 교육학과를 지원하고 더 공부하고 싶었던 분야를 학습하는데 적합한 곳이었다. 대학은 다양한 지역에서 각기 다른 삶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가지각색의 친구들이 모인 곳이었다. 이러한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고 토론을 하는 과정은 하나의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다 다르게 볼 수 있는지, 신기하고 놀라운 시간의 연속이었다. 다름에서 오는 배움과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조율해나가는 과정은 김온아에게 성장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게 하였고 시야를 넓혀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주었다.

그게 정말 좋았어요. 결론이 안 나는 이야기 가지고 3시간 동안 이야기하다가 결국에는 피피티 한 장 못 만들고 헤어지는.. 아무것도 한 건 없지만 저는 뭔가 뿌듯함.. 그런 이야기를 했던게.. 그런 게 다 좋았던 것 같아요.

활동들 자체가 토론하고, 글 쓰고, 발표하면서 막 질문하면 대답 못하고, 고민하고 다시 막.. (웃음) (☞면담자: 그 일련의 과정들이 수업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면서 교육에 대한 사고가 커질 수 있었겠네요?) 맞아요. 제가 막 뭔가 의식적으로 이거를 넣어야지, 외워야지 막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순간 하다 보면서 아 그냥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고 기본적으로, 좀 넓혀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친구들과 토론하면서 하는 게, 토론하다보면~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 라고 하는 게 문득 떠오를 때도 있고, 그런.. 것들? 그리고 그게 또 일종의.. 제가 지금 그리고 있는 더 나은 나의 모습 같고.. 제가 그런 걸 나누면서, 제가 뭔가를 배우고 있고 계속, 좀.. 성장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 그런 기분 자체가 저에게는 좀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 나아지고 있다라는..

교육학과 전공 수업을 통하여 교육 이슈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교육을 사회구조적인 면에서, 심리적인 면에서, 철학적인 면에서 새로운 렌즈로 조망해보는 것을 통해 김온아는 교육적 사고를 확장할 수 있었다. 다양한 지역에서 다채로운 경험과 배경을 갖고 있는 친구들과 함께 배우고 토론을 하는 시간은 김온아를 계속 성장하게 하였고, 성장하는 자신의 모습이 또 동기부여가 되어 학습을 증폭시켜 주었다.

김온아는 수업시간에 플립러닝(거꾸로 학습)⁷⁾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교육학과 동료들과 해외학술탐방을 기획한다. 플립러닝을 잘 운영하고 있는 국가 방문을 기획하고 우리나라에 도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포부를 담아 정성스럽게 계획서를 작성하였다. 대학에서 지원하는 학술탐방지원프로그램에 지원하여 심사를 거쳐 통과되었고, 국가 선정부터 방문할 기관 연결, 교통편 티켓팅, 관계자 미팅 준비 등 세부적인 사항을 모두 직접 챙기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함께하는 새로운 경험이라는 부분에 김온아는 또 설레고 기대되었다.

제가 좀 더.. 교육에 있어서 플립러닝이라는 것을 사실 책으로만 봤거든요. 이론으로만 공부하고, 근데 그걸 직접 실천하는 (해외)고등학교에 가서 그걸 보고, 그리고 설명을 듣고 거기 선생님들의,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는 지, 그런 효과들을 이야기 듣고 이러다보니까, 아~ 되는 구나.

실제로 와서는 수학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학생들이 문제를 풀면서 자기네 들끼리 토론하면서 이야기하고,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나? 뭐 이런 것들.. 그런 식으로 실제로 공부하더라고요. 그니까 교사가 하는 역할이 진짜 없는 거더라고요. 막상 교실에 들어와서는. 서서 잘못 가면 방향을 좀 지시해주고 이런 식으로.. 그게 되게.. 참신했어요.

김온아는 대학에 와서도 다양한 경험 속에 자신을 두려고 노력하였고, 그 안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보다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하였다. 그런 김온아에게 대학생활 중 가장 힘들거나 어려웠던 점에 대해 질문하였을 때 김온아는 대학교 3학년 때, 학생회 부학생회장을 맡았던 경험을 이야기 하였다. 리더로서 학생회 임원들을 이끌고, 크고 작은 행사를 기획하고, 역할을 분배하고, 갈등을 관리하고, 책임을 져야하는 총체적인 활동은 김온아에게 어떠한 조직을 이끄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고민하게 하였다. 많은 애를 썼었고 대학생활 중 가장 어려웠던 경험으로 회상되지만, 김온아는 지나고 보니 보다 성숙해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이

7) 플립러닝(Flipped Learning)은 우리나라에서 '거꾸로 학습'이라 명명하며,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집에서 숙제를 하는 전통적인 수업과 달리, 집에서 온라인 영상이나 관련 자료를 통해 사전에 기본 학습을 하고 교실에서는 토론, 과제 수행 등의 학습을 하는 형태이다. 플립러닝은 학습자의 능동적 태도와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요구하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플립러닝을 활용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야기 한다.

제가 이제 2학년 때는 학생회 일원이었다면, 3학년 때 제가 그 학과에 부학생회장을 맡으면서 그 3학년이 굉장히 저한테는, 그 3학년 1년 자체가 힘들었는데 좀.. 제가 정말 어떤 이런 리더.. 이끄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 활동을 하면서.. (중략) 제가 여러 가지로 좀 책임감을 좀 더 배울 수 있었던 한 해가 그 3학년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좀.. 뜻 깊었고.

김온아는 대학에 들어와서 전공수업과 교육봉사를 통해 교육에 대한 지식과 소신을 넓혀나갈 수 있었다. 이론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토론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며 그 안에서 자신의 소신을 보다 정비하고 확고히 해나갈 수 있었고, 이러한 교육의 현장은 김온아에게 교육에 대한 사고를 넓혀주는 좋은 환경이 되어주었다. 또한 해외 학술탐방을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기획하여 다녀왔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 직접 보고 경험하면서 자신의 배움을 고양시킬 수 있었다. 이외에도 학생회 활동과 과외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가며 그 안에서 한 뼘씩 성장할 수 있었다. 김온아에게 대학은 단순히 공부뿐만 아니라 다른 사고방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고, 다채로운 상황과 환경을 마주하며 생각의 깊이를 더해갈 수 있는 장소였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 자신에 대해 더 알아가고, 소통과 교류를 통해 더욱 성숙해질 수 있는 공간이었다.

저는 일단 사실 이 직업(입학사정관)을.. 대학을 이 전형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면 아예 몰랐을 거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거고, 대학에 들어오고 졸업했기 때문에 저는.. 이 진로를 선택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대학이라는 의미를, 고등학교 때보다 대학에 들어오고 졸업을 하고 더 크게 의미를 깨닫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는 말 그대로 학생들이 이제 대학을.. 가야하니까 모두가 가고, 어떤 그냥 목표인거잖아요. 저도 그래서 뭐 가서 그런 공부를 하고 싶고 그렇지만, 대학 자체를 가야한다는 그런 좀.. 막연히 가야하니까 일단은, 가야하니까 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대학에 들어오고 나서 활동을 하고 졸업을 하고 나니까 아 대학을 정말 가야하는 구나.. (면담자: 경험을 해보니까?) 네. 올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대학은.. 공부.. 정말 지식을 배우러 오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우러 오는 것 같아요. 어떤 인간관계라던가, 약간의 정치적인 면도 배우고, 본인이 어떤 선택에 있어서 책임을 다해야한다는 것도 배우고, 무엇보다 자율성이 커지니까 그런 것들.. 좀 그리고 실패할 수 있다는 거! 본인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많다는 거.. (중략) 그런 여러 가지 면을 배우면서 감정도 막.. 다양한 걸 느끼게 되고, 훨씬.. 더 나은 제가 되는 거죠. 네.

5. 멘티와 멘토를 오가며 진로를 찾아가다

김온아는 어릴 때부터 막연히 가지고 있었던 교사라는 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를 입시 과정을 통해 마주하게 된다. 교육에 대한 관심으로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자연스럽게 연결지어 꿈꿔왔지만, 자신의 소신과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직업군이 있다는 것을 김온아는 대학입시 면접에서 교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인식하게 되었다. 이후 자신의 교육적 소신과 신념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과 진로가 있음을 깨달았고, 대학 측에서 마련해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입학사정관’이라는 진로를 결심하게 되었다.

(☞면담자: (교사에서 입학사정관으로)다른 진로로 변환이 되어 진건데, 그 계기가 혹시? 쉬운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사실 그 계기는 되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에는 A대학 교육학과 입학사정관전형 면접의 경우에는 ‘교권실추’ 주제를 주고 피티를 만들어서 하고, 이제 그렇게 하라고 했었는데 그 면접을 하면서 그 와중에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육학과에서 교사 말고 또 뭐가 되는 줄 아느냐?”, “졸업 후에 어떤 진로가 있는지 아느냐?” 어 근데 딱.. 솔직히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저는 사실 교사밖에 생각을 안했는데, 원하는 게 교육을 배우고 싶어서 왔으니까,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는 “교육공무원정도요?” 이렇게만 했었는데, 그 때 “더 다양한 게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딱 합격이 돼서 들어와서 다니다보니까 진로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그때 좀 알게 되었어요. 이 교육이..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게, 교사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다양하게 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김온아는 자신의 교육적 신념과 소신을 담아낼 수 있는 진로를 탐색하던 중, 대학교 3학년 때 학교 측에서 마련해준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입학사정관’을 직업으로 인식하고 목표하게 되었다. 대학 측에서 마련해준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에서 입학사정관으로 일을 하고 있는 졸업생 멘토와 만날 수 있었고, 김온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애정을 담아낼 수 있는 직업이라 확신을 갖고 진로를 결심하게 되었다. 현직 입학사정관과의 대화를 통해 ‘입학사정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입학사정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다. 김온아가 ‘입학사정관’이라는 진로를 결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전형에 대한 김온아의 긍정적인 인식과 경험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다. 스스로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모습으로 고등학교 생활을 보냈었고, 그 시간을 바탕으로 교육학에 대해 공부하고자 하는 자신의 포부를 대학 측에 밝혔으며, 이러한 자신을 인정해주고 그 자격으로 대학에 선발되었다는 것은 김온아에게 지나온 시간에 대한 인정과 자신에 대한 신뢰를 증명한 것이었다. 자신이 추구했던 소신대로 학창시절에 임하였고, 그러한 부분을 인정받았다는 것은 김온아에게 자신이 틀리지 않았음을, 학창시절은 이러해야한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결코 이상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것이었다. 그리하여 전형에 대한 좋은 감정이 ‘입학사정관’이라는 직업과 연결될 수 있었다. 마침 학과 내에서 친하게 지내던 선배가 입학사정관이 되려고 준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선배에게 조언을 구하며 꿈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

사실 제가 사정관전형으로 들어왔을 때 학교생활하면서 이 전형에 대한 애착이 좀 많았는데, 이 전형에 대한 애착만 가지고 있었고, 딱 그렇게만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분을 만나서 그 분이 딱 하는 일을 소개해주시는데,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의견들을 이야기해주시는데,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전형에 대한 애착을 일로 풀어낼 수 있겠구나~ 내가 이 직업을 가짐으로써 내가 애정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니까, 다른 직업보다 훨씬 열심히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딱 결심을 했어요. 사실 그 전까지는 완전히 입학사정관이라는 직업은 어떻게 되어야하는지 잘 몰랐었거든요. 딱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깐 그게 좀 도움이 됐었습니다.

네! 제가 사실 그 전형을 준비할 때부터 고등학교때부터 이제 준비해왔으니

까,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제 고등학교때 생활.. 전형에 준비하면서 했던 생활이 저에게는 굉장히 만족을 주는 경험이었고, 도움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겹쳐진 것 같아요. 그런 생활이.. 학교 생활이 좋았던 그 감정들이 그 전형, 이 전형에 선발 된 게 보여준 것 같고, 나의 그런 생활들이..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있는, 나와 같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형, 단순히 어떤 공부나 수능..이 아닌 다른 요소로도 보여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들어오고 나서는 이 전형으로 들어온 친구들이 확실히 다른.. 그니까 수능으로 들어온 친구들보다 확실히 과에 대한 애정이 있더라구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전형이 더.. 의미 있는 전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서 이제 좋은 감정이 생겼던 것 같아요.

김온아는 대학에 입학한 이후에 교육봉사의 일환으로 모교 후배들의 멘토 역할을 해주었다. 교과목 교수 역할 외에도, 자신처럼 입학사정관전형을 준비하는 후배들을 위해 조언을 해주고 그들의 결심과 꿈을 지지해주었다. 이를 통해 느끼는 보람이 있었으며,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입학사정관의 업무와 일부분 연결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김온아는 때로는 멘티(mentee)로서 앞서 입학사정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선배 멘토들에게 배움을 받고, 때로는 멘토(mentor)로서 자신처럼 입학사정관전형을 준비하는 고교생들에게는 조언을 해주며, 이미 입학사정관의 세계를 오가며 활동하고 있었다.

김온아는 오래전부터 관심을 두고 학습해왔던 교육에 대한 소신과 신념이 입학사정관이라는 직업의 역할과 맞닿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입학사정관’이라는 진로와 함께 지원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대학원 진학 또한 결심하였다. 대학원 진학 이후에도 학비를 오롯이 벌면서 수학했어야했기에 분주한 일상을 보냈었지만 기회가 닿을 때마다 고교생 멘토링 봉사활동을 하였다. 입학사정관이 되어야겠다는 목표를 안고 대학원 석사과정에 간 것이었기에 항상 입시 관련 이슈와 정책의 변화를 주시하였다. 입학처에서 진행하는 연구에 연구보조원 자격으로 같이 참여하면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입학사정관 선생님들께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현장의 분위기와 흐름을 익히기 위해 노력하였다. 멘티와 멘토를 오가며 김온아는 자신의 진로를 보다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었고, 대학원 졸업 후 모교에서 입학사정관으로 꿈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

사실 제가 어떤.. 큰 노력을 했다..라기 보다는, 그래도 좀 입시..에 그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고 가끔 찾아봤던 것 같아요. 기사나, 아니면 입시가 어떻게 되나 그런 것들을 계속 찾아보고, 그리고 이제.. 입학처에서 하는 연구를 연구보조원으로 같이 참여해서 해보고.. (☞면담자: 대학원 다닐 때 그렇게 했었어요?) 그때 사교육영향평가연구.. 네 참여를 해보고,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하면서 사정관 선생님을 뵈잖아요~ 그 당시, 그러면 사정관 직업은 어떤지 좀 여쭙보기도 하고, 그렇게만 했었던 것 같아요.

6. 입학사정관전형 출신 입학사정관

김온아는 입학사정관전형에 대한 애정, ‘교육학’을 공부하며 다져왔던 교육적 소신, 입학사정관이라는 진로를 결심하고 준비해왔던 노력의 시간이 더해져,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 바래왔던 입학사정관이 되어 모교에서 후배들을 선발하고, 그들이 자신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은 김온아 자신에게도 큰 의미이고 가치 있는 일이다.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이었던 김온아는 입학사정관전형을 준비했었던 당사자였었기에 누구보다 학생의 입장과 마음을 잘 알고 있고,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으로서 대학생활을 해왔기에 어떤 도움과 지원이 필요한지 몸소 그 시간들을 지나왔다. 뿐만 아니라 ‘교육학’ 전공자로 오랜 시간 공부하며 자신이 하는 일과 선택에 어떤 의미와 가치가 담겨있는지 알고 있다.

근데 저는 사실 한 번도 그런 거(입학사정관전형으로 대학을 입학했다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한 적도 없고, 오히려 이 전형이 저를 나타내줄 수 있는 어떤... 가장 큰 무기였던 것 같아서.. 그걸.. 지금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런 걸 좀 이야기하고 싶었고, 저는 이 전형을 준비하기 전부터 어떤 고등학교 진로생활이나 이런 활동들이 되게.. 이 전형을 그냥.. 그리고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나를 보여줬고, 그래서 학교에서 이런 나를 뽑아줬다 라는 거에 있어서..

네. 그래서 좀.. 사회에 나갈 때도 취업 때문에 물론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근데 단순히 막 어디든 가겠다. 물론 어디든 가야죠, 그런데.. 간혹 보면 진짜 여기저기 다 집어넣은 애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본인이 뭘 원하고 있는지 그런..것들을 좀 생각을 해서.. 정해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

런 게 대학에서부터 그렇게 들어와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고, 공부를 해야 그렇게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 대학교 와서 해도 좋은데, 막.. 조금은.. 대학교에 와서도 뭔가 달달달 해야겠다는 걸 안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들었어요.

김은아는 이상적인 교육, 학교의 모습, 학생의 일상에 입시제도는 큰 영향을 주고 있고, 어떤 모습이인지에 따라서 긍정적 의미를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입학사정관이 되고자 했던 것도 우리나라의 입시제도와 평가체제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느냐에 따라 학교의 분위기와 학생들의 학습형태, 그에 따른 일상이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체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행동하는 학생들이 인정받고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대학 입학 이후에도 고등학교 때의 진로 탐색이 유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게 그 과정에서 역할 하고자 한다.

아~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일단 입학사정관이 되고 싶었던 이유 중 하나도 정말 그 대학에 와서 과를 좋아하고 그런 과에서 단순히 이제 성적 맞춰서 와서 졸업해서 잘 취업을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취업을 하더라도 본인이 정말 공부하고 싶은 데를 들어와서 공부하고, 그런 친구들을 이제 뽑고 싶어서 이제.. 입사관이 된 거고, 그리고 그런 기반에는 공부는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대학교의 교육은 사실 고등학교 때 받았던 교육과는 또 다른 완전.. 다른 식으로 이루어지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입학사정관(이라는 직업)에 같이 연결이 되었던 것 같아요.

교육에 대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많은 시간 토론을 하였고, 입학사정관제도와 역할에 대해 고민도 깊이 해왔던 김은아이다. 어느 정도 현장의 분위기와 맥락을 잘 알고 들어왔다고 생각한 김은아였지만, 실제 현장에서 입학사정관으로 일을 한다는 것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힘든 부분이 다분하였다.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일의 사명감으로 입학사정관을 시작한 김은아의 사회에서의 첫 일 년은 녹록치 않았다. 입사 후, 일 년 가까이 입학사정관으로 일을 배우고 ‘입시’라는 가장 큰 업무의 시간을 지나오며, 실제 현장에서 자신이 꿈꿔왔던 교육적 소신과 생각을 펼치는 입학사정관으로 역

할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공부가 필요함을 느낄 수 있었다.

사실 정신없이 하라는 대로 해서 제가 뭔가 막 생각을 하면서 보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지나고 보니... 줌... 많이 힘든 일이구나.. (♫면담자: 아 생각했던 것 보다?) 네에에. 많이 힘들고, 그리고.. 줌. 제가 막~ 이 직업에 대해..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꿈이랑, 로망이랑 이런 게 많았구나..라는 생각이 줌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뭔가 단순히 학생을 뽑는.. 다는 거에서 책임감이나 그 아이를 잘 뽑아야겠다는 마음가짐만으로 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나 준비해야할 게 되게 많더라구요~ 그런 것들?...줌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이, 이 일에 대해서..

김온아는 전문성을 갖춘 입학사정관이 되고자 앞으로의 시간을 계획하고 있다. 많은 고민과 준비를 통해 선택한 직업이고, 이 일에 대한 애정과 보람을 크게 가지고 있기에 오랫동안 이 일을 하고 싶다. 보다 전문성을 갖추고 노력할 때 다져왔던 교육적 소신과 신념이 실현될 수 있을 거라 믿는다. 다음 입시를 미리 준비하면서 특히 고등학교 현장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공부할 계획이다. ‘입학사정관 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필요한 교육 콘텐츠에 대해서 고민하고 준비하여 동료 입학사정관들과 함께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종종 만들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선행이 되어야 제가 평가를 할 때 초점을 어떻게 맞춰서 이 학생을 봐야할지 알 것 같아서.. 일단 전문성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특히 고교환경에 대한.. 그니까.. 요즘 고등학교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어떤 방향으로 교육을 진행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많이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정말 이 전형을 위해서 틀에 박힌.. 한마디로 코디 받고 이런 식으로 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정말 학교생활을 잘 하고 그 안에서 그래서 뽑히는 학생들.. (♫면담자: 진짜 주체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했던?) 네에에. 그런 친구들을 어떻게 잘 발굴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점점 정형화 시켜가는 과정 속

에서 어떻게 좀.. 그런.. 방향을 찾아나가는 게 제가 생각하는 어떤.. 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지 않을까.

김온아는 교육 현장에 대한 관심과 고민에서 출발하여 청소년 시절부터 대학생 활 내내 보다 교육적인 교육은 무엇이고, 학교다운 학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 그리고 자신은 어느 곳에서 어떤 역할을 해나가야 할 지 고민해왔었다.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선택한 직업이 입학사정관이었고, 앞으로 어떤 입학사정관이 되고, 어떤 일들을 수행하며 사회적 역할을 할지 계속하여 고민하고 있다. 시간이 흐르고 경력이 쌓일수록 생각했던 모습이 구체화되고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 믿고 있으며, 분명한 것은 주체적으로 학교생활을 하고 실천하는 학생들이 발굴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 제도가 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자신의 역할을 해나가는 것이 자신의 교육적 소신과 신념을 입학사정관이라는 직업으로 실현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며 앞으로 내딛을 한걸음을 준비하고 있다.

김온아는 자신의 경험에 대해 고민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보려고 했던 연구참여자이다. 동일한 환경이라도 조금 더 의미를 두고 다른 시각에서 생각해보는 것을 통해 자신의 삶에 유의미한 경험으로 만들어 갈 수 있었다. 같은 환경에서도 낮설게 보고 새롭게 보는 시각은 사고의 확장과 성장을 일으키는 환경이 되어 줄 수 있음을 보여준 연구참여자이다. 김온아는 학창시절의 경험과 고민을 바탕으로 대학에 입학하여 교육학을 수학하였고, 교육적 소신과 신념을 정립할 수 있었다. 김온아의 진로여정은 자신의 경험, 포부, 이상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V. 프로티언 커리어 인재의 진로발달과정의 의미

앞서 연구참여자 5인의 내러티브를 바탕으로 그들의 삶의 경험 안에서 진로가 어떻게 발달되어 가는지 살펴볼 수 있었다. 이 장에서는 사회초년생이 된 초기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의 진로발달과정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자 한다. 연구참여자들이 주체적으로 진로 탐색을 할 수 있었던 배경, 진로발달과정의 양상, 함양된 학습태도와 진로관의 측면에서 진로발달과정의 의미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사회초년생이 된 초기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의 진로발달과정은 첫째, ‘생애주체를 통한 자기 인식의 과정’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은 가정환경으로 인해 자신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삶에 존재했었다. 아직 입학사정관전형에 대한 인식이 고교현장에 보편화되지 못했던 시절, 자기 주도적 진로 탐색자였던 연구참여자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는 학습과 활동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설득해야했던 시간을 보냈다. 그 시간들은 연구참여자들에게 스스로에 대한 성찰과 경험에 대한 의미부여를 일어나게 하였고, 이는 삶의 생애주체를 찾아 자신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하는 과정이었다.

둘째, 초기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의 진로발달과정은 ‘계획된 우연 속의 주체적 성장’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일상에서 마주하는 우연적 상황을 기회로 만들어나갔고, 기회를 통한 경험은 다른 경험으로, 또 다른 기회로 확대되며 다양한 경험 자원을 축적할 수 있었다. 일련의 과정은 자신에 대한 신뢰를 두텁게 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함에 있어서 용기를 자아내게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다채로운 경험을 통해 역량을 함양할 수 있었고, 급변하는 환경과 호흡하며 주체적으로 성장하는 시간으로 자신의 삶을 구성할 수 있었다.

셋째, 초기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의 진로발달과정은 ‘개성 있는 프로티언 커리어 인재로 나아가는 길’의 의미를 가진다. 지나온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참여자들은 진로에 대한 가치관, 소신과 신념을 정립할 수 있었다.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이 아닌, 스스로 가치를 두고 있는 삶의 모습과 방향을 추구하며 주체적 개인으로 살아가는 연구참여자들은 프로티언 커리어 태도를 함양하고 있었다. 과정 자체에 의미를 두고 가치판단을 통해 진로 선택을 하는 이들은 각자

자신만의 고유한 색으로 미래를 그리고 있다.

A. 생애주제를 통한 자기 인식 과정

1. 온전한 나의 시간

생애주제를 통한 자기 인식 과정의 시작은 온전한 자신의 시간에서 시작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의 진로의 시작점, 자신만의 진로 이야기를 펼쳐낼 수 있었던 배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이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 자신의 성향이나 가정환경의 특성으로 자의든 타의든 온전한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가정의 분위기, 물리적인 상황 등으로 부모와의 일정한 거리가 유지되었고, 이를 통해 자신에게 보다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었다. 온전한 자신만의 시간은 스스로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 지, 어떠한 조건이나 제약 없이 자유롭게 탐색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자신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할 수 있었던 자유 시간은 연구참여자들의 진로여정의 출발점이 되어주었다.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배경이나 이유는 모두 각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지만 자유롭게 생각하고 탐색하는 시간이 삶에 존재할 수 있었기에 이 시간이 바탕이 되어 행위로,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었고, 행위는 새로운 경험과 기회로 연결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 5인의 가정환경과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이들의 부모들은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부모의 모습보다 통제와 간섭이 적은 그룹에 속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들과 그들의 부모와의 관계적 거리는 부모의 성향, 맞벌이나 경제여건과 같은 물리적 환경, 부모와 자녀가 공유하고 있는 경험, 부모와 자녀 간 심리적 유대 등 각기 다른 이유에서 비롯되어 형성되었다.

김예별과 이현율의 경우 부모의 성향과 연구참여자 자신의 성향으로 인해, 그리고 형제 중 둘째라는 환경으로 인해 부모님과 관계적 거리가 확보될 수 있었다. 김예별의 어머니는 무엇이든 직접 경험하고 스스로 깨달아야 비로소 행동하는 자녀의 성향을 일찍이 파악하고 계셨고, 김예별이 미술을 전공하기를 희망하였지만

다른 진로를 선택함을 존중해주셨다. 단 선택과 결정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스스로 감내할 수 있도록 하셨다. 이현율의 아버지는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후회하셨던 당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현율 또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찾아 만족하는 일을 하기를 바라셨다. 오보람은 맞벌이 하시는 부모님 덕분에 어릴 적부터 스스로 자신의 주위를 챙겨야했다. 학교생활이나 진로에 대한 고민을 아버지와 종종 나누긴 하였지만, 고등학교에서 기숙 생활을 했었기에 부모와의 물리적 거리가 있었던 환경이었다. 최신유의 경우 아버지의 사업 부도로 인해 암울한 가정 분위기 속에서 오히려 스스로 무엇이든 알아서 결정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학교에서 자신을 다독여주는 선생님을 만나 스스로 긍정에너지를 내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다. 김온아 또한 중학교 시절 학원을 다니는 것이 김온아의 학습방식과 맞지 않아 힘들어했던 경험을 부모님과 공유하고 있었고, 통제나 간섭보다는 대화와 상담을 해주시는 아버지로 인해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유롭게 탐색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의 가정환경과 부모님의 교육관에 대한 공통된 부분은 통제나 간섭보다는 자유와 책임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어느 정도의 거리감 부모와 자녀 사이의 건강한 거리인지, 어느 정도의 관심이 간섭이 아닌지 본고에서 논할 사항은 아니지만, 최소한 연구참여자들 스스로 자신의 부모와 가정환경에 대해 통제와 간섭이 심하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청소년 시절 자유로운 시간이 있었던 환경이라 이야기하고 있다.

되게 독립적인 가족입니다. (☞면담자: 독립적인 가족? 음.. 어떤 의미인지 조금 부연 설명을 해주신다면?) 서로가 하는 일에 터치를 안하고 (생각) 생활도 거의... 생활부분에서도 거의 독립적으로 그냥.. (이현율)

근데 저희 엄마는 지금까지도 너가 하고싶은대로 살고, 니 인생 맘대로 살아라. 약간 요런 주의시거든요. (김예별)

아무래도 음.. 부모님의 간섭이 좀 덜.. 해서. (오보람)

좀 좋지 않은 표현으로는 본인들이 이제 뭘 모르니까 그.. (☞면담자: 관심을 덜 두었다?) 그냥 모르는 거예요. 제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알고고 하지

도.. 좀 수동적이셔서 제가 하는 거를 이제 잘 배우기도 어려우시고, 자신들의 지금 환경도 너무 벽차고.. (☞면담자: 고등학교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당시?) 네네. 그래서..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최신유)

홍아정 외(2014)는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경험에 관한 연구에서 연구참여자들의 ‘부모님’을 자기 주도적 성향 발현의 공통적 영향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스물 한명의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들의 부모 유형을 크게 물질적, 심리적 지원을 해주시는 ‘지원형’, 자녀의 일에 크게 관여하지 않으시는 ‘방목형’ 유형으로 분석하였다.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의 자기주도성 발현에 자녀들에게 자유와 책임을 바탕으로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하였던 부모의 영향이 유의미하게 작용한다는 부분은 본 연구와 일맥상통하다고 할 수 있다. 하버드 줄리 리스콧하임스(Julie Lythcott-Haims) 교수는 그의 저서를 통해 자녀 양육과 교육은 아이들에 대한 ‘과보호를 깨고 성공적인 인생을 준비시켜야 한다’며 부모의 과잉 양육을 지적하고, 자녀의 자립심을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있어 부모의 역할을 강조한다. ‘헬리콥터형 부모(helicopter parent)’, ‘치맛바람’이라는 단어가 여기저기에서 등장하는 걸 보면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있어 부모들의 통제와 간섭이 커지고 있고, 과도한 부모의 역할이 자녀에게 독으로 작용하는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부모의 과잉 통제와 간섭이 자녀로부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간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이 부모와 맺고 있는 관계, 가정의 환경은 다시 이야기해볼 필요가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수능중심의 고교문화 속에서 주체적으로 진로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한 질문에 자신들의 가정환경과 부모님과 관계적 거리에 대한 이야기로 답을 주었다. 연구참여자들은 글자 그대로의 ‘자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 시간을 통해 자신을 살피고 생각하며 행동했던 것이 진로여정의 시작이었다고 이야기한다.

(☞면담자: 그.. 다른 친구들보다 내가 더 보다 나은 진로활동을 할 수 있었던 배경? 뭐 역량? 이 있었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는지 혹시 생각해보신 적 있으세요?) 집에서 자유로웠던 점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이현율)

아무래도 고등학교 3년 내내 나 혼자 나와서 살았던 게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봤어요. (중략) 해보고 싶은 걸 하는데 “공부해야지 뭐 하는거야!” 제지받지는 않았다 정도. (오보람)

‘온전한 나의 시간’이 선사해준 것은 자신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고, 무언가를 여유를 가지고 살펴보고 시도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때로는 ‘딴짓’이라 비하되던 이 시간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탐색하고 관심사를 알아보며 자신의 진로와 연결하여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여유와 자유에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여 행동하는 주체성으로 연결되었고, 연구참여자들이 수능 중심의 대한민국 고교문화에서 자신을 찾고, 보다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를 만들어나갈 수 있었던 바탕이 되어주었다. 이현율은 자유 시간을 통해 정보를 탐색할 수 있었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지역행사에 참여하였다가 그 곳에서 만난 선생님과 인연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다. 여유시간이 있었기에 아르바이트 제의를 쉽게 수락할 수 있었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온라인 전자책을 만들어볼 생각도 가늠할 수 있었다.

하다보니까 자료가 많이 쌓여서.. 굳이 혼자 알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할 것도 없..이왕 시간남는데.. (면담자: 할 것도 없고?) (웃음) 하는 김에, 하는 김에 정리해서 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이현율).

오보람은 기숙사 생활로 인해 비교적 부모님과 물리적 거리가 확보될 수 있었고, 이에 어떠한 제재 없이 보다 자유롭게 하고 싶은 활동에 임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관심 주제가 있을 때 마다 교내외 대회를 준비하고 도전해볼 수 있었고 역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자 동아리 설립을 구상하고 리드할 수 있었다. 최신유 또한 프로그래밍 공부를 독학하고 대회에 참여하며 자신의 실력을 가늠해볼 수 있었다. 더 공부해야할 부분을 찾으며 자신의 꿈을 설정할 수 있었다. 김예별은 방송반 활동을 비롯하여 교내외에서 마이크를 잡고 무대에 설 수 있는 경험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다. 김온아는 학교에서의 시간을 쪼개어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육적 모습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학교생활다운 학교생활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실현해볼 수 있었다.

대한민국 학생들에게는 너무나 동떨어져있는 듯한 ‘자유’, ‘여유’를 통해 이들은 ‘왜 공부해야하는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며 살 수 있었다. 이러한 생각이 뒷받침이 되고 실천으로 옮겨지면서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었다.

자신에 대하여 온전히 생각하고 들여다보는 시간 없이 대학에 입학하고 성인이 되는 것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이유를 찾지 못하여, 방황의 시간으로 빠지기 십상이다. 계획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과 역경, 좌절은 어느 누구의 진로에서나 찾아오지만 그 시간을 견뎌내고 중심을 찾아갈 수 있는 힘은 자신 스스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었다. 또한 그 시간을 확보하고 활용하는 방법은 연습되고 학습되는 것이기에 청소년 시절부터 이루어지고 습관으로 형성되는 것이 머나먼 진로여정에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온전한 ‘나’의 시간을 갖는 것은 주체적인 ‘나’로 사고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시작이다.

2. 나를 이야기해야했던 순간들

연구참여자들의 지난 시간은 자신을 표현해야만 했던 순간의 연속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이 고등학교에 재학하였을 당시는 진로활동에 대한 분위기가 아직 활발하게 형성되지 않은 문화였다. 대학에 가기 위해서 고교 내신과 수능 대비를 중심으로 모든 생활이 이루어지는 고교 문화 속에서 대한민국 학생이 주도적으로 진로탐색활동을 영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 관심분야에서 경험을 쌓고 다양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 부모님, 그리고 친구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끊임없이 ‘설득’해야만 했던 순간들이 존재하였다. 고교 안에서 진로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을 표현해야만 했었고, 입학사정관제도를 알아보고 지원하기까지의 과정 또한 새로운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였던 시기이기에 허락과 설득의 과정에서 자신을 이야기해야만 했었다. 이 외에도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지난 시간을 나누고 이야기할 기회가 삶의 과정에 빈번히 자리하고 있었다.

(☞면담자: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이현울씨를 어떠한 친구라고 말을 할 것 같으세요? 고등학교 때를 생각해봤을 때?) 또라이라고. (웃음) (☞면담자: 어떤 의미에서?) 왜 굳이 주말에 서울 가서 대회 같은 걸 하고, 왜 방학 때.. 보충수업 안하고 딴 걸 하는지.(☞면담자: 음.. 그니까 다른 친구들과는 좀 다른 길을 가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왜 저러지?’ 하며 봤던 친구들이 많았겠네요?) 네에~ (이현울)

저는 진로탐색 과정이라던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게 다른 청소년들이랑은 조금 다른.. 경로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주위에서도 많이 이야기 했었고, ‘넌 좀 특이하다’ 라고 이야기 많이 했었으니까. (오보람)

보통 기본적으로 우리 메카니즘이 보통 교과과정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고 일단.. 겁을 주거나 체벌을 하고 이런 방식이었는데.. 이제 좀 대화를 해보려고 노력했었고. (☞면담자: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선생님을 좀 설득시키려고?) 네 그렇죠. (☞면담자: 이야기를 하고 그 시간에 좀 원하는 것을 하고자 추구했던 거네요?) 근데 그게 잘 안됐어요. (☞면담자: 그쵸. 뭐 결과는 잘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지만..) 네네. 그리고 많이 부딪혔고, 그리고 이제 그 모습이 다 보이잖아요. 공동체 안에서 보이니까. ‘재는 왜 저럴까?’ 이러한 모습을 많이. 저도 느끼고 제가 그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저도 느꼈어요. (최신유)

연구참여자들은 주류의 문화에서 벗어난 듯 보였고, 그 다름이 눈에 띄게 두드러져 보여 ‘특이하다’ 라는 시선을 받으며 고교생활을 보냈다. 연구참여자들의 선택이 다수의 선택과 행보가 아니었기에 다른 선택을 결심하고 행동하는 데 이유와 설명이 늘 뒤따라야 했다. 최신유는 프로그래밍 공부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다. 프로그래머가 되고자 했던 최신유이기에 대회에 참가하여 자신의 학습정도를 가늠하고 필요한 공부를 이어나가고자 하였다. 정규 수업을 마친 후 야간자율학습까지 모두 학교에서 생활을 할 경우 프로그래밍을 공부할 물리적인 시간이 확보될 수 없었기에, 프로그래밍 관련 대회를 준비하고 공부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생님께 끊임없이 자신의 계획과 진로에 대해 이야기해야만 했다. 선생님은 최신유의 활동과 계획이 터무니없어 보이기도 하고, 친구들과

는 다른 선택을 하는 모습에 염려를 보이기도 하셨다. 선생님과 대화의 처음에는 목록치 않았지만 계획대로 소기의 성과를 만들며 프로그래밍 공부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는 최신유의 모습에 선생님과 신뢰 관계가 조금씩 형성되었다.

어차피 당시에든 수시 6개? (☞면담자: 그때는 제한이 없었죠~) 제한이 없어서 그냥 어차피 넣어도 되는 건데, 어차피 넣어서 떨어질 것 같으면 그냥 정시로 가도 되니까. 그래서 그냥 넣었는데, (담임선생님은) “왜 굳이 포트폴리오까지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하나?” (☞면담자: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예. 그리고 “어차피 지방 사람들 안 뽑는다.” (라고 하셨어요.) (이현율)

이현율은 입학사정관제에 대해 알게 되어 자신이 해왔던 것들을 기반으로 대입 지원서를 낼 때 담임선생님과 갈등이 있었다. 새로운 제도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되지 못했던 학교 분위기였고 ‘지방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을 어차피 뽑지 않을 것’이라며 만류하는 선생님의 염려가 있었다. 오보람 또한 재학하고 있던 고등학교의 전교생 중에서 당시 입학사정관전형으로 오직 혼자 지원하였다. 입시를 입학사정관제로 준비하고 지원하는 과정마저도 이들에게는 주변의 지지와 응원보다는 외로운 도전이었다. 그러하기에 항상 ‘왜 이것을 하려고 하는지’, ‘어떤 경험과 계획이 있는지’ 이야기해야만 했던 환경이었다. 때로는 만류와 염려를 하시는 선생님 외에도 격려를 보내주시는 선생님도 계셨다. 김온아는 동아리를 담당해주셨던 윤리선생님께서 김온아가 교육봉사활동을 통해 안고 있던 고민, 이상적인 교육에 대한 생각, 자신이 지나온 길과 앞으로 구성해 나가야 할 진로의 길목에 존재해주셨다. 오보람은 인생의 중요한 선택 앞에서 항상 아버지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에 대한 이야기와,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조언을 주는 이들과의 시간은 연구참여자들이 다각적 측면에서 고민사항을 바라보고, ‘지난날의 나’와 ‘앞으로의 나’를 연결하는 데 큰 힘이 되어 주었다.

어떤 걸 선택할 수 있는 길에 섰을 때, 예를 들어 뭐 학교를 선택한다든가 전공을 선택, 직업을 선택.. 이런 게 있을 때 아버지는 제가 그.. 거기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몇 가지 말해줘요. 그 다음에 나는 니가 이렇게

가면 되게 좋을 것 같아. 그냥 그렇게 해 라고 이제 좀 특 던지시는 식으로 제안을 하세요. 그럼 저는 거기에 대해 생각해보고 음.. 아니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할래 아니면 음 그것도 괜찮긴하네 생각해볼게 그 정도로. (오보람)

네 그런게.. 굉장히 좋았어요. 영화를 보면서도 ‘여기서 왜 선생님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 이런 이야기들도 (윤리선생님과) 같이 하고, 그냥 쯤.. 많이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봉사를 하면서 제가 매번 교육일지를 작성했었는데 그때 그때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애들이랑~ 내가 뒤돌아와서는 내가 이 애들한테 이렇게 행동했던 게 맞았었나? (김은아)

이렇게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선택에 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격려를 해주는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이야기를 해야만 했던 순간들이 많아왔다. 연구참여자들에게 자기소개서 작성과 활동보고서(포트폴리오), 면접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입학사정관전형의 입시과정 또한 ‘나를 이야기해야하는’ 시간의 연속이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며 ‘왜 이 곳(대학/전공)에서 공부하고자 하는지’, ‘어떤 진로계획을 갖고 있는지’ 지난 시간을 다시 돌이켜보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청소년 시절 해왔던 자신의 활동과 그 활동의 의미를 생각하며 정리하고 면접에 임하는 시간 또한 연구참여자들이 살아온 삶을 이야기하고, 지난 시간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여러 면접관에게 이야기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청소년 시절부터 이렇게 자신을 이야기하며 진로를 나아갔던 연구참여자들은 대학 입학 이후에도 다양한 대외활동을 통하여, 자신을 표현하며 진로를 구성해나갔다. 학창시절 다양한 활동을 하며 경험을 통해 학습하고 성장했던 이들의 경험은 대학생이 되어서 더욱 확장될 수 있었다. 대학에서는 제약은 줄어들고 더 넓은 세상에서 보다 다양하게 경험하고 도전할 수 있었다. 대외활동 지원 과정 또한 자신을 이야기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면접에 임하는 경험의 연속이었기에 다른 친구들보다 더욱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었다.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나를 드러내고 표현하는 삶의 연속이었다.

저 진짜 많이 한 것 같아요. 저 대학생활 정말 열심히 보냈죠? 이야기하다보

니까 되게 또 스스로 이렇게 열심히 살았구나. 제가 약간 잡초같아 가지고 위에서 깃뚫아도 잘 일어나요. 그게 생각해보면 그만큼 경험에서 많이 이렇게 다양한 경험...(덕분인 것 같아요.) (중략) 이거(면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선생님을 통해서 다시 이야기하는게~ (김예별)

오히려 저는 지금..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인터뷰활동에서 제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쯔.. 지금까지는 그냥.. 사실 대학원부터 입사하고 다니기까지, 특히 요즘은 제가 마음의 여유가 없이 진짜로 뭘.. 어떤 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기계처럼 나가서 오늘 해야 할 거 무조건 막 하고, (면담자: 음.. 소진되고?) 네에~ 진짜 너무 소진.. 아직 이런 걸 겪을 시기도 아닌데 혼자, 저 혼자 막 소진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이 많은 것도 아닌데, 그냥 저 혼자 막~ (면담자: 처음 하는 것들이니까~) 근데 이런 인터뷰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지, 참~ 이런..걸 생각하고 여기를 왔었지, 이런 생각을.. 쭉 계속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약간.. 오늘 오는데 저는 좋았어요.. 어떤 것을 또 질문을 받으면서 제 생각을 정리하면서 쯔.. 내가 이랬었구나 라는 걸 쯔 그려볼 수 있는 것 같아서.. (김온아)

자기 주도적이었던 고교생활과 활발한 대학시절을 보낸 연구참여자들은 사회초년생으로 일을 하고 있는 와중에 연구자의 연구동의를 수락하고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과정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 또한 연구참여자들에게는 자신을 이야기하는 순간이었다. 사회초년생으로 첫발을 내딛고 바쁜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의 현주소와 지금의 자신이 있기까지의 바탕이 되어주었던 과거 시간에 대한 이야기까지, 지나온 시간들을 떠올리고 생각하며 대화하는 시간이었다. 이 시간을 통해 연구참여자들은 잠시 잊고 있었던 경험과 지난 정서를 기억하기도 하고, 분주하게 흘러가버리는 현재의 시간을 붙들고 들여다보기도 하였다.

이야기하기를 통해 지난 시간을 조망하고 삶의 주제들을 발견하고 찾는 과정은 앞으로 나아갈 길의 방향을 결정해주는 중심이 되어 주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선택과 주변 환경에 의해서 ‘나를 이야기해야만 했던 순간’들이 삶에 형성될 수 있었고, 이야기하기를 통해 생애 주제를 인식할 수 있었다. “개인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 한다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뿐 아니라 주체성을 확립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Rosenwald & Ochberg, 1992b;

Catherine Kohler Riessman, 1993 재인용). 자신에 대한 명확한 정체감은 행동에 당당함과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었고 다음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주었다.

3. 성찰과 의미부여를 통해 나를 세우기

연구참여자들이 지나간 시간을 들여다보고 생각하며 조금씩 더 성장해나갈 수 있었던 것은 생애 주제를 찾고 인식하는 과정에서 ‘성찰’과 ‘의미부여’가 일어났기에 가능했다. 성찰과 의미부여는 자신을 이야기하고 표현해야만 했던 시간에서, 또는 연구참여자들의 성향과 환경으로 인하여 삶에 나타나고 있었다. 최신유의 경우, 대학 입학 후 사람들과의 소통이 쉽지 않았던 시간을 보내며 슬럼프를 겪었다. 최신유는 어린 시절의 자신을 들여다보며 스스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최신유는 유년시절 물리적 환경에 의해 온라인 세상에서 고립되었고, 이는 몰입할 수 있는 경험이자 진로를 찾을 수 있는 긍정의 의미도 있었지만, 컴퓨터와 보내는 시간이 많았던 만큼 사람들과의 소통시간이 부재했다. 최신유는 대학에 와서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을 인식하게 되었고, 지금의 모습의 이유와 연유를 생각하고 분석하였다. 자신의 어릴 적 환경과 성장에 영향을 미쳤던 부분, 자신에게 부족했던 점을 스스로 생각하며 분석하였고, 앞으로의 삶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였다. 컴퓨터 속 세상밖에 모르고 살았던 최신유는 다양한 분야의 책을 꾸준히 읽고, 다른 나라와 문화를 경험하는 시간을 보냈으며, 사람들과 함께 협업하여 성취를 이루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의 소통은 필수적이고, 그 안에서 배움과 성찰이 크다고 생각하였기에 스스로 자신을 그러한 환경에 두려고 많이 노력하였다.

커뮤니티. 동네 커뮤니티가 아시다시피 이제 저잖아요. 제가 그 지역이고. 그러다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땐(어릴 때는) 몰랐고.. 지금 알 수 있구요. (면담자: 지금 생각해보니까?) 네. 많이 고민했죠. 몇 년.. 계속. 뿌리를 찾아야 하니까. (최신유)

아 그때는 그걸 부정했구요. 그땐 그냥 인터넷에 빠져버린거예요. 부정하고.. 지금은 20대 이후가 돼서 방황하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면담자: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네네. (최신유)

최신유는 이전에는 부정하고 피하기만 했던 어린 시절의 힘들었던 시간을 다시 마주하는 용기를 내었다. 그때의 환경과 상황을 떠올리고 분석함에 있어서 최신유는 고립되었던 자신의 삶의 울타리를 허물고, 넓은 세상에서 다양성을 경험하고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며 소통하고자 노력하였다. 지난 경험에서 긍정적 의미를 찾고 부족했던 부분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최신유는 지나간 시간 또한 지금의 자신을 구성한 부분이라 생각하였다. 지난 시간에서 자신의 생애 주제를 찾고 자기성찰과 의미부여를 통해 나아가고자 하였다. 스스로 자신의 현 모습을 자각하고 지난 경험에 대한 의미를 찾고, 한걸음씩 나아가는 중이다.

학창시절.. 어.. 교육과정 십 몇 년.. 대학 오기 전에 의무(교육)부터 생각해보면 음..... (생각) 좋은 시간이었는데요, 좋은 시간이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어두운 시간, 힘들었던 시간.. 그리고 항상 그.. 좀 많이 불편했고, 그랬던 시간이었어요. (☞면담자: 그럼 어둡고 힘들었고 불편했던 시간들이었지만 지나고 나니까 그래도 나에겐 약이 되었던 ‘좋은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좋은 시간이었다고 처음에 말씀하신 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긍정적으로. 항상 그.. 지난 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니까 긍정적으로 잊어버릴 건 잊어버리고, 다시 되돌아오지 않으니까.. 예. (최신유)

김예별은 스스로 의미 부여를 잘 하는 성향이라 이야기한다. 중학교 때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은 김예별의 진로에 큰 영향을 주었다. 당시의 베스트셀러이기도 하였지만, 책을 읽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대입하여 생각하고 의미를 만들어 나가는 김예별의 성향 덕에 책이 더더욱 동기부여가 될 수 있었다. 리포터로 일을 하던 중 백일장에서 참여하였다가 수상을 하며 ‘작가’라는 제 2의 꿈을 결심하게 되었을 때도, 백일장 수상이 자신의 예비 작가로서의 소양을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지난 자신의 삶의 경험에서 ‘작가’라는 꿈의 당위성을 찾아내는 모습을 보였다. 책을 좋아하고 일기를 썼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고, 리포터

일을 하면서 리포팅 외에도 아이디어를 내고 원고를 쓰는 작업이 계속 뒤따랐기에 새로운 꿈을 결심할 수 있었다. 또한 다양한 나이, 성별, 직업, 삶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 인터뷰하고 리포팅하는 시간을 통해 다채로운 삶의 경험을 나누며 깨닫고 느끼는 바가 많아왔다. 이러한 자신의 삶의 경험이 글을 쓰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였고, 지난 경험의 의미부여를 통해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예전에 초등학교 때부터 글 쓰는 약간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일기 쓰는 거 좋아하고, 편지 쓰는 거 좋아하고, 에세이 읽는 거 좋아하고, (중략) 원래는 공부도 별로 못했고, 관심도 없었는데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공부를 시작한 거거든요. (☞면담자: 꿈이 생기면서?) 네 그 때 ‘마시멜로 이야기’ 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이 되게 감동이었어요. 그 책 보니까 학창시절에는 노는 것을 좀 참고 이러면 나중에 꿈이 이루어진다 뭐 이런 거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중3 마지막 때쯤 읽으면서 ‘고등학교 들어가면 공부만 하자’ 라는 생각으로 뭔가 좀 독하게 공부를 했고, 왜냐면 정말로 머리가 그렇게 좋은 애가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노력형으로 살았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런 뒷받침 되었던 것들이 작년에 백일장 나갔을 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면담자: 예상치 못했던 결과였어요?) 네. 전혀. 전혀. 참가상은 탈 수 있겠지. 왜냐하면 리포터가요.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TV리포터는 구성작가가 글을 써주지만, 라디오 리포터는 본인이 다 쓰거든요. 본인이 아이템을 선택하고, 아이템을 확인하고, 취재를 한 다음에 그 원고를 직접 쓰고 편집을 하고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니까 라디오에 들리는 교통정보를 제외하고 모든 부분은 리포터들이 다 원고를 써요. 근데 그.. 원고를 썼던 것들도 제 생각엔 다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 (김예별)

근데 그 이유가 왜냐면 생각해보니까 이 일을 하면서 정말 수많은 사람을 만나거든요. 이 일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되게.. 제 나이에 만날 수 없는 일반 사람들을.. 근데 또 되게 잘 사는 사람부터 못사는 사람까지 다 만나요. 시한부까지 만나기도 하고, 또 종속살인 저지른 사람 인터뷰한 적도 있고, 또 이와는 상반되게 시장님 인터뷰도 하고, 되게 잘나가는 그런 분들도 인터뷰하고, 골고루인데, 거기서 뭔가 깨달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김예별)

김예별은 대학생생활에서 했던 다양한 활동 중 막상 기대했던 바가 아니었던 경

험에서도 깨달음을 갖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하는 면모를 보였다. 김예별이 대학시절 중국으로 교환학생을 다녀왔던 경험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달랐던 환경이었다. 이에 많은 실망을 했었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실천하고 긍정적 의미를 찾는 학생이었다. 김예별은 ‘생각해보니까’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였고 실제로 자신의 삶과 경험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는 편이다. 리포터 일을 하면서 이전보다 훨씬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삶의 가치관도 조금씩 변화하며 더욱 성숙해질 수 있었다. 적극적으로 의미화 하는 과정은 개인의 진로 여정에서 선택과 행동을 이끌어 낸다(김봉환 외, 2013). 지난 경험을 들여다보고 의미를 부여하는 김예별의 모습은 다음 한걸음을 내딛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래도 중국어가 많이 됐다기보다 대신에 삶을 어떻게 사는, 자립심을 많이 키웠다정도로. (김예별)

항상 자아성찰, 모든 것에 의미부여하고 그래서 일에서는 괜찮은데 연애는 좀 힘들어요(웃음). (김예별)

김온아는 자신의 진로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성찰의 모습을 많이 보였던 연구참여자이다. 교육적 상황과 학교 현장에 대해 생각하고 의견을 나누며 자신의 교육적 가치관과 소신을 정립해나갈 수 있었고, 학창시절의 활동과 경험을 통해서 지금의 김온아를 그릴 수 있게 되었다. 경험을 통해 배우고, 그 안에서 만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배우고, 경험과 사람들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며 배울 수 있었다. 학창시절 같은 추억을 공유하고 서로에게 긍정적 자극이 되어주었던 친구들과, 선생님들과의 관계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고, 이러한 김온아의 생각과 태도는 교육에 대한 관심과 관련 진로 탐색으로 연결될 수 있었다.

뭐 같이 밥도 먹고, 생활도 같이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선생님을 뭔가 좀.. 학교 선생님이 아닌, 그 자리에서 또 다르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사실 저에게는 조금.. 학교생활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들어줬어요. 그냥 단순히 “고등학교 생활에는 앉아서 공부했던 기억밖에 없어.” 이런 게 아니라, 좀.. 나름 저는 이제.. 의미있는 관계도 맺고 그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온아)

네. 그런 활동들 속에서 좀.. 저를 만들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했어요.
(김온아)

김온아가 대학생활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부학생회장으로서 학생회를 이끌고 운영해야했던 경험이다. 당시 열 명이 조금 넘는 학생회 일원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며 조직을 이끌어나가는 것 자체는 생각보다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모두 힘들었던 기억이다. 하지만 김온아는 그 시간을 통해 익숙지 않은 상황을 마주하며 자신에게 잠재되어있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고,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시간을 통해 보다 성숙해질 수 있었다고 긍정적 의미를 두었다. 경험 과정에서의 성찰과 의미부여를 통해 보다 성숙한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이라 김온아는 생각했다.

오보람은 문화재 전문가가 되기 위해 대학시절 ‘문화기획’을 연계전공으로 공부하고 관련 경험을 쌓았다. 취업을 준비하면서 문화재 전문가가 아닌 근현대사 전문가 쪽으로 방향의 전환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문화재 전문가가 되기 위해 노력했던 부분들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사료를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었기에 근현대사 전문가가 되기 위한 진로에서도 이로운 영향을 미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지난 시간의 경험에서 지금 자신의 현 주소와 연관하여 의미를 찾는 경향은 연구참여자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면모였다. 성찰과 의미부여를 통해 현재의 자신을 정립하고 긍정적 에너지를 불러일으키며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문화기획을 연계전공으로 공부한 것이) 행사 기획이라던가, 이제 기본적으로 홍보에 대해.. 홍보와 경영에 대한 좀 이론들을 배우게 되니까 어.. 나중에 행사를 할 때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오보람)

그 외에도 고등학교 때의 활동, 대학교 시절의 다양한 경력과 경험들이 지금의 일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내고, 행사를 기획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 있고, 경험해서 아는 만큼 더욱 자신감 있게 업무에 임할 수 있었다. 오보람은 지금의 경험과 이전의 경험을 연결시키고 생애주제와 의미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청소년시절부터 다양한 관점에서 사고하며 글을 썼던 것이 바탕이 되어 가능

했다고 스스로 생각한다.

제 생각에 제가 나뉘는 중심을 잡고 할 수 있었던 건, 여러 시각에서 쓰는 글들을 보고.. ‘나는 이런 생각을 해야지’ 하고 제 생각을 길러왔던..게 제가 지금까지 나뉘는 길을 꾸준히 걸어올 수 있었던 비결? 그런 바탕이 되지 않았나 하거든요.. (오보람)

연구참여자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때로는 누군가와 의 갈등과 지지 사이를 오가며 자신을 표현해야 했으며,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시간을 보내왔다. 연구참여자들은 말이나 글로써 자신의 ‘내러티브’를 만들고, 다시 보고, 재구성하였다. 박민정(2006)에 의하면 내러티브는 삶에 나타나는 개별적 행위와 사건들을 묘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관계에 주목하여 ‘유의미하게 연속되는’ 이야기 구성을 통해 무질서와 혼동의 형태로 존재하는 지난 과거 경험에 유의미한 총체적 실체(entities)를 구축하는 창조적 행위라 한다. 연구참여자들은 성찰과 의미부여를 통해 과거 경험에 총체적 실체(entities)를 만들어 나갈 수 있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야기함을 통해서 과거의 사건을 단순히 확인하는 것 이상으로 내러티브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타자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반성적 성찰을 통해 성숙된 자아로 거듭나게 된다(박민정, 2006). 연구참여자들은 자기성찰과 더불어 타인과, 또는 세상과의 소통 과정에서 자신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었고, 이러한 측면에서 성찰과 의미부여를 기반으로 하는 내러티브 구성 과정은 교육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진로 여정에서 방향을 찾고 삶의 중심을 세우며 주체적으로 자신의 길을 만들어갈 수 있었다.

B. 계획된 우연 속의 주체적 성장

1. 긍정적 우연으로

우리가 일생에 걸쳐 나아가는 진로에는 많은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개인

의 성향, 흥미, 역량, 주변 사람, 상황, 다양한 경로를 통한 동기와 자극 등 예측 가능한, 또는 예측 불가능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영향을 미친다. 진로 구성주의 관점에서 개인은 자신의 진로를 주도적으로 구성해나가고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주체이다. 주체적 개인의 입장에서 ‘운’, ‘우연’과 같은 예측 불가능한 요소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 역시 자신의 진로 여정에서의 유의미한 경험과 기회를 이야기할 때 ‘우연히’, ‘운이 좋아서’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였다. 연구참여자들 스스로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운이 좋아서’, ‘다행스럽게’ 얻을 수 있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현율의 경우 인터넷 검색 중 지역행사 정보를 알게 되었고, 행사에 참여하여 평소 EBS 강의를 통해 알고 있었던 강사 선생님을 그곳에서 우연히 만났다. 반가운 마음에 먼저 다가가 인사를 하고,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이야기하며 대화를 하게 된다. 이러한 우연한 만남은 이현율의 삶에 의미 있는 만남이 되었다. 선생님과 인연으로 인해 선생님이 운영하는 ‘법과 사회’ 강의의 조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모은 자료를 바탕으로 ‘법과 사회’ 온라인 전자책을 출판하게 되었으며, 법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우연을 인연으로 만드는 이현율이었다. 그밖에도 대학 입학 후 다양한 대외활동과 아르바이트 자리에 지원하고 활동함에 있어서도 이현율은 ‘우연히’ 그런 기회가 왔고, ‘운이 좋게’ 합격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 한다.

그 선생님은.. 진짜.. 우연히..(곰곰히 생각) (중략) 그때 부산에서 무슨 어떤 행사가 있었는데. 아!(기억하며) 그분이 EBS 선생님이었습니다. (면담자: 아 EBS에서 강의하시는 선생님?) 네. 강의하시는 선생님인데 학원에서도 강의 하셔서.. 그냥 원래 ‘법과 사회’ 하시는 분이어서.. 저도 EBS강의를 들었고,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행사에 갔었는데 그분이랑 만나게 돼서 이야기 하고. (이현율)

그때는 위촉직이었는데 공고가 떠서 지원을 했고 **우연히 붙어서**.. (면담자: 우연히 붙어서?) 붙어서 어떻게 합격을 해서 위촉직으로 있다가 그게 일이 많아지면서 거의 상근하다시피 있다가.. (이현율)

최신유 또한 방황의 시간을 끝내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꿈을 찾아 다양한 활

동을 했었다.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 컴퓨터공학과로 진학을 고려하고 있을 때, 기존의 입시제도와는 다른 특징의 ‘입학사정관전형’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이 해왔던 것을 바탕으로 대학입학의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되고 운영되던 시기와, 그 정보를 알게 된 것 모두 ‘운이 좋았다’고 이야기한다.

마침 운이 좋게 입학사정관제 생겼는데, 이걸로 한번 해봐야겠다. (최신유)

김예별 또한 재수를 결심하였을 때만해도 알지 못했던 ‘입학사정관전형’을 이후에 알게 되었고 입학사정관제에서 표방하는 인재상의 모습이 자신과 부합하다고 판단하여, 이제까지 노력해왔던 자신의 경험과 열정을 토대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었다. 자신에게 적합한 새로운 입시전형을 스스로 찾고 준비할 수 있었던 것 또한 ‘우연히’ 알게 되어 ‘운’ 좋게 합격할 수 있었다고 표현한다. 또한 청년들의 취업이 어려운 사회적 상황에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리포터로 일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도 ‘운이 좋아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때부터 방송활동경험을 가질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자신의 ‘운’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

근데 하필 제가 다니는 (초등)학교가 그런 학교였고, 그런데 제가 **운이 좋게** 아나운서를 2명 뽑았는데, 그중에 된 거예요. (김예별)

바로바로 취업된 부분.. 되게 **운이 좋아요**. 생각해보면, 이 분야는 한번 하는 것보다 꾸준히 하기가 힘들어요. 1년 이상 하는 애가 거의 없는데 저는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김예별)

되게 웃긴 건, 저는 입학사정관전형을 원래 몰랐다가 고3쯤에 뉴스를 보는데, 그런 게 있는데 어 이거 나랑 약간 비슷한 것 같네 하고 **운 좋게** 왔는데, 저는 이게 정말 ‘운’이었다고 생각해요. (김예별)

저는 저희 과의 동기 언니 2명 해서 (저 까지) 총 세 명 해서 한 팀을 꾸려서 신청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또 **운 좋게 돼가지고**, 갔다 왔는데 그것도

되게 큰.. 경험이었어요. (김온아)

그냥 스스로 계속 관심이 있어서 공부하고 5·18 기념재단에서 **우연히** 좀 경력을,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자연스럽게 결국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라는 곳에 자연스럽게 입사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보람)

김온아와 오보람 또한 새로운 활동의 기회를 얻고 성과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 ‘운이 좋았다’ 라는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진로에서 유의미했던 사건, 만남, 환경 등을 이야기할 때 연구참여자들 스스로 ‘운’ 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자신의 진로에서 그 ‘운’ 이 잘 발휘되었기에 현재의 모습에 다다를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그러한 ‘운’, ‘우연’ 은 정말 글자 그대로의 행운일까?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부분의 범주인가? 연구참여자들의 운이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아서 그런 것일까? 연구참여자들은 ‘우연’ 을 우연으로 지나가게 두지 않았고, 기회로, 인연으로 만들어나갔다. 일상의 상황을 그냥 흘러가게 놔두지 않고 자신의 진로에 소중한 기회로 만들어나갈 수 있는 데에는 나름의 노력과 준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들 스스로 인식하지 못할지언정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온다’ 라는 말이 있듯이 자신에게 온 우연적 상황을 긍정적 우연으로 만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고등학생 최신유에게 프로그램의 참여 기회가 주어질 수 있었던 것은 관심분야에 흥미를 두고 영상으로 제작하여 나누었던 최신유의 행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김예별이 바라던 미디어 파트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랜덤으로 배경이 되는 시스템이었지만 지원과정에서 스스로 자신의 바람과 의지를 피력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좋아하는 것에 몰입하여 창작물을 만들고, 기회를 얻기 위해 간절함을 표현하고자 했던 개인의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운’ 이 찾아와 준 것이 아니라, 준비가 되어 있었기에 때마침 ‘운’ 을 잡을 수 있었다.

아 제가 그 ‘다음 카페’ 에서 축구 영상 만들고 올리고 이랬었어요. 몇 년 동안. (면담자: 관심분야가 축구였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만들었던 거죠?)

네. 그래서 나이키에서 뭐 이런 걸 하는데.. (☞면담자: 연락이 온 거예요?)
예예. 그래서 제가 연락도 하고, 거기서도 그럼 너 와라, 그렇게 하고. (☞면
담자: 그래서 그러면 서울로 와서?) 한 달에 한번이나, 두 달에 한번.. (최
신유)

네 근데 제가 정말 운이 좋았던 게 학교의 네임벨루가 이게 또 뭐라고 했냐
면 면접에서 저는 무조건 미디어 파트에서만 일을 해야 봉사활동을 가고 싶
다는 것을 어필을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죄송하지만 저는 별로 가고 싶
지 않다. 정말 미디어파트에서 꼭 일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고. (☞면담자:
무슨 파트들이 있었어요?) 그게 국제미디어, 뭐 홍보, 안내, 일반적인 모든
파트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학생들이 많이 떨어지는 건 뭐 전
사회 안내, 대기줄 기다리게 해주는 거 요런 게 많았는데 그런데 정말로 그
꿈같은걸 되게 간절하게 쫓던 것 같아요. 그니까 마지막 파트 발표가 났는데
국제 미디어 센터로 저를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게 해주셨더라구요. (김예별)

이현율이 대학생이라는 신분임에도 ‘지식재산권’ 강의를 하는 강사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만큼 미리 필요한 수업을 수강하고 학습
을 해두었기에 가능했다. 현재의 최신유가 자신의 삶에서 긍정적 영향을 주는 멘
토를 많이 둘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 멘토를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고 그러
한 환경에 자신을 두고자 노력했기 때문이다.

제가 들었던 교육은 강사랑 교수를 양성하는 과정이었고 그걸 이수하고 나면
풀이 생성되고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강의를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풀이 생
성되고 나서 강의를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별로 없었고, 보통 현업들이 있
는 분들이어서 강의를 별로 그냥 안하고 풀만 가지고 있겠다~ 생성풀에만 등
록되어 있겠다~ 해서 제가 강의를 거의 반 강제적? (웃음) 아마 했을 겁니
다. (이현율)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전공체험 프로그램 왔었는데 제가 그 박사과정 하는
선배 있는데, 그 선배랑 친해지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했었거든요. 그러면
서 그 선배랑 아직도 사이좋게 지내고 있고,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는, 대학에 와서는 제가 소극적이었지만, 조금 바뀌어나가면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되었어요. 지금은 또 사이좋게 지내고 그 연락도 하고. (최신유)

Kromboltz는 진로에 ‘운’, ‘우연’적 요소의 영향이 큼을 수용하고, 예측이 어려운 ‘운’을 기회로 만들어 긍정적 경험으로 삶을 구성하는 이들을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삶의 과정에서 우연적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기 만들어나가는 이들에게서 호기심, 인내심, 융통성, 낙관성, 위험감수의 다섯 가지 역량이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Mitchell, Levin, & Krumboltz, 1999).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은 인터넷 검색, 신문 읽기, 뉴스 보기를 생활화하는 편이었고, 최소한 자신의 분야에서 제기되는 이슈와 변화의 맥락을 주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입학사정관계 도입이라는 새로운 입시 제도의 등장 소식 역시 신문과 뉴스를 통하여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었다. 사회의 변화와 동향에 늘 관심을 가져왔고, 무언가를 경험하고 활동함에 있어서도 새로운 분야에 대한 궁금함, 가지 않은 길에 대한 호기심으로 다양한 분야를 살펴보고 시도하였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지난 경험에서 긍정적 의미를 찾고,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도 걱정과 불안함보다 용기와 도전을 선택하였다. 자신의 전공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한 분야로 관심을 확장하고, 사회가 정해놓은 안전한 길을 벗어나 자신의 영역을 만들고 가치를 추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새로운 경험과 도전을 행함에 있어서 연구참여자들의 마음가짐과 태도는 Kromboltz가 이야기하는 다섯 가지 역량 중 낙관성, 위험감수 역량이 두드러짐을 볼 수 있었다.

(☞면담자: 그렇게 혼자서 무언가를 했을 때 사실 결과가 좋지 않거나 하면 ‘어 이게 맞게 한 건가? 혹시 내가 틀린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특별히 생각했던 적 없이, 그래도 예상했던 수준의 결과들이 항상 있었었나요? 이제까지 보면?) 없었어도 그냥 제가 할 때는.. 떨어지면.. 다른 거 하면 되니까. (이현율)

(☞면담자: 남들과 다른 걸 한다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나 ‘저 시간에 나도 (활동보다는)공부를 해야하나?’ 이런.. 어떤.. 흔들린 적은 혹시 없었어요?) 그냥 쯤.. 제가 성격이 어떻게든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그냥 이렇게 하다보면 어딘가엔 들어가겠지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보람)

사실 이걸 좀.. 자만..심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고등학교 때 그 생활

을 하면서 한번도, 내가.. 안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남들은 이제 “너 왜 그러냐?” 하지만,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해야 할 만큼의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뒤처지고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고, 이만큼 하고 어쨌든, 저는 그때 당시 제가 ‘아 이런 전형으로 나는 써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것을 준비하는 것도 어쨌든 대학을 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이러니까. 불안하지는 않았어요.

(김온아)

수능중심의 고교문화에서 스스로 진로활동을 하는 것에서부터 입학사정관전형이라는 새로운 입시제도를 지원하고 준비하는 것까지 다수가 선택하는 길이 아니었다. 이러한 선택에 따른 행위를 하고,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했다. 하지만 연구참여자들은 선택의 결과로 일어날 일을 걱정하고 불안해하기보다는 무덤덤하고 낙관적인 태도를 보였다. 예상치 못한 결과가 생길지라도 경험을 통한 배움이 남을 것이고, 자신의 생각과 신념에 기반하여 결정한 바라면, 돌아갈지언정 중심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 이는 이들에게 낙관적인 생각과 위험감수에 대한 용기를 부여하였다. 비슷한 환경과 상황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연구참여자들처럼 기회를 얻고 자신의 진로를 나아가는 것은 아니다. 연구참여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 특성, 가치관 등이 점철되어 진로라는 여정에서 우연적 요소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기회로 삼게 하였다. 우연에 대처하는 개인의 역량이 함양됨에는 다양한 경로가 있겠으나 연구참여자들에게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었다. 또한 그러한 신뢰를 형성할 수 있었던 기저에는 자신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자신의 생애주제를 인식하고 있음이 바탕이 되었다.

개인의 진로에서 ‘운’, ‘우연’의 존재와 그 영향은 크게 작용하지만, 삶에서 발생하는 우연적 상황을 보다 긍정적 우연으로 만들어나가는 것은 개인의 노력으로 대비할 수 있는 부분임을 연구참여자들의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예전부터 삶에 계획되었던 우연인 것처럼 긍정적 우연으로 만들어나가는 연구참여자들은 다채로운 경험을 통해 다양한 역량을 습득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역경과 고난의 시간을 마주할 때마다 가지고 있던 경험에서 실마리를 찾아내고 활용하며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었다.

어떤 사람이 잘 되냐, 운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운 좋은 사람이 누구있냐 생각해보면은,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 만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 운은 노력에서 오는 거니까. (최신유)

2.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 자본 형성

연구참여자들은 내적으로는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생애주제를 통한 자기 인식을 하였고, 외적으로는 삶의 우연적 상황을 긍정적 기회로 만들어가며 진로를 나아갔다. 이러한 시간이 씨줄과 날줄처럼 종으로 횡으로 엮이고 쌓이면서 연구참여자들의 삶에 보다 풍부한 생애주제들이 존재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의 생애주제는 진로 여정을 나아가면서 만나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변수들, 역경이나 고난의 여건에서 중심을 잡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되어주었다. 또한 자신의 전공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하고 활동하였던 연구참여자들은 풍부한 경험 자본을 형성할 수 있었고, 이는 ‘진로’라는 떠나면 여정을 떠나는 데 필요한 물품들을 배낭에 넣는 것과 같았다. 먼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비가 오면 우산을 꺼내 쓰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고, 바람이 세면 두꺼운 옷을 꺼내 입는 것처럼 풍부한 경험 자본은 연구참여자들이 메고 있는 배낭 속 준비된 물품과도 같았다.

연구참여자들이 지난 경험에서 무언가를 발견하여 새로운 경험과 연결고리를 마련하기도 하고, 예상하지 못한 시련이나 역경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가지고 있던 경험에서 희망을 찾아 앞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으로 삼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현울은 검사의 꿈을 안고 법학과에 입학하였지만, 사법고시가 폐지되면서 목표하던 진로를 잃었을 때, 지난 경험에서 ‘지식재산권’을 찾아내었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진로를 구성해나갈 수 있었다.

굳이 선택은 아니고, 그냥 거의 지식재산 쪽으로 강의를 들었습니다. (면담자: 제일 재밌어서 그러면?) 재밌는 것도 있고, 그건 제가 경험을 해봤으니까. (면담자: 좀 더 아는 분야였고?) 좀 더 아는 분야였고. 그리고 제가 해

본.. 제가 직접 해본 거니까... 나중에 공부를 하거나 정책을 만들 때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좀 더 쉽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식재산으로 잡았습니다. (이현율)

이현율은 고등학생 때 온라인 전자책을 출판하며 ‘지식재산권’에 대해 경험하게 되었다. 이러한 연유로 사법고시를 준비하면서 선택과목으로 ‘지식재산권’을 선택하여 공부하였고, 새로운 진로 탐색을 할 때도 ‘지식재산권’에 관해 더 깊이 공부하여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자 새로운 길을 탐색하였다. 오보람 또한 ‘문화재 전문가’가 되고자 진로를 준비하고 활동하였지만, 취업에 문제가 생기며 새로운 도전과 진로 탐색을 해야만 했다. 유년시절 자신이 살았던 지역의 특성으로 민주화운동을 비롯한 근현대사에 관심을 많이 두었던 오보람은 그 시절의 생애주제에서 새로운 진로탐색의 실마리를 끄집어내었고, ‘근현대사 전문가’로서의 길을 새로이 그릴 수 있었다.

원래는 원래 계획한 대로는 되지는 않았어요. 원래는 문화재청 산하 공공기관에 들어가고 싶어 했는데, 실제로 합격을 했다가 취소되는 일이 벌어지고. (오보람)

좀 이런 저런 사정들이 있어서 민주화운동 쪽으로 진로를 정하게 됐지만 그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오보람)

연구참여자들은 다양한 활동과 다채로운 경험을 추구하였고, 지금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지난날들의 경험들이 진로에 유의미하게 작용하여 이들이 그리는 진로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이현율은 대학생이 되어 입학사정관계 홍보대사, 복지부 홍보활동, 지식재산권 전문 강사활동 등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며 활동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다채롭게 배울 수 있었던 것들이 밑바탕이 되어 지금하고 있는 일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대학생의 신분으로 일찍이 다양한 사회활동을 한 이현율은 정책을 홍보하는 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일, 지역 곳곳을 누비며 일하고 있는 지금의 모습에 요구되는 역량을 대학시절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습득할 수 있었다고 한다.

제일 컸던 건 일단.. 복지부에서 홍보 했던 건데, 일단 그때 왜 홍보가 중요한지, 그리고 홍보를 하려면 사업을 알아야하고, 사업을 알게 되면 연구를 한다던가, 아니면 그쪽 분야에 대해서 많이.. 그니까 전문가가 되는 거니까.. 모든 일에 대해서 홍보가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학교(대학교)에서도 입학사정관전형 홍보대사 하면서 학교에서는 약간 다른 성격이지만 그래도 알린다는거? 지방가서 알리고 하는 그런 거가 약간 지금의 업무와도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이현율)

오보람 역시 세부 진로가 수정되긴 하였지만, 문화재 관련 공부를 하고 활동을 했던 경험이 지금의 일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지방의 고교를 방문하여 입학사정관제 홍보대사 활동을 했던 것 또한 현재 청소년 대상 민주주의 행사를 기획하며 지역의 곳곳으로 출장을 가는 자신의 모습과 닮아있었다. 지금의 일에 적응하고 한발 앞서 미리 준비함에 있어서 대학시절의 경험은 요긴한 경험 자원이 되어주었다. 김예별 또한 대학시절 봉사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였고, 여기서 만난 인연으로 팀을 형성해 라디오 콘테스트에 참가한 경험이 있다. 이때 라디오 원고를 작성해본 경험은 현재 김예별이 리포터 일 뿐만 아니라 원고 작성과 프로그램 기획까지 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리포터로 성장하는데 발판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작가’라는 제 2의 꿈을 꾸게 되는 데에도 이러한 경험들이 모이고 연결이 되어 점철되었다. 또한 대학시절 다양한 활동의 무대로 여수, 평창, 중국 등 다양한 지역을 오갔던 김예별은 대학 졸업 이후, 지역구를 돌며 일하는 리포터 생활이 자신의 지난 경험과 닮아있다고 인식하고 있고, 이러한 이유에 더 빨리 적응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네에에. 계속 그런 훈련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평창은 그게 정말 다행인건 그것도 역시 함숙이었는데, 여수를 갔다 오니까 강원도에도 연고가 없어도 이제 두렵지 않더라구요. 그땐 이미 두렵지 않은 게 이미 중국도 갔다왔고~ 집에서도 이제 “애가 또 가는구나” 하지 전혀 그런 게(거리낌이) 이제 없어요. (김예별)

Dewey는 경험은 “다른 경험으로부터 생겨나며, 또 다른 경험을 이끌어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즉 이러한 연속성 상에서 “현재 상상하는 것, 과거에 상상했던 것, 미래를 상상하는 것의 어디에 위치하든지 그 지점은 과거 경험에 토대를 지니고 있고, 미래의 경험을 이끌어낸다” (Clandinin & Connelly, 2000). 또한 경험의 과정에서 형성된 태도와 습관도 유의미한 경험 자본으로 진로에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험을 시작하게 된 계기, 경험 과정에서 학습한 것, 경험 이후의 성찰과 깨달음 등 일련의 모든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되고 느끼게 된 것들은 더욱 풍요로운 경험 자본이 되어 연구참여자들에게 내재될 수 있었고, 그 다음의 경험과 선택에 영향을 미침을 볼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현재에 충실하고, 과정에 의미를 크게 부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무언가에 도전하고 시작하는 지점에서는 그 때의 열정, 마음, 환경에 집중하여 판단하는 모습이 보편적으로 나타났다.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안에서 성실하게 임하고 열정을 담아내며 현재에 충실한 태도가 유독 엿보였다. 연구참여자들에게 특정 진로 경험을 하게 된 동기라던가, 진로 결정의 이유에 대해 질문하였을 때, 어떠한 목표와 성과에 의미를 크게 두었기 보다는 그 과정과 그 당시의 심리에 기반한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지금, 현재에 충실’ 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때 자신의 흥미, 집중, 관심이 쏠려있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 한다.

최신유는 대학시절 간간히 휴학을 했던 이력이 있었다. 뜻이 맞는 동료들과 모여 회사를 만들거나, 앱을 개발할 때 물리적으로 쏴야하는 시간이 필요했고, 작업을 하다 보니 좀 더 집중하고 몰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고등학생 때 프로그래밍 공부를 독학했던 것도, 대학시절 동료들과 함께 몰입하며 무언가를 구상하고, 시간을 내어 다른 나라에서의 새로운 경험을 추구했던 것도 모두 그때의 그 열정과 흥미, 그리고 그때의 ‘자신’이었기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선택과 경험이라는 답을 준다.

네 그걸 한번 100% 쏟아내고 싶은.. 처음엔 발을 담갔다가, 그.. 쏟아봐야겠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할 때는 회사를 만들 때 그렇게 열심히 만들고, 회사를 다닐 때는 다녀보고 싶다고 해서 다녀보고, 아니면 해외에 나가보고 싶을 때 방학시즌에는 한정적이잖아요. 계절도 안 좋고, 티켓도 물가도 비싸고, 그담에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피해보기도 하고 그랬던 거

같아요. (최신유)

현재의 시간에 충실한 태도는 오보람에게도 나타났다. 고등학생 때부터 역사 관련 주제의 대회를 스스로 준비하고 활동했던 것은 자신의 성향에 부합한 학습이라 판단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배움이 더 깊어지는 것을 스스로 체감했기 때문이었다. 대회를 준비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 직접 역사 유적지를 탐방하고 열띤 토론을 하는 과정이 오보람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고 배움과 성장의 시간으로 다가왔었다. 당시의 열정과 흥미에 주목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을 체득하고 대학 입학 이후에도 이러한 학습경험은 학습 태도와 습관으로 형성되어 계속 될 수 있었다. 이현율 또한 현재의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맞게 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하고 관심을 갖다보니까 지금의 진로에 다다를 수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전 그렇게 계획적으로 진로를 발전시켰다고는 어려울 것 같고, 그냥 하고 싶은 걸 하다보니까 이렇게 연결이 된 것 같은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거를 하고 저거를 한 다음에 토의를 따고, 이제 상반기에는 인턴을 넣고 막 이런 게 아니어서.. (이현율)

하루살이처럼, 그 하루에 막 그냥 그날하면 그날 열심히 막 뭐 하고, 이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생각이 없어 보일 수가 있는데. (웃음) 어.. 뭔가를 내가.. 제가 사실 입학사정관이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도, (대학교) 3학년 때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 정해졌던 것처럼 사실 1,2학년 때까지는 제가 어떤 걸 해야겠다 라고 해서 진로를 좀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했다가기 보다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항상 하면서 그냥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매일 매일이~ (김온아)

김온아는 ‘입학사정관’을 직업으로 인식하지 못한 채, 대학교 1,2학년을 보냈다. 3학년 때 대학에서 마련해준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현직 입학사정관과의 대화를 통해 진로를 결정하게 되었다. 대학교 3학년이 되어 단번에 ‘입학사정관’이 되어야겠다고 진로를 결정하게 된 배경은, 한순간으로 보이지만 돌아보면 지난 시간의 경험과 삶의 주제들이 ‘입학사정관’이라는 진로를 이미 가리키고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일단 입학사정관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김온아는 전형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 교육학과에서 이루어졌던 전공수업과 다양한 대외활동을 통해 교육학도로서 어떤 길을 가야할지 고민했던 시간이 바탕이 되어주었다. 고교생들에게 전공 선택과 진로에 대한 멘토링 봉사활동을 해주며 입학사정관의 업무 일부분을 간접 경험하고 있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주체적으로 찾아 임하고 현재에 충실하며 실천했던 시간이, 켜켜이 쌓이고 깊어지면서 ‘입학사정관’이라는 진로를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선택지에서 관심, 흥미를 기반으로 선택하고 행동하였다. 그때그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 지금 자신의 진로의 방향으로 다다르게 되었다고 말한다. 물론 상황에 따라 희망하는 목표와 계획을 세웠을 때도 있었지만, 여러 환경으로 인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오히려 대부분이었다. 예상과 다른 상황에 놓이는 일이 더 많았고, 그때마다 지난 경험에서 길을 찾고 역량을 발휘하며 현재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노력했다고 말한다.

그 배우는 과정이 중요하지 정보습득하고 생각하는 과정이 중요한 거지. (최신유)

하고 싶은 일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지금 도전해볼 수 있는 것을 시도하며, 다양한 경험의 과정을 통해 깨닫고 성장하는 시간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게 하였다. 환경에 영향을 받기도,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나가기기도 하면서 주도적으로 경력을 구성해 나갈 수 있었다.

3. 자신에 대한 신뢰와 용기를 발판으로 성장

경험의 결과보다 과정에 의미를 두는 연구참여자들이었기에 이들의 경험에는 성찰과 성취가 뒤따를 수 있었다. 주체적 사고와 실천으로 이어진 초기 경험은 폭넓은 대인관계와 새로운 기회로 연결될 수 있었고, 다른 경험으로도 확장되어 나타났다. 확장된 경험은 또 다른 기회와 경험으로 연구참여자들을 이끌었고, 이러한 경험의 선순환은 연구참여자들의 경험 자본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다. 경험이 쌓일수록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에 대한 신뢰, 새로운 경험에 도전하고자 하는 용기

를 얻을 수 있었다.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라도 배움과 긍정적 의미를 이끌어내는 연구참여자들이었고, 그런 부분이 연구참여자들의 삶의 유의미하게 작용하였기에 자신의 선택에 대한 믿음과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두터워질 수 있었다. 새로운 도전을 하는데 주저하지 않았고, 용기 있게 행동할 수 있었다.

뭔가 꼭 유명해지지는 않더라도 에세이 한권정도는 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방송 원고는.. 사실 작가로 빠지면 지금도 3사 막내작가로는 갈 수 있는데, 일단은 지금은 마이크.. 잡는 게 행복하고~ 그래서 최대한 달는 데까지 하겠다.. 어느 정도의 (자신에 대한)믿음은 있어요. (김예별)

그래서 지금 놓고 보면 재수를 한 게 참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그만큼 철이 안 들었을 것 같고. (김예별)

김예별은 지난 자신의 선택에 만족하고 있고, 과거의 경험과 생애주제를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갈 진로 여정에서도 자신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고 있다. 김은아 역시 지금까지 걸어온 여정에서 하고자 했던 것을 이룰 수 있었음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 앞으로의 시간을 계획하고 추진함에 있어서도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

물론 제가 의식하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분명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해왔던 활동들, 이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목표를 따라왔고, 이러한 경험들이 저는.. 뭔가 제가.. 어떤 걸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불안하지 않게끔 해주는.. 토대가 돼요.. (☞면담자: 아.. 경험이 쌓이면서?) 네. 약간 제가 해왔던 것들이 이제, 뭐 틀린 것도 있었지만, 제가 생각해오고 따라왔던 것들을 가치관으로 했을 때, 제가 어쨌든 제 기준에 잘 된 거잖아요. 제가 원하는 것을 했고, 그래서 약간 거기서 오는 자신감, 성취감도 있고, 또 내가 바라는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도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뭐 잘 안되어도 뭐 크게 뭐.. (☞면담자: 다른 게 또 있으니까?) 네에에. (김은아)

연구참여자들은 지난 시간과 그때 자신의 선택에 만족하고 있었다. 응원과 지지

보다는 걱정과 염려가 더 큰 상황에서 진로를 탐색하고 활동했던 연구참여자들이었다. 자신의 선택이 입학사정관제 합격이라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소신 있는 학창 시절의 노력과 도전을 공공연하게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러하기에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과 만족감이 있을 수 있었다. 이후에도 새로운 경험에 대한 도전을 이어나갔고 경험이 쌓이고 폭 넓어질수록 자신에 대한 신뢰와 도전하는 용기도 커질 수 있었다. 초기 경험의 성취는 자신에 대한 신뢰와 다음 경험을 향한 도전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었다. 연구참여자들은 경험을 준비하고, 행위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통해 풍요로운 경험 자본을 형성하였으며, 경험의 시간이 축적되며 쌓인 신뢰와 용기가 더해져 더욱 성장할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신뢰와 용기를 바탕으로 다양한 경험을 하고 학습하는데 적극적이었으며, 관심분야에서 실질적인 경험을 통해 예측되는 진로상황을 가늠하고자 하였다. 구상하는 진로와 유사한 현장을 찾고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자신의 적성과 부합하는지 판단하여, 실무적인 현장의 모습에서 자신의 진로방향을 고민하며 나아갔다. 현장에서 직접 부딪치며 배우고 깨닫게 된 부분들은 연구참여자들이 자신의 진로를 보다 구체화하고 자신의 생애주제를 재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김예별이 ‘방송쟁이’의 길로 가게 된 것은 초등학교 때부터 방송활동을 하고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잡으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유사한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어떤 부분에서 만족감과 행복함을 느끼는지 알 수 있었고, 이는 꿈을 이루고자 하는 동기가 되어주었다. 그리고 신문사 인턴, 호주대사관 온라인 리포터, 케이블 방송사의 기자 등의 활동을 경험하면서 다양한 방송 직군 중 자신에게 맞는 옷을 찾고자 하였다. 경험을 통해 직접 깨닫고 자신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었기에 지금 하고 있는 리포터라는 직업에 큰 애정을 쏟을 수 있었다.

네네. 근데 참 적성에 잘 맞아요. 다행인거 같아요. 근데 그거는 아무래도 초·중·고등학교 때 그때 비슷한 일을 했잖아요. 비슷한 경험을 해보고 이 일을 하면서 재밌네~ 라는 걸 알았잖아요. (김예별)

이현울은 대학시절 정부기관에서의 다양한 사회활동 경험을 통해 제도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정책은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가 이루어지는지, 법, 행정,

홍보의 경계에서 미리 일해 볼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이현율은 앞으로 자신은 어떤 일을 해야 할 지,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분야가 어디인지 생각해볼 수 있었다. 자신의 경험과 그 경험을 통해 들여다 볼 수 있었던 자신의 적성이 만나는 지점에서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었다. 오보람은 문화재 전문가를 희망하였을 때는 관련 연구소에 들어가서 미리 일을 했었다. 또한 대학 시절 5·18 기념재단에서 인턴활동을 했었기에 현재 재직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 공공기관에서의 일이 자신과 맞는지 파악해볼 수 있었다. 김은아 또한 입학사정관이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하고 나서, 입학처에서 진행하는 연구의 보조연구원으로 참여하여 현장을 미리 경험해보고자 하였다. 연구진의 일원으로 일하면서 현장에 있는 입학사정관 선생님들과의 대화 또한 자신의 진로를 그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네. 그때는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일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지금 다니는 회사에 입사해서 보니까 그 때 경험과 시간들이 많이 도움 되고 있습니다.
(오보람)

경험의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은 또 다른 기회를 마주하고, 그 기회가 또 다른 경험으로 이어지면서 다른 분야의 경험으로 또는 보다 큰 경험으로 경험의 폭이 확장됨을 보였다. 그러한 기회는 경험을 같이 하며 만났던 사람들과 연결되기도 하였고, 경험에서 얻는 배움과 생각이 기반이 되어 다른 경험으로 연결되기도 하였다. 이현율은 지역 행사에 참여하여 우연히 인사를 나누게 된 EBS선생님과의 인연이 아르바이트 경험으로, 전자책 출판으로, 법학 전공과 지식재산권 전문가라는 진로 설정으로 이어졌다. 최신유는 고등학생 때, 대학에서 주최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가 친분을 형성하게 된 박사과정 형과의 인연이 대학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또한 최신유는 앱 개발에 몰입하여 활동하였던 대학 시절, ‘뉴스 앱’을 만들었던 경험이 주요 경험이 되어 ‘영국문화원’에서 주최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다. 뉴스앱을 만들었던 당시는 정성을 들인 데 비해 많은 이들에게 쓰임을 받지 못해 성공하지 못했다 생각했지만, 그때의 경험이 컴퓨터공학 전공인 최신유가 언론학 전공자가 주를 이루는 영국문화원 프로그램에 함께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었다. 그 곳에서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소통하고 함께 작업했

던 경험은 최신유에게 또 다른 경험과 배움으로 다가왔다.

저널리즘~ 언론에 관심 있는 친구들. (☞면담자: 아 언론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모이는 집단이었어요?) 네. 저는 이제 언론 분야는 아니지만 뉴스앱을 했으니까. 로이터나 톰슨로이터나 BBC..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강의도 해주고, 멘토링도 해주고, 그.. 각 나라에서 온 친구들도 같이 이야기하면서 자기네 나라 이슈 이야기하고, 뭐 별 이야기 아닌 것도 이야기하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런 자리였어요. (최신유)

김예별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시작했던 봉사활동을 통해 소중한 인연을 만났다. 뜻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팀을 구성하여 라디오 DJ 콘테스트에 출전하는 새로운 경험을 하였고, 이때의 경험은 작가라는 제 2의 꿈을 꾸게 되는 데에도 영향을 주었다. 뿐만 아니라 이때 만난 사람들과의 인연은 현재까지도 이어져 일에 대한 고충과 고민을 나누고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든든한 조력자가 서로에게 되어주고 있다.

저는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봉사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친해진 언니와 오빠들이 저처럼 아나운서나 방송을 지망하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랑 팀을 짜서 나갔는데 그때도 원고도 제가 썼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깐 원고도 제가 썼네요. 보통 방송하는 친구들이 방송만 하고 싶어하지 원고를 쓰거나 기획할 생각은 안하는데 그런 모든 활동들이 실제로 보면 서울에 지상파 3사 빼고는 다들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당백 역할을 해야하거든요. 근데 그 일당백 역할을 해야지 오히려 좋아해요. 그런데 그런 역할들을 대외 활동을 하면서 많이 쌓았던 것 같아요. (김예별)

그 전 경험도 제가 잘 하지 못한 것 때문에 더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제 고등학교 때 갔을 때 제가 처음 갔던 거고, 굉장히.. 물론 이게 교육이랑은 다른 부분인데..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없었고, 뭐가 제가 좀.. 이런 교육 환경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도, 물어보지 못했던 거를, 대학교 와서 이런 기회에 제가 다시 한 번 또 가서 지금은 내가 좀 알고 싶은 걸 해볼 수 있겠다~ 그런 아쉬움에서 여기를 더.. 네.. (김온아)

김온아가 대학에 와서 유럽권 해외학술탐방을 지원하고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것은 고교시절 구청 주최 미국고교탐방 프로그램에서의 아쉬움에서 비롯되었다. 유창한 영어실력으로 미국 고교생들과 잘 어울리고 그들의 문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동료들과는 달리 혼자 잘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었다. 대학에서의 해외학술탐방은 지난 경험에 대한 아쉬움으로 다시 한 번 용기내고 도전해서 성취할 수 있었던 경험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초기 경험의 성취와 성찰을 바탕으로 이후의 경험으로 연결하기도 하고, 유사경험을 통해 생애주제를 검토하며 환경에 대한 적응성을 향상시켜 나갔다.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가 난무하는 환경에서 연구참여자들은 낙관성, 위험감수 역량을 바탕으로 진로 여정에서 긍정적 우연을 만들었다. 호기심과 융통성을 바탕으로 경계 없는 다채로운 경험을 통해 풍부한 경험 자본을 형성할 수 있었다. 경험의 과정을 중요시하며 포기하지 않는 인내심으로 자신에 대한 신뢰와 용기를 갖출 수 있었다. 경험을 통한 선순환, 경계를 두지 않은 유연한 사고는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었다.

C. 개성 있는 프로티언 커리어 인재로 나아가는 길

1. 지속적인 배움이 있는 삶

진로를 결정하고 직업을 선택함에는 많은 고려요소들이 있다. 개인의 흥미, 조직의 규모, 연봉, 복지, 보람, 조직의 철학 등 사람마다 우선적으로 여기는 가치가 모두 상이하다. 연구참여자들이 진로를 구성하고 직업을 선택하는 데에는 공통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곳인지’가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나타났다. 최신유는 일을 시작할 때,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지금 일하고 있는 곳이)연구소거든요. 제가 학부를 다닐 때 자주 만난 교수님이 있는데, 그 분이 연구소를 만드실 때 저랑 가치관 공유를 많이 하셨어요. 예전부터. 알고 지낸지 몇 년 되다보니까 처음 웹사이트를 만들거나, 뭐.. 같이 하는 친구를 알아보거나, 어떤 행사를, 세미나를 할 때 조력하는

역할도 하구요. 그래서 도와드리면서 저도 뭐 용돈도 벌고, 또 그 하시는 분야가 박사님..이신데 ‘기업가정신’ 이랑 ‘파이낸스’ 로 석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쪽 분야를 배울 수 있어요. 같이 일을 하면서요. (최신유)

대학에서 ‘앙트러프러너십’ 을 복수전공 하였던 최신유는 복수전공 수업에서 만난 교수님이 추진하는 일을 함께 하게 되었다. 연구소를 설립하고 운영의 초석을 다지는 일에 동참하여 연구소의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것부터 직원을 선발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등 다양한 업무를 하였다. 최신유가 이 일을 선택한 이유는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다양한 역할을 해볼 수 있고, 토대를 마련하는 시작점에서 함께하면서 많은 배움이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회사’, ‘기업’ 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있는 최신유에게 이러한 사항은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다. ‘배울 수 있는 환경인지’, ‘일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곳인지’, ‘함께 일하는 공동체는 어떠한지’, ‘학습’ 과 ‘성장’ 을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생각하였다.

제가 이제 그.. 가끔 만나서 대화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항상 좋은 회사 이름이나 그런.. 돈을 엄청 많이 주는 그 회사 이름, 단체 이름 보다는 ‘배울 수 있는 곳!’ 으로 가야하고 그 배울 수 있는 곳에 자기를 도와주는 스폰서 같은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해주셔서, 그런.. 조건에 해당되면 거기서 계속 일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최신유)

최신유는 대학 입학 이후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소통하고 함께 협업하면서 자신의 진로 여정에 많은 멘토를 두었다. 먼저 각 분야의 현장에서 실무하고 있는 멘토, 자신의 회사를 설립하고 사회적으로 존경과 인정을 받는 멘토 등 다양하게 만나며, 자신 또한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진로를 구성해 나가야 하는지 생각했다. 자신의 경험과 멘토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조직,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조언을 제공해줄 수 있는 사람이 두루두루 구성원으로 있는 조직이면 찾아가서 일을 도모하고 함께하고자 하였다.

김예별은 진로 선택에 있어 자신의 행복과 명예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어릴 적부터 방송 활동을 계속 추구하고 직업으로 삼아 계속 달려왔던 이유도 방송활동을 할 때 스스로 만족스럽고 행복하였기 때문이었다.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고 관심분야에서 활동하는 것을 통해 행복을 느낄 수 있었기에, 그러한 행복함을 삶의 중요한 선택과 결정의 기준으로 여기게 되었다.

저는 정말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냥 제가 행복한 거! 제.. 삶이, 제 정신이 행복하고 그니까.. 명예! 저 사실 명예..가 저한테 가장 큰 것 같아요.. (김예별)

또한 김예별은 조건적으로 보다 안정적인 자리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진로 여정에 찾아왔었고, 이직을 했다가 다시 리포터로 돌아왔던 경험이 있었다. 그때의 깨달음으로 자신이 어떤 자리에 있을 때 빛나고 만족할 수 있는 지 알 수 있었기에 이후에도 현실적 조건이 더 좋은 스카웃 제의가 이어졌지만,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었다. 직업적 안정성보다는 자신이 일을 할 때 느끼는 행복과 방송활동을 통한 자신의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제가 많은 방송국을 거쳤을 때 지금 있는 데가 사람이 가장,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좋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서른을 바라보고 있고, 서른이.. 되게 웃긴데,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에, 음.. 이제는 그런 안정적인, 그런 게 참 중요해진 것 같아요. 나의 정신적인.. 안정.. (중략) 그게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2016년..도에 그런.. 다사다난한 일(이직과 퇴직, 재취업)을 겪으면서 형성된 것 같아요. (☞면담자: 그.. 안정적이라는 이야기가 어떤.. 정규적이고 보장이 되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일하는 사람들과의 만족도?) 네네네. 그런 교감이라든지, 그들도 나를 인정해주고 많이 존중해주고. (☞면담자: 그럼 그런 (스카웃)제안이 왔는데 김예별씨는 지금의 자리에 있기로 결정을 한 거네요?) 네에 그렇죠. 그렇죠. 옛날에 저였다면 무조건 또 갔을 것 같아요. (김예별)

김예별 역시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조직의 분위기를 중요하게 여겼다. 현실적 조건의 안위의 안정성이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의 정서적 안정에 가치를 두었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교감, 존중, 인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이러한 가치관이 형성되고 진로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마다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지난 경험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해 더 잘 파악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한 깨달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다.

‘제가 인생에 뜻하고자 하는 바를 계속 할 수 있는 곳인가?’ 라는 게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아요. (중략)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곳인가’ 에 대해서 기준을 가지고 골랐던 것 같아요. 그냥 회사에 충성충성 하기 보다는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곳인가에 대해서 음.. 중심을 잡고 골랐던 것 같아요. (오보람)

일단 저는 소신은 지킬 수 있는.. 직업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면담자: 소신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하고 싶은 생각을 자신의 일로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쪽..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현율)

오보람 또한 계속해서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인지, 성장을 진로 선택 시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두었고, 이현율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일에 담아내고 실현할 수 있는 진로를 추구하였다. 김온아는 진로 결정에 중요하게 고려했던 부분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자신이 정말 좋아해서 일로 인한 스트레스 상황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도 손을 놓지 않을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의 의미는 자신의 교육적 소신을 실현할 수 있는 일이었고, 배움과 성장이 가능한 일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보수였다. 대학교와 대학원 학비를 스스로 감당하며 공부를 하고 생활을 해야 했던 김온아는 직업 선택에 있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경제적 안정과 힘들어도 계속 할 수 있는 흥미를 우선으로 고려하였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제가.. 욕먹어도 즐겁게 할 수 있는.. 가서 스트레스를 받아도 내가 여기는 가야겠다 라는.. 어느 정도 제가 좋아하는 거를 해야겠다 라는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거... 그때 당시에는 지금 이제 생각해보면 그게 가장 중요했고, 그리고 이제 뭐.. 물론 급여도 중요하긴 하죠. 돈도.. 물론 중요한데.. 굳이 따지자면 이 2개였던 것 같아요. (☞면담자: 내가 재밌어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급여가 어느 정도는 돼야.. (중략) 저를.. 학비

를 다 내 줄만큼 그러지는 않았고, 그러다보니까 사실 대학교 다니면서, 대학원 다니면서도 계속 돈 벌고 이러니까~ 급여가, 그니까 저에게 월 들어오는 수입 없이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계속 그런 생활을 해오니까. (면담자: 아 큰 돈을 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기본 생활을 할 수 있는?) 네네. 그렇게 두 가지가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김은아)

연구참여자들은 행복, 흥미, 소신 등 자신이 자유롭게 뜻을 펼치고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일을 선택하였다. 무엇보다 계속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인지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가치를 두었다. 이렇게 자유와 성장을 핵심가치(Hall, 2002)로 여기고 지속적 학습을 통해 자기 주도적, 가치 지향적 진로를 나아가는 모습은 프로티언 커리어 인재로서의 면모를 나타내준다. 연구참여자들은 지속적인 학습, 계속적인 성장을 지향하며 자신의 가치, 흥미, 신념에 따라 희망하는 방향으로 주체적으로 경력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사회초년생이 된 연구참여자들은 이제껏 그래왔던 것처럼 현재에도 배우고 학습하고자 하는 모습을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있다. 이현율은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해왔고 제도교육을 벗어난 이후에도 계속하여 학습하는 태도가 잘 형성되어 있음을 그의 일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공부는 필요한 부분을 자신이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라 인식하고 있었고, 그러한 생각을 부지런히 실천으로 옮겨 이행하는 생활이 오랜 시간 계속 되었다. 직장에서도 다른 사람의 선례를 따라 업무를 하기 보다는 자신의 일을 보다 알차게 기획하고, 별도의 시간을 투자하며 관련 공부를 스스로 찾아서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어떤 공부를 어떤 경로로 해야 하는 지 몸에 익숙한 습관으로 일상화하고 있었다.

네. 그런데 지금 거의 다 들어서 더 이상 강좌는 없고, 그냥 책을 사서 본다거나 그러고 있고, 굳이.. 나이 스무살 넘어가지고.. 시간도 많은데, 그냥 하고 싶은 공부 자기가 하면 되는 건데, 이제 성인인데.. 꼭 뭐 자기가 듣(속한) 학과에 수업이 없다고 해서 나이 먹고 스무살 넘었는데 자기가 듣고 싶은거 공부하고.. 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면담자: 본인도 스무살 이후부터는 계속 그렇게 해왔고, 지금도 그러한 습관으로 공부하고 있고. 그.. 인터넷 강좌는 어디서 만드는 그런 강좌들을 주로 듣는 거예요?) 하.. 정말 정부교육기관의 원격교육연수는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면담자: 아

다양한 콘텐츠로 되어 있는 건가요?) 네.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웬만한 모든 걸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면담자: 그럼 본인은 어떤 걸 찾아봐요? 요즘 공부하고 있는 분야는 어떤 분야예요?) 요즘은 주로 홍보, 행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콘텐츠진흥원~ 예전에도 콘텐츠진흥원에서 강의를 많이 들었는데, 최근에 행사 전시 기획? 그 쪽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성장과 배움에 가치를 두고 있기에 끊임없이 학습하는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공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분야에 호기심을 가지고 필요한 정보와 뉴스에 민감하게 귀 기울이고 있으며, 스스로의 진로를 현재진행형으로 구성하고 있는 이현율이다. 오보람 또한 현장에서의 실무 경험과 전문적인 공부가 고루 갖추어진 전문가의 길을 그리고 있었다. 오보람은 진로 선택에 있어 계속 공부를 하며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지금의 직장에서 경력을 쌓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공부를 이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근현대사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목표가 있기에 지금 자신에게 부여된 업무에 임하는 자세 또한 더욱 열정적이다. 모두가 인정하는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열망으로 책임감 있게 업무를 하고 있으며, 관련분야의 자료를 찾고 해외의 우수 사례를 토대로 아이디어를 구상하며 하루하루 자신의 진로를 탄탄하게 구성하고 있다.

음.. 궁극적으로는 제가 공부를 희망하는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자리에 가는 게 목표라기보다는 그냥 이 분야에서 는 그래도 ‘저 사람이 공부도 하고 좀 열심히 했구나’ 라고 자타가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오보람)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아직.. (☞면담자: 미성숙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너무 모르는 게 많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신뢰를 얻기 위해서 지금도 책도 많이 읽고, 모르는 것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배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최신유)

사회에서 정해진 성공의 기준은 높은 연봉과 사회적 지위로 통용되어왔지만, 연구참여자들은 스스로 추구하는 심리적 성공의 기준, 주관적 성공의 이미지를 그리고 있다. 자신 스스로 느끼는 자부심과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가치를 두고 있기도

하고, 자신이 하는 일이 사회적으로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지가 중요한 기준이기도 하다. 저마다 그리는 성공의 개념은 상이하며, 그렇기에 자신만의 색깔과 모양으로 경험을 하고 학습을 하며 성장하고 있는 연구참여자들의 모습이다.

최신유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평생에 걸쳐 학습하는 것이 당연한 숙명이라 인식하고 있다. 현재의 모습 또한 자신의 삶을 잘 살기 위해 진로 여정을 구성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으며, 그 과정에서 형성된 좋은 생활태도와 습관이 자신을 좀 더 멋진 곳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이끌어줄 것이라 믿고 있다. 오보람에게 취업은 최종 목적지가 결코 아니며 진로 여정에 존재하는 하나의 단계이다. 자신이 꿈을 이루고 가치를 두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놓인 하나의 스텝(step)이기에 가장 무서운 것은 ‘지적 나태’이며,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오보람은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스스로 채울 수 있는 환경을 찾아 나서고, 계속하여 배우고자 노력하는 모습으로 미래를 그리고 있다.

수능 중심의 교육으로 무조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걸 목표로 하는 교육에만 치중하다보면, 나중에는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는 지적나태가 오는 것 같아요.. 지적인 나태.. ‘내 공부는 끝났어.’, 또 취업하고 나면 ‘내 공부 는 이제 완전 끝이야.’ 지적 나태가 오는 것 같아요. 그건 정말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오보람)

개인의 진로 선택은 수많은 이전 학습경험의 결과와 연관되어 있다(Sharf, 2011). 연구참여자들은 현재에 충실하고 과정을 중요시여기며 자기 주도적 학습태도를 형성할 수 있었다. 청소년기부터 주체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다양한 학습과 실천을 도모했던 경험은 평생학습자에게 필요한 자기 주도적 학습태도를 형성하게 해주었다. 그리고 대학 입학 이후 다양한 경험과 경계를 넘나드는 도전을 통해 자신만의 가치를 지향하는 프로티언 커리어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하였다.

2. 자기 주도적 인재에서 프로티언 커리어 인재로

연구참여자들은 가치 지향적, 자기 주도적 진로 여정을 통해 지속적인 학습과 성장을 추구하며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프로티언 커리어 인재이다. 자기 주도적 인재로 대학 입시에서 인정을 받고, 그 자격으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다. 대학입학 이전에는 자기 주도적 인재로, 대학입학 이후에는 프로티언 커리어 인재로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어떠한 경험들이 삶에 자리하고 있을까. 이들이 자기 주도적 인재에서 프로티언 커리어 인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경험에 보다 주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대학 입학 이전, 자기 주도적 면모를 함양할 수 있었던 배경은 연구참여자들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됨을 확인할 수 있다. 부모의 가치관, 자녀의 성향,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정의 분위기, 경제여건과 물리적 환경 등 가정환경에서 연구참여자들의 자기주도성 함양이 비롯되고 있다. 개인을 진로 여정의 주체로 보는 진로구성주의 관점에서는 개인을 둘러싼 환경 또한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입학 이전의 유년시절과 청소년시절의 시간 안에서는 주어진 환경의 영향이 보다 크게 작용할 수 있음을 짐작해볼 수 있겠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연구참여자들은 스스로 통제와 간섭보다는 자유가 있는 가정환경이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 덕분에 자신에 대해 탐색하고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부모와 자녀가 공유하고 있는 경험, 맞벌이와 같은 경제적 여건으로 인한 환경, 부모의 교육관에 따른 가정 분위기는 연구참여자들을 자신을 들여다보고 스스로 다양한 정보를 찾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이끌었다.

그리고 연구참여자들에게 허락된 자유에 책임이 수반되고, 주체성을 보다 긍정적인 의미로 꾸려나갈 수 있었던 지점에는 연구참여자들을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존재가 삶에 자리하고 있음을 생각해볼 수 있다. 오보람과 김온아의 경우 아버지와 대화, 최신유의 경우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선생님의 존재가, 연구참여자들이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그릴 수 있게 해주었다. 김예별의 경우 어머니와 진로에 대해서 종종 이야기를 나누었고, 스스로의 선택에 자기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하신 어머니의 영향이 김예별의 삶의 선택과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이현울은 경험의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보다 주체적인 태도로 진로를 나아갈 수 있었다. 걱정과 만류하는 사람들이 가득했던 연구참여자들의 청소년 시절, 정서적 유대를 바탕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

주는 단 한명의 존재만으로도 연구참여자들이 남들과 다른 선택을 결정하고 용기 있게 나아가는데 큰 힘이 되어주었다.

대학 입학 이후 프로티언 커리어 인재로 성장할 수 있었던 연구참여자들의 삶의 경험은 대학에서의 시간으로 조망해볼 수 있다. 이들에게 대학생활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새로운 경험에 도전하는데 많은 제약이 뒤따랐던 고교생활과는 다른 기회의 시간이었다. 이전보다 훨씬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었고, 개인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새로운 경험을 도전해볼 수 있는 무대였다.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을 끊임없이 설득해야했던 이전의 시간과는 달리 자신과 비슷한 행보를 걷는 동료들을 만날 수 있었고, 자신과는 다른 분야에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료들과도 서로의 존중을 바탕으로 교류해볼 수 있는 공간이었다.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앞서 걸어간 선배들과 만나볼 수도 있었고, 대학생의 신분으로 해볼 수 있는 사회 활동도 장려되는 환경이었다. 제약이 많았던 청소년기와는 달리 더욱 넓어진 환경에서 무언가를 도전하고 시도해볼 수 있었다.

제가 그 아무것도 몰랐는데 지금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배울 수 있었던 그 발판이 어.. 학교잖아요. 물론 대학교 교육이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받은 것도 너무 많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어떤 분야에 대해서 배우고 싶을 때, 공부를 할 수 있고 같이 모여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어떤 사람들과 대화도 나눌 수 있고, 필요하면 학교에서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고. 되게 많았어요. (최신유)

아무래도 저한테 자유가.. 그니까 선택권이 좀 있었다라는 것이.. 제가 원하는 제가 수업을 골라서 넣을 수 있고, 또.. 그..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달라졌다는 게 굉장히 제 마음이 좀... 제 마음가짐을 좀 다르게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뭔가를 좀 해볼 수 있고, 고등학교는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했지만 좀 제약이 있잖아요. 결국엔 최종 목표는 대학 입시라는 거에 있고, 물론 대학교도 취업이라는 게 있지만, 저는 1학년 딱 들어갔을 때, 저는 정말 아 나는 이제 성인이고 이제 내가 뭔가를 해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전 그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김온아)

대학 입학 이후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주체적으로 구성해나갈

수 있었다. 자유와 기회로 가득한 대학생활을 연구참여자들이 긍정적인 진로 여정으로 꾸릴 수 있었던 데에는 대학입학 이전에 형성될 수 있었던 자기 주도적 태도가 대학생활에도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자기 주도적 경험과 태도는 대학생활에서 허락되는 도전과 기회를 충분히 자신의 삶으로 이끌 수 있게 하였다.

김예별은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 하고 싶은 것, 필요한 부분을 찾아 행동했던 것이 습관으로 형성될 수 있었고, 대학생이 되어서도 주체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고 스스로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찾아가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자연스럽게 오랜 시간동안 자신에게 형성된 습관이었기에 스스로 인식하지는 못하였지만, 대학에 들어와 김예별을 본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런 자신에 대해 인식할 수 있었다. 또한 김예별은 입시제도를 통한 경험에서도 의미부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자신의 활동을 정리하였던 경험, 면접을 준비하고 임했던 경험 또한 자신을 표현하고 글로 정리해보는 시간이 되었기에, 대학생이 되어 대외활동에 지원하고 취업을 준비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했다.

(취업)이력서 쓰고 밤에. 이력서도 통과 안 되면 항상 바꾸고 머리를 쓰며 고민을 하는데 약간 도움이 되었던 건 입학사정관전형에 약간 그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니까 준비할 때 그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남들보다 이력서 쓰고 이런 거는 쉬웠던 것 같아요. (김예별)

김은아는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또한 학습자의 선호가 반영이 되어 이루어지고, 같은 수업을 수강하는 사람들 또한 각자의 생각과 의견이 모두 상이한 사람들과의 교류이기에 더 많은 배움과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느꼈다. 김예별은 대외활동을 지원하고 활동함에 있어서 대학은 자신에게 든든한 인프라가 되어주었다고 하였다. 최신유는 대학이라는 울타리는 얼마든지 새로운 경험과 학습을 이어나갈 수 있는 공간이라 여겼고, 이를 기반으로 해외 탐방활동 등 보다 넓은 세계와의 교류로 확장해나갔다.

그러면서 수업 방식자체도 굉장히 다르고, 그리고 대학을 와서 좋은 게 이런 거구나 느낀 게 너무 다양한 친구들이 와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고 이야

기를 나눠보니까 이게 또 다른 거예요. 사실 고등학교는 막 수준이 거의 비슷하다거나, 그 지역에서 오면.. 아니면 이제 한정되어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여기에 딱 오니까 지역에서부터 다 와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뭔가 팀플하려고 토론하려고 앉아보면, 애들이 너무 다르고 이러다보니까.
(김온아)

이제 학교차원에서 역량개발.. 1년 100명정도되는 학생들을 선발해서 1년동안 역량개발을 시켜준다는 취지의 프로그램인데요. (☞면담자: 우수한 학생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발하는..?) 네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인터뷰를 해서 뽑아요.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구요. 해외봉사를 보내줘요. 그래서 음.. 1년 동안 계속 교육받고 동아리 사람들이랑 계속 네트워킹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네트워킹하고 해외봉사도 갈 수 있는.. (오보람)

다양한 사람들과의 네트워킹을 기반으로 그 안에서 마주하는 다름을 통해, 공동체 안에 속해있는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며,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었다. 이러한 시간은 다각적인 시각을 갖게 해주었고, 풍부한 경험 자본을 형성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리고 대학입학 이후의 환경은 개인의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스스로 원하는 모습에 가깝게 환경을 구성해갈 수 있었다. 오보람은 교육과정에서는 다루지 않은 근현대사에 대한 학습과 문화재 분야에 대한 탐구를 동아리를 통해 배울 수 있었다. 김예별은 방송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현장에서 궁금했던 부분을 공부하고 자신의 성향과 부합하는지 가늠해볼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희망하는 분야의 현장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주체적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직접 부딪치며 경험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생각했던 부분과 부합하는지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대학 입학 이후 다채로운 경험,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 공동체 안에서 다름에서 오는 배움, 함께 걷는 길에서의 동반자들과의 만남,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는 멘토들과 조우하며 자신에 대한 정체감을 더욱 명확히 할 수 있었다. 경험을 통한 깨달음과 다각적인 관점은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의 가치를 찾아 소신과 신념을 담아낼 수 있도록 하였다. 대학 입학 이전부터 형성된 자기 주도적 면모는 대학 입학 이후 더욱 커진 자유와 책임 앞에서 보다 잘 발휘될 수

있었고, 고민을 나누고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멘토들을 삶에 둘 수 있었다.

좋은 환경에 가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기대했고 대학교에 가려고 했던 이유는 좋은 친구들 사이에 끼어서 자극을 받기 위해서 였어요. 그러면 자신의 시야가 훨씬 넓어질 수 있고, 저에게 가장 자극이 되는 사람은 멀리 있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친하게 지내면서 지켜볼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최신유)

프로티언 커리어 인재는 가치 지향적, 자기 주도적 인재로 설명할 수 있다. 대학 입학 이전의 시간이 자기주도성을 보다 키울 수 있는 환경이었다면, 대학 입학 이후에는 자기주도성을 기반으로 자신만의 색채를 찾고 추구하는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환경에 대한 적응성을 키우고 공동체 안에서 나다움을 생각하며, 자신의 정체감에 대해 보다 명확한 감각을 키우는 과정은 소신과 신념, 가치관을 확고히 정립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대학입학 이전 삶의 밑그림을 그렸던 연구참여자들은, 대학 입학 이후 많은 경험과 자극을 통해 자신의 삶의 색채를 결정하고 구체적인 방향을 정립해나갈 수 있었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일을 할 때 행복한지, 자신의 삶에서 지켜야할 가치와 추구해야할 방향은 무엇인지, 다양한 환경과 다채로운 상황에 자신을 두어 직접 체감하며 한걸음씩 배워나갈 수 있었다. 대학생활은 대학 입학 이전에 느꼈던 갈증을 해소하고 원하던 바를 마음껏 실현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3. 나만의 내러티브를 구성하며

연구참여자들은 선택과 행위에 담겨진 가치를 중요시 여기고, 저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담아 미래를 그리고 있다. 사회에서 제시하는 내러티브가 아닌 자신만의 내러티브로 변화무쌍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연구참여자들은 자유와 성장에 가치를 두고 주체적으로 삶을 나아가는 중이다. 높은 연봉, 승진과 같은 사회에서 제시하는 보편적 성공의 기준이 아닌 저마다의 가치를 담아 그리는 주관적 성공, 심리적 성공, 그리고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 이 지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연구참여자들에게 ‘진로’의 의미는 무엇이고, 어떠한 미래를 구상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다.

최신유는 여태껏 해왔던 것처럼 회사, 사람, IT의 교집합 어디서인가에서 학습하고 자신의 것을 누군가에게 나누며 살아갈 것이다. 동료들과 함께 작업하며 사회적으로 긍정적 가치를 발현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 세계를 무대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며 활동하는 것이 최신유가 그리는 삶이다. 사람들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시간이 자신에게 행복으로 다가올 것이라 확신한다. 그 배우고 성장이 이 세상에 긍정적 구실을 하는 것이 노마드워커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최신유가 앙트러프러너로 가고 있는 길이다.

첫 번째로 기회를 많이 잡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운이라고 하죠. 실패할 각오를 하고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없을 때 거기서 끝나면 실패지만, 배운 게 있다면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해보면 안 되고 다시 해보고, 게~속 반복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서 단순한 내 인생을 자꾸 마음에 평정심을 얻고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게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최신유)

김은아는 자신의 교육적 소신을 담아 입학사정관으로 역할하기 위해서는 사회 초년생인 현재를 기점으로 많은 것을 배워나가야겠다고 다짐한다. 입학사정관의 업무가 예상했던 것 보다 많은 공부와 노력이 뒤따라야한다는 것을 체감하게 되었다. 고교현장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 적합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전문적 역량을 키우고자 노력할 것이다. 또한 현재 ‘입학사정관 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더 준비된 입학사정관으로서 활약하고자 한다. 자신에게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이라는 옷이 고교생활에 대한 인정으로 더욱 값지게 느껴졌던 것처럼, 학생들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도록 역량 함양에 힘쓸 것이다.

음.. 이렇게도 학생을 뽑을 수 있다!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와서 공부를 한다는 것, 그런 거는 단순히 이런 공부가 아니라, 학생의 다방면을 보고, 역량을 보고 잠재성을 보고 뽑아야하는 게 맞다 라는.. 그런 생각.. 어떤 가능성들을 봐줘야겠다.. 라는 생각들?! 그냥 이걸 제.. 제가 이제 서류평가나 이런 것들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나는 더더욱 그런 걸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야겠다. 그런 친구들이 학교에 좀 많이 들어 와줬으면 좋겠어요. (김은아)

네 제가 원하는 분야에 서서, 인정을 받고 싶고, 인정이 아니더라도 경력을 쌓고 전문성이 있는, 그런 모습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그런 쪽으로 쌓아가지 않을까.. (김운아)

이현율은 누구보다 분주한 일 년을 보내고 있는 중이다. 새로 맡은 프로젝트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부를 하며 현장에서 실력을 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을 때 대학원 석사과정에 지원하여 계속하여 학업을 이어나갈 포부를 가지고 있다. 자신의 전공 분야, 관심분야, 그리고 직장에서의 경력 등 삶의 주제들이 가리키는 곳을 향하여 전진하며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가로서 자신을 성장시킬 계획이다.

연구직이어서 학위가 없는, 석·박사 학위가 없는 직원들은 입사 후 2년 뒤부터 신청을 하면 물론 공공기관이래서 돈은 지원이 안 되지만, 8시간 지원을 해줘서~ (중략) (☞면담자: 좀 적응을 하고나서부터.. 그럼 그때 대학원 진학을 예전에 이야기했던 지식재산 분야로 지원을 하는 거는.. 지금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아마 구체적으로 지식재산이랑 과학기술정책이랑 융합된? 같이 연관되어있는.. (☞면담자: 계속 석사, 박사과정까지 공부를 할 계획이 신거죠?) 네. (이현율)

오보람 또한 자신이 청소년시절 역사책을 읽고 역사주제로 토론하고 글을 쓰며 느꼈던 마음을, 보다 많은 오늘날의 청소년들도 알 수 있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담아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고자 목표로 하고 있다. 맡고 있는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민주주의 실현과 사회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직무를 통한 앞으로의 계획이다. 오보람은 직장에서도 다양한 업무를 통해 내공을 쌓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학업을 병행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이미 쓰고 싶은 논문주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만큼 열정을 가지고 있다. ‘근현대사 전문가’로서 역사를 바로 잡고 알리는 사람이 되어 사회적 역할을 하고자하는 바람이다.

네. 아직 현대사.. 민주화 운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30년, 40년 정도밖에 안 지난 일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아직은 정치학과 사회학의 영역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기는 한데. 저는 이 주제를 역사학으로 끌어 와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제가 그 역할을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어쨌든 현대사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민주화 운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얼마 지나지 않은 일이고, 논쟁이.. 아직도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리고 경험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역사학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고 있는 주제이긴 합니다. (오보람)

김예별은 연구 과정의 일환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는 중에 벌써 제 2의 꿈을 위한 실천을 시작하였다. 인터뷰를 하면서 머지않은 미래에 책을 쓰고자 했던 막연한 생각을 보다 구체화하고 지금 당장 글을 쓰는 행위를 시작하게 되었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현재 하고 있는 리포터 일을 할 수 있음에 더욱 감사하게 생각하는 김예별이다. 좋아하는 리포터 일을 오랫동안 지속하고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신뢰감을 주고 인정받는 리포터가 되는 것이 현재 추구하는 이상이다. 동시에 작가로서 제 2의 길을 준비하고 걸어가기 위해 가지고 있는 노트북에 파일을 만들고 글을 쓰기 시작하였다.

5인 5색의 진로를 그리고 앞으로의 여정을 준비하는 연구참여자들은 다시 살아낼 이야기를 나누어 주었다.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맡은 일을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해내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시간과 과정을 통해 스스로 성장하고 보다 나은 자신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에게 ‘진로’의 의미는 직업적 의미 이상으로 삶과 직결되는 넓은 의미로 이야기 되고 있었다.

김은아에게 진로는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한 길’이다. 공부를 하고, 새로운 경험에 도전하며, 대학에 왔던 이유는 지금보다 성숙한 자신을 만들어가고자 했기 때문이다. 직업을 선택하고 어떠한 경험을 쌓고 무언가를 배우는 것은, 실천하였을 때 보다 나은 자신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과정이 다른 사람에게든 자신 스스로에게든 떳떳하고 자랑스러울 수 있어야 한다는 신념이다. 보다 성숙한, 발전된 자신을 만들어가는 길이 김은아가 진로를 나아가는 의미이다.

내가 이걸 하면 좀 더 내가 원하는, 제가 그리는 자기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내가 그런 모습에 다가갈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들면 되게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니까 예로 저는 피아노보다 플루트를 좀 더 배우고 싶었거든요. 간단히 말해서 플루트를 배우면 제가 좀 더, 제가 원하는 제가 될 것 같은 거예요. 플루트를 불고 있는 내가~ 좀~ (중략) 그런 걸 추구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걸 하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는 더 팬찮은 사람이 될 것 같아~ (김은아)

음.. 아까.. 계속 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더 나은 제가 되기 위한 길’인 것 같아요... 일하는 내 모습이 더 나은 것 같고, 또 그 일을 하는 게 본인이 좋아하고 본인의 전공을 살려서 하는 일을 하는 내 모습이 더 나은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 이런 직업을 하기 위해서 찾아가면서 커리어를 쌓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남한테 보이든,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하든, 멋있하고 좀.. 내가 어디 가서도 좀, 제 자신을 좀 좋아하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되어가는 길이 ‘진로’ 같아요. 그걸 찾아가는 게. (김은아)

김예별에게 진로란 ‘삶의 나침판’과 같았다.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흔들릴 때, 때로는 중심을 잡지 못하고 다른 길에서 헤맬 때, 자신을 잃지 않고, 길을 찾아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나침판’과도 같았다. 꿈이 확고했던 김예별은 전과와 이직을 했던 일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자신의 생각과 다른 상황에서 빠른 판단과 실천을 해왔었다. 삶에 힘든 시간이 찾아오고 흔들리는 마음들이 들 때, 자신에게 꿈이 있고 지나온 경험의 시간들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 있었기에, 김예별은 오랜 시간 방황하기보다는 새로이 방향을 설정하고 나아갈 수 있었다. 그러한 김예별의 행보와 선택이 있었기에 김예별에게 진로는 삶의 나침판과도 같다.

삶의.. 나침판 같아요. (중략) 진로가 확실히 정해져있으면, 조금 돌더라도 나침판에 따라서, 진로에 따라서 돌아오고, 그 길을 향하기 때문에 **저에게 진로는 삶의 큰.. 나침판인 것 같다~** (김예별)

오보람은 진로를 ‘나아가는 길의 단계들’이라고 표현한다. 이상적으로 그리는 모습, 되고자 하는 모습에 가까이 가기 위해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이라 생각한다.

지적 나태를 가장 경계한다는 오보람의 진로는 항상 현재진행형인 과정이고, 학습이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시간이다. 스스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는 과정의 단계들이 모여 자신만의 길을 연결한다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 활동, 깨달음이 그 길의 단계들이었고, 지금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이다.

진로가... 음... **제가 나아가고자 하는 길의 스텝들이 아닐까, 단계들이 아닐까..** (☞면담자: 으음.. 나아가고자 하는 길의 단계들..?) 네. 제가 나아가고자 하는, **제가 되고자 하는 모습이 되기 위한 단계들?!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야하는~** (오보람)

이현울은 진로란 곧 ‘삶’이라 이야기한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 좋아하는 것을 잘 파악하고 자신의 소신과 가치를 투영하여 살아가는 과정, 그 자체가 삶이고 진로 그 자체라 생각한다. 이현울 역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구체화할 수 있었고, 경험과 생각이 쌓이면서 진로가 보다 구체화되고 자연스럽게 방향이 정해졌었다. 자기 자신에게 귀 기울이고 들여다보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관심이 샘솟는 곳에서 하고자 하는 것을 하나, 둘 하다보면 경험과 시간이 누적되며 가리키는 방향이 있을 것이라 이현울은 말한다.

(웃음) 특히 의미라기보다는 **어차피 살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니까..** 그리고.. 진짜,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거니까. 제가 뭐.. 외부에서의 관심 없이.. **‘제가 살아가는 그런 과정’** 인 것 같습니다. (이현울)

최신유 또한 이현울과 마찬가지로 진로를 삶으로 이해하고 있기에 보다 주체적으로 꾸려나가야하는 것이라 이야기한다. 자신의 삶은 그 누구도 아닌 자신에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기에 게으름과 나태가 아닌 적극적인 자세로 진로를 구성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자신 또한 그러한 자세와 태도를 형성하여 삶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진로는 알아서 하는 거다. 알아서, 스스로~(☞면담자: 알아서? 혼자 스스로 하는 거다?) 예. 진로뿐만 아니라 **인생은..** (최신유)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진로 여정에서 추구하고, 보다 ‘나 다운’ 자신만의 색채로 내러티브를 구성하고 있는 연구참여자들이다. 사회초년생이 된 초기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들이 프로티언 커리어 인재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생애주제를 통한 자기 인식과 계획된 우연 속의 주체적 성장의 시간이 존재하였기에 가능하였다. 명확한 정체감과 높은 환경적응성을 함양할 수 있었던 시간을 지나오며 이 시대의 개성 있는 프로티언 커리어 인재로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

Ⅵ. 결론

A. 연구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진로구성주의 관점에서 사회초년생이 된 초기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의 진로발달과정을 탐구하여 교육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에 청소년기 자기 주도적 진로 탐색활동을 인정받고, 그 자격으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던 초기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여 그들의 생애 맥락에서 진로발달과정을 분석하였다. 연구참여자 선정은 현재에도 여전히 주체적 진로 여정을 구성해나가며 프로티언 커리어 태도가 함양된 이들로 목적 표집 하였고, 사회에서 제공하는 내러티브가 아닌 자신만의 내러티브를 만들어가고 있는 이들의 삶의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그동안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의 진로에 대한 연구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마저 취업률이나 정규직 여부, 연봉 등에 대한 정량적 연구에서 그쳤다. 본 연구에서는 초기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의 삶의 맥락에서 진로경험을 탐구하고, 어떠한 경험이나 선택이 분절된 하나의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만큼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의 연속성 상에서 어떻게 연결되어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총체적 삶의 맥락에서 사회초년생이 된 초기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의 진로발달과정을 조망하고,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가치 지향적, 자기 주도적 태도에 주목하였다.

삶의 맥락에서 개인의 경험을 이해하는 연구이기에 Clandinin과 Connelly의 내러티브 탐구를 통해 본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와의 협력적, 관계적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진로 경험을 이야기하고, 다시 이야기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 두 가지 연구문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사회초년생이 된 초기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의 삶의 맥락에서 진로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둘째, 사회초년생이 된 초기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의 진로발달과정의 의미는 무엇인가? 첫 번째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진로 구성주의 관점에서 주체인 개인이 환경과 어떻게 호흡하며 진로를 전개하고 있는지, 연구참여자의 유년시절, 청소년시절, 대학시절에 해당하는 과거 이야기와, 사회인으로서 역할하고 있는 현재, 그리는 미래

이야기로 5인 5색의 연구참여자별 생애이야기를 구성하였다. 사회초년생이 된 초기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의 삶의 경험이 진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시간성, 관계성, 상황의 내러티브 탐구의 3차원적 탐구 공간 안에서 이야기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변화무쌍한 환경을 기회로 여기는 최신유의 이야기는 ‘힘들었던 유년시절의 현실도피적 몰입’, ‘트러블메이커에서 주체적 리더로’로 유년시절의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청소년 시절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선택한다는 것’으로 주어진 환경 안에서 고군분투하는 최신유의 이야기를 담았고, ‘보다 넓은 환경에서 창조적 몰입의 연속’, ‘지나온 나를 돌아보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로 대학입학 이후 현재까지 누구보다 주체적인 태도로 진로를 나아가고 있는 최신유의 진로여정을 이야기하였다. 끝으로 ‘노마드워커에서 앙트러프러너로 가는 길’을 통해 현재 노마트워커로 살아가고 있는 최신유의 이상, 가치, 미래 이야기를 구성하였다.

희망하는 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결단하고 실천하는 김예별의 유년시절은 ‘감성적이고 자유분방한 가정환경’, ‘설렘, 꿈의 여정 시작’으로 꿈을 품게 되었던 어린 시절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계기에 대한 이야기를 구성하였다. 꿈을 직업으로 연결시키고 현실적인 고민을 시작했던 청소년 시절은 ‘못 말리는 방송쟁이의 고군분투’로, 역경을 뚫고 어렵게 입학하여 감사함이 더욱 컸던 대학시절은 ‘얼마나 오고 싶었던 대학이었는지’, ‘직접 경험하고, 성찰하고, 의미부여하기’로 삶의 이야기를 구성하였다. 지금까지 꿈과 함께했던 시간을 돌이켜보며 새로운 미래를 그리고 있는 김예별의 이야기를 ‘행복하기 때문에 걸어온 길’로 담아내었다.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진로를 전개해 나간 오보람의 유년시절은 ‘자연스럽게 형성된 역사에 대한 관심’으로 어린 시절의 환경과 진로 여정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청소년 시절은 ‘탐구하고 도전하는 고교생활’, ‘역사학도의 학습법’으로 활동적이고 탐구적이었던 오보람의 이야기를 전개하였다. ‘다양한 경험을 통한 역량 개발’, ‘너무나 어려웠던 취업’으로 예상치 못했던 사건들을 맞닥뜨리며 진로 여정을 나아갔던 오보람의, 대학시절에서 사회인으로 나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구성하였다. 이어 ‘오늘도 계속 걸어간다’로 현 직장에서

의 오보람의 모습과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하였다.

현재에 충실한 노력이 원하는 미래를 만든다고 생각하는 이현율의 유년시절은 ‘자유할 수 있는 시간의 의미’로, 유년시절의 배경과 연결될 수 있었던 청소년 시절의 이야기는 ‘우연을 인연으로’로 구성하였다. 진로 방향을 수정했어야 했던 대학시절은 ‘역경을 또 다른 기회로’, ‘경계 없는 다채로운 대학생활’로 이야기하였고, 대학생에서 사회인으로 나아가는 과정과 이현율이 그리는 미래는 ‘이유 있는 진로선택의 연결고리’, ‘학습하며 지식재산권 전문가로 가는 길’로 나타내었다.

교육에 대한 생각과 소신을 바탕으로 경험의 의미와 가치를 찾는 김온아의 유년시절은 ‘정서적 금수저’로, 청소년 시절은 ‘내가 생각하는 즐거운 학창시절’, ‘학교생활은 교육에 대한 고민과 탐구의 장’으로 이야기를 구성하였다. 진로에 대해 다시 고민하고 구체적인 모습을 그려나갈 수 있었던 대학시절은 ‘대학이란 올만한 가치가 있는 곳’, ‘멘티와 멘토를 오가며 진로를 찾아가다’로 구성하였고, 끝으로 현 진로에 대한 고민과 사회초년생에서 전문가로서 성장하고자 하는 김온아의 이야기를 ‘입학사정관전형 출신 입학사정관’으로 담아내었다.

두 번째 연구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초기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의 생애 이야기를 바탕으로 주체적으로 진로 탐색을 할 수 있었던 배경, 진로발달과정의 양상, 진로관 형성에 초점을 맞추어 진로발달과정의 의미를 탐색하였다. 초기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의 가치 지향적, 자기 주도적 진로 특성에 주목하여 프로티언 커리어 태도 형성과정을 분석하였다. 초기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의 진로발달과정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첫째, ‘생애주제를 통한 자기 인식 과정’이다. 초기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은 저마다의 가정환경과 상황적 이유로 ‘온전한 나의 시간’을 삶의 일부분으로 둘 수 있었다. 수능 중심의 고교문화에서 활발한 진로 탐색 활동을 주체적으로 이어나갔던 시간은 이들에게 ‘나를 이야기해야했던 순간들’의 연속이었다. 대학 입학 전형으로 선택한 입학사정관전형의 준비와 입시 과정조차도 자신의 이야기를 돌아보고, 작성하고, 다시 이야기하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대학 입학 이후 다양한 대외활동과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 또한 스스로를 표현해야했던 시간으로 계속되

어지고 있었다.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 스스로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시간은 ‘성찰과 의미부여를 통해 나를 세우기’의 과정이었다. 생애 초반 자기 자신에게 주목하여 찬찬히 자신을 들여다보고 이야기했던 시간은, 곧 삶을 성찰하고 지난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며 스스로를 정리해나갈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에 생애주제를 발견하며 명확한 자기 인식이 가능할 수 있었다.

둘째, ‘계획된 우연 속의 주체적 성장’이다. 계획대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예기치 못한 변화가 무수히 존재하는 환경 속에서 초기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은 삶에 존재하는 우연을 받아들이고 ‘긍정적 우연으로’, 기회로, 만들어나갔다. 위험감수와 긍정적 태도로 다채로운 경험을 추구하며 새로운 경험에 도전하였고, 경험은 또 다른 기회로, 확장된 경험으로 연결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 자본 형성’이 가능하였고,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환경을 수용하고 대비하며 ‘자신에 대한 신뢰와 용기를 발판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셋째, ‘개성 있는 프로티언 커리어 인재로 나아가는 길’이다. 초기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은 ‘지속적인 배움이 있는 삶’을 추구하며, 각자의 색채를 담아 주관적, 심리적 성공을 지향하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 이들이 ‘자기 주도적 인재에서 프로티언 커리어 인재로’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대학 입학 이전의 자기 주도적 경험과 자세가 대학생에서도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자유와 기회가 가득한 대학에서의 시간은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경험에 도전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다채로운 경험을 통하여 자신에 대해 명확한 정체감을 보다 확고히 할 수 있었고, 변화무쌍한 환경에 대한 적응성을 키울 수 있었다. 사회초년생이 된 초기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들에게 진로는 현재진행형으로 지속되어야 할 배움이며, 보다 나은 모습으로 성장하는 삶의 과정이다. 가치 지향적, 자기 주도적으로 ‘나만의 내러티브를 구성하며’ 진로를 나아가고 있는 개성 있는 프로티언 커리어 인재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초년생이 된 초기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의 진로발달과정이 제시하는 교육적 의미는 무엇이고, 현 교육 현장에 어떠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는 지 모색하고자 한다.

B. 결론 및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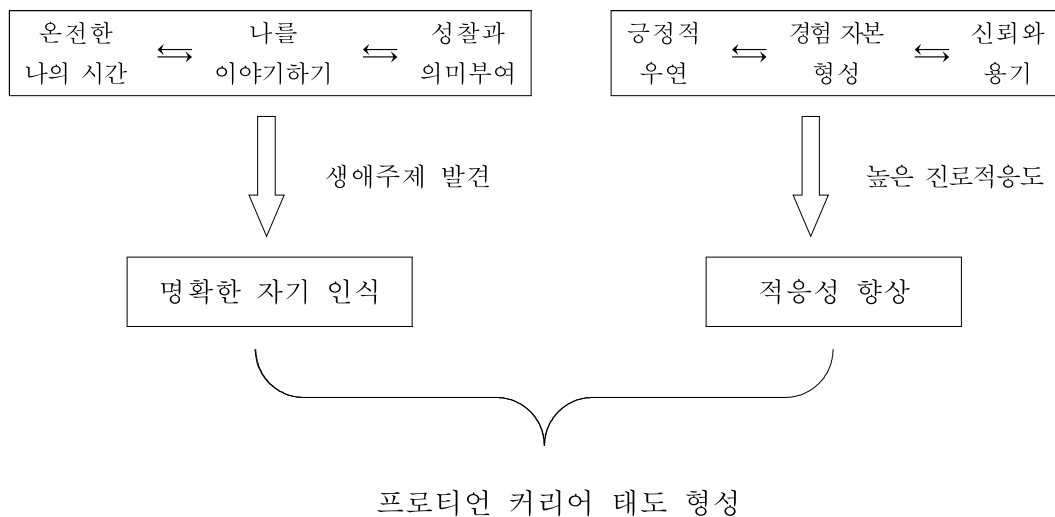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자신을 이야기하며 생애주제를 찾고, 풍부한 경험 자본을 바탕으로 환경에 대한 유연성을 고양시킬 수 있었던 경험이, 곧 프로티언 커리어 태도 함양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밝혀낼 수 있었다. Hall(1996; 2002)이 프로티언 커리어에서 메타역량으로 제시하는 ‘자기 인식’, ‘적응성’은 Savickas(2012)가 진로구성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생애주제’, ‘진로적응도’와 연결되고 있음을 사회초년생이 된 초기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의 진로발달과정을 통해 유추해볼 수 있었다.

사회초년생이 된 초기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들은 현재에도 지속적인 배움과 성장을 추구하며 진로 선택을 하고, 사회에서 주어지는 내러티브에 순응하고 따르기 보다는 자신만의 내러티브를 구성하며 진로를 나아가고 있다. 이들이 자기 주도적, 가치 지향적으로 미래를 그리며 개성 있는 프로티언 커리어 인재로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명확한 자기 인식과 환경에 대한 적응성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명확한 정체감 형성은 진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개인의 가치를 반영한 선택을 이끌며 앞으로의 진로방향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준다. 많은 변화가 발생하는 환경에서 스스로 자신의 경력을 개발하는 데에는 ‘강력한 내적 나침판’(Hall, 1996)이 필요한데, 진로 여정에서 명확한 자기 인식은 이러한 강력한 내적 나침판 역할을 해준다. 자신에 대한 명확한 정체감은 진로 여정에서 추구해야할 가치를 정립하고 자신만의 심리적, 주관적 성공을 구상할 수 있도록 돕는다. 환경의 변화에 따른 진로적응은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데 필요한 개인의 대비와 심리적 부분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진로장벽과 같은 제약적 상황에서 빠른 판단과 행동의 변화를 실천하게 한다. 자기 주도적으로 경력을 관리하고 변화에 따른 새로움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배움과 성장을 추구하게 한다.

초기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들이 프로티언 커리어 인재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생애주제를 통한 자기 인식이 가능하였고, 다양한 경험과 환경에 대한 유연성을 길러 높은 진로적응도를 지닐 수 있었기 때문이다. 명확한 자기 인식과 환경에 대한 적응성 향상으로 프로티언 커리어 태도를 형성할 수 있었다. 진로여정에서

다양한 경험과 학습, 성찰과 도전의 역사를 가지게 된 연구참여자들은 걸어온 길이 가리키는 가치를 추구하며, 자기 주도적으로 끊임없이 학습하고 경력을 개발하고 있다. 초기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의 프로티언 커리어 태도 형성 과정은 다음 [그림 VI-1]과 같다.



[그림 VI-1] 초기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의 프로티언 커리어 태도 형성 과정

연구참여자들은 부모님과과의 관계를 비롯한 가정환경의 영향으로 온전한 자신만의 자유 시간이 있는 유년기를 보낼 수 있었다. 그리고 청소년기 수능 중심의 고교문화에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 선생님, 주변 친구들에게 끊임없이 자신을 이야기하고 표현해야만 했던 시간을 보냈다. 대학입학 방법으로 선택한 입학사정관전형 과정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지난 경험과 그리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야했던 시간이었다. 자신의 내러티브를 통해 지난 시간에 대한 성찰과 의미부여를 할 수 있었고, 이러한 과정은 삶의 주제를 찾고 자신에 대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개인이 자신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해 스스로를 지각하고 반영하는 과정에는 언어의 사용이 필요하다(Savickas, 2011).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에 대한 탐색과 실천을 거듭하며 자신의 내러티브를 만들어갈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생애주제를 발견할 수 있었다. 지난 경험을 통해

무엇을 경험하고 배웠는지,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각할 수 있었다. 과거 시간에 대한 탐색과 성찰, 의미부여는 앞으로의 시간과 연결되어 자기 자신을 구성토록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진로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예측하기 힘든 운, 우연의 영향력을 수용하고, 자신의 진로여정에서 보다 긍정적인 기회로 자리할 수 있게 하였다. 새로운 기회를 긍정적으로 보고 용기 내어 실천하는 태도는 진로여정에서 계획된 우연을 만날 수 있도록 하였고, 다양한 경험의 장으로 이끌었다. 활동을 통해 많은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함께 다채로운 경험을 하며, 공동체 안에서 상호교류를 통한 배움과 성찰이 일어났다. 이러한 시간은 예상치 못한 변화 상황에서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해주었고 역경의 순간 경험 자본으로 역할할 수 있게 하였다. 초기 경험의 성취와 성찰은 스스로에 대한 신뢰와 용기를 가질 수 있게 하였고, 지난 경험에서 학습된 태도, 습관, 정서 등은 새로운 경험과 과제를 수행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일련의 과정은 새로운 경험에 대한 낙관적 태도와 도전으로 선순환 되며, 이를 통해 환경에 대한 진로적응도가 높게 형성될 수 있었다.

프로티언 커리어의 핵심개념인 명확한 자기 인식과 환경에 대한 적응성은 진로구성주의의 생애주제 발견과 높은 진로적응도에서 비롯될 수 있었다. 주체적인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한 진로발달과정은 자신의 내러티브를 바탕으로 생애주제를 찾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진로적응도를 기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사회초년생이 된 초기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의 진로발달과정을 통해 진로 선택은 삶의 어느 한 순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닌, 지난 삶의 경험들이 점철되어 미래의 방향을 가리키게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지난 경험에서 형성된 습관과 태도가 이후의 행보와 선택에도 영향을 미침을 볼 수 있었다. 이에 생애 맥락에서 진로교육 및 상담이 이루어지고, 교육과 학습 역시 삶과 연계하여 논의 될 필요성이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교육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생애주제를 탐색하는 진로교육 및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표현하는 경험의 축적이 가치 지향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프로티언 커리어 태도를 이끌었던 것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긴 진로여정에서 전공과 직업의

변환은 여러 가지 상황과 경험의 확장에 따라 자연스럽게 수반되는 것이기에, 청소년기의 진로교육은 자신을 이야기하고 삶의 주제들을 파악해나가는 방향으로 보다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전공을 선택하고 직업을 찾는 것에 급급하기보다는 자신 스스로에 대해 알아가고 생애주제를 인식하는 시간이 전제되어야 한다. 과거 경험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촉진하는 기회를 많이 부여하고 개인의 생애이야기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 및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생애주제를 탐색할 수 있는 진로 교육은 제도 교육 이후에 무수히 맞닥뜨릴 진로 선택과 결정의 순간, 보다 ‘나’다운 결정을 하고 개성 있는 자신만의 내러티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줄 것이다.

둘째, 평생학습의 맥락에서 가정교육 및 부모 역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져야 한다. 초기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들의 자기주도성 발현의 시작이 가정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진로구성주의 관점에서 개인은 자신의 진로와 환경을 구성해나가는 주체이지만, 유년기의 개인은 성인기의 개인보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물리적인 환경에 크게 영향 받을 수밖에 없다. 연구참여자들이 자기 주도적 인재로, 프로티언 커리어 인재로 성장할 수 있었던 가정환경의 특징은 ‘자유와 책임’, 그리고 ‘정서적 유대감’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다양한 이유로 통제와 간섭보다는 자유와 책임이 허락된 가정환경이었고, 허락된 자유와 여유를 자신에 대한 탐색과 긍정적 실천으로 만들어갈 수 있었던 데에는 부모, 교사, 멘토인 누군가와 심리적 유대감이 존재했었기 때문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생학습의 맥락에서 가정의 역할은 개인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는데 중요한 시작점이다. 연구참여자들의 자기 주도성과 자발성은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지역에서, 공동체 안에서 영향 받고 발달될 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바람직한 가정교육과 부모와의 건강한 관계는 무엇인지, 가정에서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지역에서 사회에서는 어떻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지, 논할 수 있는 자리가 사회 곳곳에서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길 바란다.

셋째, 자기 주도적 성취 기회가 제도교육 안에서 다양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학습자가 스스로 기획하고 주도하여 성취할 수 있는 경험의 기회가 제도교육 안에서 충분히 마련될 필요가 있겠다. 연구참여자들의 진로발달과정을 통해 주체적으로 이루어낸 초기 경험의 성취가 이후 삶에서의 도전과 용기로 이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도 자유학기제와 입학사정관제 시행 등 다채로운 경험을 통한 학습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여전히 경험의 결과에 치중하는 측면이 강하다. 다양한 경험처를 확보하는 것 이상으로 학생이 주체가 되어 경험을 선택하고, 활동의 과정에서 직접 체감하며, 학습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과정까지가 온전한 경험으로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경험의 과정은 학습 그 자체로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다른 경험과 기회로 이어지는데 풍부한 경험 자본으로 작용함을 연구참여자들의 진로발달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학습자의 성취는 경험의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실현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험의 시작과 과정 또한 소외되지 않는 교육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넷째,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 위험감수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계획된 우연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위험감수는 Krumboltz가 제시하는 다섯 가지 역량 중 하나이다(Mitchell, Levin, & Krumboltz, 1999). 그러나 현 교육이 과연 위험감수 역량을 기를 수 있는 환경인가 생각해보면, 경쟁적인 우리 사회와 입시 환경에서 위험감수의 측면은 찾아보기 힘든 여건이다. 이는 실수와 방향의 시간 이후에 다시 돌아오기 힘든, 사회적 체제와 교육 여건 개선에 대한 필요를 이야기한다. 새로운 도전과 기회 창출이 가능하기 보다는 틀에 박히고 정형화된 체제 안에서, 여유와 다양한 시도는 실패와 도태를 야기시킨다. 화석화된 세상에서 ‘위험감수’의 ‘위험’의 크기는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막대하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실패를 통해 오히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음에, 그리하여 도전하고 용기 내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의 방향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실패를 너그럽게 용인하는 교육 문화를 조성하고, 과정에 큰 가치를 두는 교육 문화를 이룩하는 것은 학교의 노력만으로,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구조적인 면에서 기회가 많이 주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도 필요하고, 사람들의 인식 또한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많은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지만 학교 교육 안에서만은 새로운 경험에 주저 없이 도전하는 문화가 자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연구참여자들의 진로발달과정을 통해 앞에 놓인 실패가 결코 실패가 아니었음을, 긴 진로여정에서 지난 경험의 좌절은 경험 자본으로써 활용되고, 현재의 자신을 만드는 데 자양분이 되어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당장 눈앞의 결과보다는 생애맥락에

서 교육과 학습이 구성되어 바람직한 교육 문화가 조성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현 입시제도의 근본적인 점검을 통한 재정비가 수행되어야 한다. 평가 체제는 교육 현장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입학사정관제는 도입시기부터 많은 염려와 이슈를 양산하고 있다. 제도 운영에 대한 우려와 불신은 시간이 흐르면서 안정화되고 정착되기보다는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하며 더욱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 대학입시에서의 수시비중과 정시비중에 대한 갑론을박이 제시되고 있는 현재, 전체 대학입시전형 안에서의 비중도 물론 중요하지만 줄다리기와 같은 주장을 계속하여 전개하기보다는 현 제도에 대한 점검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제도를 도입했던 취지를 상기하며 현 제도의 모습이 다양한 인재를 선발하는데 적합한지,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인재를 선발하고 어떤 역량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하는지, 이에 입시전형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져야하는지, 현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할 필요성이 크게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다양한 인재 선발을 위한 각기 다른 형태의 입학사정관전형 운영 방법과 각종 제출서류는 정보파악의 복잡성과 서류에 대한 신뢰도 문제로 이어졌다. 개개인에 대한 충분한 평가 시간과 질적 평가 방법은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 규모의 확대와 수험생의 부담감 증대로 이어졌다. 이렇게 입학사정관제는 현실적 문제의 상황에 부딪히며 지금의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변화해왔다. ‘대입전형 간소화 정책’이 오히려 대학 입학생의 다양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수 있기에(임진택 외, 2015), 또 하나의 획일화되고 정형화된 입시전형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주시해야한다. 개인의 다양한 역량과 개성이 존중될 수 있는 대입전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금의 현 상황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진로 여정에서 생애주제를 찾고 정체감을 확고히 하여 진로를 발달시킬 수 있었다. 이처럼 우리의 현 입시제도 또한 지켜야할 가치와 담아야할 철학이 무엇인지 확고히 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근시안적인 관점에서 탈피하여 교육백년대계를 준비해야할 것이다.

내러티브 탐구를 통해 사회초년생이 된 초기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의 진로발달과정을 이야기하는 과정은 진로여정에서의 그들의 선택, 역경, 도전, 성취, 시련, 우연, 기회 등 많은 상황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들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환경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마주하면서도 명확한 정체감을 형성하고 주

체적으로 자신만의 영역을 구성하고 있다. 이에 연구참여자들을 통해, 개성 있는 프로티언 커리어 인재이자 평생학습자로서의 자세와 역량을 길러내 줄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할 수 있었다. 또한 성장과 배움에 의미를 두고 자기 주도적, 가치 지향적으로 진로를 나아가갈 수 있도록 우리 교육은 어떠해야하는지 생각해볼 수 있었다. 사회 곳곳에서 프로티언 커리어 인재로 성장하고 역할 할 수 있는 것은 개개인의 행복의 문제뿐만 아니라, 더욱 다채롭고 풍요로운 사회를 이룩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정-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사회로 이어지는 삶의 맥락에서 교육이 논의되고 교육의 본질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교육의 밑동을 견고하게 다지는 일일 것이다.

C. 제언

본 연구는 초기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의 현 주소와 진로를 어느 한 지점이 아니라 총체적 삶의 맥락에서 탐구했다는 면에서 의의를 가진다. 청소년기나 청년기로 국한하여 진로를 탐구한 것이 아니라, 유년시절부터 대학 졸업 이후 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지, 어떠한 생각으로 미래를 그리고 있는 지, 시간의 연속성 상에서, 개인과 사회의 관계적 측면에서, 상황적 맥락 안에서 진로발달 과정의 의미를 탐구하였음에 의의를 가진다. 입학사정관전형 출신 졸업생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들의 현 주소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은 점, 자기 주도적 인재로 선발한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임에도 정작 주체성에 주목한 연구가 미진하다는 부분에서 본 연구는 긍정적 의미를 내포한다.

또한 대학입학 과정에 대한 많은 이슈와 관심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직접 경험했던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의 목소리가 담긴 연구는 현저히 부족한 상황에서 (박소영, 김지연, 2016),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었음에 의의를 가진다.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생애진로 측면에서 입학사정관전형을 준비했던 경험을 다시 이야기하고, 이후 대학생활과 사회생활로 어떻게 이어질 수 있었는지 삶의 맥락에서 경험의 의미를 탐색해볼 수 있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적극적, 주체적으로 진로를 나아갔고, 현재에도 나아가고

있는 연구참여자들을 목적 표집 하여 이들의 자기 주도적, 가치 지향적 태도에 주목하여 탐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티언 커리어 태도가 함양된 이들의 이야기에 보다 초점을 맞추었기에, 그 이면에 존재하는 다양한 군의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들의 이야기도 분명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그리고 본 연구 한 편만으로 입시제도 개선에 대한 답을 내릴 수는 물론 없겠지만, 앞으로 ‘입학사정관제’와 ‘진로’의 영역에서 다채롭게 연구가 수행되고 모이게 되면, 최소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가리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에 초기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과 현 학생부종합전형 입학생의 비교 연구 등, 변화하는 입시 전형의 따라 선발된 입학생들의 역량, 경험, 진로 등이 지속적으로 추적되고 탐색되길 제안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현 입시제도를 점검하고 바로 세우는데 기능하길 바란다.

또한 이미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우리 사회에 프로티언 커리어 태도에 대한 연구가 다각적 접근을 통해 풍부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 특정 직업군이나 진로 전환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프로티언 커리어 태도와 관련하여, 또는 프로티언 커리어 태도 형성 과정에 대한 질적 접근을 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나아가 자율성은 어떻게 발현되며, 교육에서 자율성을 어떻게 촉진시켜줄 것인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현 교육현장에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끝으로 생애 맥락에서 교육과 학습이 재구성되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은 오래 전부터 언급되어왔지만, 구체적 실현 방안에 대한 논의는 많지 않다. 평생학습이 표방하는 철학과 가치를 제도교육 안에 어떤 모습으로 구현할 수 있을지,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보다 구체적으로 가시화하는 연구가 다채롭게 수행되길 제안한다. 이러한 연구들이 우리 교육을 바로 세우는 데에 튼튼한 토대가 되어줄 것이다.

D. 연구를 마치며

연구참여자들을 만나고 이들의 삶과 마주한지도 어느덧 꽤 시간이 흘렀다. 사계절이 바뀌는 동안 연구를 진행하면서 나에게도 좋은 일과 힘든 일이 삶에 존재하

였다. 2018년에서 2019년으로 삶의 터널을 지나오며 나의 일상의 상당시간은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와 만나는 시간이었다. 나와 그들의 내러티브 속에서 현재를 살아가며 삶의 경험을 함께 이야기하는 작업은 흥미롭고 설레는 시간이면서도 조심스럽고 고민스러운 시간이기도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삶을 잘 담아내고 해석하고 다시 이야기하며 의미를 찾는 과정에서 나는 스스로 연구자로서의 역량을 되묻기도 하였고, 낙담과 희망과 용기의 시간을 반복하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나는 입학사정관으로서 입시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많은 생각과 고민을 했었다. 대학 입시에 선발된 학생들, 노력을 했지만 선발되지 못한 학생들, 대학입학 이후에도 방황의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 저마다의 고민을 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을 만나는 환경에서 청소년의 삶과 대학 입시, 교육과 기회, 학교와 사회, 진로와 삶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무언가를 하기 위해 기본 자격을 갖추는 데에 들이는 많은 노력, 치열한 입시 경쟁에서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지 못하였을 때 느끼는 학생들의 절망감의 크기, 즐겁고 행복한 삶을 이끌고 나눌 줄 아는 태도와 습관에 대하여 생각하였다. 평생학습 사회에서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교육과 진로는 어떠해야하는지, 교육의 방향과 지향점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되었다. 나의 이러한 고민과 현장 일선에서 직면하게 된 딜레마는 교육학을 공부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평생교육을 공부하면서 그 답을 찾고자 하였는지 모르겠다. 그러한 생각과 고민들이 점철되어 이렇게 생애진로의 맥락에서 학위논문을 작성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의 진로 이야기는 곧 삶의 이야기였고,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현재진행형의 이야기였다. 연구를 마친 이 시점에도 연구참여자들의 생각과 행보는 끊임없이 변화하며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진로는 나에게도 항상 고민되는 숙제이기도 하다.

연구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변화된 모습을 찾을 수 있었다. 인터뷰 진행 중 새로운 직장을 갖게 된 이현율, 잊었던 기억을 떠올리며 작가라는 새로운 꿈을 향해 글을 쓰기 시작한 김예별, 업무 속에서 바쁘게 지내오다 인터뷰를 통해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었던 김온아, 지나온 삶의 궤적을 돌아보며 앞으로의 시간을 구성해나가는 오보람, 지금도 다양한 시도와 도전을 실천하는 최신유, 5인의

연구참여자들은 연구과정 또한 소중한 삶의 경험으로 생각하였고, 그 시간에 자신만의 의미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나 또한 연구참여자와 함께 한 내러티브 탐구를 통해 앞으로 나아갈 길에 용기와 도전의 에너지를 듬뿍 받을 수 있었다. 무언가를 시작할 때 무수한 고민이 앞서는 나에게, 너무 많은 고민으로 주저하기보다 행동하고 실천하게 하였다. 때로는 실천을 행하였을 때 더 큰 배움과 만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들의 삶을 통해 상기할 수 있었다.

개인의 삶의 의미는 그 누구도 아닌 자신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내러티브 탐구는 나를 들여다보고 나를 만나는 작업이었고, 이러한 시간이 삶에 존재할 때 우리는 보다 주체적이고 가치 지향적인 개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나와 연구참여자들이 함께 한 시간이 담겨져 있는 이 연구가 누군가에게는, 어디에선가는 도움이 되길, 그리고 우리들과의 만남이 계획된 우연으로 삶에 자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 강기수 (2012). 입학사정관전형 신입생의 대학적응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연구. **교육사상연구**, 26(1), 1-35.
- 곽삼근 (2005). **한국 평생교육의 사회철학적 과제**. 파주: 집문당.
- _____ (2012). 한국평생교육 연구와 실천에 대한 비판적 성찰: 성기성물(成己成物) 가치관점에서. **평생교육학연구**, 18(2), 81-101.
- 국립특수교육원 (2009). **특수교육학용어사전**. 서울: 하우.
- 권승아, 성태제 (2009). 입학사정관제도 운영실태와 입학사정관의 인식. **교육학연구**, 47(1), 95-118.
- 김경범 (2009). 미국과 일본 대학의 입학사정관제 운영사례와 시사점. **비교교육연구**, 19(3), 79-106.
- 김경옥 (2018). **이혼한 여성한부모의 삶의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달효 (2013). 입학사정관제의 실효성에 관한 고등학교 교사의 인식 분석. **사회과학연구**, 26(1), 215-237.
- 김명신 (2009). 2004 고교등제와 2009 입학사정제, 그 사이. **교육비평**, 26, 166-177.
- 김병진, 김시라 (2013). 입학사정관 전형 신입생과 타 전형 신입생의 특성 비교 연구: 입학사정관 전형 종합평가의 타당성 분석. **한국교육**, 49(2), 57-78.
- 김봉환 외 (2013). **진로상담**. 서울: 학지사.
- 김선자, 최성우(2015). 초등 교사의 평생학습 참여 경험, 프로티언 경력 태도 및 주관적 경력 성공 간의 관계. **평생교육·HRD연구**, 11(1), 71-94.
- 김승태 (2009). 대학 입학사정관제도의 운영성과 평가: 시범실시대학을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23(4), 169-196.
- 김신일, 박부권 (2005). **학습사회의 교육학**. 서울: 학지사.
- 김영민 (2016). **자율성 지지와 유능감, 성취목표 및 자기주도학습의 구조 관계 분석**.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영천 (2013). **질적연구방법론 II: Methods (제2판)**.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 김영천 (2016). **질적연구방법론 I: Bricoleur (제3판)**.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 김용기 (2008). 입학사정관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및 발전방안. **한국교육논단**, 7(2), 127-147.
- 김이준, 김봉환(2017). 프로티언 커리어에 관한 국내 연구의 동향. **인문사회** 21, 8(6), 143-158.
- 김이준, 김봉환 (2018). 프로티언 커리어와 구성주의 진로상담의 관련성 탐구. **인문사회** 21, 9(3). 185-199.
- 김이준 (2018). **프로티언 커리어 태도를 지닌 1인 기업가의 일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재웅, 박상완, 이예경 (2018). 입학사정관제도 연구의 경향성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36(1), 1-23.
- 김준엽, 박소영, 신혜숙, 민병철 (2013). 대학에서의 학습 및 활동을 중심으로 본 입학사정관제 성과. **아시아교육연구**, 14(10), 29-50.
- 김진숙 외 (2017). **4차 산업혁명시대의 미래교육 준비하기(중등)**. 한국교육학술정보원, 978-89-5984-705-1 (94370), (전2권. 교육자료 TM 2017-56-2).
- 김현주, 김경미 (2017). 입학사정관제 전형 입학생의 대학적응과 진로에 관한 고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4), 169-178.
- 김현아, 양경숙 (2011).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입학사정관전형 지원자들의 생각과 경험. **현상해석학적 교육연구**. 8(1), 57-83.
- 김현철, 유재봉, 양정호 (2006). **입학사정관제 도입 및 지원방안 연구**.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노경란, 윤수정 (2012). 입학사정관제 전형 입학생의 대학 적응 특성에 대한 이해: 4년제 여자대학교의 입학생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연구논총**, 33(1). 91-118.
- 류영철 (2013). 입학사정관제 입학생의 FGI를 통한 질적 연구. **입학전형연구**, 2, 135-164.
- 박민정 (2006). 내러티브란 무엇인가?: 이야기 만들기, 의미구성, 커뮤니케이션의 해석학적 순환. **아시아교육연구**, 7(4), 27-47.
- 박선형, 박남기 (2008). 일본의 대학입시와 입학사정관제도. **비교교육연구**, 18(3), 207-230.

- 박성욱 (2016). **커리어 정체성에 대한 자기성찰체험이 프로티언 커리어 지향성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소영, 김지연 (2016). 대입 전형 간소화 정책 이후 한국 고등학생의 대학입학 준비 과정에 관한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34(5), 69-95.
- 박승민, 김광수, 방기연, 오영희, 임은미 (2012). **근거이론 접근을 활용한 상담연구 과정**. 서울: 학지사.
- 박윤희, 정홍전, 오미래 (2018). 프로티언 경력에 관한 통합적 문헌 고찰: 국내·외 양적연구를 중심으로. **HRD연구**, 20(3), 1-35.
- 박진영 (2002). **실업자의 자기주도학습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지원모형 개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혜림 (2009). 학입학사정제도의 현황과 발전 방안. **교육방법연구**, 21(1), 21-46.
- 배영주 (2003). **성인의 자기주도학습 과정에 대한 사례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배을규, 이민영, 김대영(2014).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의 프로티언 경력 태도가 경력 만족에 미치는 영향: 자기주도학습 능력의 조절 효과. **한국성인교육학회**, 17(1), 91-113.
- 서경혜 (2017). 정의로운 교육을 위한 어느 교사의 분투: 내러티브 탐구. **교육과정연구**, 35(3), 119-156.
- 손승남, 이수진, 임배 (2018).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진로선택: Career design in the age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서울: 박영스토리.
- 손은령 (2017). **우연과 계획의 조우: 진로상담의 새로운 담론**. 서울: 학지사.
- 손희권, 주희정 (2009). 신문이 제시한 대학입학사정관제 개선방안의 비판적 고찰. **교육문제연구**, 34, 1-24.
- 송윤희 (2011). 대학 학습동아리 활동에서 자기주도학습능력, 집단효능감, 지식공유 및 만족도와 의 관계. **교육과학연구**, 42(3), 179-209.
- 안선희, 정일환, 주동범 (2009). 입학사정관제의 합리적 정착을 위한 사교육비 경감 방안 연구. **교육정치학연구**, 16(2), 7-33.
- 양성관, 정일환 (2007). 미국 대학입학제도의 전형자료, 입학사정관제도 및 기여입학제도 분석: 개별적 검토를 중심으로. **비교교육연구**, 17(3), 167-190.

- 양성관 (2009). 대학입학사정관제의 특징 및 개선방안 분석: Cooper 등의 4차원 정책분석모형을 사용하여. **교육정치학연구**, 16(3), 125-148.
- 엄지숙 (2003). 교육연구에서 내러티브 탐구의 개념, 절차, 그리고 딜레마. **교육인류학연구**, 6(1), 119-140.
- 오성배 (2015). 대학입학전형별 입학생의 학교생활 추이 분석. **한국교육문제연구**, 33(1), 1-18.
- 우정민, 정다운 (2012). 입학 전형요소와 학업성취도 관계 분석을 통한 대학입학사정관제도 실효성 고찰. **입학전형연구**, 1, 153-179.
- 유일, 김재전, 노희옥 (2008). 집단효능감이 지식경영시스템 사용자의 전유과정과 만족에 미치는 영향. **지식경영연구**, 19(3), 141-158.
- 윤성이, 민희, 김은혜, 김명옥 (2013). 입학사정관 전형 입학생 성과연구. **입학전형연구**, 2, 165-191.
- 이광현, 권용재 (2014). 입학사정관제 전형 입학생들과 일반전형 학생들의 대학생활 비교 분석. **교육문제연구**, 27(2), 23-47.
- 이봉선, 김경영, 박계영(2017). 외식업 종사원의 프로티언 경력태도가 학습조직문화와 경력성공에 미치는 영향, **한국관광연구학회**, 31(6), 195-206.
- 이영민 (2010). 대학입학사정관 전형의 타당성 제고를 위한 대학 전공계열별 핵심역량 분석. **교육종합연구**, 8(3), 1-18.
- 이장익 (2012). 대학입학 전형제도 유형과 대학생 핵심역량에 대한 연구. **농업교육과 인적자원 개발**, 44(2), 73-96.
- 이진화, 김진모 (2006). 기업체 근로자의 자기주도학습 준비도와 조직 특성의 관계.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8(3), 279-304.
- 이호섭, 김정희 (2011). 자기주도학습을 평가요소로 반영한 입학사정관 전형 사례 분석. **교육정치학연구**, 18(2), 163-181.
- 이호주, 장원섭(2014). 대졸 초기경력자의 프로티언 경력지향성이 개발지원 관계망 특성을 매개로 개발지원 기능에 미치는 영향. **역량개발학습연구**, 9(3), 73-95.
- 임종현, 유경훈, 김병찬 (2017). 4차 산업혁명사회에서 교육의 방향과 교원의 역할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교육** 44(2), 5-32.

- 임진택, 조민경, 김효희 (2015). 대학입학전형에서 입학생의 다양성 연구. **입학전형 연구**, 4, 23-56.
- 장미옥 (2007). 우리나라 성인들의 자기주도 학습 활성화를 위한 과제: 미국의 연구동향과 실천사례를 바탕으로. **교육사상연구**, 21(1), 181-200.
- 장주희, 한상근, 이지연, 서용석(2013). 2013년 8월: 시나리오 기법을 이용한 미래의 직업생활 분석: 직업교육 관점을 중심으로, **직업교육연구**, 32(4), 41-58.
- 전경애 (2012). 입학사정관전형 신입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6), 508-517.
- 전미애 (2013). 이공계 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준비도와 학습유형관계. **대한공업교육학회**, 38(2), 240-266.
- 전현욱 (2012). ‘자기주도학습’의 의미에 관한 한 해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2(1), 373-392.
- 정일환, 김병주 (2008). 미국대학 입학사정관제도의 운영사례와 시사점. **비교교육연구**, 18(4), 113-139.
- 정지은 (2013). **대학생의 진로적응성과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및 자기주도학습의 인과적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진곤 (2005). 미국대학의 학생선발방법과 한국입시제도에의 시사점. **교육평가연구**, 18(2), 149-171.
- 정환규 (2009). **입학사정관제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한 제언: 미국입학사정관제의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Vol. 44.
- 조대연 (2005). 학습의 자기주도성과 팀내 대인관계 기술의 관계. **교육문제연구**, 23, 223-242.
- 조동현, 김혜원, 박삼철 (2012). 입학사정관전형 준비 여부에 따른 고등학생의 진로 자아인식과 진로성숙도 및 진로진학결정에 관한 연구. **직업교육연구**, 31(4), 1-23.
- 조상식, 김기수 (2016). **미래 한국교육의 교육철학적 기초-진단, 과제 그리고 방향**. 경기도교육연구원 개원3주년 기념 심포지엄. 30-52.
- 조원기, 이수정 (2016). 대학입학전형과 대학생의 대학 생활 및 대학·전공 만족

- 도,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7), 673-700.
- 조범진 (2013). **입학사정관전형의 특성 분석**. 경북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조형래, 최승규 (2017). 대학생의 프로티언 경력태도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긍정심리자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경영컨설팅연구**, 17(4), 139-154.
- 주영효, 전하람 (2017). 입학사정관 전형 입학생의 대학생활 및 취업 효과 분석. **한국교육학연구**, 23(4), 135-159.
- 최성애, 조벽 (2018). **정서적 흡수제와 정서적 금수제**. 해냄.
- 최승현, 곽영순, 노은희 (2011). **학습자의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교수학습 및 교과 교육 방안연구: 중학교 국어, 수학, 과학교과를 중심으로**. (연구보고 RRI 2011-1),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최유선, 손은령 (2017). 자기주도학습의 의미 이해를 통한 실천적 방향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23), 355-374.
- 한국교육개발원 (2012).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국제미래학회 (2017).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 미래교육 보고서**. 경기: 광문각.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2). **입학사정관제 5년 성과 및 발전과제**. 서울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한희진, 양정호 (2018). 입학사정관제 입학생의 대학생활 및 취업성과 분석. **교육문화연구**, 24(5), 309-327.
- 허은영 (2009). 방과후 학교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자기조절학습전략,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중등교육연구**, 57(2), 209-234.
- 홍아정, 이경미, 문은진 (2014). 입학사정관제 입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교육학연구**, 52(3), 289-323.
- 홍후조, 백혜조, 고영희 (2013). 학교교육에서 강조하는 자기주도학습과 인성교육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교육문제연구**, 26(1), 181-200.
- Baruch, Y. (2014).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measure for protean career orientation.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25(19), 2702-2723.

- Bolles, R. N. (1978). *The Three Boxes of Life and How to Get Out of Them*. CA: Ten Speed Press.
- Briscoe, J. P., & Hall, D. T. (2006). The interplay of boundaryless and protean careers: Combinations and implication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9, 4-18.
- Bruner, J. (1986). *Actual minds, possible world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arr, D. (1986). *Time, Narrative, and history*, Bloomington, IN: Indiana University Press.
- Catherine K. R. (1993). *내러티브 분석[Narrative Analysis]*. 대한질적연구간호학회: 김원옥 외 역 (2005). 군자출판사.
- Clandinin, D. J., & Connelly, F. M. (2000). *Narrative inquiry: Experience and story in qualitative research*. San Francisco, CA : Jossey-Bass.
- _____ (2000). *내러티브 탐구: 교육에서의 질적 연구의 경험과 사례[Narrative inquiry: Experience and story in qualitative research]*. 소경희 외 역 (2007). 서울: 교육과학사.
- Dave, R. H. (1973). *Lifelong education and school curriculum*. Paris: UNESCO Institute for Education, 13-27.
- Dewey, J. (1938). *Experience and education*. New York: Collier Books.
- Ginzberg, E., Ginsburg, S. W., Axelrad, S., & Herma, J. (1951). *Occupational choice: An approach to a general theory*. New York,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 Grow, G.O. (1991). Teaching learners to be self-directed: A stage approach. *Adult Education Quarterly*, 41, 125-149.
- Gubler, M., Arnold, J. & Coombs, C. (2014). Reassessing the protean career concept: Empirical findings, conceptual components, and measure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5, 23-40.
- Hall, D. T. (1976). *Career in organizations*. Santa Monica, CA: Good Year Publishing Co.

- _____ (1996). Protean careers of the 21st century. *Academy of Management Executive*, 10(4), 8-16.
- _____ (2002). *Careers in and out of organizations*. Thousand Oaks, CA: Sage.
- _____ (2004). The protean career: A quarter-century journe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5(1), 1-13.
- Hall, D. T., & Mirvis, P. H. (1995). The new career contract: Developing the whole person at mid-life and beyond.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7 (3), 269-289.
- Hall, D. T., & Chandler, D. E. (2005). Psychological success: When the career is a calling.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6(2), 155-176.
- Hall, D. T., Yip, J., & Doiron, K. (2018). Protean career at work: self-direction and values orientation in psychological success, *The annual reviews of organizational psychology and organizational behavior*, 5, 129-156.
- Hartung, P. J. (2010). Practice and research in career counseling and development-2009,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9, 98-142.
- Seidman, I. (2007). *질적연구방법으로서의 면담[Interviewing As Qualitative Research]*. 박혜준, 이승연 역(2009). 서울: 학지사.
- Lythcott-Haims, J. (2016). *How To Raise An Adult: Break free of the overparenting trap and prepare your kid for success*. St Martins Pr.
- Kahn, W. A. (2001). Holding environments at work. *The Journal of Applied Behavioral Science*, 37, 260-279.
- Knowles, M. S. (1975). *Self-directed learning: A guide for learners and teachers*. Chicago: Association Press.
- _____ (1980). *The modern practice of adult education: From pedagogy to andragogy*. Englewood Cliffs, NJ: Cambridge Adult Education.
- Krumboltz, J. D. (2009). The happenstance learning theory. *Journal of Career Assess*, 17(2), 135-154.
- Lengrand, P. (1970). *An Introduction to Lifelong Education*. Paris: UNESCO.
- McAdams, D. P. (2001). The psychology of life stories. *Review of General*

- Psychology*, 52), 100-122.
- Merriam, S. B., & Caffarella, R. S. (1999). *Learning in adulthood: A comprehensive guide (2nd ed.)*. San Francisco: Jossey-Bass.
- Michel Serres (2012). *엄지세대 두 개의 뇌로 만들 미래: 프랑스 현대철학의 거장 미셸 세르의 신인류 예찬[petite poucette]*, 양영란 역(2014). 서울: 갈라파고스.
- Mitchell, L. K., & Krumboltz, J. D. (1984a). Social learning approach to career decision making: Krumboltz's theory. In D. Brown, & L. Brooks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Applying contemporary theories to practice* (235-280). San Francisco: Jossey-Bass.
-
- _____ (1990). Social learning approach to career decision making: Krumboltz's theory. In D. Brown, L. Brooks, & Associates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Applying contemporary theories to practice* (2nd ed., 145-196) San Francisco: Jossey-Bass.
-
- _____ (1996). Krumboltz's learning theory of career choice and counseling. In D. Brown, L. Brooks, & Associates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3rd ed., 233-280). San Francisco: Jossey-Bass.
- Mitchell, K. E., Levin, A. S., & Krumboltz, J. D. (1999). Planned happenstance: Construction unexpected career opportunitie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7, 115-124.
- Neuman, Y., & Nave, O. (2009). Why the brain needs language in order to be self-conscious. *New Ideas in Psychology*, 28(1), 37-48.
- Norman, R. (1983). *윤리학 강의: 위대한 도덕철학자들의 사상[The Moral Philosophers]*. 안상현 역(1994). 서울: 문원.
- Park, J. H., & Kwon, D. B. (2004). Employees perceived work environment and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in Korean companies.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ternational*, 7, 333-350.
- Parsons, F. (1909). *Choosing a vocation*. Boston: Houghton Mifflin.

- Pryor, R. G. L., & Bright, J. E. (2003). Order and chaos: A twenty-first century formulation of careers. *Australian Journal of Psychology*, 55(2), 121-128.
- Rosenwald, G. C., & Ochberg, R. L. (1992b). Introduction: Life stories, cultural politics, and self-understanding. In G. C. Rosenwald & R. L. Ochberg (Eds.), *Storied lives: The cultural politics of self-understanding* (1-18).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Sarbin, T. R. (1986). *Narrative psychology: The storied nature of Human Conduct*. New York: Praeger.
- Savickas, M. L. (2005). The theory and practice of career construction. In S. D. Brown & R. W. Lent (Eds.),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Putting theory and research to work* (42-70). Hoboken, NJ: Wiley & Sons.
- _____ (2009). Pioneers of the vocational guidance movement: A centennial celebration.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7(3), 195-198.
- _____ (2011). *커리어카운슬링[Career Counseling]*, 김봉환, 김소연, 정희숙 역(2016), 서울: 박영스토리.
- _____ (2012). Life Design: A Paradigm for Career Intervention in the 21st Century,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90(1), 13-19.
- Schwab, K. (2016). 클라우드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송경진 역(2016). 서울: 새로운 현재.
- Sharf, R. S. (2013). *Applying career development theory to counseling* (6th ed.), Belmont. CA: Brooks/Cole.
- _____ (2013). *진로상담: 아동기부터 성인기까지 진로발달 이론의 적용* [Applying career development theory to counseling (6th ed.)]. 김진숙, 김정미, 서영숙 역(2016). 서울: 박학사.
- Super, D. E. (1957). *The psychology of careers: An introduction to vocational development*. New York: Harper & Row.
- _____ (1980).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6, 282-298.

- _____ (1990).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In D. Brown, L. Brooks, & Associates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Applying contemporary theories to practice* (2nd ed., pp. 197-261). San Francisco: Jossey-Bass.
- Super, D. E., & Knasel, E. G. (1981). Career development in adulthood: Some theoretical problems and a possible solution. *British Journal of Guidance and Counseling*, 9, 195-201.
- Tams, S., & Arthur, M. B. (2010). New directions for boundaryless careers: Agency and interdependence in a changing world.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31(5), 629-646.
- Tough, A. M. (1971). *The adults' learning projects: A fresh approach to theory and practice in adult learning*. Toronto: Ontario Institute for Studies in Education.
- Vondracek, F. W., & Porfeli, E. (2002). Integrating person-and function-centered approaches in career development theory and researc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1, 386-397.
- Woods, P. (1993b) Critical Events in education,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14, 355-371.
- World Economic Forum. (2016). *The Future of Jobs: Employment, Skills and Workforce Strategy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olony/Geneva: World Economic Forum.

경인일보, 2016.11.16.일자, [조희연 “최순실·정유라 전대미문 교육농단... 졸업 취소 검토]

경향신문, 2009.03.12.일자, [입학사정관제, 서두른다고 될 일 아니다]

경향신문, 2010.10.14. 일자, [74%는 기존 수시 그대로... ‘무늬만 사정관제’]

경향신문, 2018.12.21.일자, [숙명여고,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 유출’한 전 교무부장 파면]

동아일보, 2013.03.02.일자, [대입전형 단순화로 진로지도 혼선 막아야]
서울신문, 2012.09.19.일자, [성대 ‘성폭력 봉사활동’ 입학취소]
한겨레, 2003.11.12.일자, [PISA가 주는 교훈]
한국경제, 2011.01.11.일자, [‘로봇영재’ 공고출신 카이스트생 자살]

EBS 교육대토론, [대입개편안, 방향과 대안은?] 2018.06.01.일자 방영.
SBS 스페셜, 466회 [대2병, 학교를 묻다] 2017.04.02.일자 방영.

교육부, 2008~2019학년도 대입전형 시행 계획 발표 보도자료. <https://www.moe.go.kr>
국립국어원 <https://stdict.korean.go.kr>
네이버 어학사전 <https://dict.naver.com>
두산백과사전, <http://www.doopedia.co.kr>
시사상식사전, <http://www.pmg.co.kr>
이화여대 연구윤리센터(IRB) <http://my.ewha.ac.kr/ethics>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7~2018년 입학사정관제 지원 사업 보도자료. <http://www.kcue.or.kr>

<부록 1> 연구참여동의서

연구 참여 동의서

안녕하십니까.

귀한 시간을 내어 연구에 참여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연구는 연구자의 박사과정 학위논문으로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의 진로탐색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에 청소년기부터 현재의 진로를 결정하기까지 연구 참여자께서 경험하신 진로탐색과정을 공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연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연구 참여자께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꼼꼼히 확인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1. 본 연구는 2018년 5월부터 12월까지 이루어질 예정이며 자료 수집은 기간 중 3~4회의 면담을 통해 진행됩니다. 1회 면담 시 1~2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이고 면담은 녹음될 것입니다. 녹음 내용은 오직 이 연구를 위하여만 사용되도록 엄격히 관리할 것입니다. 이 때 수집된 연구 참여자의 이름은 익명으로 처리하여 비밀을 보장할 것이며 모든 자료는 학문적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2. 본 연구와 관련된 위험요인이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으며 본 연구의 참여와 관련하여 귀하에게 기대되는 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참여로 인해 해당 연구영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며, 본 연구와 관련된 분야의 연구자, 현장 전문가들과 연구결과를 나눔으로써 해당 분야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본 연구의 참여와 참여 철회 결정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연구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자는 연구가 종료된 후 연구 결과를 귀하와 기꺼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에 대하여 완전히 이해하고 동의하셨다면 아래 서명 부탁드립니다.

동의서의 사본은 귀하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 참여자: _____(서명)

날 짜: _____년 _____월 _____일

연구자: 권희원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

연락처: 000-0000-0000

지도교수: 박삼근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부록 2> 면담 질문지

인터뷰 질문 목록

<사전 모임>

1. 연구목적 및 연구주제에 대한 소개
2. 연구기간 및 진행 과정에 대한 안내
3. 연구동의 구하기(연구참여동의서 세부 안내)
4. 인터뷰 진행 일정 조율하기
5. 연구참여자의 진로, 현 상황, 관심사, 등 자유롭게 대화

<1차 인터뷰>

1. 현재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주세요.
(현재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2. 현재의 진로를 결정하기까지 어떤 경험과 계기들이 있었나요.
3. 현재의 진로를 결정하기까지 큰 영향을 미친 경험과 계기는 어떠한가요.
4. 과거 경험은 지금의 진로와 어떠한 연결고리가 있습니까.
5.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6. 그러한 경험들은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요.
7. 그러한 경험들을 하기 까지 어떠한 영향 요인들이 있었는지요.
8. 그렇다면 향후 미래에는 어떠한 진로 계획을 생각하고 있으십니까(가까운 미래라도).
9. 그러한 진로 계획을 가진 이유는 어디서 기인하니까.
10. 연구참여자가 생각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요.
11.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2. 직업을 선택하는 여러 가치 중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13. 왜 그러한 진로관을 정립하게 되었을까요.
14. 그러한 진로관을 가지게 되기까지 어떠한 영향요인들이 있었을까요.

<2차 인터뷰>

1. 입학사정관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하였다는 것은 진로탐색활동을 성실히 하였다는 것을 인정받고 그 자격으로 대학에 입학한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 (청소년시기)자신이 학우들보다 보다 나은 진로활동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입니까.
3. 그러한 배경은 어디서 기인한다고 생각하니까.
4. 입학사정관제는 언제 알게 되었습니까.
5. 입학사정관제는 어떻게 준비하게 되었습니까.
6. 입학사정관전형을 준비하면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7. (입학사정관제 인식이 고교현장에 없었던 상황) 스스로 준비하는 데 있어서 불안하거나 학우들과는 다른 행보를 가는 거에 대해서 흔들린 적은 없었는지요.
8. 청소년기를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기억, 애피소드, 경험이 있다면 이야기해주세요(더 어릴 적도 괜찮습니다).
9. 그 당시 친구들은 연구참여자를 어떠한 친구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10. 그 당시 선생님은 연구참여자를 어떠한 학생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11. 그 당시 부모님은 연구참여자를 어떠한 자녀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12. 부모님은 어떤 교육관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13. 연구참여자가 부모가 된다면 (부모님이 하셨던 것처럼) 교육할 것인지요.
14. 그러한 진로, 꿈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15. 청소년기 어떠한 활동들을 하였는지 이야기해주세요(생활기록부 등의 자료 활용).

<3차 인터뷰>

1. 대학생 시기를 떠올렸을 때 떠오르는 기억, 에피소드, 경험이 있다면 이야기해주세요.
 2. 대학생 때 연구참여자의 활동 중 가장 의미 있는 것 하나를 이야기 하자면 무엇인가요.
 3. 대학생 시기의 연구참여자는 어떠한 학생이었습니까.
 4. 대학에 들어와서 가장 어려웠던 점, 힘들었던 점은 무엇입니까.
 5. 대학에 들어와서 가장 좋았던 점은 무엇입니까.
 6. 고등학교 때 활발히 했던 진로 활동을 대학교에 와서도 잘 할 수 있었나요.
 7. 대학 입학 이후 진로탐색과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였는가요.
 8. 청소년기의 진로탐색과정이 대학생이 되어서도 잘 연결될 수 있었는가요.
 9. (대학 입학 전, 후) 진로가 변화하였다면 그 이유와 계기는 무엇인가요.
 10. 대학(전공교수, 취업지원센터 등의 부서, 학습 도움 등의 차원)에서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가요.
 11. 연구참여자가 느끼는 '취업난'은 어떠하였는지요(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12. 연구참여자는 어떻게 '취업난'에 대비하였는가요.
 13. 어떻게 진로활동을 계속 이어나갔나요.
 14. (진로 탐색 활동)고등학교 때와 다른 점은 무엇이었나요.
- + 이력서에 기재된 대학 기간 중 활동에 대한 추가 질문 진행.

<4차 인터뷰>

- + 1-3차시 인터뷰 초기 분석 후, 보완 및 확인 질문 먼저 진행.
1. 청소년기부터, 대학생 시기, 현재 사회활동을 하기 까지 자신의 진로 활동이 잘 연결되어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요.
 2. 연구참여자의 진로관, 직업관은 어떠한가요(재확인).
 3. 앞으로의 진로 계획은 어떠한가요(궁극적인 장기계획/단기계획).
 4.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5. 내 삶에서 이러한 '진로'는 어떤 의미인가요.
 6. 우리나라 교육, 입시, 등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요.
 7. 지금까지 진행된 이야기 중 못 나눈 이야기나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지요.

<Re-Interview> 연구텍스트 검토 및 피드백 면담

1. 연구참여자별 '생애 이야기' 연구텍스트 공유
2. 연구참여자의 삶의 이야기가 잘 구성되었는지요.
3. 자신의 특성이 잘 나타나고 있는지요.
4. 연구자가 잘못 해석하거나 왜곡되어 기재된 부분은 없는지요.
5. 가명, 회사명, 활동명 등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더 고려되어야할 부분은 없는지요.
6. 좀 더 보완되어야할 내용이나, 삭제하고 싶은 부분은 없는지요.
7. 작성된 연구텍스트를 읽고 난 후 어떤 느낌인가요.
8. 연구참여자의 삶의 경험을 바라보는 연구자의 관점과 해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ABSTRACT

A Narrative Inquiry on the Career Development Process of the Protean Career People : Centered on Social Beginners through Early Admission Officer System

Kwon, Hee-won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Ewha Womans University

With the dawn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modern society is predicted to experience social and economic changes centered on the development of advanced technology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that the era of lifelong learning is becoming a reality with the increased life expectancy following the development of medicine. More change than ever before is expected, and in some areas, the process of change is a part of our lives. The area of education and career is of an importance in such change, for they are the crucial factors that are not only directly related to the quality of life and happiness at the individual level, but also to the foundation of prosperous future of the society.

To adequately adapt to the evolving modern society, changes in education system are taking in the Republic of Korea. In particular, in contrast to the conventional quantitative evaluation-based SAT system, a groundbreaking qualitative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system, called the Admission Officer System, was introduced. The Admission Officer System focuses 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in the selection process, such as the major suitability, growth potential, and aptitude. It has been 13 years since the enforcement of the system that caused greatest repercussions in the history of education in Korea, but it is still under great controversy. The lack of follow-up studies on the current state and the career path of those who were selected as self-directed is also amplifying the dispute.

In this study, observations on the current state and the process of career development of the recently-graduated students from college (the social beginners) who were selected by Admission Officer System are perform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areer development process of social beginners selected by the Admission Officer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career constituent. It is expected that presenting the career story in the overall context of life with the voices of those who have recently passed the aforementioned college entrance system will provide implications to consider to the current education system.

The research ques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how is the career development composed in the context of the students' life, who were selected in the early years of the Admission Officer System, when they became social beginners? Second, what are the implications derivable from those students' career developments? In detail, examinations and analysis are performed on how a subjective individual interacts with the environment and construct their career paths, and what their career development processes imply in the light of their current career paths.

This research use Clandinin and Connelly's narrative inquiry method to describe the career experience of the students from early years of Admission Officer System. Five research participants were selected from "A" University that operated the admissions system in accordance Admission Officer System. From May 2018 to May 2019, field texts were composed and research texts were written from interviewing research participants. The participants had made active

efforts in career searching in the midst of the conventional SAT system, who were then recognized as having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that they were admitted to the university through the Admission Officer System. They were also found to have developed their career aggressively even after entering the university, and are currently playing a role in society with the attitude of a Protean Career talented.

From the study, it was found that the research participants took an active attitude toward their career choice and career experience as an independent individual. The five participants interacted with their surrounding environment, and either were stimulated by or actively reshaped the environment and created their own career path with their own colors. Such career development process'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process of identity awareness through their life' s theme was performed. They were able to concentrate on themselves and have had time to explore. Doing a subjective career search in the conventional SAT-centered high school culture meant that they had to express themselves repeatedly over the time. Through the moments of life which the participants had to express themselves granted a chance for them to form a clear identity by allowing construction of their own narratives through reflection and search for life' s meaning. Second, participants had grown up subjectively in planned coincidences. They continued to learn from various experiences by taking coincidences that had a great impact on their lives as positive opportunities. The reflections and accomplishments from the early experiences led to courage of stepping toward new challenges. This also allowed them to go through more positive opportunities encountered in their lives. Third, this is a path to become a unique Protean Career talented. Those who pursue continuous learning and growth, and draw subjective, psychological success with their own values progress their career paths with their own narratives rather than with the narratives provided by the society. Their attitudes toward self-directed learning were able to further extend to clear awareness of their identity and the

adaptability to the environment through various experiences after entering the university.

Based on the results of the research, the experiences of talking about themselves and finding life themes were found to enhance their environmental flexibility based on the capital of rich experience. These experiences lead to the cultivation of the Protean Career attitude. Through observation of the career development process of the recent social beginner students selected by the Admission Officer System, the ‘Identity awareness’ and ‘Adaptability’ presented in the meta-competence of the protean career are understood to be linked to the ‘life theme’ and ‘career adaptability’ discussed in career constructivism.

Therefore, we can understand the necessity of education and career to be discussed from the perspective of life design and suggest the following educational implications: First, career education and counseling should be conducted to explore the theme of student’s life. Second, discussions on home education and parental role should be active in the context of lifelong learning. Third, education on self-directed career management should be done in institutional level. Fourth, the education culture should become that tolerates failure, and can raise the risk-taking capacity of the students. Fifth, the reorganization of current education system should be performed through the fundamental inspection of the current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students’ current position and their career course, who were admitted to a university during the early stage of the Admissions Officer System, in the context of their overall life rather than at one point.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o follow up on such students who now became a social beginners and focus on their Protean Career attitude in the absence of previous research on self-directed career management or career-related. It is hoped that this approach can aid in investigating and re-establishing the current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system of Korea, with future researches on the field of Admission Officer System and the students’

career paths. Also, further abundant discussions and various studies on Protean Career attitude and corresponding required education capacity for the upcoming future are anticipated.

Key words : Protean career, Admission Officer System, Career experience, Career development, Career constructivism, Narrative inquiry, Self-directed career management, Lifelong learning, Lifelong perspective